

아름다운

1988 제 2 호



공구본부



서울종합운동장 상공을 초계비행하는 F-16전대

서울올림픽 개요



제24회 서울올림픽경기대회는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 동안 서울 및 4개 지방도시에 걸쳐 열린다.

참가국은 161개국이며 참가선수수는 8,982명으로 예상되고 경기종목은 양궁, 육상,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 5종,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배구, 역도, 레슬링, 요트의 23

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태권도, 야구 그리고 전시종목으로 배드민턴과 볼링이 있고 시범경기로서 여자자유도, 전시경기로 장애인 휠체어경기가 펼쳐진다.

경기시설은 10만명 수용의 주경기장을 비롯 모두 34개 경기장과 72개 연습장이 갖추어져 있다. 서울올림픽은 경기종목수나 참가국 및 참가선수 및 경기시설 등 역대올림픽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된다.

서울올림픽 성공 다짐

공군올림픽 지원단

■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 보장을 위한 공군올림픽 지원단 발대식 행사가 서동열 참모총장을 비롯한 김옥진 서울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 그리고 많은 군내외 인사와 전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672부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AIR FORCE QUARTERLY

영국



1988년 2 호 (통권 205, 206 호)

권 두 언 / 정훈감

기획 특집 I : 장년공군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한국전쟁 동안의 공군작전과 한국공군의 성장과 회고 / 장지량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역할 / 정재명

항공무기체계의 발전방향 / 박점조

특	별	바람직한 인생의 길 / 박종호
기	고	중공! 그 신비의 베일속을 가다 / 심철호

논 단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파키스탄의 안정 / 박종권

통일을 위한 민족적 과제 / 서성철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 이춘근

한국 외교의 변천과정 / 윤동현

교 양 상 식

프랑스 문학의 산책 / 윤학노

수필문학이란 무엇인가 / 전호명

흡연과 건강의 삼각함수 / 이홍수



특집 II : 창공구락부를 찾아서

147

창공구락부 시절 / 전숙희

개와 펜의 우정 / 방기환

사지식

164

르바초프 전략과 핵군비통제 / 홍종만

술순항미사일의 유용성 / 김용이

련의 국방체제와 군사전략 진단 / 이선호

교육

194

고테라피와 군정신교육 / 김해창

선 노동당의 실체 / 이명영

체사상과 실용주의 / 김진섭

언 : 전역소감 / 류동훈

214

창작

219

공소설 아버지의 무덤 / 윤창용

후 감 삶의 비극성과 불패정신 / 장인기

시 올림픽 개최의 영광을 노래한 시 / 임관영



■ 연합사참모장(Maj Gen Richard E Carr, Chief of Staff ROK U.S. CFC)을 접견하는 서동열 참모총장.



■ 서동열 참모총장은 미해군성 부차관보(Mr. Richard B. Levin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the Navy)를 접견.



■ 파키스탄 공군참모총장(Air Marshal Hakimullah Chief of the Air Staff Pakistan Air Force)이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의장행사를 가졌다.

■ 역대 공군 참모총장
(김정열, 김창규, 김
신, 장성환, 박원석,
장지량, 김성룡, 김두
만, 옥만호, 주영복,
윤자중, 이희근, 김인
기)이 공군본부를 방문



■ 사열을 받는 김정열
초대참모총장



■ 국회 국방위원장을
접견하는 서동열 참모
총장





■ 3252부대에서는 88-1차 고등비행 수료식에서 교육을 마친 전투조종사들을 격려하는 서동열 참모총장



■ 3758부대에서는 3만시간 무사고 비행 안전 시상식이 있었다.



■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구자경 회장을 비롯한 금호의 박성용 회장, 대한항공의 조종건 사장 등 임원 17명이 제2695부대를 방문하였다.

■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은 2583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하였다.



■ 3591부대에서는 장지량, 장성태, 김두만, 임상섭, 전 장군을 부대로 초대하여 "6.25 전쟁의 참상과 실전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선·후배조종사들의 간담회를 가졌다.



■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수들은 3591부대를 방문하여 부대 현황을 듣고 항공기 무장전시장 및 비상대기실 등을 견학하였다.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2호 (통권 205, 206호)



參謀總長統率方針
必勝의精兵強軍되자
最上의 即應態勢 確立
科學的 指揮管理 提高
巨視的 空軍文化 暢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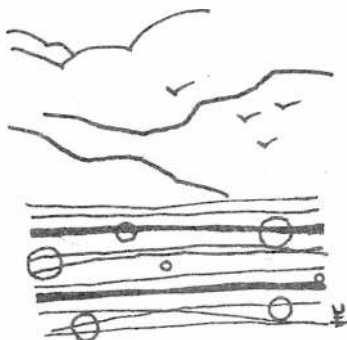
공 군 본 부



정훈감 대령 강국희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세계사의 명운은 동에서 서로 그리고 다시 서에서 동으로 변전하고 있다. 지중해를 제패한 로마제국이 몰락하고 대서양시대가 열리더니,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도 무색하게 태평양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사의 전환기에 온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88서울올림픽을 우리가 개최하게 된 것이 매우 상서롭게 여겨지고, 해방이후 두 동강난 분단국가로서 술한 정치적 불안과 낙후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온 우리로서는 현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바탕 위에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이 기적에 가까와 보이기
까지 한다.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결과 새시대에
맞는 입법부를 구성하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사법부를 새로 구축하여 민주복
지국가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통일조국의
기반을 구축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의 제반정책
결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
등이 심화되었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임금인상 직제개편 주장 등의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분출 속에 일부 급진좌경세
력은 북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민족해방
론적 공산주의사상도 서슴치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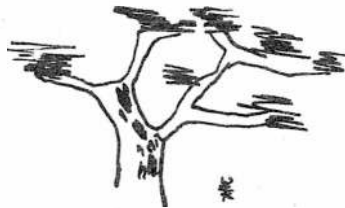
세계는 변하고 있다. 소련을 위시한 공
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고,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북방정책추진 대북
한 문호개방의 전향적 자세를 표방한 바
있고, 남북학생교류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제 서울올림픽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공산집단 등의 각종 방해
책동으로부터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당면한 최
대과제가 아닐 수 없다. 공군력의 최후
보루로서의 우리군은 완벽한 안보대비태
세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뿐이다.

기획특집 I

장년 공군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 한국공군의 성장과 회고 / 장지량
- 현대전에서의 공군력의 역할 / 정재명
- 항공무기체계의 발전과정 / 박점조

韓國戰爭동안의 空軍作戰과 韓國空軍의 成長과 回顧

“Daedalian Meeting”
USAF,
烏山空軍基地, 演說原稿
1984年 1月, 張志良



장 지 량

目 次

1. 人事序頭
2. 1950年 6月 25日 以前
3. 動亂 第1週(6. 25 ~7. 4)
4. 10台的 F-51D와 美6146空軍
基地大隊
5. 戰爭中の 美本土 教育
6. 第10戰鬥飛行戰隊長(K-18)(F-51)
7. 第10戰鬥飛行團의 完全編成(1953.3.6)
8. 休戰 當日
9. 제트空軍으로 轉換(F-86F)
10. F-5
11. F-4D, E(Phantom)
12. 基地의 整備

1. 人事序頭

오늘 本人은 戰鬥操縱士들만의 晚餐모임
인 디데일리언 미팅에 招待된 것과, 더욱기
招請演士로 參席하게 된 것을 나의 生涯에
있어서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韓半島는 現世紀에서 自由世界와
共產世界의 가장 熾烈한 對峙를 하고 있는
곳이며, 또 歷史上 가장 긴 休戰을 지켜 온
곳입니다. 同時에 美空軍의 最新銳機들이配
置된 곳이며, 貴官들은 美空軍의 가장 精銳
訓練된 戰鬥操縱士들입니다. 要件대 貴官들

은 自由陳營의 最先端의 勇士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貴下들이 勝利하면 自由世界는 防禦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自由世界는 後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操縱士들이 모인 이 晚餐에 招請 演士로서 招待된 것은 單純한 榮光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貴重한 時間과 場所에 알맞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무거운 責任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決코 여러분의 期待에 맞는 것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進行하려고 합니다.

1983년 10월 어느날 韓美親善招待會에서 코넬리대령을 만나게 됐고, 서로 名銜을 交換하게 된 것이 오늘의 因緣이 됐다. 20分이라는 制限된 時間이기 때문에 나의 演說은 主로 韓國動亂때의 이야기를 하겠다.

2. 1950年 6月 25日 以前

韓國空軍은 陸軍과 海軍보다도 約3年 이나 뒤늦게 1948年 가을에 發足됐다. 中國과 日本, 그리고 美國 空軍出身의 操縱士와 整備, 通信, 氣象의 經驗있는 技術者들이 約100名 모여들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南韓에 모인 約100名의 技術水準은 北韓의 金日成 下에 모인 航空技術者들에 比하면 敎官級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45年 8月 15日(世界 第2次大戰 終息) 以後 北韓에 進駐한 蘇聯軍은 金日成을 頭目으로 共產軍의 組織과 武裝에 全力을 다하여 韓國動亂 始作前에 YAK-9, IL-10 等 蘇聯의 2次大戰型의 戰鬪機를 180台 水準으로 強化했다. 그러나 南韓에서는 美軍이 進駐하여 坦克와 大砲없는 陸軍과 艦艇없는 海軍을 組織하고 輕武裝하였을 뿐이며, 空軍은 1948年 가을에야 創設되어 겨우 L-4, L-5의 砲兵觀測用 輕飛行機를 供與했을 뿐이다.

1948年 가을부터 各地에서 反共產 계렬라 作戰이 있었으며, 陸軍을 爲해 偵察連絡任務를 主로 했다. 우리는 많은 努力을 했다. 即, L-5機의 兩 날개 支柱에 陸軍의 BUZ-UKER를 一門씩 装着하여 對地攻擊을 했고, CAL 50 HMG를 L-5의 後方席 前部分에 装着하여 後方座席 射擊手が 水平掃射 射擊을 하였으며, 때로는 手榴彈을 低空에서 目標物에 投下하기도 했다. 世界 第2次大戰의 敎訓은 우리에게 有益했으나, 補給도 不足했고 精確度도 없었다. 精確度는 前날의 酒量과 女子의 如何에 左右되었다.

1949년에 우리는 李承晩 大統領을 움직여서 美大使館과 美極東空軍을 通해서 戰鬪機 100台를 要請했다(2次大戰 以後 當時 中南美에서는 F-51D 一台에 一弗로 軍援아닌 販賣를 하고 있었다). Chunault少將(Flying

Tiger Force 中国駐屯 司令官)을 招請하여 援助를 求하기도 했으나, Mac-Arther將軍은 不許했다.

T-6 訓練機를 国民獻納金(約 U. S. 30万 弗)으로 購買하려 했으나 美国務省은 그 길도 閉鎖했다. 最後로 T-6 10台를 캐나다로부터 購入해 왔다. 7.7mm 機関銃 二門을 装着할 수 있었으나, 飛行機는 1950年 5月 14日에 첫 飛行이 可能했으나 機銃은 装着치 못했다. 實로 6月 25日 韓國動亂 發生前 二個月의 일이다. 1950年度 北傀操縱士 이진순 大尉가 IL-10機를 타고 南韓으로 亡命, 金海基地에 着陸했을 때 우리는 北傀空軍의 實力을 처음 알게 되었고 啞然失色했다. 6月 25日 当日의 敵我의 勢力은 敵이 IL-10, YAK-9 等 180機 對 我方이 L-4, L-5, T-6 等 20余機의 劣勢(非武装機)였다.

3. 動亂 第 1 週(6.25~7.4)

戰爭 1, 2週日 前 우리空軍의 몇 幹部들은 北傀의 攻擊可能性을 上部에 忠告한바 있었다. 그러나 國防部나 陸軍上層部는 時時刻刻으로 다가오고 있는 戰爭可能性에 對해 너무나 樂觀하고 優柔不斷했으며, 우리들의 忠告를 들은 척 만 척하고 말았다. 나는 金浦飛行場 滑走路 끝 東쪽에 있던 官舎에 살고 있었다. 金浦飛行場은 1949年 美軍이 撤

収한 後 美空軍 航空機가 없었고, 單只 基地를 整備管理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6月 25日 日曜日 家族과 함께 서울市內에 가서 映画觀覽을 할 予定이었다. 그러나 日出 即前의 早朝에 從來와는 全然 다른 프로펠러 소리의 約 二台 가량의 戰鬥機編隊의 高速飛行音을 들었다. 나는 新機種의 美空軍 戰鬥機가 飛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飛行團 基地인 汝矣島는 朝食即後인 9時頃 正体不明의 數個編隊의 戰鬥機로부터 機銃掃射攻擊을 받았다. 週番士官은 格納庫 안에 있는 T-6, L-4, L-5機들을 確認했으나 2台의 小破 程度 被害를 發見했다. 勿論 이 週番士官은 北傀空軍의 攻擊인 줄 모르고 練習 치고는 너무 甚하다고 憤慨했으나 手段이 없었다. 約 10時頃 江 건너 辺 永登浦 市民들이 大學 營門에 달려와 一大抗議를 했다.“日曜日 아침에 무슨 練習이기에 實彈射擊을 하여 死傷者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即時 訓練을 中止하라!”고 덤벼들었다. 週番士官이 眞狀을 몰라 解明하던 中 YAK-9 編隊의 第 2 波가 來襲하여 攻擊을 開始했다. 그때에서야 住民들은 北傀 空軍의 攻擊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週番士官은 官舎와 本部에 緊急非常令을 알렸다.

「非常! 今朝 四時를 期하여 北傀軍은 三八線 全戰線을 侵攻, 南侵을 開始함」.

우리는 完全히 無防備, 無準備狀態였다.

日曜日 아침 一部 週番勤務者 外에는 大部分 外出中이었다. 敵 地上軍은 戰車를 先頭로 거의 抵抗을 받지않고 서울을 向해 進擊해 오고 北傀空軍 戰鬪機들은 汝矣島와 金浦를 4~5回 攻撃해 왔다. 우리는 非武裝인 T-6 9台와 L-4 8台, L-5 9台를 가지고 敢히 飛行할 수 없었다. 바보 北傀空軍 戰鬪機들은 서투른 飛行과 攻撃要領으로 金浦에 駐機되어 있었던 緊急 後送用 美大使館의 C-54를 불 태웠고 格納庫內的 T-6 1台와 L-4 1台를 小破시킨外 別로 큰 損害를 주지 못하고 第一日은 끝났다. 우리는 CAL 50 機關銃을 地上에 配置하고 對空射擊을 試圖했으나 訓練不足으로 1台도 잡지 못했다. 面對決 応射했으나 敵戰鬪機 射擊에 完全히 射殺되기도 했다.

第二日부터는 美空軍의 F-51D, F-82, P-38, F-80 제트編隊가 서울, 金浦, 汝矣島 上空에서 YAK-9과 P-82의 空中戰을 目擊했다. YAK-9은 불을 뿜하고 擊墜됐다. 操縱士는 脱出했다. 金浦邑 附近에 落下 했으나 落下傘이 포플러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北傀操縱士는 나무에 걸려서 地上 部落民에게 射擊을 加했으나 結局 部落民에게 殺害됐다. YAK-9과 IL-10機들은 美空軍의 F-51, F-38, F-82, F-80 제트機에게 빠짐없이 邀擊되고 擊墜됐다.

第三日 (27日) YAK-9과 IL-10戰鬪機들은

서울과 汝矣島, 金浦, 水原 上空에 來襲해 왔다. 水原에 着陸, 駐機中에 있던 美極東空軍의 한 指揮官의 專用機 C-54는 YAK-9 編隊의 攻撃을 받고 불탔다. 美空軍 戰鬪機들이 歸還後의 空白時間에 來襲한 것이다.

우리는 日沒前 文書를 불태우고 5~6台的 트럭에 나머지 機密文書와 一部食糧을 싣고 本部를 떠나 서울을 撤収했다. 6月 26日 韓國空軍 參謀總長 金貞烈 將軍은 李大統領을 통해서 美國政府에 F-51을 要請했다. 敵의 戰車를 막기 為한 것이다. 緊急으로 10台的 F-51을 引受하기 為해 10名의 操縱士가 이따즈게空軍基地로 輸送됐다.

10名의 操縱士들은 2次大戰때 日本 航空隊에서 最少 250時間~2,000時間 가량의 經驗者들이었다. 그 中에 2次大戰에 中國空軍으로 美國에서 訓練받은 操縱士도 있었다 (金信 將軍). 이들은 2日間の 超急速 오리엔테이션 教育後 單 1回의 離着陸을 끝내고 7月 2日 大邱에 (K-2) 飛來해 왔다.

美空軍의 6146基地大隊는 Dean E. Hess 少領을 長으로 한 數名의 操縱士와, F-51 10台를 為한 整備, 補給, 武裝할 수 있는 人員으로 緊急히 構成된 部隊로서 韓國操縱士들을 引率하여 出擊(主로 北傀戰車를 攻撃)하고 訓練을 하는 任務를 했다. 時間나는 대로 韓國의 整備, 武裝, 補給人員을 實務教育形式으로 訓練해 갔다.

7月 4日 第1次 任務에서 飛行團長인 李根哲 大領은 서울南方 安養附近에서 対地攻撃中 敵彈에 依해 擊墜됐다. 한편 L-4,L-5, T-6는 汝矣島에서 敵의 YAK-9,IL-10 編隊들의 來襲을 避해 가면서 主로 偵察과 戰車 攻撃에 全力을 다했다. T-6에는 爆彈 装着台를 設置하여 國産 G.P.彈 (30파운드) 4~6發을 달고 出擊을 繼續했다. L-4,L-5는 後方席 操縱士가 30파운드爆彈을 가슴에 1發씩 안고 가서 敵戰車 上空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이때 空軍作戰參謀로서 戰車攻撃에는 高度 1,000' 以下에 爆彈을 投下할 것을 敕命했다. 敵戰車도 破壞됐지만 우리 操縱士도 많이 被擊當했다.

YAK-9 編隊는 우리 L-4, L-5機를 서울 上空에서 遭遇해도 速度差로 擊墜하지 못했다. 우리 操縱士들이 爆彈을 投下하려면 1,000' 以下로 急降下해야 했다. 敵의 対空砲火는 相當한 密度였다. 어느 操縱士는 한 팔로 爆彈을 잡고 한 손으로 自己 불알을 가리고 戰車를 向해서 急降下했다고 한다. 國産爆彈은 30파운드이며 總 300個 가량이 生産됐을 따름이다.

※ 戰爭勃發後 一週間을 要約

(1) 北傀 操縱

① 隊型編成, 攻撃角度, 目標命中率 및 目標選定 等に 있어서 그 技術이 低少했으며

② 實戰機 180台 가량을 保有하면서도 攻撃任務의 計劃樹立에 있어서 集中的, 決定的 使用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敵航空勢力의 偉力を 그다지 感得하지 못했고, 큰 損失을 입지 않았다.

(2) 北傀空軍은 第一週間 동안에 美空軍과의 空中戰에서 有經驗 操縱士들을 거의 다 消耗했고, 第二週(7月 2日 以後)에서 부터 UN軍 傘下의 美空軍의 後方爆擊에 依해서 地上에서 全滅해 버렸다. 그 後 極少數의 操縱士만이 生存하여 滿洲地方으로 逃避하여 再訓練을 始作한 것으로 判斷된다.

※ 우리는 戰爭勃發 當時 約 60名の 操縱士를 保有했다. 約 40名은 2次大戰時 日本航空隊에서 經驗한 操縱士이고, 나머지는 國內에서 養成된 操縱士들이었다. 幹部中 參謀總長인 金貞烈 將軍은 大尉로서 南方에서 戰鬥飛行部隊 指揮官으로서 戰鬥에 많은 經驗이 있었고, 團長인 李根哲 將軍은 歴戰의 戰鬥操縱士로 南方에서 捕虜生活後 歸國했다.

朴熙東 將軍은 戰鬥操縱士로서 經驗이 많았던 사람이다. 그의 民航에서 活躍했던 張德昌 將軍은 約 10,000時間에 가까운 飛行 經歷者였다. 崔用德, 李英茂 將軍은 中國空軍에서 有名한 飛行教官으로서 飛行 經歷도 많았다. 中國空軍 出身으로서 金信 將軍은 Randolph 飛行學校를 卒業했다. T-6, F-51

을 탔던 유일한操縱士였다. 張盛煥 將軍은 日本航空隊 出身으로 將校로서 相當한 飛行 經歷을 갖고 있었다. 그의 約 1,000~1,500 時間 程度의 飛行 經歷을 가진 操縱士들이었다.

日本陸軍航空士官學校 出身, 中國士官學校 出身, 美國飛行學校 出身, 日本軍(下士官) 少年飛行兵學校 出身, 日本民間學校 出身들로서 8. 15 以後 故鄉따라서 一部는 北傀 空軍으로서 戰鬪에 參加하여 結局 過去同期 生끼리 싸운 것이다.

6月 26日 10名의 操縱士가 日本 이마즈 基地를 F-51 引受次 出發한 後 T-6를 탈 수 있는 操縱士가 적어졌고, 轉換飛行訓練을 할 時間이 없어 各自 Cockpit Orientation을 하고 離着陸을 1~2回 한 後 攻擊任務飛行에 投身했다. 이때부터 操縱士의 損失이 增加되어 모든 操縱士는 飛行團으로 配屬되어 集結됐다. 나는 空軍本部 作戰局長을 他人에게 말기고 飛行團으로 轉屬됐다. T-6 操縱士와 같이 2~3回 離着陸하고 單獨으로 偵察任務飛行에 任했다. 이것이 敵地上空을 低高度로 飛行하며 敵의 先頭部隊를 監視·偵察하는 나의 첫 任務였다. 戰爭開始後 約 10日 後였다.

4. 10台의 F-51D와 美 6146 空軍基地大隊

K-2(大邱)에 到着한 後 나는 처음으로 F-51 무스탕機를 보았다. 同機種의 濠洲空軍, 南阿空軍, 캐나다空軍 및 英國의 Spit Fire 機들이 集結해 왔다.

滑走路는 非鋪裝 잔디였어도 急速히 멘트와 콘세트가 늘어났다. 날이 갈수록 K-2 基地 人口가 國際적으로 混雜되어 늘어났다. 10名의 操縱士들은 6146大隊의 Hess 少領과 數名의 操縱士들이 先導가 되는 飛行의 編隊員으로서 大田을 向해 南下해 오는 敵 地上部隊와 戰車를 主로 攻擊했다. 戰線이 急變한 關係와 空地作戰體制를 爲한 通信網의 不備 等으로 友軍機에 依한 我軍과 避難民들에 對한 誤爆으로 많은 被害를 發生케 했다. 特히 osan·平沢地方을 南下하던 避難民들의 誤爆에 依한 被害는 컸다. 特히 日本에서 飛行해 온 操縱士들은 讀圖法을 理解하지 못하여 誤爆을 하기 쉬웠다. 甚한例는 航空地圖를 보면, Chung Ju 하나는 北쪽에 있고 또 하나는 南쪽에 있다. 北쪽은 忠州이며 敵이 占領해 있고, 南쪽은 淸州로서 아직도 我軍이 防禦中이었다.

戰線이 南下함에 따라 우리는 K-10(鎭海) 基地에 集結하여 낙동강 防禦線에 對한 空中支援任務를 하는 한편, F-51의 甚한 Torque 作用은 離陸할 때 注意를 要했다. 드디어 優秀한 操縱士 1名을 잃게 됐다. 完全武裝을 하고 離陸하던 張東出 中尉機는 滑走

路 中間地点에서 左側바다로 墜落한 것이다.

敵이 馬山 兩側에 進擊해 왔을 때 美海兵隊는 勇敢하게 防禦戰鬪를 하고 있었다. 우리 T-6編隊는 7.7mm 機関銃을 裝着한 後 첫 任務에서 美海兵隊를 誤爆하고 被害를 줬다. 空地作戰体制의 設置없는 対地攻撃支援은 誤爆으로 友軍을 殺傷하게 되었다.

仁川上陸後 戰線은 一躍 서울地方으로 移動했고, K-16 汝安島로 우리의 主力(F-51과 T-6)은 前進했다. 우리는 主로 平壤附近과 平壤으로 가는 主補給路(MSR)를 武力偵察 및 邀擊任務를 敢行했고, 적지 않게 操縱士의 損失도 입었다.

나는 平壤으로 進擊하기 前에 南쪽에 避難을 간 後 敵占領地域内에서 消息이 없는 家族(아내와 生後 5個月 幼兒)을 찾기 爲해 南쪽 故郷에 갔었다. 光州市였다. 光州市는 人民軍이 後退하고 眞空狀態였고, 韓國軍과 美軍이 再占領한 即後였다. 家族은 戰爭開始 三日 만에 南쪽으로 避難을 보냈으나, 人民軍에 占領되어 約 三個月間 山中에서 山中으로 避身하여 간신히 生存할 수 있었다. 特히 警察의 家族과 操縱士의 家族들은 第一의 逮捕処斷의 對象이었다.

우리는 平壤 北傀空軍本部가 있었던 K-24 미림基地를 占領하고 每日 鴨綠江邊의 江界附近의 殘敵을 攻撃하는 任務를 했다. 1950年 12月初 中共軍의 侵入으로 우리는 濟州

基地로 後退하여 主로 F-51의 訓練과, 一部 T-6로 空地作戰任務를 遂行했으며, 이 期間中 처음으로 計器飛行訓練을 日本의 松本基地에서 받게 됐다. 이 訓練은 後에 우리 任務飛行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1951年 6月 戰爭 1年 만에 地上戰線은 大略 서울北方에 固着이 되고, 우리는 泗川(K-4)基地로 移動하여 一層 더 組織的이고 水準높은 訓練을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初等飛行訓練과 高等飛行訓練을 體系있게 하게 됐다. L-4, L-5, L-16 課程을 거쳐 初等飛行訓練을 끝내고, T-6 課程에서 高等飛行訓練을 約 120時間하고 適格者를 F-51 課程에서 訓練하는 것이었다.

當時 智異山 속에는 人民軍 約 一個師團이 仁川上陸으로 退路를 잃고 逃避中이었다. 우리는 이 敵을 偵察하여 攻撃하는 作戰을 開始했다. 機銃掃射, 爆擊, 로켓發射 等 山岳地帶의 敵에 對한 攻撃에 對하여 좋은 作戰訓練이었다. 나는 飛行團 作戰參謀임과 同時에 飛行戰隊의 副指揮官과 作戰參謀를 同時에 役割했고, 警察로부터의 情報蒐集, 偵察飛行, 任務計劃, 狀況브리핑, 그리고, 實地로 飛行指揮者로 攻撃任務를 遂行 하기도 했다. 山岳地帶의 目標攻擊은 5" 로켓과 CAL 50로써 하는 攻擊이 가장 機動性を 發揮하기 쉬웠다. 約 二個月間 智異山을 中心으로 하는 山岳地帶는 地圖없이 作戰計劃을

하고 出擊을 指揮할 수 있었다.

이러한 中 우리는 美 第5空軍의 監察監이었던 아이삭슨 大領을 長으로 한 約 20名의 팀으로부터 ORI=Operation Readiness Inspection(作戰態勢檢閱)를 받게 됐다.

飛行團長인 張德昌 准將 揮下에서 副團長 김영환 大領은 飛行戰隊長을 同時에 맡고, 나는 飛行團 作戰參謀와 戰隊作戰參謀를 同時에 맡고서 主로 作戰을 이끌어 왔었다. 아이삭슨 大領은 主로 作戰, 整備, 補給, 武裝 通信, 人事, 情報 等 全分野를 計劃的으로 檢閱한 것이다. 約 二週間동안 우리는 아이삭슨 大領의 檢閱팀과 같이 任務브리핑을 받고, 같이 隊型을 짓고 飛行하고 目標을 찾아가서 攻擊하는 것이었다.

任務計劃, 브리핑, 編隊隊型編成, 目標에 對한 航法, 爆擊, 機銃掃射, 로케트發射, 基地歸還, 飛行後 브리핑 및 分析 等은 檢閱의 主着眼事項이었다. 作戰態勢檢閱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美 第5空軍司令官의 最終 評價는 "ROKAF is capable to perform tactical air operations"이라고 되어 있었다. 우리는 實로 感激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余他國 空軍과 같이 美 第5空軍 Flag Order上的 戰鬪序列上의 一部隊로서 作戰地域과 任務가 附与되며, 韓國 空軍으로서 單獨作戰을 하게 된 것이다.

1951年 10月 1日 우리는 飛行團을 再編

成하고 새로 第10戰鬪飛行戰隊를 編成하였다. 12台 F-51과 15名의 操縱士와, 이에 따른 整備, 武裝, 人員, 裝備로 編成됐다. 約 8台의 F-51은 訓練을 爲해서 泗川(K-4)에 殘留시켰다. K-18(江陵)基地는 P. S. P. 滑走路, 誘導路, 駐機場으로서 沙場이 많고, 겨울바람은 사람과 飛行機를 모랫바람으로 덮었다. 一部 콘세트建物과 野戰用 天幕이 事務室이고 宿所였다. 김영환 大領과 나는 서울 美5空軍本部의 指揮官會議에 參席하고 作戰規程과 作戰計劃表를 求得하여 基地에 돌아왔다. 晝夜로 作戰狀況室, 情報狀況室, 브리핑室 等を 設備하고, 約 10日後 처음 Flag Order를 受領했다. 나는 Flag Order의 內容을 狀況板에 게시하고, 目標의 確認 및 武裝選擇, 敵高射砲의 配置狀況, 飛行航路計劃, 非常節次, 通信에 關한 事項, 操縱士의 選定 等を 끝내면 大略 아침 3時가 됐고, 3時間後 任務브리핑 準備를 하고 戰隊長과 操縱士들을 기다린다. 나는 每日 出擊은 못했으나 戰場을 研究하고 任務計劃을 爲해必要할 때는 直接出擊을 했다. 敵의 地上火器(Small Arms)는 매우 密集해 있고, 날이 갈수록 數가 增加되었다. 첫번에는 敵의 對空砲火를 보지 못했으나, 任務에 熟達될수록 敵의 對空砲火의 方向, 發射地点 等도 눈에 보이게 됐다.

우리의 主任務는

① 東部戰線의 韓國軍 1軍團에 對한 近接支援作戰

② 中部戰線에 對한(主로 韓國地上軍) 近接支援作戰

③ 平壤攻擊

④ 特殊任務：特殊目標攻擊, 救助, 空中掩護, 空中護衛

⑤ 空地合同作戰任務(偵察任務)

⑥ 敵後方에 對한 遮斷作戰任務

⑦ 敵後方에 對한 武裝偵察等이었다.

우리의 士氣는 높았고 韓國空軍의 爆擊, 機銃掃射, 로케트發射의 正確度는 90%라는 評價를 받게 되었다. 航空機의 稼動率은 75% 以上을 維持했고, 補給도 順調로왔다. 戰鬪操縱士들의 日常生活은 즐거웠다. 왜냐하면 해만 지면 市内外出이 許容됐고, 市内에는 술도 많고 번성홀도 많았다. 어떤 操縱士는 宿醉가 甚했고, 뒤따라가는 編隊員은 무스탕 꼬리에서 위스키 냄새가 甚하다고 농담을 했다.

敵의 對空砲火에 依한 被害는 적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目標를 攻擊하고 반드시 東海海上으로 離脫, 海上에서 集結, 歸還하게 됐다. 때로는 目標地域이 廣範圍하여 南阿空軍과 同地域에서 攻擊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任務수행後 歸還途中 編隊長으로부터 “머칠 前에 敵地에 墜落한 ○○中尉 機

가 우리 編隊에 따라오고 있다”고 알려왔다. 우리는 “幽靈이 아닌가 잘 確認하라”고 했다. 基地上空에 와서 그 飛行機는 編隊를 離脫하여 “여기가 어디냐”고 統制塔에 問議해 왔다. K-18基地라고 하자, “여기는 南阿空軍의 F-51이다. 나는 잘못 隊型을 지었다. 金浦基地로 가는 方向을 알려 달라.” 統制塔은 “TOP KICK”의 節次를 通해 K-14로 誘導해 준 일이 있다.

K-18 潛走路 南쪽에는 美海兵隊 12戰鬪戰隊가 駐屯하여 우리와 같이 出擊을 하고 있었다. CORSEA機들이었다.

5. 戰爭中の 美本土 教育

우리의 戰鬪任務는 熟達되고 飛行 出擊數도 固定되었으며, 戰場狀況도 熟知하게 됐다. 1951年 12月初 김영환 大領과 나는 戰隊長과 作戰參謀를 交代하고 美空軍의 指揮官參謀大學에 選拔되어 알라바마의 맥스 웰空軍基地에 가게 됐다. 처음으로 美國에 내려서 놀란 것은 トレ비스 空軍基地의 待機室에서 물먹는 機械와 滄스 自動販賣機였다. 美國에 와서 모든 것은 너무나도 우리나라와 比較가 안 될 程度로 發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日本에 比較해서도 比較할 수 없을 程度의 發展狀을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이 살 수 있나 하

는 부러움과 同時에, 日本이 美國을 相對로 戰爭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다가를 即感했다. 美空軍參謀大學 FOC 課程 52次에는 同盟國 高級將校들이 37名 大學入校해 왔었다. 나는 美空軍의 各種敎理를 배우게 됐다.

또한 이 機會를 통해 나는 美空軍의 先歐者 Billy Michel을 尊敬하게 됐으며,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격이다. 美空軍 學生들은 親切했다. 그 中에도 追憶에 남는 사람은 Chuk Yeager 少領(准將予編)과 Holm 少領(大領으로 女空軍部隊長)이었다. Yeager 少領은 在學中 F-86F로 維持飛行中 超音速 충격을 일으켜 몽고메리 市民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Air Proving Ground의 Eglin 空軍基地에서 舉行된 火力展示는 나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다. 나는 歸國後 泗川에서 韓國空軍의 第一次 空中展示를 計劃하고, 李大統領과 5空軍司令官을 모신 가운데 實踐하였다. 軍은 그 威力을 敵에게 誇示함으로써 戰爭을 이기는 것이 主任務이다. 이에 못지 않게 同時 自國의 大統領을 爲始한 指導層과 國民들에게 自軍을 正確히, 充分히 理解시키는 것은 더욱 重要한 일이다.

韓國空軍의 空中展示(Air Show)는 그 後 繼續됐고, 參加機數도 많아졌다. 1969年 까지 每年 50~60萬의 觀衆과 大統領 以下 政

府, 政黨, 業界 等 最高의 人士를 參觀시키므로써 空軍에 對한 理解와 支援을 얻게 되며 舉行됐다.

美國의 EGLIN 空軍基地에서 있었던 空中展示에서 나는 F-86 戰鬥機를 將次 꼭 우 리空軍의 主力機로 할 것을 생각한바 있다. 同時 맥스웰 空軍基地에서 많은 同盟國 將校들을 알게 되어, 앞으로의 戰爭은 單獨으로는 勝利할 수 없으며 必히 믿을 만하고 優秀한 同盟軍과 關係를 굳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約 7個月間의 맥스웰 空軍基地 生活은 나의 一生에서 가장 有益한 것이었다.

6. 第10戰鬥飛行戰隊長(K-18)(F-51)

1952年 12月, 나는 第10戰鬥飛行戰隊長으로서 K-18에 돌아왔다. 우리는 晝間戰鬥戰隊로서 東部戰線의 韓國軍 1軍團에 對한 近接支援作戰, 後方遮斷作戰, 救助, 武裝偵察 및 特殊任務와, 새로운 操縱士들에 對한 戰鬥態勢訓練을 遂行하였다. 나는 어려운 目標가 附與될 때는 出擊하기도 했다. 元山, 干城, 固城, 元山-서울間의 舊鐵道地帶와 一帶의 山岳地帶에 對한 仔細한 敵情研究는 우리 被害를 줄이고 任務를 完遂하는 데 重要한 일이었다. 對空砲火가 密集되어 있을때

는 250LBS와 5" 로켓포로 輕武裝함으로써 機動性있게 하여 被害를 없게 했다. 때로는 任務飛行 外에 對空砲火 抑制를 爲한 余分의 任務要素를 追加하기도 했다. 내가 戰隊長으로서 가장 어려운 任務의 例를 들어 보겠다.

韓國軍 1軍團의 正面의 351番 高地 作戰이었다. 北傀軍은 이때부터 땅굴을 파는 手段을 使用했다. 351番 高地의 北端은 北傀軍이 占拠했고, 南端은 我軍이 占拠하여 熾熱한 戰鬪를 交換하고 있었다. 이 351番 高地는 全戰線의 安全을 爲해서 重要한 高地였다. 敵은 北쪽 側面으로부터 땅굴을 파고 있었다. 우리는 이 땅굴을 破壞하지 않으면 陣地를 固守할 수 없다. 韓國軍 1軍團의 李享根將軍과 軍事顧問인 Stillwel大領은(그 後 約 20余年 後 Stillwel大將은 駐韓 美軍司令官으로 在職함) 韓國空軍 操縱士들의 名譽를 걸고 攻擊을 決心했다. 3個의 飛行編隊(12台 F-51)를 出擊시키고, 1個編隊는 對空砲火의 抑制任務를 担当하며, 2個編隊는 로켓포와 500LBS 爆彈으로 敵의 땅굴을 集中攻擊 破壞할 수 있었다. 이 때 攻擊은 規則을 어기고 敵의 後方에서 侵入攻擊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敵의 陣地는 모래 위에 심은 꽃나무처럼 됐다.

7. 第10戰鬪飛行團의 完全編成 (1953. 3. 6)

第10戰鬪飛行戰隊는 75台의 F-51 무스탕을 3個大隊로 編成하고 整備 補給戰隊, 基地戰隊, 醫務戰隊를 增編하여 完全한 飛行團 基地建立計劃에 依한 戰鬪爆擊 飛行團으로 增強됐다. 航空機稼動率은 70~73%, 1日出擊 40~50回, 事故率도 현저하게 減少하게 됐다. 이 때 美空軍은 F-84, F-86 제트로 轉換하고, F-51部隊로서는 第10戰鬪飛行團이 가장 뛰어나고 強力한 戰爆機 部隊였다.

나의 最後戰鬪任務는 7月 25日 即, 休戰 三日前이다. 任務完了後 再編隊飛行時 나는 Back Mirror (後面鏡)를 통해서 어떤 검은 物体가 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發見했다. 敵의 對空砲火의 爆發이 連續되며 나를 쫓고 있었다. 不過 30秒 前에 나는 脱出할 수 있었다.

8. 休戰 当日

7月 26日(休戰 하루 前) Flag Order에는 7月 27日 日沒時를 期해 休戰이 有効하다고 指示되었다. 김영환 大領(飛行團長)과 나(副團長 겸 戰隊長)는 夜間 指揮官參謀會議

를 갖고 最後의 戰爭日에 對한 會議를 가졌다. 우리는 航空機의 稼動率을 最大로 갖추고 最大의 出擊回數를 維持하기로 決定하고 徹夜整備作業을 했다. 어느 武裝士는 爆彈에 自己 이름을 쓰고 銀色이 나도록 光澤을 한 사람도 있었다. 金大領과 나는 가장 어려운 決心을 해야 할 事項이 있었다.

即, 첫째는 97回 出擊을 爲한 操縱士가 하루에 3回 出擊을 하여 100回出擊을 完成토록 해 달라는 일이었다. 197回出擊을 한 大隊長 金金성 中領은 自己 出擊을 98回 出擊 操縱士에게 양보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새로이 出擊可能 操縱士로 認可된 操縱士들이다. 最後의 날에 出擊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永遠히 戰鬪 經驗 操縱士라고 불리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結局 이 새로이 탄생된 操縱士들의 出擊을 許容하지 않기로 했다.

끝으로, 나의 只今도 後悔하고 있는 것은 北傀空軍 操縱士들과 空中戰鬪를 할 機會가 없었다는 것이다.

敵이 없었다! 사냥할 새가 없었다!

8. 제트空軍으로 轉換(F-86F)

1954년에 韓國空軍은 F-86F 제트戰鬪 飛行團을 編成하게 되었으며, 操縱士訓練을 爲한 整備通信電子武裝 補給等 全分野

제트運營을 爲한 體制로 變했다. 早期警報體制도 完全히 體制化, 現代化 됐고, 各 基地도 P. S. P.로부터 콘크리트滑走路로 變했다. 全分野에 걸친 教育訓練도 向上됐고, 各種施設도 改善됐다. 指揮官 및 參謀에 對한 高級教育制度도 確立됐다. 航空機를 爲始한 各種 稼動率도 向上되고 事故率은 急降下했다.

戰鬪要員들의 飛行時間은 늘고 各種 射擊率도 월등하게 向上됐다. 全天候 夜間 戰鬪能力도 至極히 向上됐다. 邀擊防空能力도 相當히 向上됐다.

10. F-5

韓國空軍은 新機種 F-5A, B型으로 機種改編하여 F-5 機種을 運營하는 世界 어느 나라 空軍보다도 優秀한 成果를 올렸다. 노스롭 航空會社는 F-5 1個大隊 程度는 無償으로 提供해도 좋을 만큼 功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1. F-4D, E (Phantom)

1968年 韓國空軍은 待望의 F-4 팬텀 機種을 導入키로 됐다. 나는 F-104, F-105의 提議를 물리치고 F-4D를 고집했다. 美空軍의 Ben Davis 將軍(轉役)은 나의 F-4 팬텀에 對한 執念을 보고 "Phantom Charlie"라고 別

명을 붙였다(Charlie는 나의命名). 1967年 6월에 美国防省을 訪問했을 때 美空軍 參謀總長 McCornell 大將과 空軍長官 Harold Brown 博士의 許可없이 세인트루이스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航空会社를 秘密히 訪問하여 McDornell氏의 주선으로 팬텀機를 試乘하였다. 上昇率, 速度, 高空性能, 離着陸의 容易性에 나는 매혹됐다. 뿐만 아니라 航統거리, 武裝의 多樣성과 威力, 任務의 多樣性, 融通性(Mission Profile)은 우리가 願하는理想型이라고 確信했다. 이 機種을 確定짓는데 朴正熙 大統領의 현명한 理解와 決断을 얻어 내는데 나의 全知全能을 기울였다. 北傀空軍을 压倒하는 데는 北傀空軍의 機種보다도 一階段 우수한 機種을 항상 保有함으로써 可能하다고 믿는다.

12. 基地의 整備

韓國動亂을 通해서 우리는 한번도 单独으로 基地를 運營하고 좋은 狀態下에서 作戰을 한 적이 없다. 또 1968年 1月 21日 北傀의 무장공비에 의한 淸와대 特攻試圖와 프에블로봉 납치사건때 美国은 空軍, 海軍의

急速한 增強으로 美空軍은 F-100, F-102, F-105, F-4D 等 約 200機의 增強을 했고, 美海軍은 항공모함 3척을 급파함으로써 約 200台를 增強했다. 이 때 나는 韓國空軍의 參謀總長으로서 美 5空軍司令官 Seth McKee 大將과 美太平洋空軍司令官 Jack Ryan 大將과 긴밀한 協同下에 美空軍의 增強에 努力했었다. 나의 第一의 고민과 所望은 基地의 확보였다.

나는 朴大統領에게 F-4 팬텀을 위시하여 10個戰團飛行團의 設立을 建議했고, 5個基地의 現代화와 5個基地의 新築을 建議했다. 우리 韓國의 与件은 北傀空軍과 같이 多數의 航空機를 保有하기보다는 多數의 基地를 保有하는 것을 主張했다. 서울·부산 간의 高速道路 위에 비상활주로를 8個 建設토록 建議했다.

그 中 江陵(K-18)은 나의 가장 오랜동안 戰團했던 곳이고, 제트基地로 現代化하기 為해 가장 努力을 많이 한 곳이다.

여러분! 그 飛行基地는 오늘날까지 6146 美軍顧問團에 依해 "Charlie Base"라고 名命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The Script of The Speech for Daedalian Meeting

At Osan Air Base

USAF

Jan. 1984

by Gen. Chang Chi Ryang(Ret.)

Col. Connolly, (Commander of Det. 1, 314 AD,) and members of Daedalian meeting !

My honor

It is my honor and great pleasure to be invited to Daedalian Meeting and dinner to tell you a story about Korean War, particularly about Korean Air Force operations.

Gen. Romulo
in U.N.

Gen. Romulo (Republic of pilippines, the Foreign Minister, once President of UN in 1949) stated to me, In UN,

Smaller the countries deliver longer speech.

Shorter the speech more difficult to make, so, I want to make mine shortest possible.

Korea today, is a place free world and communist are confronting most seriously and the longest armistice has been maintaining.

Best pilot

Also here are deployed the most advanced and sophisticated USAF fighters, together with the most well-qualified fighter pilots.

Best A / C

Another words, You Gentlemen are the most hot fighter pilot of the free world.

Free World

If you defeat the enemy, our free world Will be defended.

If not, we will be lost.

Therefore, I feel very much obligated to address a speech in front of you, in such a valuable time and place, Daedalian Meeting.

ROKAF

The Korean Air Force was established in late 1948. Much later than Army and Navy. At the very beginning, about 100 members were invited, to join army air corps under the Korean army.

They were mostly well-qualified pilots, mechanics, communication technicians and some weather men in Chinese, Japanese and U.S. Air Force.

South-North

Frankly speaking, these 100 member's skill level were much higher than north Korean Air Force members.

We, however, lost the initiative and advantages which we had to begin with.

Russian

After Russian troops occupied north Korea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y started immediately to organize and arm Korean People's Army.

YAK-9

IL-10

They delivered about 180 planes including Yak-9 and IL-10 which were Russian fighters and bombers used during the World War II.

U. S.

In our part,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Korean constabulary and naval coast guard were established with only light arms.

No Tank

Artillery

Ships

Airplane

Tanks, artillery and some powerful naval ships were all excluded.

We, air men, proposed to establish the air force but ignored it until 1948.

L-4

It was a bit late but fortunate for us to have army air corps established in 1948 with only L-4 and L-5.

L-5

ROKAF

Oct. 1, 1949 was a day we became separate Air Force from the Army.

100 A/C, US
Gen. Chunault

In 1949, we had strong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Syngman Ryee, to request about 100 fighter airplanes to U.S. Government. That time, we heard that F-51 Mustang was sold to some of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with the cost of US \$ 1.00. Similar request was made to Gen. MacArthur through Major Gen. Chunault(Co. of the Flying Tiger Force in China). All of these requests and proposals were rejected.

300,000\$ US
Not US
But Canada

After all, nation wide movement for the contribution for the Air Force spread over the country and US \$ 300,000 was donated. We could buy 10 AT-6s from Canada. Their first flight was made on May 14, 1950, only a month before the war.

Capt. Lee
IL-10

We were **extremely frightened** and disappointed when we learned from defected North Korean pilot that North Korean Air Force had already 180 of IL-10 and Yak-9 capable of combat mission.

In comparison, we only had 10 L-4s, 10 L-5s and 10 T-6s without armament.

June 25 1950

In the early morning of June 25, 1950 at Seoul Air Base,(Yeo-i do) unidentified fighters initiated strafing on our hangers.

First Attack
Youngdeungpo

About one hour later at 10:00 o'clock, a group of about 40 people rushed to the base, shouting that "What kind of training is this on Sunday morning?" "There are many casualties on the street at Young Deung Po."

Duty officer had no way to explain about it.

2nd Attack

That moment, second wave of Yak-9 flight flew over the base and repeated similar type strafing, For the first time, people from Young Deung Po and duty officer realized North Korean air attack.

No defend
Not ready

We were absolutely defenseless condition.

All officers and airmen were on weekend leaves.

I was also about to leave for downtown Seoul for a movie with my family.

Air Attack

North Korean fighters repeated their air attack on Seoul and KimPo Air Base. We could not dare to fly T-6, L-4 and L-5 against Yak-9 and IL-10 fighters.

2nd Day

On the second day of the war, more aerial combat was fought between North Korean fighters and US Air Force fighters. I could observe speedy and manuvable F-82, F-51 and F-80 jet fighters. Yak-9 and IL-10 was shot down one after one in dog fight.

3rd Day

On the third day of the war, North Korean fighters continued to sweep over Seoul, Kimpo and Suwon area. One of C-54 at the parking place of Suwon Air Base was attacked and burned down.

This plane belonged to HQ FEAF and had brought some Generals from Japan for war consultation.

Seoul was occupied by enemy at midnight of the 3rd day.

F-51 (10)

General Kim Chung Yul, Chief of staff of Air Force recommended urgently to President Syngman Rye to obtain F-51s from U. S. to stop and destroy enemy tanks. This request was for the first time accepted by U. S. government.

10 Pilots

First 10 pilots were sent to Itazuke Air Base, Japan to get training.

Two days
Orientation
Two T/O & L/D

They had only two days of orientation and twice of T/O and L/D and then came back to Tac Gu for combat.

6146 SQ

6146 Air Base SQ (US Air Force) commanded by Major Dean E. Hess came to Tae Gu with members of pilots, mechanics, supply and armament crews to support the operations and training of Korean F-51 pilots.

B/G Lee
Wing Co

Our first combat mission was to destroy enemy tanks near An Yang, south of Seoul. Wing commander B/General Lee Kun Sok shot down

<p>L-4 OPS L-5 T-6</p> <hr/>	<p>and killed.</p> <p>During this time on Seoul, as DCS / OPS, HQ, I was conduction aerial attack to destroy enemy tanks by launching L-4,L-5 and T-6's over enemy ground troops, mainly in Tong Du Chon and Ui Jeong Bu area.</p>
<p><u>Bomb / Tank</u></p>	<p>We installed bomb lockers under the wings of T-6 to hang 4 to 6 Korean made GP bombs (30 Pounds) then we flew over enemy and dropped.</p> <p>On the L-4 and L-5 rear seat, crew held bomb in his arm then opened the window and threw the bomb out over enemy tanks.</p>
<p><u>1,000'</u></p>	<p>I issued strict order that all pilots on bombing mission should fly below 1,000 feet for accuracy.</p> <p>We destroyed considerable number of tanks but we also lost a good number of pilots and crews.</p>
<p><u>Important Balls</u></p>	<p>One episode, one of crew was diving with bomb holding in his arm to enemy tank. He covered his balls by his left hand to protect because so many samll arms came to him.</p>
<p><u>NK Pilots</u></p>	<p>North Korean pilots were very poor on formation, angle of attack, selection and hitting of the targets with their 180 fighter bombers. Their mission planning was not well concentrated nor very decisive. They were all shot down by USAF pilot in about 4-5 days without giving us any serious damage.</p>
<p><u>Heavy bomb Damage</u></p>	<p>They lost most of their experienced pilots within two weeks. Most of their aircrafts on the ground and base facilities were bombed down at very early stage leaving only few pilots survived who escaped to Manchuria for possible retraining and reorganization.</p> <p>Pyung Yang (capital city) was heavily bombed by USAF.</p>
<p><u>Gen. Stikov</u></p>	<p>I have a story to tell you, When I was in ET (Ethiopia, as ambassador).</p>

Counsellor
Youri Komarov

In 1970, at reception, Russian counsellor Komarov, told me "During every day bombing on P.'Y. we staid in undergrond shelter most of time with Amb. Stikov."

So, I told joke
to him

"Didn't you see my face in A/C, I was looking for you and Gen. Stikov.!"

Daegon to
Daegu(K-2)

When I came down to Daegu to join fighter wing, There, I could see many F-51s, Australian Air Force fighters, South African fighters, some Canadian Air Force fighters and some of Spitfires of British Air Force and USAF.

(K-2)

Our pilots were flying F-51 as wing man led by Maj. Hess and his pilots to the mission, mostly strafing enemy ground troops.

Misbombing

Due to rapid change of frontlines and lack of airground operations systems, serious problem of misbombing occurred against our own troops and civilian refugees.

9. 28
Inchon
Landing

Most serious case was on the area of Osan and Pyong Taek MSR. After Inchon landing was successful and seoul air base was secured, we moved to Seoul air base to attack Pyong Yang and their main supply route.

Che Ju
(K-40)

Later, we advanced to Pyong Yang and occupied Mirim air base where north Korean Air Force headquarters was located. From there, we flew the mission to the area of Kang Kye, near the Yalu River. Early December 1950, due to Chinese communist troops' intervention, we had to withdraw to the south once again. We retreated to Che Ju air base. We reorganized our wing and training program for pilots.

During this time, we had opportunity to have instrument flying training at Johnson air base, Japan.

We conducted more intensive flying trining to produce more pilots.

60 hours of basic and primary flying training on L-type and about 80 hours on T-6 for advanced training then selected pilots were sent for transition into F-51.

ORI

In summer 1951, when we moved to Sa Chon Air Base (K-4) where we had the most important occasion for our Air Force which was Operational Readiness Inspection by 5th AF. It w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our air force.

Col. Issacson, Inspector General 5th AF and his team of about 20 members came down to K-4 and conducted ORI.

Main fields of inspection were for operations, intelligence, maintenance, armament, communication, supply and personnel.

During two weeks inspection period, Col, Issacson and his team stayed closely with us. Their main points of inspections were :

- (1) mission planning
- (2) briefing
- (3) formation
- (4) navigation to the target
- (5) bombing
- (6) strafing
- (7) rocketing
- (8) return flight to the base
- (9) debriefing and analysis

5AF CG

(Comment)

As wing A-3 and Deputy Gp Co, I have learned so many things through ORI. 5th AF Commanding General stated after ORI on the comment paper, "ROK AF is capable to perform and conduct tactical air operations."

Flag Order

All of us were so much encouraged and our morale was higher than ever. Now, we were qualified to be one of a combat unit on the list of

Own Planning

Order of Battle on the 5th AF Flag Order.

We would be given independent mission and fly the mission by our own planning and members of pilots. We would be given area of battle to attack.

10th Ftr. Grp.

On October 1, 1951, our 10th fighter group moved to K-18(Kang Neung).

(K-18)

(K-18)

It took us about 10 days to be ready for combat mission. All operational procedures and operational charts, intelligence informations brought to base from 5th AF HQ. I displayed all necessary informations and flag orders on the board for the mission briefing.

OPS Function

To identify and analyze the targets, armament selection, study of enemy flak situation, flight navigation plan, emergency Rescue procedures, communication informations and selection of pilots were my most important functions for day to day operations.

I was flying the combat mission time to time when we had difficult targets.

ROKAF

Our missions were to conduct

Mission

- (1) close air support for I ROK Corps on the east frontline and central frontline of the Korean Divisions,
- (2) Pyong Yang air raid,
- (3) special missions which was to attack, special targets (such as bridge, tunnel, etc.)
- (4) rescue,
- (5) air cover
- (6) escort
- (7) air ground operation mission (Mosquito mission)
- (8) interdiction and
- (9) armed reconnaissance

- ROKAF Our bombing, strafing and rocketing were rated 90% by 5th AF.
- Rating A/C in-commission rate was about 75% and supply was adequate.
- Lt. Son Life of day fighter pilots were flexible one.
- Whisky They were allowed to leave the base after sun set.
- Smell There were enough drinking bar and dancing hall.
Some pilots always had hang overs and his wing man complained always smelled whisky from his tail of the Mustang.
- Rejoining Our pilot loss from the enemy flak was not small.
After the mission, we set area to pull out over the Won San Bay east sea, for possible sea rescue and rejoining and return to base.
- AC & SC On early December 1951, I was selected to study at Air Command
Maxwell AFB and Staff College at Maxwell AFB.
This was first education and life in USA.
That time 37 allied air force officers were in the class of 1952. I could study and learn various USAF doctrines and principles. Specially, General Billy Michael impressed me so much.
- Beautiful I still remember a few of good friends in the class.
- Sonic Boom Maj. Chuk Yeager (BG retired) and Maj. Holm, later she became chief of WAF in Pentagon.
She was beautiful.
- Fire Power My another great impression was to observe fire power demonstration of air proving ground at Eglin AFB.
- Demonstration
- ROKAF When I returned home in summer of 1952, I planned similar type of
Air Show air show demonstration with President Shyngman Ryee and government high ranking officials and 5th AF CG at present.
Ever since ROKAF air show was conducted until 1969.
During this air show, not only President, high dignitaries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and business were present but also

nearly 500,000 to 600,000 citizens of Seoul observed the demonstration.

Great
Chance

It was a great chance to make everybody understand what air force can do in a war and to get good support.

Military to
win War

My firm belief, Gentlemen, military is to demonstrate and exercise its full power against the enemy to win the war.

Good support
of Nation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make own President, government leaders and people understand their own force and their capability to get good support.

Good
trustable
ally

I had met many allied officers and we became good friends to each other at Maxwell AFB. In the future, war will not be won by alone. It would be vital matter to have good trustable and capable allied countries and their forces to defend his own country and others.

10th Ftr.
Grp. CO

December 1952, I returned to K-18(Kang Neung) as 10th fighter group commander.

Gentlemen!

Hill 351

I would like to mention one of the most difficult mission I performed. That was to destroy north Korean tunnel which was dugged under our troops position. Hill No.351 was important outpost located in frontline of I ROK Corps.

Northern parts of hill was occupied by north Korean and southern part by our troops. They were so closed to each other and exchanging hottest fighting to secure the hill No. 351 as vital important matter for holding entire frontline secured.

Tunnel
I ROK Corps

Enemy started digging tunnel from northern side of the slope toward our troops position. General Lee Hyong Gun.(CG, I ROK COTPS) and his adviser Col. Stillwell of U. S. Army, invited me to request

- our support.
- Mis-bomb It was the most difficult mission to perform because the enemy and our troops were too close to each other. It might be possible to have our ground troops mis-bombed.
- 500 LBS. But I accepted and decided to have this mission accomplished I selected good pilots of two flights.
- 2 flights
- 1 flight 500 LBS GP bomb and 5 inch rocket were selected.
- I also selected another flight with only 5 inch rocket and machine guns for enemy flak suppression.
- Mission Attacking flight approached from the enemy side to insert bombs into the mouth of the tunnel while the 3rd flight were strafing against enemy ground troops. This was against rule to approach from enemy side toward friendly troops position.
- Accomplished Mission was accomplished. Enemy troops on the northern part of hill became like flower planted on the sand.
- 10th Frt. WG March 1953. we had good news that 10th fighter group would have 75 F-51 for 3 complete SQ. We reorganized the group to 10th fighter wing according US Air Force wing base plan.
- We kept good in-commission rate and increased to 40-50 combat sorties a day with wider target area.
- Armistice day Gentlemen, I am going to talk about the day of the Armistice, July 27, 1953.
- On the last flag order, we received in the evening of July 26, the day before the armistice, 5AF CG stated, "The Armistice will be effective after sunset of July 27."
- The night for the last day We discussed about final operations for the last day of the war. Our conclusion was first to have maximum in-commissioned A/C and launch maximum combat sorties.

<p>Pilot</p> <p><u>97 Mission</u></p> <p><u>New Pilot</u></p>	<p>All members of fighter wing worked through the night except pilot. Some pilots has flown already 97 missions. He wanted to have three more missions in that day to set a record of 100 missions.</p> <p>More difficult matter was that whether of not we would allow new combat ready pilot to fly the mission.</p> <p>If they were not allowed to fly the mission, they would have no chance to be called a real combat pilot.</p> <p>After long consideration, we decided not to allow them to fly the missions, because we didn't want to see any loss at the last minutes. We launched about 160 sorties in a day.</p>
<p>No Aerial</p> <p><u>Battle</u></p>	<p>During the Korean war, our most regrettable thing was that we could not have chance of aerial battle with north Korean, because no enemies were in the sky, no birds to hunt !</p>
<p>8700</p> <p><u>Sorties</u></p>	<p>On my conclusion</p> <p>Korean AF started with L-type airplane without armament at the beginning of the war. We flew more than 8700 combat sorties, with single fighter unit.</p> <p>We, all member of ROKAF of past and present, worked hard to become a small but good modern AF, and to be a good capable and trust-able allied member force with the USAF.</p>
<p>1954. D. C</p> <p><u>Air Attache</u></p>	<p>Gentlemen !</p> <p>War was over, but we were in armistice, only we are in holding. In 1954, our two governments have come to agreement to replace F-51 with F-86F jet.</p> <p>When the President, Rhee visited Washington D. C. to meet the President Eisenhower. I was a member of discussion as air attache.</p>
<p><u>MAP Program</u></p>	<p>Large scale of MAP training program was set up in USA.</p> <p>Jet pilot training</p>

Jet mechanical training

Communication and electronics

AC & W

Advanced staff education were included

Modernization

Many of bases were modernized, runway was paved by concrete from PSP. Many technical training facilities also improved. Our pilot had more flying time.

Their gunnery rating were outstanding. All weather and night combat capability were improved. Their intercept and air defence capability were also improved according to MAP program.

Gentlemen !

F-5 Program
1965

Time has come to replace our beloved F-86. In 1965 we started to receive F-5A & B type. We kept highest records of operations and maintenance among various countries' keeping F-5.

Northrop A/C Co. has been greatly advertised by our pilot and maintenance crew. Northrop Co. should provide at least one SQ of F-5 to Korean Air Force as free.

Gentlemen !

F-4 Program
1968

Now, I am going to tell you a story Phantom Charlies, my nickname. June 1967, I was the guest of General Mc Cornnel C/S, USAF, and Dr. Harold Brown, then the Secretary of Air Force, I tried to persuade them to provide F-4 Phantom for Korean Air Force.

But I could not get a clear answer.

Mr. McDornald
St. Louis

On the way home, I had contacted to Mr. McDornald, to visit their factory in St. Louis. He was a nice gentlemen I never forget in my life. He arranged phantom flight for me for test and orientation.

I flew about one hour together with test pilot.

F-4 Flight

Take off and landing, their speed, climbing rate and high altitude manuvability were excellent. It's operational range of flight, armament capability and flexibility of combat mission impressed me tremendously. This was a kind of aircraft I was looking for and I had full confidence to persuade President Park to support us. I tried all possible channel to obtain F-4.

1968 Decision

In 1968, U. S. government decided to provide one SQ of F-4D phantom. I was proposed by many friends in US with F-104 and 105 instead of F-4 phantom.

But I stayed with my original card to have F-4.

Phantom
Charley

My good friend, General Ben Davis (USAF retired), who once was C/S in UNC in Korea, Changed my nickname as Phantom **Charlie**.
Gentlemen!

I believe to win the war in the battle of sky over north Korean Air Force we should have one step advanced aircraft than enemy.

1. 21

Finally I would like to conclude my speech today.

Pueblo

On 1968 Jan. 21, north Korean launched heavily armed, well trained commando team to assult the Blue House, the presidential residence.

US build up

Two days after, they captured US navy intelligence ship, "Pueblo".
U. S. have decided to build up both air force and Navy striking power against north Korea for possible punishment. U. S. Air Force was bringing F-100, F-102, F-105 and F-4D up to about 200 aircrafts.
U. S. Navy brought 3 aircraft carriers.

At that time Chief of Staff, Korea Air Force, I had a close coordination with General Seth McKee 5 AF CG and General Jack Ryan PACAF CG.

Base

The most difficult problem was to accommodate these number of aircrafts and provide the fuel, armaments and quarters for their crews.

10 Wings

10 Bases

These facilities would not be possible to make available in a day or month.

After the lesson, my strong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Park was to maintain good 10 fighter wings and modernize 5 existing bases and construct 5 new fighter bases.

I told him tha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e could not afford to have same numbers of aircraft as north Korea.

But we should have more numbers of base which can accommodate good numbers of aircraft at emergency time. Emergency landing strips of 8 on Seoul-Pusan Express High Way was built by my strong recommendation.

Gentlemen !

I am proud of to see Kang Neung air base(K-18) to accommodate jet fighter SQS to cover up eastern air space. That base was the place where I stayed most of the time during Korean war and conducted more than 8,000 combat sorties and the base I paid most keep attention to modernize for jet operations.

That base was named by 6146 advisory group as Charlie Air Base.

Thank you.

履歷書 (主要學歷 및 經歷)

I. 學 歷

- 1943. 12. 光州西中四年 修了 (日本陸士 入校)
- 1945. 8. 日本陸軍士官學校 (航空 第60期)
- 1948. 4. 6 大韓民國 陸軍士官學校 第五期 卒業
- 1952. 7. 美空軍大學 卒業 (指揮參謀過程)
- 1956. 7. 美空軍 제트飛行 轉換訓練過程 修了
- 1958. 6. 太平洋地區 美合同參謀大學 卒業
- 1961. 6. 國防大學院 卒業

II. 主要經歷

- 1946. 3. 羅州公立中學校 教諭
- 1948. 4. 少尉任官 第3聯隊 小隊長 (全州)
第3大隊 第10中隊 小隊長 (裡里)
- 1948. 5. 第7期 士官候補生 教育隊長
- 1948. 7. 朝鮮警備隊 航空基地司令部 轉屬 (軍需參謀補佐官)
- 1948. 9. 陸軍航空司令部 改編 基地部隊 附官兼 人事行政處長
- 1948. 10. 陸軍中尉 進級, 飛行部隊 轉屬 (第2中隊: 飛行訓練 (L-4))
- 1948. 11. 麗順反亂事件 討伐作戰 參加 (全州, 南原, 光州)
- 1949. 3. 陸軍大尉 進級 南韓 全域 共匪討伐作戰 參加 各種 連絡飛行任務 (甕津·嶺南地區)
- 1949. 4. L-5機種轉換
- 1949. 4. 陸軍參謀大學 入校 (龍山)
- 1949. 10. 1. 空軍分離獨立, 空軍本部 作戰局長

1950. 初 T-6機 導入命名式 主管 月刊「空軍」誌 創刊号 發刊
1950. 6. 25 北傀軍 全面南侵 作戰局長 復歸, 作戰指揮 L-4, L-5, T-6 國產 爆彈 (30kg) 投下 對戰車
1950. 6. 28 MacArther 元帥一行 案内(水原基地 → 陸軍本部) (空襲 當함)
1950. 6. 28. 汽車로 水原撤収 → 大田(女學校建物) 移動
1950. 6. 29~7. 6 解散部隊 集収再編
1950. 7. 8. 第1戰團飛行團(大邱)轉屬(作戰處長:戰團參加)(T-6機種 轉換)
1950. 7. 下旬 第1戰團飛行團 鎮海基地로 移動
1950. 9. 金海基地 F-51派遣隊長
1950. 10. 第1戰團飛行團 全員 K-16(汝矣島) 前進, F-51出擊(평양等地)
1950. 10. 第1戰團飛行團 平壤 進駐(美林基地)江界方面 出擊
1950. 12. 平壤撤収, 서울·大田 經由 濟州基地 後退 訓練繼續
1951. 1. 最初로 計器飛行訓練次 日本 豊岡, Jonson Air Base(美5空軍基地) 駐在
1951. 6. 第1戰團飛行團 慶南 泗川 基地 移動
1951. 8. 智異山 残留人民軍 掃蕩作戰 遂行 總 280回 出擊(全部隊)(作戰期間中 海印寺 爆擊中止로 八萬大藏經 安全保安)
1951. 9. 美 第5空軍司令官의 ORI 受檢(單獨作戰能力 確認받음)
1951. 10. 1. 第1戰團飛行團 第10戰團飛行戰隊(F-51) 江陵基地 展開(單獨作戰 開始)
1951. 12~1952. 7. 美空軍大學 留學
1952. 8. 第1戰團飛行團 作戰參謀
1952. 10. 第一次 空軍火力展示會(泗川)(計劃·實施 主管)(第1回 Air Show: 李大統領, 美5空軍司令官, UNCURK 代表團, 政府高位層 參席)
1952. 12. 第10戰團飛行團 戰隊長(江陵基地 引受: F-51)
1953. 12. 空軍 第10戰團飛行團長(江陵基地: F-51)
1954. 6. 駐美 韓國大使官 空軍武官(워싱턴) (映畫 “戰頌歌(Battle Hymn)” 製作 技術 顧問)
1954. 7. 第1次 空軍關係 韓·美空軍會談 參席(워싱턴) 李承晚 大統領 訪美使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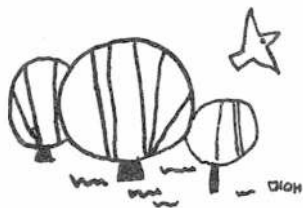
- 团(F-86F機種 導入: 金貞烈將軍, 張盛煥 將軍, 張志良 大領)
1956. 9. 空軍本部 作戰局長
1958. 6. 太平洋地区 自由陣營 空軍戰鬪作戰討論大会 韓國空軍 代表
1958. 8. 空軍 第11戰鬪飛行團長(金浦基地 創設: F-86F)
1959. 9. 空軍准將 進級
1961. 5. 大韓重石鋳業株式会社 社長(5.16 直後)
1962. 8. 空軍作戰參謀副長(軍復歸)
1962. 11. 空軍少將 進級
1963. 6. 空軍參謀次長
1962. 10. 大韓배드민턴 協會會長
1964. 1. 空軍士官學校 校長
1964. 6. 韓國軍事停戰委員會 韓國側 首席代表(自由의 집 建立)
1964. 8. 空軍參謀次長
1966. 8~1968. 8 空軍參謀總長 同時 空軍中將 進級
1968. 12. 行政改革委員會 副委員長(長官級)
1969. 7. 駐 Ethiopia 特命全權大使
1972. 10. 第28次 U.N總會 代表 參席
1973. 4. 駐 Philippine 共和國 特命全權大使
1976. 4. 駐 Denmark 王國 特命全權大使
1978. 12~1980. 3 第10代 國會議員(第3期 維政會)
- 國防委 所屬
 - 韓·日議員聯盟
 - 韓·日議員安保協議會 幹事
 - 韓·美議員安保協議會 幹事
1979. 5. 大韓體育會 副會長
1979. 5. 大統領特使로 6 個國 巡訪(英國, 仏蘭西, 和蘭, 白耳, 西獨, 노르웨이 王國)
1979. 12. 韓·日議員安保協議會 參席(日本東京)
- (主題發表: 韓半島의 軍事情勢)

1980. 1. 韓·美安保協議會(議員) 再開準備次 訪美(國務, 國防省 및 國會兩院
訪問 協議)
1980. 4. 空軍보라매會 會長(空軍予備役將校會) (現)
1980. 6. 서울칸트리俱樂部 理事
1981. 10. 高麗煙草加工株式會社 社長(現)
1982. 10. 韓·美修交 百週年記念 對美 大統領特使團 訪美
1983. 4. 韓·比親善協會 會長(現)
1983. 9. 韓國 U.N協會 理事(現)
1984. 2. 서울칸트리俱樂部 理事 再選(現 副理事長)
1985. 1. 韓·美親善協會 理事(現)
1986. 6. 韓·日協力委員會 常任理事(現)
1986. 12. 大韓골프協會 理事兼 競技委員長(現)
1987. 3. 서울올림픽大會 凡民族推進委員會 中央委員(現)

III. 勳 章

1951. 3. 銀星忠武武功勳章
1951. 9. 銀星忠武武功勳章
1952. 5. 金星忠武武功勳章
1952. 6. 共匪討伐記章
1952. 10. 金星忠武武功勳章
1953. 5. 乙支武功勳章(351高地作戰)
1954. 4. 美國 銅星勳章(351高地作戰)
1956. 6. 美國 功勞勳章(空軍武官)
1965. 9. 美國 功勞勳章(板門店 首席代表)
1967. 1. 中國 大수운휘 勳章
1967. 1. 越南 第2等国家最高勳章
1967. 7. 美國 指揮功勞勳章(參謀總長)
1967. 10. 二等保國勳章

1968. 8. 一等保国勳章
1976. 5. 비올빈共和国 一等修交勳章
1976. 9. 修交勳章 흥인장(175号)
1979. 1. 덴마크 大十字勳章



現代戰에서 空軍의 力割



정 재 명

(소령·공군본부)

1. 서 언

지금부터 7년 전 중동전이 상호 공방전으로 싹틈없는 일정을 되풀이 해가는 즈음,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만의 독점이라 할 수 있었던 핵무기 개발시설이 이락의 파므즈에 건설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스라엘은 이를 파괴하는 것이 자국의 생존권 확대를 보장하는 일이고, 전쟁억제력 확보의 관건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영화줄거리 상으로 볼듯한 기발한 기습작전을 시도하게 된다.

바빌론작전이란 명칭을 가진 이 계획은 베긴수상과 공군사령관, 정보국장의 합작품이다. 이들은 우선 2, 3, 4차 중동전에서 명성을 남긴 에이스급의 노련한 조종사들을 선발하여 극비리에 이락의 파므즈에 있는 원자로와 같은 모형의 모의 목표물을 제작,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철저한 섬멸작전을 준비하게 된다. 1981년 6월 7일 바로 그날 D-Day, 6대의 F-15와 8대의 F-16이 그동안 갖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 적진을 향하게 된다. 이 때 F-16은 작전수행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공격기였고 F-15는 최선에 전자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로서 엄호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970NM을 비행해야 오시락 원자로가 있는 파므즈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 편대들은 평소 훈련했던 기량

을 유감없이 발휘 서로의 날개가 닿을듯 말듯한 아슬아슬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한 덩어리가 되어 그것도 적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저고도로 공격하게 된다.

이스라엘을 출발 요르단을 가로질러 사우디 서북부의 사막지대를 비행하는데 당연히 이 코스는 방공망 취약지역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계획된 코스였다. 이륙한지 90분 만인 오후 6시 37분에 이들 이스라엘 특공편대는 파므즈의 오시락원자로 상공에서 힘차게 솟구쳐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할 만한 기교로 원자로 중앙건물을 향해 16톤의 폭탄을 단 한 발의 실수도 없이 1 pass로 명중시키게 된다.

이로써 건물지하 12ft에 있는 플루토늄 재생처리 장치 등 핵개발시설의 핵심부를 완파, 신출귀몰의 바빌론작전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아울러 귀환하는 과정도 멋진 작품이었는데, F-15, F-16 양 기종은 공습작전 완료 후 요르단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고고도로 귀환하면서 때맞춰 기다리고 있던 공중급유기로부터 충분한 양의 연료를 재보급받음으로써 행동반경이라는 굴레로 제한되었던 전투기들의 한계를 극복해 낸 우수작으로 작품을 끝마치게 된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소개한 이스라엘의 오시락공습은 현대전의 특색을 고루 갖춘 국

지전의 한 예로서 작전과정에 있어서나 작전수행 후 거둔 효과면에서 볼 때 현대전에서의 공군력 역할을 충분히 인식시킨 전례가 된다 하겠다.

그럼 최근 현대전의 특성 및 양상을 살펴 보면서 공군력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현대전의 양상

앞에서 예로 들은 오시락원자로 공습에는 현대전의 다양한 양상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 그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전상 발휘할 수 있는 고도의 융통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가변상황하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변상황이란 주로 야간, 악천후와 같은 공군작전상의 저해상황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최근의 고성능·고정밀 첨단기재의 등장으로 인해 이러한 시공간적 저해요인들은 극복이 가능해졌고, 오시락원자로 공습경우와 리비아 공습시 성공적인 야간작전 수행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투기들이 통상 체공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따라서 작전수행에 있어 행동반경이 한정되었지만, 적당한 시기에 공중급유기를 통하여 연료를 재보급받으므로 장거리,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게 되니 행동반

경이 작전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되는 등 장거리 전천후 작전수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 최근 현대전의 양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시공을 초월한 작전능력 구비와 함께 특징지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정밀전자전 장비의 각축장화를 들 수 있다. 보는 사람들이 탄복할 정도의 오시락 원자로 공습은 숙련된 조종사들의 반복된 훈련 결과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밀전투능력이 구비된 F-16과 같은 전투기의 개발, 활용이 뒷받침되었다 할 수 있다.

8대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폭탄이 단 1발의 착오도 없이 명중되었다는 것은 최근의 정밀무기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밀성은 현대의 국지전 양상 안에서 작전목표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하는 배려를 또한 가능케 한 것이며, 심지어는 리비아 공습의 경우 국가원수 관저에 대한 폭격마저 가능케 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의 공군 작전수행에 있어 전자전과 정보전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오시락원자로 공습에도 미국의 AWACS 기가 사우디 동부 페르시아만 연안을 초계비행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각종 전황정보를 이스라엘측이 제공한 바 있는데, 이는 적의 공격 및 반격징후의 판단을 가능케 하고 또 긴급한 사태발생시 적의 전자전장비를 교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중, 지상, 해상을 망라한 적활동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은 전격기습의 전술이 통용되고 있는 최근 현대전에서 전력의 집중, 분산, 상황통제를 위한 중대의사 결정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은 속전속결의 전쟁이고 속도와 기동성, 침투성과 파괴성 그리고 융통성을 요구하므로 이에 부합될 수 있는 전력요소로서의 공군력 점유율이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3. 현대전과 공군력의 역할

○ 미국의 리비아공습

이 작전은 리비아의 테러행위에 대한 미국의 보복책으로서 카다피의 숙소를 중심으로 한 리비아의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월남전 이래 미국의 최대규모의 공군작전으로서 24대의 F-111과 14대의 A-6E 등 10여 기종의 항공기가 참가한 장거리 야간 기습작전이다. 특히 이공습작전은 고도의 야간정밀항법장비와 최신정밀레이저 유도무기를 보유한 항공기와 장거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28대의 급유기를 포함 총 120여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대규모작전이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8대의 F-111이 목표까지 비행하는 동안 28대의 급유기로부터

4 회의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5 시간 동안이나 비행이 가능하여 목표지역까지 접근이 순조로웠으며, 첨단장비를 활용 정확한 야간기습공격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의 공군작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야간기습공격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긴 전례이며, 특히 장거리 저공접근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히 폭격함으로써 시공의 초월과 정확성을 크게 입증한 사례가 되었으며 또한 미래의 전자전 양상을 제시한 이 공습작전이야말로 현대전에서 공군력 역할의 중요성을 실감케 해준 작전이라 할 수 있다.

○ 포클란드 전쟁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포클란드군도의 영유권 쟁탈전인 이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무력침공으로 발발된다. 이 전쟁에서 영국의 전쟁목표는 아르헨티나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영국함대의 안전을 위한 제공, 제해권 장악과 본토에서 8,000 마일이나 떨어진 포클란드군도에서의 전쟁수행에 따른 병참선 지원문제와 전쟁이 장기화되면 겨울철 악기상으로 인한 작전제한이 예상되므로 단기속결전을 치루는 것이 영국의 주요목표이며,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이 군도탈환을 위해 기동함대를 동원 총공세를 가하자 이에 대비한 포클란드군도

의 필사적인 사수나 제공권 장악을 위한 항공모함 격침을 주목표로 삼는다.

양측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호 공방전을 벌이지만 핵잠수함과 해리어기 등 질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구비한 영국이 부족한 전쟁물자와 전력운용이 미숙한 아르헨티나를 효율적인 작전운용 및 적절한 지휘통제로 병참선을 차단하여 포클란드군도에 아르헨티나 지상군을 고립시키므로 결국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된다.

이 전쟁에서 영국 공군의 역할은 절대적인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영국기동함대에 대한 공중엄호역할을 수행했으며, 또한 입체작전에 의한 속전속결전으로 승리하기 위해 효과적인 작전지원 및 병참지원을 위한 공중교량역할도 주요역할로 들 수 있다. 결국 이 포클란드전쟁도 공군력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시켜준 전쟁이라 할 수 있다.

○ 이란·이라크전

빈번한 국경분쟁과 인종, 종교적 대립으로 인해 야기된 이란, 이라크전에서 이라크는 개전 초 공군력을 이용하여 이란의 10개 공군기지과 조기경보레이다기지 등 주요 후방차단 목표물에 시도했으나 공군전략의 착오로 항공기보다 활주로 파괴에만 주력하였고, 공중공격시 정확도 결여와 부정확한 정보 판단으로 인해 이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

지 못함으로써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게 된다.

반면 이란공군의 반격작전은 공습 2 시간 후부터 개시되어 이라크의 주요 항공기지와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였으나 결정적인 타격은 입히지 못한다.

근접지원 및 후방차단작전에 공군력이 사용되지 않는 등 양측이 공히 공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전황은 큰 변화없이 쌍방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면서 지구전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전에 있어 선도적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군력 역할을 경시한 이라크는 이란의 전의를 상실케 할 수 있는 제공권 장악을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장기소모전이란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 오시락원자로 공습

앞서 장황하게 소개된 이스라엘 공군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공군력에 의해 수행되었던 정치적, 전략적 목적에 대한 공지전의 한 예로서, 여기서는 효율적인 공군력 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방위정책을 간단히 언급해 보려 한다.

이스라엘은 지리적 여건상 중심이 극히 짧아, 이에 따른 전략적 중심구축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전쟁은 적지에서, 기습을 대비한 속전속결전으로서 전술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선수반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정보망을 구축, 결정적 시기에 전면기습을 감행해야 만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전략요소로서 공군력에 대한 최우선국방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따른 차별한 공군교리를 수립하고 있다. 결국 오시락원자로 공습은 최신 항공무기체계에 의한 전형적인 공군작전으로 현대전에서 공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신속성 정밀성을 갖추었고 아울러 정치적, 전략적 여건 등을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효과적인 작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언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현대전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전에서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전쟁의 승리는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속전속결의 원칙하에서 초전단계에서 항공우세 획득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의 주요목표에 대한 공격시 전과를 확대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최신에 항공무기체계의 확보와 주요군 지휘관의 현대전 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시공을 초월하는 공군력을 활용한다면 유리한 작전수행으로 승리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리적 여건상 필연적으로 공

군력이 강화되고 전술교리가 발전된 것 처럼 한반도의 경우도 지리적 여건이 이스라엘처럼 중심이 좁아 신속성, 기동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초기 반격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적의 기습공격에 대비한 공중조기 경보체제 확보 및 정보판단능력의 신장이 필수적이며 또한 공세적 항공전력 확보운영과 한반도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전

술교리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전을 주도하는 것은 공군력이며 공중전에서 패하는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또한 공군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역량이 우위에 있을 때만 적의 전쟁수행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직시할 때 공군력의 정책적 육성은 더한층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무기체계의 발전방향

1. 서 론

무기체제란 전략이나 군사력 증강계획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서 한 나라의 무기체제는 그 나라에 주어지는 전략환경(위협, 우방 등 주변국가와의 역학관계)과 이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책(군사전략 및 협력관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무기체제는 대미 의존적 면이 많았으나 장차 단독적인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군사과학기술 및 무기체제 발전추세에 대해 고찰하여 보고 우리의 무기체제 발전방향 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무기체제 발달의 역사

고대로부터 현재의 전략방어무기체제(SD I)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무기체제의 발달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4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단계는 칼과 창, 방패와 활 등 인간의 육체적 힘에 의하여 싸웠던 14C 이전까지의 완력의 시대이며, 2 단계는 화약이 발명되면서부터 초기의 소총과 화포 및 구형탄환이 위력을 발휘하였던 14C에서 18C까지의 초기 화약이용의 시대이다. 3 단계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에따라 기계제작

박 점 조

(소령·공군본부)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연발소총, 기관총, 화포, 전차, 비행기 등이 출현된 18C에서 제 2차 세계대전까지의 근대적 화기가 전쟁을 지배하게 된 시대이며, 마지막으로 4단계는 현재까지 가공할 핵의 위협 및 각종 유도무기들이 등장하는 고도의 군사과학시대이다.

무기체계 발달과정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의 추월적 경쟁과정이었음을 들 수 있다. 즉, 하나의 위력있는 무기가 발달되면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곧 이를 방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무기나 방책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위력있는 무기가 발달하면 전략, 전술도 따라서 변화되는 경향으로써 화포의 발달에 따라 성벽에 의한 방어전술이 빛을 잃고, 중세의 기사계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또한 연발총의 발명으로 중세나 미국 남북전쟁까지 애용되었던 일렬횡대의 돌격전술이 소멸되고 기관총의 등장으로 전쟁은 참호전과 지구전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전차가 출현되었던 것이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전쟁의 총력전 개념이 도입되고 정보전달과 대량정보처리의 수단이 혁신을 가져 온 정보화사회가 전개되면서 전략, 전술과 무기체계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한 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전략, 전술과 무기체계 중 한쪽이 변한다면 다른 한쪽도 따라 변하는 상호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무기체계를 고려할 때에는 전략, 전술도 함께 고려하여야 된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

3. 군사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발전추세

가. 군사과학기술

장래(2000년대)의 과학기술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지금까지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내용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신소재 분야로서 모든 기동장비의 엔진 출력이나 장갑(裝甲)의 강도를 높이고 내열성이 강하며 경량화할 수 있는 세라믹스와, 섬유강화복합재료로서 장차 Hel 기나 V/stol, 유도탄류 등에 사용될 것이며, 보이지 않는 기체 제작의 Stealth 재료 또한 미래무기의 혁명이 예상되고 새로운 Radar의 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자광학기술분야

정보전달의 대량화와 보안성 유지문제를 해결해 줄 광섬유와, 정밀유도 문제¹⁾를 해결할 수 있는 Laser-Beam, SADARM이나

SFF²⁾탄 등으로 실용화되고 있는 밀리미터 파 등은 미래전쟁을 결정지을 고도의 기술이다.

세째, 컴퓨터

VLSIC³⁾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용량고속화가 가능한 조셉슨소자의 개발로 소형이면서도 대용량화된 5세대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며, 이로써 전장의 자동화를 달성하고 유도무기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네째, 유도기술

적외선, Laser, 밀리미터파 등의 정밀유도기술은 이미 Maverick, Hellfire, Persing II, 공대지 대전차용 SADARM, STAFF와 같은 무기에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도기술은 탄에 요구되는 정확성을만

족시시키고 안전파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2차대전 이후 재래식 무기분야의 최대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살펴 보았는데 더 부가할 내용은 기후의 변화나 지진과 같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무기라는 가공할 기술이 부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선진국에서는 10ton 내외의 전술핵이 출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략, 전술에서 전술핵 정도는 필요시 전쟁에서 언제나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소련의 교리와 전술의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북괴가 2000년경에는 핵 제조 기술을 충분히 갖게 되리라는 사실에 우리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과학기술의 발전도

연대	구분	에너지	재료	반도체	컴퓨터	정보
'50		석유화학	플라스틱	TR	계산기	
'60		원자력	고분자	IC	미니컴퓨터	BATCH처리
'70		"	복합	MICRO-PROCESSOR	MICRO 컴퓨터	ONLINE처리
'80		태양에너지	FINE 세라믹	고속집적회로 (VHSIC)	소형컴퓨터 (PERSONAL-CO')	대형 분산처리
'90		핵융합에너지	C-1	신기능소자	SUPER-COM'	대용량 자료회선
21세기			생체기능소자		제 5 세대 컴퓨터	

나. 무기체계 발전추세

군사과학기술의 발달로 지상군은 전천후 및 대구경화, 다양한 탄종 사용, 사격통제장치의 자동화 및 유도기술의 발달로 인한 명중률 향상 등은 장차전에 있어서 능력을 지금까지의 지역제압무기로부터 점포적 제압무기로 영역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신소재를 이용하여 제작된 기동화 장비인 전차, 장갑차 및 헬기 등은 현저한 기동력 향상과 더불어 NBC 방호가 될 것이다. 또한 Stealth가 이루어지고 지상항법장치의 개발로 어떠한 지역에서도 작전에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해상전력은 수상함의 Radar 개선, Hel기 또는 V/STOL의 탑재로 조기경보능력을 향상시키고 함 내의 자동화로 유도무기의 반응시간 단축과 명중률 향상을 도모하여 공격 및 방어능력이 현저하게 강화될 것이다. 잠수함은 3,000Ton급 이상의 대형화와 고속화가 이루어지고 어뢰, 기뢰 등 해상무기뿐만 아니라 지상공격무기로서도 널리 이용될 것이다.

앞으로 해상무기의 발전은 함대공, 함대함 등 유도무기가 주종을 이룰 것이며, 사거리 연장, Sea Skimming 및 Pop up 등의 공격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공군은 신소재의 사용으로 전폭기는 경량화되고 Computer를이

용한 Fly-by-Wire 조종법의 도입으로 안전성과 기동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대지상레이다 장비와 FLIR(야간 전방 적외선 감시장비) 등 무장전자장비의 성능 개선으로 전폭기의 성능향상이 이루어지고 Stealth화로 기체의 생존성을 높일 것이며 지상의 도움없이 부여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항공무기는 공대지, 공대공 유도무기가 주종을 이룰 것이며, 사거리 증대와 유도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원거리 공격과 명중률 향상을 도모하리라 예상된다. 지상공격용으로서 소군탄개념인 MW-1, LADS (저고도 확산탄) 등의 항공폭탄이 표적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될 것이다.

장차의 전쟁에서 표적의 획득과 전장 감시분야는 레이다, 정찰기, 첩보위성, RPV, 열상장비 등 센서들의 연합체제로 되어 실시간작전 운용을 함으로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표적의 감시 및 추적을 동시에 실시하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구상 중인 전략방위구상(SDI)도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전은 장차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며, ESM, ECM, ECCM 등의 전자전 및 대전자전은 RPV, 항공기, 차량, 인공위성 등 다양한 탑재수단에 의하여 수행되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컴퓨터는 통제 및 운영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게 될 것이다. 장래의 전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분야는 지휘 및 통신수단이다. 격자통신망의 구성으로 적의 방해수단에 의한 재래식 통신망의 약점을 보완할 것이며 대대/연대와 같은 말단부대에서부터 전략사령부까지의 자동화 지휘망의 연결운영이 가능하며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비화 및 통신 보안능력의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화생학전 분야에 있어서 첨단을 걷고 있는 국가는 소련이다. 그 뒤를 이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생화학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작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작용형태가 다양한 이원화학탄과 독소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화생학무기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기습의 달성과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무기로서 많은 나라가 이를 급하는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게 될 것이다.

다.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미래전의 양상

신소재의 개발로 인한 보이지 않는 기체 제작의 Stealth화, 고도의 전자광학기술을 이용한 Laser무기 출현 및 5세대 컴퓨터 개발로 전장의 자동화와 유도기술의 발전에 따른 명중률 향상 등 군사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기출현으로 미래전의 양상은 급변할 것이다.

미래전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 즉 정치, 외교, 심리, 정보, 사상, 선전을 통한 간접 침략의 세력팽창으로 시작하여 각종 인공위성을 이용한 상대국의 동정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위성무기를 하나, 둘 파괴하여 상대국의 우주무기 통제능력을 판단한 다음 전략, 전술 위성통신체계의 무효와 모든 레이더 기만 및 교란 이후 전술공군 또는 전술 미사일로 군사목표를 기습하고 항공전력이 주축이 된 대규모 기습적 침공 실시와 더불어 전술핵 무기인 중성자탄을 사용함으로써 핵전쟁에 돌입, ICBM 및 SLBM 등 모든 가용한 핵무기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종국에는 파멸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4. 공군의 항공무기체계 발전 방향

가. 항공무기체계의 개념

(1) 항공력

일반적으로 항공력은 공군력의 의미로 쓰이기는 하지만 항공력은 한 국가에 존재하는 항공관계의 총체적인 힘으로서 군사, 상업, 사기업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현재 및 잠재적인 포괄적 국가항공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항공력이란 3군의 부대 및 지원시설, 국영 및 민간항공, 연구개발 등의 항공

분야에 관련된 분야를 포함한다.

(2) 공군력

공군력이란 항공력 중 공군의 군사적 분야 즉 공중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군의 병력, 장비, 시설로 구성된 군사력을 말하며, 이에에는 유형, 무형의 제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3) 항공무기체계

항공무기체계는 항공기(유인, 무인) 전술 유도탄 및 인공위성을 포함하여 대기권 및 우주공간의 모든 비행물체와 관련하여 특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유지, 보관하는데 수반되는 제반 시설, 전투장비 및 무장, 보조지원장비 보급물자 그리고 일정 수준의 기술 및 교육과 그것을 조작 운영하는 인적자원을 총 망라한 것이다.

나. 항공무기체계의 발전방향

(1) 공세위주의 작전능력 구비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한 미공군의 철수 가능성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대비, 한국 공군 단독의 자주적 억제력을 건설하기 위하여 특수작전 수행능력인 전자전, 대공제압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공지전투개념에 의하여 공세위주의 대량화력 운반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총체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전력증강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된 전력으로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공군력은 전투력, 전투지원능력, 근무지원능력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전력증강에 따른 소요인력을 보충, 편성하여 하나의 전력단위로서 기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질과 양의 유기적 조화

전사를 통하여 볼 때 질적인 요소는 단기적인 속도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적인 우세는 장기전에서 효과를 발휘하였다. 군사력의 건설은 질적인 정예성이 필연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양적 조화가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즉 양적인 면에서 복귀의 일방적인 우위를 허용한다면 아무리 질적으로 정예화된 전력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과학전이 될 미래의 전장 환경 특성과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질 위주로 전력을 증강하되 대량 소모전에 대비하고 기술적 우위의 한계성을 감안, 양적 적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신·구 복합 무기체계(Hi-Lo-Mix)를 유지하여 자원절약형의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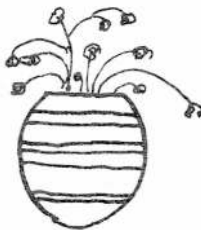
우리공군의 역사는 1947년 육군항공대로

발족한 이래 40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력이 승전의 관건임을 생각할 때 공군력 운용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 요구와 고가인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운용 또한 중요한 요소로서 제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나 가장 시급한 점은 장차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군·관·민이 공동으로 항공산업을 육성시켜, 장래 세계혈강의 전략. 전술과 북괴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항공무기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공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註 解

- 1) SADARM : Sense & Destroy Armor Munition
- 2) SFF : Self-Forging Fragment
- 3) VLSIC :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특	별
기	고

바람직한 人生의 길

朴 鍾 浩
(清州大 教授)

I. 머릿말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歲月동안 人生이라는 삶을 영위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限時的인 存在이다. 오랫동안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도 있다. 더구나 빈 손으로 왔다 빈 손으로 가는(空手來 空手去) 虛無한 存在이기도 하다. 그래서 人間들은 곧잘 彷徨을 하게 된다. 특히 現代와 같이 轉換期를 살아 가는 人間들은 더욱 그렇다. 자 꼬마리뎡의 말과 같이 大海에서 키를 잃은 배와 같이 方向性을 잃고 漂流하고 있다. 삶의 指標를 잡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人生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價值觀의 不在, 또는 廢墟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人生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基準, 價值觀이 定立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價值觀이 定立되지 못한 人生은 香氣없는 꽃과 같다. 存在해 있으나 生命이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價值觀은 人生에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指標가 된다. 人生의 길이고 方向이다. 이러한 價值觀은 어디까지나 人間の 本質에 맞는 人間다운 價值觀이어야 한다.

II. 人間の 意味

人間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의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人間마다 각기 다른 性

格(Persona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人間이란 感性과 理性을 가지고 思考하며 道德을 가지고 사는 動物로 정의된다. 感性을 가졌기에 眞·善·美를 追求하고, 理性을 가졌기에 合理的이며, 思考할 줄 알기에 自我概念이 重視되고, 道德을 지키며 살기에 尊嚴할 수 있는 存在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人間은 思考하는 存在라는 점이다. 이것은, 人間은 事物 事象에 대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判斷할 수 있는 能力과 自由意志(神性)를 가지고 自我를 形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人間을 本能+ α 라는 公理에서 볼 때 α 에 해당하는 要素이다. α 란 곧 精神을 말한다.

人間이 가진 精神은 無限하고 絶對的인 것이다. 独逸의 有名한 詩人인 쉴러가 말했듯이, 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 닿을 수 없지만 精神은 능히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人間을 精神的 自我概念의 틀(Scheme)에 비추어 본 視角으로, 人間을 自然論的 人間觀, 精神論的 人間觀, 実存論的 人間觀으로 나눌 때 精神論的 人間觀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된다. 精神論的 人間觀은, 世界는 觀念의 所産이거나 적어도 觀念化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人間은 自己를 自覺하는 精神的 主体로 보는 觀點이다.

이렇듯 人間은 精神的 存在이다. 精神에 따라 얼마든지 人間의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大人과 小人, 人格者와 非人格者,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등은 人間의 精神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즉, 精神은 사람됨됨의 尺度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은 바로 良心(Conscience)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良心이란 어원상 '함께 안다'는 의미를 가진 用語로, 사물의 善惡을 구별하여 악을 피하고 선을 취하려고 하는 道德的 判斷을 뜻한다. 眞實과 통하고, 참을 상징한다. 양심을 가리켜 神의 권위에서 비롯된 神의 命令이라고 해석한 神學者들의 말처럼, 情熱이 肉身의 소리라면 良心은 靈魂의 소리이기도 하다.

Ⅲ. 價 值 觀

흔히 人生은 엄숙한 選擇의 廣場으로 표현된다. 그렇다. 人間의 삶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어느 大學 어느 學科를 선택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어느 兵科에의 入隊, 職業, 配偶者, 各種 社會團體, 價値觀의 選擇 등 크고작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중 職業, 配偶者, 價値觀의 선택을 人生의 三大選擇이라 보고, 이 중에서도 價値觀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대상으로 삼는다.

人間이 삶을 영위하는 指標로서의 價値觀 또는 人生觀은,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有名한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피타고라스의 말처럼 '人生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이다. 하나밖에 없는(唯一性) 목숨과 한 번뿐인 生涯(一回性)를 어떻게 살아야 人間답게 사는 것인가의 産標이다. 人間은 어떤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그 價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價值觀에 따라 사는 사람은 幸福한 人生으로, 비록 60 平生을 살아도 600年 以上の 人生을 영위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올바르지 못한 價值觀으로 사는 사람은 不幸한 人生으로 6年의 人生도 영위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올바른 價值觀이란 人間の 本質에 맞는 삶의 基準을 말한다.

孟子的 性善說에 따라 살겠다는 삶의 기준이고, 人類的 次元에서 이웃과 함께 살겠다는 기준이며 義와 道理에 살겠다는 삶의 基準을 뜻한다.

아무리 훌륭한 大學을 卒業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社會的 地位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價值觀다운 價值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 人生은 아무 意味도 없는 것이 된다.

이러한 意味를 가지는 價值觀은 物質志向的 價值觀과 精神志向的 價值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精神志向的 價值觀은 行爲價值志向的 價值觀과 結果價值志向的 價值觀으로 分類될 수 있다. 前者 즉, 行爲價值志向的 價值觀은 人間 삶의 行脚에 있어서 結果가 어떻게 나오든 行爲自体가 바로고 정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의 말처럼, 삶의 영위에 있어서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行爲自体나 과정을 중시하는 價值이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밤늦도록 공부하는 행위이고, 비록 自記部隊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他部隊로 돌아갈 配分을 가로채지 않는 行爲이다. 이에 비하여, 후자는 行爲自体나 過程이야 어떻든 結果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價值觀이다. 手段과 方法의 正当性 如否를 따지지 않고 목적달성에만 焦點을 두는 行爲이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어떤 方法이든 동원하는 행위이고, 他部隊야 어떻든 自己部隊의 利益만을 취하려는 行爲이다.

IV. 바람직한 人生의 길

限時的인 存在인 人間の 바람직한 人生, 人間답게 사는 人生은 어떤 것인가. 환언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人生의 길인가의 문제는 人間에게 주어진 절실하면서도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論及한 人間の 意味와 價值觀의 視角을 前提로 하여 다음과 같은 探索을 試圖할 수 있다.

1. 行爲價值志向的 人生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人間 삶의 기준을 行爲志向的 價值觀과 結果志向的 價值觀으로 구분할 때, 바람직한 人生을 위해 志向하여야 할 價值觀은 두말할 것 없이 行爲價值를 志

向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은 아무리 큰 利益이 눈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人間으로서 취할 길이 아니면 이를 과감히 물리치고 정정당당하고 뚝뚝한 길, 大道를 걸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다운 행위이고 길이다. 사람이 사는 價值이다. 또한 人間이 가장 값지게 평가될 수 있는 가치이고, 자기자신을 구하고 발전시키는 길이다. 즉 人間은 「된사람」으로 살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된사람이란 양심을 가지고 正直하고 公明正大하게 사는 사람, 곧 人格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비록 知識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또한 權力, 돈, 名譽를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한 알의 곡식을 위해 김을 매고 거름을 주며, 온갖 정성을 바치는 사람이다.

現代와 같이 物質文明이 고도로 발달된 세상에는 참 人生의 길인 행위가치지향을 외면하고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확천금이나 입신양명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길은 결코 人間の 길이 아니다. 모름지기 人生의 價值를 행위에 두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人生의 길이다.

2. 召命을 自覺하고 使命에 사는 人生

人間은 一生동안에 5 번이나 誕生한다고 한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첫번째 탄생이고, 사랑을 알게 된 것이 그 두번째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세번째이고, 죽음앞에서의 人生에 대한 관조가 네번째이며, 召命을 自覺하고 使命을 다짐하는 것이 마지막 탄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人間이 다섯번 탄생한다는 것은, 人間은 비록 唯一性和 一回性的 存在이지만 自由意志를 가진 精神的인 存在이기에 自覺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出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人間の 5 번 탄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人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召命을 自覺하고 使命에 사는 가치지향이다. 이것은 바로 宿命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宿命이란 날 때부터 타고난 피할 수 없는 人間の 八字를 말한다. 人間은 태어나면서부터 각기 갈 길이 定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자리한 곳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도 모두 태어날 때 決定되어진 신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宿命觀을 인정할 것이냐의 如否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合理性이나 科學性에서 볼 때 宿命觀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배척된다. 또한 人間은 다른 動物과 달리 自由意志를 가졌다는 事實에서 볼 때도 받아들일 틈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人間은 더할 나위없이 오묘한 存在라는 점과 우주의 무한성과 조화성의 측면에서

神의 存在를 의식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사실로서 인정하게 된다. 즉, 人間은 무엇인가의 攝理에 의하여 태어났고 나름대로 絶對者인 神이 定해 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필자도 이 見解 속에 살고 있다. 宿命을 받아들여자는 의견이다. 여기서 注目할 점은, 宿命을 받아들이는 것은 運命의 길로 가기 위해서라는 点이다. 運命이란 宿命을 運轉한다는 뜻을 갖는다. 運轉한다는 것은 開拓하고 發展시킨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運命의 길로 간다는 것은 自己自身을 보다 發展시키는 人生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宿命을 運命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人間은 宿命觀을 수용하되 召命을 自覺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使命을 다짐하는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召命이란 神의 부름,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使命이란 맡겨진 임무를 말한다. 내가 태어난 것도, 부모님과 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나의 직장도 모두 神의 뜻이라고 믿고(소명),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다짐하고 실천하여야 한다(사명)는 시각이다. 召命을 자각하고 사명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삶을 윤나게 하는 길이다. 바로 自由意志의 영역이다.

또한 이것은 만남의 哲學으로 사는 길이기도 하다. 人間은 一生동안 무수한 만남 속에서 살게 된다. 친구, 학문, 스승, 자신, 신, 자연 等과 만나게 된다. 佛家에서 말하는 '웃것을 스쳐도 因緣이다'는 視角에서 볼 때 이들과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世界 50億 人口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인연이고, 그 많은 대상 중에서 나의 思考영역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접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들과의 만남은 그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겠는가.

인간은 이러한 만남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人生을 살아야 한다. 만남 하나하나를 값지게 하여야 한다. 이를 人間에게 주어진 의무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만남의 哲學이다.

만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은 자기의 양심과의 만남을 말한다. 즉 자기의 영혼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은 평소의 생활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利害關係가 얽힌 문제에 부닥쳤을 때나 身上에 관련된 問題에 直面하였을 때에 값진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경우 과연 진정한 人間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뇌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이 良心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이 된다. 良心과의 만남은 人間을 偉大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人間勝利者가 되게 한다. 歷史적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良心을 무기로 하여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見利思義로 一貫된 삶을 산 사람들이다.

3. 自靠의 人生

人間은 스스로를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스스로를 아낀다는 말은 主体的 人間像을 뜻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責任性을 내포한다. 人間이 어떤 길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 자체를 분명한 自己責任下에 관리하는 시각이다. 누구한테서 보상을 바라는 자세가 아니고 선택 자체로서 만족하는 자세이다.

軍에 입대한 장병이 국토방위를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나로 인하여 國民이 安心하고 잠잘 수 있다는 自體로 만족하는 자세이다. 軍人만이 국토방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國民으로부터 위문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세가 아니고, 國民 모두가 맡은 바 職務에 충실한 것도 國土를 방위하는 일이며 젊은이로서 군복을 입고 國土防衛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자세이다. 國民의 위문은 고맙지만, 위문은 어디까지나 軍民間의 따뜻한 정일 뿐 군복무의 가치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자세이다.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堂堂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무슨 위문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자세이다. 이것이 곧 自靠의 삶의 길이다. 스스로를 尊貴하게 하는 길이다.

4. 終末論의 人生觀으로 사는 人生

終末論이란 世界와 人類運命의 窮極을 생각하는 사상을 말하고, 終末論의 人生觀이란 人間은 運命의 窮極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人生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나는 죽음앞에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人生觀이다.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人間은 언젠가 이 世上을 떠나야 하는 限時的인 存在이다. 특히 프로이드는, '모든 삶의 목표는 죽음이다. 사람은 모두 죽으려고 하는 무의식적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표현한다. 이와 같이 죽음은 人間에 있어 필연적인 事實이다.

人間이 당장 죽음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 것인가. 얼마나 허무하고 恨스러울 것인가. 이러한 모습이 보통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人生이 있을 수 있다. 一生을 眞實되고 正義롭게 살아 온 사람, 따뜻한 人類愛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 온 사람. 자기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며良心에 좇아 살아 온 사람, 人本思想과 人道主義의 哲學으로 살아 온 사람, 神의 뜻을 찾아 善하고 仁慈하게 살아 온 사람은 온화하고 담담한 표정을 가질 것만 같다. 이렇게 살아 온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만 같다.

따라서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는 人生을 살아야 한다. 죽음을 대비한다는 말은 죽음을 값지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죽음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는 人生의 하루하루가 人間本質의 次元에서 성실해야 된다. 무엇보다 마음의 발을 가는 일과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 마음의 발을 간다는 것은 늘 겸허하고 깨끗한 정신을 갖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人間으로서의 길 위에서 나름대로의 할 일에 熱과 誠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무언가 할 일을 찾아 盡力하여야 한다. 人間은 누구에게나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어버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교육자로서 할 일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있고 남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다.

세상에 태어난 人間은 이 할 일을 통하여 무언가 세상에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발자취도 좋고, 국토방위의 기수로서의 발자취도 좋다. 이러한 발자취는 人類를 위하여 무언가 寄與한 발자취이기에 훌륭한 발자취로 기록될 수 있다.

인간은 “그대의 할 일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할 일은 이것이요”라고 분명하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人生을 살아야 한다. '87년도 장애자의 날 忠北 淸原郡 시골마을에서 육신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총각을 부모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삼아 사는 아주머니에게 리포터가 “아주머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할 일이 있어 산다”, 그러면 아주머니의 “할 일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나의 할 일은 남편의 손발이 되어 사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TV화면을 통해 들으며, 人生의 真理를 대한 듯 가슴 뭉클함을 느낀바 있다. 그 아주머니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고, 특별히 ‘人生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학문적인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으면서도 人生의 本質을 꿰뚫고 있는 것이며, 人間의 길을 분명하고 자신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人生에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산다’는 말처럼 정확한 진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 아주머니의 人生은 비록 화려하지는 못하였지만 참 人生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느 人生 못지 않게 값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남편이지만 人類的 次元에서 선택하였고, 그 선택을 自身の 할 일로 內面 깊숙이 간직하여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것 못지 않게 훌륭한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아주머니는 죽음을 사랑하는 人生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人生을 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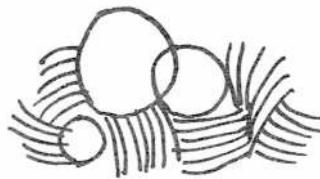
V. 맺는 말

지금까지 人間이란 어떤 存在인가와 人間 삶의 指標이고 基準이 되는 價值觀을 吟味한 뒤, 바람직한 人生의 길로 行為價值志向의 人生, 召命을 自覺하고 使命에 사는 人生, 自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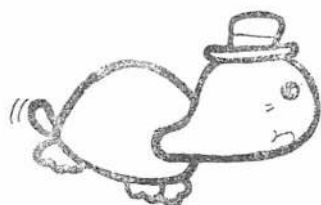
的 人生, 終末論的 人生觀으로 사는 人生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한 마디로 論合하면, 人間은 眞實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고리끼의 말처럼 “人間, 그것은 眞實인 것”이기 때문이다. 眞實은 참된 것이고 절대적인 眞理이다. 人間의 本質에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이다. ‘眞實은 通한다’는 말처럼 眞實은 人間과 人間間에 영혼의 접촉을 可能케 한다.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사회적 동물로서의 연대감을 갖게 해 주며, 궁극적으로는 人間의 原型에 접근케 해 준다.

모름지기 人間은 眞實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진실의 눈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모든 思考와 行動은 眞實에서 出發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는 길만이 人間은 限時的인 存在라는 허무성에서 극복될 수 있고, ‘人間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숙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죽음 앞에 떳떳할 수 있고, 神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특	별
기	고



中共, 그 신비의 베일 속을 가다

심 철 호
(사랑의전화 회장)

죽의 장막 속에 가려져 파악하기도 조차 힘들었던 中共. 인구 10억이 사는 광대한 국토에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영원히 베일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나라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중공땅에도 개방의 물결이 일어 자유와 사랑의 기운이 번져 가고 있음을 나는 4차례에 걸친 중공방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슴 가득 사랑을 안고 중공인을 만나거나, 우리동포를 만나거나, 양로원을 찾아가든, 정신요양원을 찾아가든 고통받는 장애자들을 찾을 때마다, 나는 나의 모든 신조를, 사랑에 걸

었다. 지금도 그곳의 얼굴얼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정다움기 그지없다.

“피끌피끌 피꼬리 누구하고 노-나……” 피꼬리보다 더 고운 심양(沈陽) 민족소학교 동포어린이들의 노랫소리가 모여 교정의 유리창을 때리던 투명한 베아리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타향살이의 한(恨)이 뼈 마디마디 깊숙이 새겨져 있는 북간도의 우리동포들. 60도짜리 빼주에 한잔두잔 술잔을 기울이다 피를 나눈 형제를 만난 듯, 얼싸안고 눈물을 글썽이던 그때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민족시인 윤동주 묘소엔 잡초와

갈대가 무성.

내가 처음 중공을 방문했던 1985년도 에는 아무도 운동주(尹東柱) 시인을 기억하는 이가 없어 무덤을 찾는 데도 힘이 들었다. 가까스로 연전시(市) 민속박물관장인 심동전씨를 수소문해서 까만 돌비석 하나를 확인하는 데 그쳤었다. 뒷날 알게 된 일이지만, 윤시인의 묘비와 생가가 확인된 것은 윤시인이 문헌 지 40년이 지난 '85년 5월, 일본인인 와세다대학의 오무라(大村) 교수에 의해서였다. 내가 중공을 떠난 직후였다.

그러나 내가 중공에 첫발을 디디면서부터 운동주 시인을 떠올린 것은 아니다. 중공 곳곳을 방문하느라 지나간 기차여행에 지쳐 차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자니 차창에 비친 까만 하늘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 까만 하늘을 바라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란 시귀를 떠올렸고, 문득 운동주 시인이 북간도 어디엔가 묻혀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그날, 그 까만 하늘을 계기로 나와 윤시인은 오랜 친구처럼 가깝게 생각되었으며, 중공을 방문할 적마다 묘소를 찾아 참배하곤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방문했을 때 우연히 연변대학의 화학전공 교수인 강귀길씨로부터 윤시인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었다.

강교수는 윤시인에 대해 '산 증인이 있다'며 나를 용정중학(龍井中學)의 허기학(許

基鶴) 교장과 류기천(柳記天) 서기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류서기는 민족시인 운동주에 대해 묻는 내게 호의를 보이며, 운동주가 용정중학의 전신인 광명학원 중학부에 다녔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해 주었다. 그는 깊이 간직해 둔 운동주 관계자료들을 꺼내더니 내게 1928년의 학적부를 보여 주었다.

'1917년 12월 30일생, 출생은 북간도 용정 명동촌(明洞村). 명동소학교와 용정진중학을 거쳐 평양 숭실학교 4년을 다니다 광명학원 중학부에 편입. 성적은, 문학을 잘하고 조선어와 영어공부가 뛰어나며 일본어가 뒤졌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부에서 사업을 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였던 듯). 성격은 온화, 품행단정. 부친은 윤영석(尹永錫), 용정에서 상업을 했다. 운동중에서는 특히 농구를 즐겼으며, 축구를 할 때면 맹호처럼 뛰어다녔다. 친구 사이의 우의가 두터웠다.'

자세히 기록된 그의 학적부는 비범하고 아름다웠을 그의 소년시절을 생생히 연상시켜 주었다.

그에 관한 자료는, '일본 동지사(同志社) 대학 영문과 재학 중인 1943년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끌려가 2년 실형을 받고 후쿠오카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2월 16일 옥중에서 순국한 것'으로 끝나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는 우리의 시인. 강풍이 휘몰아치는 북간도! 영하 25도의 뽕뽕 얼어붙은 만주벌. 잡초와 갈대가

제멋대로 자라 황량한 공동묘지 한 구석에
외로이 누워 있는 우리의 민족시인 운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피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의 서시(序詩)다.
일제의 포악함에 대항한 우리의 순수한 서
정적 민족시인 운동주가 잠들어 있는 북간
도 땅, 28년의 슬프고도 고난에 찬 생애를
대변하고 있는 운동주 묘소에는 한 포기
풀도 없이 퐁퐁 얼어붙은 흙덩이만
뒹굴고 있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그러나, 아직 봄이 오지 않아서일까. 내
가 찾은 운동주 시인의 무덤 위엔 돌멩이
만 나뒹굴 뿐, 파란 잔디조차 입혀지지
않았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를 노
래한 그의 생전의 시처럼 무덤 위에 잔디
를 심지 않았다고 한다.

만주 평원의 까만 하늘, 금년 1월 11일
오전 10시 내가 차창을 통해 본 그 까만
하늘이, 어쩌면 운동주 시인이 절망과 쓰라
림 속에서도 희망의 별빛을 찾기 위해 바
라보았을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일지 모른다.
그의 무덤을 참배하고 복받치는 눈물을 참
을 수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오매불망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자
순 할머니.

북간도에 한민족이 처음 정착한 이곳 ‘용
정’, 울창한 산림 때문에 중국인도 포기한
땅. 북간도에 우리 선조들이 부초처럼 찾아
든 것은 1백년 전. 먹을 것이 없었기에
쌀 1되에 아내나 자식을 만주족 지주들에
게 팔아넘겼고, 좁쌀 한 되에 자식들마저
떠나보내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피눈물나
는 고생 끝에 북간도를 비옥한 땅으로, 우
리의 자치구로 개척해 왔다. 가난한 농민

들이 자식을 팔아서 이듬해의 종자를 마련했던 만주벌. 그들 앞에 펼쳐진 거치른 벌판, 비바람 막을 곳도 없고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 얼어죽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은 우리동포들이 실로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네번째 중공방문길에서,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길에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장소, '장백양로원'을 찾아갔다. 외로운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웃음을 주러 갔다가 울고 나와야 했던 기억들-30여 명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발기술이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은 이 양로원에 들어올 때 이발기구와 의자까지 들고 들어와 이곳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 주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모두들 서울손님이라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그만 97세의 이자순 할머니가 나를 울리고 말했다. 경상도 청송이 고향이라는 이 할머니는, 광복 후 한국으로 먼저 떠나면서 '어머니, 곧 모시러 올께요' 이 한 마디를 남기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외아들이 꼭 자신을 찾으며 '어머니!' 하고 뛰어오는 것만 같아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식이 돌아올 것을 굳게 믿은 채.

이자순 할머니는 일제때 땅을 빼앗긴 뒤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 북간도에 와서 살았는데, 남편은 죽고 외아들마저 해방 후 한국으로 떠난 후 종무소식이란 것이었다. 97세까지 죽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은 꼭 아들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집념 때문이라고 양로원 백룡길 원장은 말해 주었다. 유감스

럽게도 이자순 할머니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이름마저도 가물가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자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다가 도저히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문 밖으로 뛰어나와 버렸다. 누가 이 안타까운 할머니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단 말인가!

만의 하나 그 아들이 아직도 한국에 살아 있다가 내가 쓴 수기를 읽고 연락을 해준다면 좋으련만...

북간도에는 이자순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수도룩했다. 또, 소설 '순애보'의 주인공 박계주씨의 형수라는, 금년 73세의 황수복 할머니도 만났다.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27번지 (옛날의 주소)에 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황할머니는 친혈육인 박 선·박 진씨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 박 진씨의 큰어머니 되시는 할머니도 나를 붙잡고 '죽기 전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며 굵은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손꼽아 빌어 본다.

북경발 평양행 국제열차에 몸을 싣고

1월 15일, 북경을 떠난 지 장장 37시간 만에 연변에 도착, 다시 다음날 장춘(長春)을 거쳐 심양(沈陽)에서 북경발·평양행 국제열차를 타기 전에 심호흡을 하였다.

북경에서 출발, 평양이 종착역인 기차의 중국땅 마지막 역인 단동! 며칠 전 우리신문에서 북한이 중공의 단동역과 맞닿은 신

의주를 개방, 통행증만 갖고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민족의 한이 맺힌 압록강 철교를 보기 위해 단동에 갔을 때만 해도 그곳은 살벌한 분위기에 감싸인 냉혈 지대였다. 단동역을 빠져나오니 '압록강' 이 나를 반겨 주었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 흘러 서해로 누비며 흘러간다고 해서 '알누비강' 이라고 하였으나, 한자음으로 변음하여 '압록강' 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대하(大河).

9백46m의 '압록강'엔 동란때 폭격으로 절단된 다리가 방치되어 있었고, 바로 그 옆에는 새 철교가 증공땅 단동과 북한땅 신의주를 연결하고 있었다. 철교 양 끝에 건물조소가 위치해 있었고, 다리 중간부분에는 철조망으로 막혀, 그곳으로부터 북한땅이 시작됨을 알려 주고 있었다. 본디 압록강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유람선이 뜬다. 그러나 내가 찾은 지난 1월 15일은 영하 25도의 강추위로 인해 유람선은 동면기였다. 그러나, 나는 중국인 선주에게 올림픽 마스크트와 아리랑담배 한 갑으로 간청한 끝에 한겨울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에 극적으로 몸을 싣게 되었다.

유람선은 강 중간을 가로지르는 국경선 안쪽만을 항해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낯익은 증공인 선원은 내가 '남조선'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자 국경선을 넘어 북한령 신의주쪽으로 선수를 꺾어 나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신의주는 강 건너 단동에서도 육안으로 식별이 될 만큼 가까이 보이지만, 신의주쪽 강 안쪽으로 접근하자 북한사람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었다. 선창에는 고깃

배를 수리하는 뱃사람과 어린이 두어 명이 놀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압록강

피흘리며 가슴을 치며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어도 눈감지 못한 투사들
그 원혼이 아직도 배회하는데

분한을 눈빛처럼 씻기도 전에
분단 40년 긴긴 세월
어떻게 흘러왔느냐
어떻게 흘러가려느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통일은 억세만대 번영의 길
그래도 분열이라면
반도여 차라리 바다 깊이 잠기라.

연변대학 허 설 교수께서 썼다는 '반도의 호소'라는 시를 만주땅 단동에서 신의주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큰 소리로 읊으면서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다.

6·25전쟁의 상처를 안고 아직도 끊어진 채로 남아 있는 압록강 철교 너머 신의주를 바로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그 아픔이 내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도도히 흐르는 검푸른 압록강의 물결은 '그래도 분열이라면, 반도여! 차라리 바다 깊이 잠기라'며 피를 토하는 듯 읊어대는 내 목소리를 삼켜 버렸다.

본 내용은 영국의 국제 전략 연구소 (IISS)의 정기 발간지 Survival('87. 10월 호)에 발표된 연구보고서를 번역한 것임. — 역 자 주 —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파키스탄의 안정



소장 박 종 권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파키스탄의 안정

아마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난민사태일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1,921,000명,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900,000명, 북아메리카에 568,000명, 그리고 중동 및 남아시아에 5,295,000명 등의 난민이 존재하고 있다. 전세계에 걸쳐 1천만 명 이상의 난민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수치만을 보더라도 난민상황의 중요성이 아주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난민 문제의 일부분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주에 기인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비용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팔레스타인 난민상황

파키스탄과 중동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들

에 있어서의 난민상황과 선진국에서의 난민 상황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를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난민들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제도와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다. 종종 난민들은 선진국의 사회·정치적인 구조 속에 동화되어 새로운 시민이 되기도 하여 1세대가 지나기 전에 난민이라는 신분은 난민 및 그 가족의 배후에 가려질 수도 있다. 개도국에서는 정치적 및 물질적 내부구조가 난민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은 그들의 피난처의 내부환경에 동화하지 못하고 인종적 굴레 혹은 조상대대로의 신분에 얽매인 채로 남는 경향이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을 볼 때 그들은 국토없는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동의 불안정에 영향을 미쳐 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는 아직 팔레스타인에 비해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는 요즘 중요한 유사점들이 있다.

앞의 수치는 난민의 가장 큰 집중지역 중의 하나가 동부지중해 지역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지역의 난민은 1948년부터 그 지역에서 추방된 2백만의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주로 가자 스트립(377,000), 시리아(221,000) 및 웨스트 뱅크(341,000) 등의 난민정착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동, 북아메리카,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

국내사회에 동화되었거나 그 나라에서 2류 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난민들이 인종적 전통, 문화적 특성 및 국가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잠재적 불안의 요인을 형성하여 왔다는 것이다. 난민들이 동화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난민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가 난민들을 대대적으로 동화시키려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팔레스타인은 중동국가뿐만 아니라 동서를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 정착·동화되어 왔다. 전문직에서의 그들의 업적은 그들이 정착한 곳이면 어디서나 명성을 떨쳤으며, 상당량의 자원이 교육이나 훈련 등에 쓰여져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팔레스타인인은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서, 또한 가장 잘 교육된 민족 중의 하나로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주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의 요인이 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팔레스타인에 인접한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인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고향으로부터의 뿌리없는 비인간적인 분단이 거의 40년동안 이들 난민들을 병들게 하였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또는 이스라엘에서의 견디기 어려운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그들은 유동적인 지역

에서 국민정부에 의하여 통제받아 왔다. 아랍인이나 유대인들이 난민들과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하여 싸워 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착지는 적대의 표적이 되고 있다.

더우기, 팔레스타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성립되면서부터 근본적인 정치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중동에서의 문제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은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대내적인 불안과는 별도로 그 지역에서의 위기는 미국과 소련과 같은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었다. 난민정착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침공은 주변 인접국가에 대한 침략을 수반하였으며, 더우기 외부의 간섭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국제적 제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관련국가들의 내적문제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국가권위에 위배하거나 혹은 중동국가들이 전과는 달리 세계의 모든 사건에 영향을 주게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상황에서의 교훈은 파키스탄에서의 난민사태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동에서의 사태는 난민들의 정치적 행동이나 잠재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막강한 사회적 및 인종적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우기, 이주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이 장기적이고 심각한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난민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능력은 결국 급

격히 증가하는 새로운 인구에 의하여 압도된 환경의 상대적 안정과 직결된다. 그리고 역사적 선례가 하나의 앞으로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면, 귀국 아닌 다른 어떤 조치도 난민촌에서의 심각한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동으로부터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까지의 난민문제

세계적으로 볼 때 파키스탄이 가장 큰 난민집중지역으로 되고 있다. 여기에서의 난민들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후에 자신의 모국을 탈출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이다. 이들 난민들은 인도(4,700) 및 이란(560,000)에도 정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파키스탄에 정착하여 왔으며, 거의 3백만(2,800,0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이곳 정착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1979년 이래의 국제공동체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단기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일면적인 노력들이 이주욕구의 일부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난민들이 파키스탄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하여 의미하고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결과들은 아직도 미지인 상태로 있다.

Pushtunistan으로 알려진 지역 - 아프가니스탄 남동지역 및 파키스탄 북서부지역 - 은 오랜동안 부족 및 인종관계를 맺고 있었다. 1961년의 국경분쟁에도 불구하고 이 지

역의 주민들은 여러 세대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 들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1970년대 초에 기근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에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이와는 달리 현재의 이주는 아프가니스탄인 이주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다. 초기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 농민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의 이주는 농촌빈민으로부터 도시중류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주로 구성된다. 이주민에 중류층이 혼합되었다는 것은 난민인구에 있어 지금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정치적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망명국민들은 그들 국가에 대한 소련의 점령에 대하여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굳게 결속되어진 정치화된 인구인 것이다.

현재의 이주와 이전의 이주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이주민의 체류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의 이주는 일시적이었던 반면에, 현재의 상황은 귀국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8년 동안에 수백만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이주하였으며, 그러한 긴 이주시간은 현재의 이주를 과거의 이주와 구분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주에 있어 그 구성원의 복잡성이라는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을 위한 미 고위층위원회 (UNHCR)는 파키스탄 국민의 신용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초기단계에서는 난민들이 지역거주민

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및 배려 속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보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더욱이, 파키스탄에서의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피난민 이주를 종종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거의 고통받지 않았다. 전염병도 없었고 심각한 영양실조도 없었으며 지역 주민과의 마찰도 비교적 적었다.

1986년에도 난민들은 여전히 파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약 45,000에서 50,000명이 1985년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파키스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북서국경지대로 이주한 2백만의 아프가니스탄인 중 대부분은 Pushtun인이거나 혹은 Pathan인이었지만, 점차 Tadjiks인과 Uzbeks인들도 Peshawar에 이주하고 있다. UNHCR은 DARI가 저자거리에서 PASHTO만큼이나 자유롭게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각종 인종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 의복, 용모 및 관습이 점차 Peshawar의 Pathan인의 전통적 특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난민들은 파키스탄의 북서부 국경지대(75%)에 거주하고 있으며, 반면 그 일부는 주로 Baluchistan(20%)과 Peshawar(4%)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지역에서 이주한 Pathan 원주민이지만, 기존의 인종집단을 대표하는 난민의 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일부 관측자들에 의하면 Peshawar지역은 KABUL 외부에 있는 가장 큰 아프가

니스탄 지역이 되었으며, 반면에 난민인구는 Islamabad, Peshawar, Quetta 및 Karachi 등과 같은 도시에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약 3백만의 난민 모두가 북서국경지대와 Baluchistan 지역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340개의 캠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인구유입 때문에 수천 명의 파키스탄 정부 공무원과 많은 운송수단들이 난민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했다. 1982년에 파키스탄 당국은 새로운 인구의 사회적·경제적 및 생태적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 문잡지역에 있는 캠프로 난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다.

1984년 9월 7일에 Zia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파키스탄인과의 사이에는 사회적 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난민유입에 의한 사회적 비용과 파키스탄의 관대한 배려의 제약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Zia대통령은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공언하였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제약이 있다면 그러한 제약에 이미 오래 전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Islam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다른 종교는 없다. 파키스탄은 회교도를 위한 고국으로서 인도로부터 분할독립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파키스탄이 세계 어느 지역의 어느 회교도에 대하여서도 고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3백만의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해 온다면, 1천5백만의 아프가니스탄국민 모두가 파키스탄으로 오길 원한다고 할 때

그들 모두를 돌보지는 못할망정 최소 3백만 명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및 국민적 의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한 Zia대통령은 파키스탄이 감수하였던 댓가와 치러야만 했던 희생이 사실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비용은 난민들의 거주지에 있는 학교, 병원, 토지, 수도, 고용, 경제 등에 놓여진 압박이었다.

전 세계의 난민들과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도 그 수치면에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촌에서 그들이 체류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이 항상 귀국을 원한다면 상정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파키스탄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나라에서 그들은 큰 정치력을 갖게 된다. 사실 팔레스타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장기국면은 파키스탄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40년 동안의 팔레스타인을 위한 노력은 아주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그들의 단기적 욕구가 충족되었지만, 그들의 이주에 있어 장기적인 문제는 중동충돌과 그 지역의 불안에 대하여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회소자원에 대한 경쟁

공개적으로 정부당국은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파키스탄인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밀히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적대행

위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난민의 낙타, 염소, 소 및 양들은 목초지를 위해서 지역 가축들과 경쟁하여 왔으며, 목축권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여 왔다. 아프가니스탄인의 정착지들은 또한 물과 땀나무와 같은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더 큰 압박을 주어 왔다.

구조식량이 적당하거나 또는 남아돌아 갈 때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하락과 같은 것은 지역 식량생산자들을 피폐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난민들이 그곳 주인보다도 더 나은 형편을 차지하여 왔다. 파키스탄의 일부에서 난민들은 구조식품을 구조사업의 이점을 얻으려고 난민 캠프를 찾는 가난한 파키스탄인들과 나눠가져 왔다. 지역빈민이 이러한 방법으로 구조작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경제와 특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확대되었다.

공유재산자원을 위한 경쟁이 특히 지역빈민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원주민과 난민 간의 불화를 자아내고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농촌인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적게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삶을 위해 더 지역공유재산 자원에 의존한다. 공유재산자원과 경쟁하는 난민인구의 영향은 아프가니스탄인이 고국으로부터 그들의 가축을 데리고 이동함에 따라 목초지 확보라는 점에 있어 가장 심각하다. 이용가능한 물과 야생생물에 대한 경쟁에 있어서도 긴

장이 있음이 느껴진다. 파키스탄의 한 지역에서 지역주민은 난민정착지로부터 나뭇군을 구금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난민들은 주로 밤에 땀감을 모으기 시작했다.

난민들에 대한 불평은 보다 더 명확해지고 있다. 여타의 피난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아프가니스탄은 상대적으로 이주가 자유롭고, 그들이 급진적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일하며 살 수 있다. 난민들은 무료캠프에서 살고 있으며, 구조혜택을 받으며 그들의 소득에 대한 보조를 얻으려고 일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인이 주로 도시지역에 사업을 설립하면서 파키스탄은 특정거래에서의 경쟁과 아프가니스탄 지배에 대하여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파키스탄 당국은 Peshawar 자체에서 정치적 행동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저항단체 본부는 교외로 제한시켜 버렸으며, 젊은 미혼남자가 도시에서 밤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경찰은 정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이 Peshawar 지역의 외부에서 난민정착지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호텔과 여타의 건물들을 검문한다.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에 있어서 부족의 자치권의 유지는 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들 국민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국경의 어느 편에서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아프간의 지속적인 점령에 의하여 극소화되었고,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파키스탄에 머무는 것 외의 다른 방도를 없애 버렸다.

그러나 파키스탄 자체는 국가전립 과정에 있다. 정치적 정통성은 부족적 및 인종적 충성과 국가적 충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의 역량에 의존할 것이다. 귀국이 쉽지 않다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파키스탄 사회 속으로 동화하여 파키스탄법과 민족주의에 복종하려 할 것인가?

일찌기 관료주의적 행동에 대한 논쟁이 문제로 다가 왔던 지역에서는 파키스탄 당국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간에 다툼이 있었으며, 난민을 감시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들은 저항에 부딪혀 왔다. 당국이 난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어 왔으며, 정부가 난민정착지의 행정과 통제에 있어서 그 범위를 뛰어넘는다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느낄 때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인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하여 계속 전쟁을 할 때 파키스탄은 한층 더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항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적 야심과 파키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듯하다.

자치와 주권의 문제는 난민수용소 당국이 불법적인 배급카드를 발급하고자 수용소 인구를 재조사하고자 했던 1984년에 발생하였다.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그 절차는 행정문

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당국은 가족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개별 가족구성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난민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생활에 대한 침해였으며, 가족관계의 제한된 세계에 대한 정부의 침입이었다.

난민들이 파키스탄으로 오자 강한 아프가니스탄의 관습이 유포되었다. 투쟁은 관습적으로 연로들과 부족법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민족 및 부족제도에 의하여 중재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인들 간의 많은 논란들은 신학자들에게 회부되거나, 또는 저항단체로 구성된 지방재판위원회에 이송된다. 이 제도는 지리적 단절이 반드시 문화적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가 파키스탄에서 계속 존재하며 국민을 가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난민정착지의 여러 지역 간에 서로 상이하였다. Baluchistan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가장 환대받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인과 Baluchistan인이 서로 동일시되는 본래적 유사성에 기인한다. Peshawar 국경의 양 지역 모두에서 난민들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사실, 동화는 북서국경지대와 Peshawar 에서 보다도 Baluchistan에서 더 급속히 진전되었으며, 일부 관측자들은 분리주의자의 감정이 난민들에 의하여 불붙여지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믿는다. 더욱이, 바로 Baluchistan에서 소련은 만일 Islamabad가 아프가니스탄 저항을 피신시키는 정책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푼잡인들은 아프가니스탄이 푼잡에 줄 수 있는 억압 때문에 정부가 난민들의 정착지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정책에 반항하였는데, 이것은 시리아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 중동에서부터 푼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면한 국가들은 난민들의 정착을 두려워하며,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몰고올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푼잡에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반응은 북서국경지역과 Baluchistan에서의 그것과 상이하였다. 푼잡인들은 정부로 하여금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북서국경지방에 고립시키도록 부추겼으며, 그들이 여타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상시키는 위협스러운 현상들이 파키스탄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양 상황 모두 집없는 사람, 고립된 정착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동화될 수 없는 점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과 파키스탄 똑같이 고도로 정치화된 난민들은 유동적인 정치적 힘으로 화할 수 있다.

세계적 불황 또한 난민들에 영향을 주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외국으로 간 많

은 사람들은 페르시아만에서의 건설붐이 종지부를 찍었을 때 파키스탄으로 되돌아가도록 강요 받았다. 이 점에서 이러한 귀국이 우호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언하기란 어렵지만, 잠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의 난민상황은 소련으로 하여금 Islamabad에 대응하도록 강요시킴으로써 안정에 위협을 주었다. 파키스탄에 대한 소련의 불만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반란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으며, 따라서 서부의 반카불 책동에서의 공범자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게릴라전에서 반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땅에 설립된 테러리스트 캠프에서 이들 반혁명주의자들에 대한 훈련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 폭도들에게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무기공급자가 되었다. 따라서 소련의 입장으로 볼 때 파키스탄은 소련에 대한 명확한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책의 결과로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돌격대를 통하여 파키스탄 영토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켰다. 1981년말 이후로 국경지방의 영공침범과 폭격이 증가하였다. 그해의 10월과 11월 중에 23차례의 침범이 보고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군이 1981년 9월에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 캠프를 봉쇄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반역자들의 침입을 중지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아프가니스탄 폭동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남아시아의 위기를 가져오도록 조장하였으며, 자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켰다. Tarakhi 정권은 파키스탄을 Kabul에 대한 제국주의 정책의 동조자로 인정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 저항에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파키스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소련은 또한 파키스탄을 소련군에 대한 Mujaheddin 공격에서의 공범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소련이 남아시아 충돌에서의 한 행동자로서 파키스탄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Islamabad는 점차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파키스탄이 자신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것이며, 국내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저항과 파키스탄의 안정

과거에 Peshawar에는 100개 이상의 저항 단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요 저항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의 Mujaheddin의 최고 단체의 기지하에 연합하였다. 그 저항은 소련과 Kabul 정부와의 불화의 고정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그 한 결과로서 국경지역에서의 소련군은 증가되었고, 때때로 전투는 Mujaheddin의 추적 중에 파키스탄을 침범하였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폭동을 돕도록, 그리고 저항운동을 위한 도구의 공급자로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국가에 의하여 최소한 부분적으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는 중립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Zia의 능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충돌 속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도록 위협하는 것이었다. 사실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폭동을 돕지 않았다면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소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며, 소련이 그의 국경지방 및 그의 영토내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약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피난민의 유입을 감소시켰을 것이다.

1985년 4월에 Zia는 체르넨코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는데, 그 때 소련지도부는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반항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불만을 품고 있는 Baluch소수당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충동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85년 5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가장 격렬한 전투가 파키스탄 국경에 인접한 Paktia지방과 파키스탄에서 10마일 떨어진 Khost시에서 발생하였다.

1986년 4월 22일에 소련과 정부군은 국경지방의 Zhawar시에 있는 가장 큰 근거지를 포위·파괴시켰으며, Peshawar로 나 있는 Khyber요충지에 인접한 Nangapha지방에서의 전투가 치열하였다.

전쟁은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또한 치러졌다. 1985년에 아프가니스탄 혹은 소련의 파

키스탄 영공침범이 200회 이상이나 있었으며, 파키스탄 영토에 대한 폭격도 25회 이상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1986년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87년 2월 말에 아프가니스탄 게릴라집단의 사무실 밖에서의 폭탄폭발은 10명의 사망자와 62명의 중상자를 냈다. 파키스탄인들은 폭발장소 근처의 거리에 모여 반아프가니스탄 슬로건을 외치면서 부서진 아프가니스탄 사무실에 돌을 던졌다. 결국 폭동은 파키스탄인과 아프가니스탄인 간의 총격전으로 번졌고, 4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초래했다. 또한 이에 분개한 나머지 북서지방의 피난민 캠프에 대한 총격이 이어졌다.

Peshawar의 파키스탄인의 광포한 행동은 상점, 주택 및 차량에 대한 방화, 약탈을 가져왔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이 뒤따랐는데, 이로 인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월 26일에 아프가니스탄 군용기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지역에 있는 파키스탄의 2개 도시를 폭격했다. 이 폭격의 결과 35명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2월 27일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서지방을 폭격하였다. 이 폭격은 Islamabad의 80마일 서부에서 실시되었으며, 31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를 가져왔다. 파키스탄에서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거주

에 반대한 1986년 1월의 시위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파키스탄인의 인내심의 제한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이 시위는 Peshawar에서의 친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인에 전가된 일련의 폭격에 의하여 불러일으켜졌다.

최근에 소련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에 저항을 원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압력은 1986년 3월에 Gorbachev와 Zia 회담에서 소련수상이 파키스탄 정책을 비난하는 데 있어서 거친 용어를 자주 사용함으로써 명백해졌다. 그 회담의 보고에는, 파키스탄이 소련동맹국에 대한 침공을 원조하여 왔으며 CIA가 파키스탄 내에 아프가니스탄 폭동을 훈련시키고 구축하기 위한 수개의 기지와 캠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반란자들이 이용한 대부분의 무기는 파키스탄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그 결과로써 파키스탄과 그 국경에 대한 공격은 증가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파키스탄 당국에 따르면, 북서지방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1986년에 2배로 증가하였다. 동시에 미국당국은 그러한 소련의 압력이 파키스탄에 줄 심리적 영향에 예의 주시하였으며, 결국 반 Zia파에게 Zia 정부를 전복시키려 자극하리라 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전개되고 있는 추이는 주목할 만하다. 비록 파키스탄이 그의 난민에 대

한 처우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아 왔지만, 매우 실질적 압력이 전개되고 있음이 보여진다. 이러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정착지에서의 행동과 난민들을 고립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시키려 노력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반응은 주로 저항자들에 편중되었으며, 반면에 여타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상대적 자유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저항자들과 일반난민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거의 구분이 없을지도 모른다. 소련 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의 보복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파키스탄은 난민상황을 대대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저항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하여 파키스탄은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는 전선국이 되었다. 그로써 파키스탄의 안정은 서구 전략가들에게 그리고 고립된 Islamabad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심적 관심사가 되었다. 미국, 일본 및 서구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대부기구로부터 원조가 이뤄졌다. 1980년 12월에 IMF는 17억 달러의 대부를 승인하였다. 세계은행의 파키스탄 원조협회는 1981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총 17억 7천만 달러를 보증하였다.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파키스탄의

주요 채권자들은 그의 채무를 재계약하기로 하였으며, 파키스탄과 미국, 일본 및 EEC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소련의 지배에 직면한 회교의 요새로서의 Islamabad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여타의 회교국가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아 왔다.

일부 분석가들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Zia 정부에 대한 예기치 않은 행운으로써 간주하였으며, Zia 정부는 점차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파키스탄은 폭넓은 관심의 혜택을 받았다.

세계의 가장 중요한 전략지역이 됨으로써 파키스탄은 남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초강국 즉, 미국과 소련의 표적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의 외교정책은 교묘하게 이뤄졌다. 파키스탄은 부당한 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을 유지하여 왔으며, 그의 비동맹적 지위는 손상되지 않았다. 국내의 파벌에 기인한 불안은 1980년대를 통하여 진전되어 왔으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소련의 침공은 파키스탄을 세계무대 위로 올려 놓은 사건이었으며, 더욱 그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인의 이주는 Islamabad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이미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불안스러운 상황 속으로 수백만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유입한 데서 기인하는 전술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Mujaheddin이 파키스

탄-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파키스탄을 소련의 전투 속에 끌어들이는 점이다. Zia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는 미묘하다. Zia 정부는 반역운동을 돕기로 약속한 반면, 그러한 파키스탄을 전쟁표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프가니스탄 망명정부

난민들 간의, 그리고 저항내부의 아프가니스탄 민족주의에 대한 증거는 점차 명확해졌다.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승인과 망명정부로서의 합법성을 얻어낸바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망명국가도 그와 유사한 지위를 구하였다.

1986년 6월 레이건 행정부는 정당한 조건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반동동맹체에게 외교적 승인을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한 조건에는 저항운동이 그 자체로 충분히 통일된 전선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망명국가가 전통적인 국가와 유사한 행정부를 갖춘 국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미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에 대한 협상이 직접 전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즉 아프가니스탄 반란군과 소련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반란군의 요구를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

외교적 지위를 얻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저항단체의 노력은 합법성을 획득하기 위한 PLO의 투쟁과 유사하다. PLO는 여러 국가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기구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승인으로 인하여 PLO의 외교적 지위가 거의 모든 회교국가와 동서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비회교국가로부터 얻어졌다. PLO는 국제기구에 적격회원국으로서의 지위도 획득하였다. 그렇게 성취한 것들이 주권을 재획득하고자 노력하는 국토없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운동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PLO의 외교적 합법성은 또한 중동에서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킨 팔레스타인 공동체에서의 역본실을 유포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망명국가들이 정치적 합법성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대하여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워싱턴의 어디에서나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구로서의 망명정부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며, 회교협의기구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며 또한 UN에서 의석을 갖고자 하는 반란운동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유사한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망명정부의 합법성과 협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있어서 유사한 논점이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에 저항 지도부는

그들이 난민캠프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뉴욕 사무실을 열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망명정부가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행동들이었다.

결 론

아프가니스탄 난민문제를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현안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과거의 난민문제와 현재의 난민문제를 비교함으로써 또한 문제의 폭과 심각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의 가능한 분파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파키스탄의 안정은 여러 방법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파키스탄을 반란운동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소련 및 아프가니스탄군과 저항군과의 전쟁은 파키스탄의 국경에서 실시되었으며, 점차 파키스탄 내부로 이동되고 있다. 저항군과 전투하는 계략 중에 소련은 파키스탄내의 인종차별주의자들 사이의 분리론자의 감정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위

협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주로 이미 Islamabad에 대하여 분리론자의 문제의 요인이었던 Baluchistan의 민감하고 불안한 지방에 편중되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그들 자신 그들 국가에 대한 소련침략의 희생물이지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파키스탄내에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난민운동들은 그 국가와 지역에서의 혼란의 원인이 되었고, 때때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이주와 그것과의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파키스탄의 최고 300만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아마 그들의 인종적 문화적 특성을 고집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그들은 점차 원하던 바의 강력한 정치적 힘으로서의 그들 자신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합법적 아프가니스탄 국가라는 국제적 승인 속에서 이 망명정부는 파키스탄과 페르시아만 지역에 대한 심각한 불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統一을 爲한 民族的 課題

徐 聖 鐵

(소령·공군대학)

◇ 目 次 ◇

I. 序 論

II. 統一의 當爲性에 對한 共同意識

III. 統一政策 方向에 對한 合意

IV. 統一過程에 對한 理解와 努力

V. 結 論

I. 序 論

韓半島의 統一은 6千萬 民族의 念願이며

만드시 達成되어야 할 至上課題이다. 民族

分斷의 問題를 解決하려는 努力은 1945年

8.15解放과 동시에 統一政府 樹立運動으로

始作되었으나 그간 国内外的 与件에 따라 理論的 統一方案이 제시되고 一部の 實踐的 運動이 시도되어 왔을 뿐, 實質的인 統一은 아무도 予則할 수 없고 分断이라는 現實이 더욱 固定化되어 가는 것만 같다.

今年 8月로서 韓半島 分断은 이미 42年이나 되어 南·北韓間의 政治, 經濟, 社会, 文化, 教育等 諸分野에서 많은 變化를 가져와 서로 理解할 수 없는 部分들도 있게 되었다. 特히 分断 當時 3千万이던 우리 民族이 6千万名으로 늘어나고 그중 80%가 解放後 世代로서 將次 民族의 同質性을 바탕으로 하는 統一論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모두가 真正한 統一을 爲해 지금부터라도 함께 努力해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最小化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南北韓 모두가 受用하고 궁극적 目的達成에 符合되는 統一論議를 展開함으로써 統一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民族的 共同課題를 서로 認識하고 合議하여 實踐해 나가야 만 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統一을 爲한 民族的 課題를 3가지로 大別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Ⅱ章에서는 統一의 當爲性에 對한 共同意識의 內容을 규명하고, Ⅲ章에서는 지금까지 서로 自己便宜主義的 立場에서 題議했던 統一政策 內容을 알아보고 서로 合意하여 지켜야 할 基本的 政策方向을 알아보겠다. Ⅳ章에서는 向後 韓半島 統一이 어떠한 過程으로 展開될 것인가를 밝힘으로써 統一에 對

한 我們的 理解를 돕도록 하며 V章에서 말을 맺도록 하겠다.

Ⅱ. 統一의 當爲性에 對한 共同意識

우리 民族은 2次大戰末 「카이로」會談과 「포츠담」宣言 등으로 國際的인 獨立保障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 벗어나자 國土는 兩断되고 우리의 意思와는 전혀 관계없는 正反의 思想을 지닌 美·蘇 兩大國家의 支配를 받게 되는 結果가 초래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南쪽에는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資本主義的 民主主義가 定着되었고, 北쪽에는 蘇聯의 支援를 받아 共產主義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는 韓半島의 統一이라는 꼭같은 이름과 目的으로 各其 自己가 主張하는 方法으로 統一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民族的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그동안 펼쳐 온 歷史의 教訓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쌍방 중 어느 一方이 自己의 思想, 理念, 制度를 앞세워 自己가 원하는 方式의 統一만을 고집하는 한 統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統一은 이러한 思想과 制度의 對決에 연연하지 말고 長久한 세월에 걸쳐 이어져 온 한 핏줄, 한 歷史, 같은 文化와 같은 傳統을 하나의 民族이라는 共通分母 속에서 統一의 기초를 쌓

아가는 것을 우리 民族의 첫번째 課題라 하겠다.

우리 民族이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南北韓 全 同胞가 함께 갖어야 할 當爲性은 다음 4가지로 要約된다.

첫째, 統一은 民族史的 要請임을 共通적으로 認識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有久한 歷史 속에서 우리 民族은 單一民族으로서 言語와 風俗 그리고 傳統·文化를 함께 해오는 동안 統一國家로서의 歷史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더우기 2次大戰後 韓半島가 南北으로 分斷된 것은 韓民族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強大國의 政治的 權力다툼에 起因된 것이니 만큼 外部의 힘에 의해 分斷된 우리나라를 우리 民族이 統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當然한 것이다.

둘째, 分斷으로 因한 人道的 苦痛을 解消해야 한다. 國土의 分斷과 그로 因하여 勃發한 6.25戰爭으로 1千萬名에 달하는 離散家族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政治的 갈등으로 말미암은 軍事分界線과 北韓의 排排주의때문에 父母, 兄弟, 夫婦가 생이별을 하고 서로 生死와 所在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인 것이다. 우리 民族의 이와 같은 不幸한 苦痛을 하루 빨리 解消하기 爲해서라도 統一은 早速히 實現되어야 할 것이다. 1984年 6月 30日부터 11月 14日 사이에 韓國放送公社가 실시한 바 있는 이산가족 찾기 T.V放送은 國土의 分斷과 이로 인한 人道的 苦痛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생히 보여 주었으며, 1985年 南·北韓 文化예술단 교환 방문 때 일부의 적은 숫자이긴 하나 南·北韓 이산가족의 再會는 우리의 統一이 얼마나 시급하고 國民의 열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 問題를 人道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努力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要件이자 優先的인 課題라 하겠다.

세째는 南北韓 國民(곧 民族)들이 戰爭과 分爭의 恐怖와 不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統一이 되어야만 한다. 分斷은 1950년에 6.25라는 同族相殘이라는 戰爭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 戰爭은 UN軍이라는 外國軍을 우리 땅에 合法的으로 불러들여 오는가 하면, 100萬名이 넘는 中共軍을 北韓이 끌어 들임으로써 休戰協定이 이루어지는 3年여에 걸쳐 國土는 극도로 황폐화되었고 人命의 損失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즉, 軍人의 경우 戰死가 國軍 147,000名, 유엔軍 35,000名, 北韓軍 520,000名, 中共軍 90萬名, 負傷은 國軍이 70萬 9千名, UN軍 11萬 5千名, 北韓軍 40萬 6千名, 失蹤은 國軍 13萬名, 유엔軍 1,500名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또한 民間人의 피해는 南韓의 경우 死亡 244,663名, 負傷 229,665名, 失蹤 303,212名, 共產軍에 依한 虐殺 128,936名, 拉北 84,532名, 警察被殺者 16,000名이나 되었다. 그 외에도 300,000名에 가까운 戰爭未亡人 33萬名

의 戰爭不具者, 10萬名의 孤兒, 100萬名의 結核患者가 發生했으며 南韓에서 北韓으로 강제 모집되어 간 義勇軍이 약 20萬名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戰爭은 前代未聞의 人的 損失과 被害를 주었음은 물론 特히 開戰 初期 北韓 共產軍이 洛東江 이북의 南韓 一帶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점령지역의 住民들에게 加한 살인, 공포, 학대의 實相은 가히 全地域을 생지옥으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分斷으로 인한 離散 家族의 數도 8.15解放 以後 6.25戰爭 以前까지 南下한 350萬余名, 6.25期間中 南下한 100萬余名, 拉北人士 家族 8萬5千名, 行方不明 30萬名 등 그 규모가 500萬名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들 南韓地域內 離散 家族들이 北韓地域에 한 사람씩의 家族을 가졌다고 보면 南北韓 離散家族은 千萬名에 이를 것이고 2 사람씩의 家族이 있다고 한다면 무려 1千5百萬名이나 되는 것이다.

이처럼 戰爭은 우리 民族의 傳統·유산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不安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또한 휴전협정 이래 계속되어 온 南北韓 軍事競爭과 1983年 10月 9日 버마 랭군사건 등으로 나라는 不安感을 根本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統一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南北韓 모두가 함께 認識하여야 할 課題이다.

네째, 富強한 民族國家를 이룩하여 世界 先進國家의 隊列에 끼어야 한다는 것은 우

리 民族의 共通의인 숙원이다. 富強한 民族國家를 이룩한다는 것은 國民이 보다 幸福한 生活을 누리기 爲해서 뿐만 아니라 民族의 自尊과 國權을 維持하기 爲해서도 要請되는 것이다. 과거 우리 民族의 受難과 悲劇은 國力이 貧弱한데 起因한 것임은 두 말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富強한 民族國家를 建設하기 爲해서는 南北이 統一되어야 할 것이며, 國土의 兩分은 經濟의 相通과 統一의 發展을 不可能하게 하며 南北의 對立과 敵對關係로 말미암은 各各의 軍事費가 莫大하게 지출됨으로써 資源을 非效率의으로 使用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1960年代 初에 軍備擴充에 착수하여 國民總生産의 20% 內外를 軍費에 充당하여 왔으며, 南韓은 1970年代에 軍現代化計劃에 착수하여 1980年 부터는 國民總生産의 약 6%를 軍費에 할당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量에서 南韓은 수출을 242억 \$, 수입 262억 \$하고, 北韓은 수출 14억 \$, 수입 15억 \$어치 하는 중에 南北韓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量은 하나도 없다는데 問題가 있다. 우리는 한 民族으로서 멀리 있는 外國에 힘들여 貿易하기보다 가까이 서로 돕고 도움으로써 보다 큰 力量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이 統一을 이루어 富強한 先進民族國家를 形成해야 한다는 것을 共同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統一을 이루어야 할 當爲性은 民族의 歷史의 要請인 同時에 人道

主義의 苦痛을 解消하는 길이며, 온 國民이 戰爭의 恐怖와 不安으로 부터 解放되어 富強한 先進國家를 發展해 나가는데 南과 北이 함께 認識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共同認識의 問題가 곧 統一을 爲한 民族의 첫 번째 課題라 하겠다.

Ⅲ. 統一政策 方向에 對한 合意

1948年 8月 15日 서울에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고, 同年 9月 9日 平壤에 소위 「朝鮮人民共和國」 政權이 樹立됨으로써 韓半島에 두 개의 競爭하는 政府가 樹立되었다. 그 후 南北韓 政府는 各者가 韓半島에서 유일한 合法政府임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存在를 부정하는 政策을 취하였다.

아울러서 南北韓은 各其 安保를 위한 軍事的 對決과 國際的 위신을 얻으려는 外交的 對決, 번영을 누리려는 經濟的 競爭과 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한 政治的 競爭을 치열하게 벌이는 가운데 서로가 自己便宜主義的 立場에서 統合을 願하여 統一方案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서로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말과 理論만 풍성한 統一論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것은 各 時期別 政治的 影響으로 統一政策이 바뀌고 統一의 方向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같은 目的을 가지고도 다른 方法과 方向을 제시함으로써 統一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엇갈렸던 것 같다. 그동안의 統一政

策을 살펴 보면, 南韓과 北韓의 方向이 얼마나 差異가 있었나는 쉽게 알 수 있다.

1. 南韓의 統一政策

南韓의 統一政策의 政權을 낀 政府의 性格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먼저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 第1共和國은 大韓民國 政府의 唯一合法性을 토대로 하여 朝鮮人民共和國은 不法團體일 뿐 아니라 38度線 以北의 韓國 領土를 不法的으로 強占하고 있는 傀儡政府를 武力에 의한 北進統一이라도 감행하겠다는 統一政策을 취하였다. 이러한 方法의 根元은 當時 政治 指導者가 그의 위치를 強化하겠다는 構想과 더불어 國際政治上的 冷戰狀態와 理念的 對立關係가 이것을 可能케 도와 준 國際環境이기도 하였다.

두번째, 1960년~1961년까지의 第2共和國은 4.19義舉로 李大統領이 하야하고 許政過度內閣이 수립되면서 平和統一論과 함께 革新勢力의 南北交流論, 中立論 등의 주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60年 8月 27日 張勉總理의 施政演說에서는 平和統一과 유엔監視下 人口比例에 따른 南北韓 總選舉를 천명하였다. 즉, 第2共和國은 1共和國의 北進統一 주장을 철회하고 平和統一原則으로 變化하였다.

세째, 第3共和國 前半期로 볼 수 있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第2共和國 政府와 같은 統一政策을 추구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U.N監視下의 南北韓 自由總選舉 이의

에는 어떠한 統一方法도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고 國家政策을 国力增強에 最優先 순위를 두고 있었다.

네째, 第3共和國 後半期인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統一政策은 1950年代와 1960年代의 統一政策으로 부터 근본적인 變化를 보이기 시작 하였다.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은 一名 「8.15宣言」을 통하여 北韓을 한 政府로서의 存在를 認定하여 南北韓間의 社會를 開放하고, UN機能에 의존해 온 統一政策을 南北韓 当事者 間에 協商方法으로 하자는 積極적인 方法을 제시했다. 이어서 1971年 8月 31日 金溶植 外務長官이 발표한 大韓民國의 統一接近方法은 3段階에 걸친 漸進的 接近法으로 ① 人道的 問題의 해결, ② 非政治的 交流, ③ 政治的 問題의 合意였다.

이 제안은 곧이어 南北 離散家族찾기 運動으로 具體化되어 南北韓赤十字會談이 시작되었다.

第3共和國의 가장 劃期的인 統一政策의 變化는 李厚洛 中央情報部長이 1972年 5月 2日부터 5日까지 平壤을 비밀리에 訪問하여 金日成과 會談하고 本秘密會談의 合意로서 7月 4日 南北 共同聲明을 발표하면서, 平和的 統一이라는 共通된 念願을 達成하기 위해 상호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統一을 촉진시키기 爲하여 合意된 事項을 수행할 것을 서약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朴大統領은 1973年 「6.23

宣言」을 發表하면서 平和統一外交政策 7個項을 宣言했고, 1974年 1月 18日 年頭記者會見에서는 南北韓不可侵協定 締結을 提議했으며, 同年 8月 15日에는 平和統一 3大原則을, 1975年 9月 22日 第30次 UN總會에서 키신저 美國務長官은 休戰当事者會議가 제의되었으며, 1979年 1月 19日에는 朴大統領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 當局會議가 제의되었으며 同年 7月 1日에는 朴大統領과 Carter 美國大統領이 共同聲明을 통해 「3當國會談」이 提議되는 등 매우 積極的인 統一政策이 展開되었다.

다섯째,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第5共和國의 統一政策도 亦題 積極的으로 展開되고 있다. 第5共和國이 탄생하기 前에 이미 1980年 1月 韓國은 「總理會談」을 提議하였으며, 1981年 1月 12日 全斗煥 大統領은 「南北韓 當局者最高責任者 相互訪問」을 提議하여 南北韓間 信賴造成과 戰爭再發을 防止 및 南北對話 再開를 위한 확고한 契機를 마련하였다. 第5共和國이 出帆한 1981年 6月 5日, 全大統領은 南北韓 頂上會談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方法과 節次를 제의하여 最高責任者가 만나는 장소와 시기를 北韓이 任意로 정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였다.

第5共和國이 提議하고 있는 統一方案은 1982年 1月 22日에 發表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으로서 民族自決의 原則에 立脚하여 全体 겨레의 自由意思가 반영되는 民主的 節次와 平和的 方法으로 成就한 것을 基

本原則으로 하고 있다.

2.北韓의 統一政策

金日成은 北韓政權 수립 후 1948年 9月 10일에 發表한 8개 政綱中 첫째 항목으로 “전체 朝鮮人民을 團結시켜 祖国統一을 위한 鬪爭에 動員할 것이며 国土完成과 民族統一의 先決條件으로 되는 蘇·美 兩國 軍隊의 同時철거에 관한 소련 정부의 제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내세웠다. 같은 해 金은 統一課業을 성취하기 위하여 “北朝鮮에 創設된 民主基地를 결정적으로 強化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統一의 意志를 基地建立에 나타내고 있다. 즉, 1948년부터 1950년까지는 南侵計劃을 은폐하려는 戰術的 行爲로서 平和攻勢를 취한 基地建立이 그 政策이라 해석된다.

둘째, 1950年 6月 25일부터 1953年 7月 27일까지는 武力統一을 企圖하여 막대한 人命과 物資의 손실은 물론 韓國民族史上 汚點을 남겼다.

세째, 1953年 休戰協定으로 부터 1960年 4月の 學生革命에 이르기까지는 中立國 감시하에 南北韓의 自由選舉를 통한 平和統一을 주장하였다. 1953年 8月 5日 北韓의 조선노동당 KWP 제 6차 중앙위원회 석상에서 金日成은 “祖国統一은 오로지 外國의 간섭없는 平和的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休戰協定을 환영하여 戰爭에서 北韓이 勝利하였다고 확언하였

다. 또한 1958年 2月에는 中立國 감시하에 南北總選舉를 주장하였으며 南韓에서 美軍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였다.

네째, 1960年 8月 이후 지금까지는 聯邦制主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여러 가지의 형태와 戰略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1960年 8月 15日 제15회 해방기념식전에서 金日成은 현존하는 南北韓의 두 政府를 統合하는 이른바 “聯邦政府”의 수립을 要求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南朝鮮革命”을 奨勵하는 兩面戰術을 使用하여 1962年 12月の ‘4大軍事革命路線’의 채택, 1964年의 2月 27日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 4期 8次 全體會議에서 “3大革命力量”, 1968年 1月에는 31人組 北韓特攻隊의 朴大統領 暗殺事件 등을 전개해 나갔다.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南北對話를 시작하였다. 1971年 8月の 첫 南北赤十字代表의 접촉이래 1972年 7.4共同聲明, '73年 6月 23日 (6.23宣言이 發表되는 날) 金日成은 南北韓이 高麗聯邦共和國으로 UN에 單一會員國이 되자는 案을 내놓았고, '78年~'79年 사이에는 유고의 티토와 미국 기자단에게 “3者會談의 可能性”을 제시하였으나, '79年 7月 Carter 大統領 訪韓時 “3當國會談”를 제의했으나 北韓은 거부하였다.

다섯째, 1980年 10月 10日 勞動黨 第 6次 大會에서 金日成은 高麗民主聯邦共和國案을 내놓아 '60年 이래 주장해 온 聯邦制를 재확인하면서 10개 施政方針을 제안하였다. 여

南北韓 統一政策 比較

南 韓		시 기	北 韓		
政策의 性格	政策의 内容·方向	年 月 日	政策의 内容·方向	性 格	
小 極 的 統 一 政 策	北進 統一政策 (제 1 공화국)	'48. 8.15			
		9.10	基地建設 政策	戰爭준비	
		'50. 6.25	武力統一政策	戰 争	
		(6. 25)	'53. 7.27		
			'60. 4.19	平和統一政策	
	平和統一政策 (제 2 공화국)	8.15			
	군사혁명 정부기 제 3 공화국 전반기	'61. 5.16	聯邦政府 수립정책 (4대 軍事革命路線) (3대 革命力量)	條 件 的 統 一 政 策	
	'63.				
	'69				
8. 15宣言	'70. 8.15				
	'71. 8.				
7. 4共同声明	'72. 7. 4	7. 4共同声明			
6. 23宣言	'73. 6.23				
남북한 불가침	'74. 1.18	高麗聯邦共和國			
평화통일 3대원칙	8.15				
남북한 당국회의	'75. 9.22				
	'79.10.26				
	'80.10.10				
当局者 最高 책임자 회담제의	'81. 1.12	高麗民主聯邦 共和國			
	6.15				
民族和合 民主統一政策	'82. 1.12				
	'83.10. 8	3者會談 提議			
	'85. 4. 9	国会 會談 提議			

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60年代 이후
출근 주장해 온 南北聯邦制는 20여년이 지
나는 동안 實質的인 內容과 機能, 役割이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연방제 실시의 前提
조건이 달라졌으며,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
서 그들이 要求하는 前提條件을 南韓이 먼
저 받아들이고 시행할 것을 항상 주장해 왔
다. 이상과 같이 解放後 南北韓이 취해온
統一政策을 表로서 比較해 보면 앞과 같다.

3. 앞으로 南北韓이 合意하여야 할 統 一論議의 方向

民族統一을 한 政府의 國內政治的 政權의
수단이나 對外 宣傳의 次元에서가 아닌 眞
正한 統一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南
北韓이 무수히 시도하고 提議해 온 方案들
을 再檢討하고 두 政府가 共通的으로 認識
하고 合意하여 단계적으로 統一을 成就해
나가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民族統一의 當爲性을 充
分히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은 지
켜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統一은 平和的으로 이루어 져야 한
다. '50年을 前後한 南韓의 北進統一政策이
나 北韓의 무모한 戰爭 도발은 결단코 있어
서는 안 될 統一政策이다. 分斷 後 40年이
넘도록 서로가 이룩해는 政治, 經濟, 文化
等 많은 業績들이 그대로 保存되고 서로의
思想과 理念을 조화있게 조정해 나가는 平
和的 統一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하겠다.

특히 北韓이 겉으로 平和的 聯邦政府를 내
세우면서도 속으로 4大軍事路線, 3大革命
力量 等과 같은 表裏的·기만적 統一政策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統一은 南北韓 當事者 간에 해결해
야 할 것이다. 韓半島의 統一은 美·日·中·
蘇 等の 4強關係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
나, 4強은 韓半島 內의 安定과 勢力均衡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 그들 간의 均衡이
깨어지지 않는 한, 南北韓에 의한 民族의
統一努力을 극구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이 提議하고 있는 3者會
談에 대해서 美國과 蘇聯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4者會談, 6者會談도 現實性이 적
으며 실제 4者, 6者가 會談을 한다고 하
더라도 韓半島 統一에서 그들의 利害關係를
계산하느라 우리의 目的達成에 바라는 만큼
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民族의 問題를 當事者間에
對話와 協商을 通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것
이다.

셋째, 統一은 하루 아침에 完成되어질 수
는 없으므로 實踐하기 쉬운 것부터 漸進的
으로 해 나가야 한다. 統一은 하나의 過程
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結果로 끝을 낼 수
는 없는 것이다. 政治的으로 統一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國民의 머리 속에 있는 思想이
나 主義, 社會生活에 익숙해 있는 관습 等
은 상당히 오랜 기간 異質的 面을 보여 주
게 될 것이다. 따라서 統一을 이룩하는 過

程은 쉽고 서로에게 有益하고 實現可能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야 하겠다. 무엇보다 對話가 必要하며 實現可能한 内容이다. 南北赤十字會談, 經濟會談, 國會會談, 體育會談, 高位代表會談, 最高責任者會談, 頂上會談 等 어느 次元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 對話는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南韓이 提議한 20개 示範實踐事業¹⁾이나 北韓이 提議한 10大 施政方針이나 서로 合意하여 實現可能한 것부터 하나씩 實施하여 單一民族으로서의 同質性이 完全 回復될 때까지 꾸준히 努力하여야 하겠다.

IV. 統一過程에 對한 理解와 努力

統一은 南北韓이 벌이고 있는 政治, 經濟, 外交, 軍事的 競爭이 解消되고 合意된다고 해서 一朝에 이루어 질 수는 없으며 現在로서는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南北韓 關係는 ① 競爭 抑制, ② 긴장완화 ③ 親和協商, ④ 民族統一의 方向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1. 戰爭抑止

1980年代에는 南北韓 양측이 어떻게 하든지 戰爭再發을 방지하는데 努力하면서 可能的 關係改善을 모색해야 하겠다. 즉, 南北韓間의 軍事的 均衡을 이루면서 國內的 安

定이 유지되어 어느 쪽도 다른 쪽에 공격을 可할 수 없는 抑止力이 必要하다. 오늘날 韓國內의 政治, 勞使問題나 '88 서울올림픽 개최 등이 자칫 北韓으로 하여금 戰爭의 機會로 오판하게 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統一은 먼저 戰爭이 일어나지 않는 現在의 狀態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서로 理解하고 努力해야 하겠다.

2. 긴장완화(Detente)

南北韓은 當事者 間에 對話가 成立하여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여 긴장완화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제한된 領域에서나마 協商의 성과를 거두어 信賴를 구축하여 서로가 利益이 되는 合意點을 모색하여야 한다. 文化交流나 Sports 交流, 經濟的 協助 등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의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990年代에는 이런 狀態가 定着되도록 努力해 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될 때 쌍방 間에도 긴장이 完化되고 相互 信賴의 계기로 統一이 가까와 질 것이다.

3. 親和協商(Entente)

일단 Detente가 定着하면 그 다음에는 Entente가 수반되어 쌍방은 相扶相助의 協力과 交流를 實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平和的 共存 뿐만 아니라 相對方을 적극 도우며 같이 잘 사는 “民族 共榮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政

治的으로는 協商과 基本條約이 맺어지고 民族의 同質性 회복을 위한 言語, 歷史, 文化, 傳統을 계승하는데 協力함으로써 一體感이 점차 확산되고 理念과 體制에서 오는 갈등은 점차 해소되어 지면서 民族統一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갈 것이다. 要컨대 현재의 東·西獨 關係와 비슷한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4. 民族統一

이상의 3 단계가 원만히 進行되면 이제 南北韓의 政治的 타협이 이루어져서 民族統一이 成就될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쌍방의 만족할 만한 타결점이 發見되어야 하며, 同時에 強大國도 이것을 理解하고 지원하며 보장해야 한다.

우리 民族이 이러한 統一의 過程을 밟기 위해서는 政治體制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측이 조금을 잃는 同時에 조금을 얻을 수 있는 Non-Zero Sum Game이 이루어 져야 한다. 分斷 42년이 되도록 우리는 상대방에게 안 주고 안 받는 式의 統一方法을 벗어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共同의 유산과 利益一到가 되도록 하며 아울러 民族의 同質性을 무엇보다 강조하여 國土가 하나되고 民族이 和合하며 國民이 幸福하게 잘 살 수 있는 先進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祖國統一에 다같이 努力하며 이 過程을 잘 理解하는 것이 우리 民族에 주어진 統一의 한 課題라 하겠다.

V. 結 論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기를 바라는 것은 韓國人은 물론 周邊의 여러 強大國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分斷 42년이 되는 동안 南韓은 南韓대로 統一의 方法과 方案을 提議하고 北韓은 北韓대로, 그리고 美國, 日本, 中共, 蘇聯 強大國들도 南北統一 問題에 關心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의 실마리는 아직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韓半島의 分斷은 固定되었다는 느낌이 우리 民族과 世界人들에게 常識化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統一의 難題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 民族이 해야 할 課題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宿願인 것이다.

따라서, 南·北에 살고 있는 6千萬 우리 民族은 왜 統一을 해야 하는가의 當爲性에 대하여 共同意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先行되어야 할 課題이다. 統一은 半萬年 이어 온 우리 民族의 歷史的 要請인 同時에 離散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人道主義的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戰爭에 대한 두려움과 不安感을 없애고 오히려 南北韓이 協力하여 先進國으로 發展해 나감으로써 幸福한 生活을 누리는 韓民族이 되자는데에 共同의 認識을 가져야 하겠다.

둘째로, 統一의 政策方向을 南北韓이 合意하여 共通된 기반 위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分斷後 지금까지의 統一政策은 各政府의 自己便宜에 따라 一方的으로 提示함으로써 相對方의 理解와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合意할 수 있는 基本的인 統一原則을 세우고 그 原則이 定하는 범위 內에서 統一論議를 해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 南北韓이 合意 해야 할 統一의 方向은 ① 平和的으로 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② 統一의 問題는 南北韓 当事者間에 對話와 타협을 通해 해결해야 되겠고 ③ 實踐 可能하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여 完全한 統一이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하자는 것들에 대해 먼저 合意하는 것이 統一을 向해 努力하는 우리 民族의 課題라 하겠다.

세째, 統一은 短時間에 이루어 질 수가 없다. 統一의 過程은 ① 戰爭抑止 ② 긴장완화 ③ 親和協商 ④ 民族統一 이라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지게 되므로 各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內容들을 充實히 채워 나가는 것이 統一에 대비하는 우리 民族의 姿勢요 앞으로의 課題이다. 現在, 民主化의 대열에 同參하느라 많은 政治, 經濟, 社會的 問題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大韓民國은 먼저 戰爭이 抑止되도록 最善을 다하면서 긴장완화와 親和協商의 過程으로 나아감은 물론 北韓도 이 過程을 理解하고 完全한 民族統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努力해 나가야 할 것이다.

= 註 解 =

- 1) 20개 示範實踐示範事業 ①서울·평양 간 도로 연결 개통 ②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③자유관광 공동지역 설정 ④관문점을 통한 해외동포 조국 방문 ⑤쌍방 정규방송 자유취취 ⑥자유교역항 개방(인천, 진남포) ⑦관문점을 통한 '86, '88 체육행사 참가 ⑧관문점을 통한 外國人의 自由往來 ⑨공동어로구역 설정 ⑩남북간 각계 인사의 상호친선 방문 ⑪기자의 남북한 자유취재 보장 ⑫민족사 공동 연구 ⑬체육교류 및 단일팀 ⑭日用品 交易 ⑮資源 共同개발 및 利用 ⑯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⑰비무장지대 경기장 시설 ⑱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철거 ⑳군사책임자 간 직통 전화

= 参 考 文 献 =

I. 国文單行本

1. 国土統一院 統一研修所, 「民主統一論」, 서울: 統一研修所, 1985.
2. 金學俊·李相禹(外), 「民族統一論의 展開」, 서울: 形成社, 1984.
3.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민족통일」, 서울: 정음사, 1986.

-
-
4.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5.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 서울: 민중사, 1985.
 6.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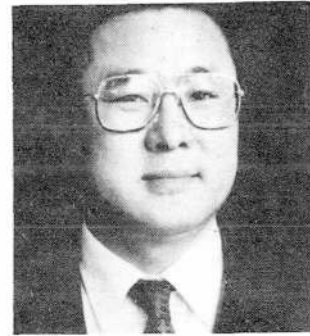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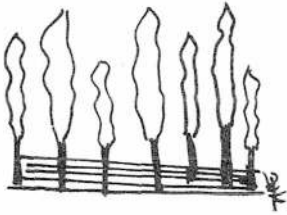
II. 国文論文

1. 姜英植. “韓國政党的 統一政策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 연세대학교 教育大学院, 1983.
2. 高性俊. “南北韓 關係에서 본 從屬理論.” 「제주대학 논문집」, 제14집(1982), pp359-375.
3. 奇會相. “韓半島 中立化 統一方案 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 延世大學校 行政大学院, 1986.
4. 金達中. “韓國의 統一政策 變遷과 南北對話.” 「統一論叢」, 1卷 1号(1981), pp181-189.
4. 劉元東. “護國精神의 理念과 南北統一의 課題.” 「統一論叢」(淑明女大 統一問題研究所) 創刊号(1984) pp17-30.
6. 尹正錫. “機能的 接近論과 分斷國의 統一問題.” 「統一政策」(平和統一研究所) ('80. 6), pp176-186.
7. 李相斗. “南北統一의 障礙要因에 關한 考察.” 「統一問題研究」(建國大 부설 中國問題研究所) 第4集(1986), pp5-42.
8. 李承憲. “韓半島 統一政策의 새로운 方向.” 「統一論叢」(國土統一院) 2卷 1号(1982), pp19-31.
9. 李禎秀. “北韓의 3者會談.” 「平和研究」(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4卷 1号('84. 12), pp181-195.
10. 任台淳. “南北韓 離散家族의 實態와 統一의 課題.” 「統一論叢」(國土統一院) 제3권 2호(1983), pp116-138.
11. 車文熙. “南北韓 統一政策의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서울: 東國大學校 行政大学院, 1983.
12. 玄鍾敏. “南北協商을 통한 統一-近接方案” 「平和研究」(경희대학교 국제평화연구소) 제4권 제1호(1984), pp197-211.

III. 英文參考文

1. Richard L. Walker. “The functional Approach What Prospects?” 「統一政策」(平和統一研究所) '80. 6. 3~4호, pp242-248.
2. Hong Koo Lee. “Political Unification and Social Welfar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1, (Spring 1984), pp5-16.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방향



이 춘 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차 례 ◇

- I. 서 론
- II. 한국경제현황과 전망
 - 1.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 2. 올림픽 이후의 경제전망
- III. 대내외경제 여건의 변화와 정책대안
 - 1. 물가상승, 임금인상의 대처방안
 - 2. 국제수지흑자, 원화절상압력에 대한 정책대안
- IV. 향후 경제운용과제와 정책방향

I. 序 論

1988년의 경제운용여건은 1987년에 비해 확실히 다른 점이 많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계기로 국민 각계각층의 기대욕구가 팽창되고 있으며, 임금인상, 통화증발 등 물가인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주요선진국의 환율 및 금리변동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경기와 교역환경에 불투명한 요소가 잠재해 있다.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가 단기간 내에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제여건하에서 정부는 1988년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은 3,45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은 원화절상과 선진국의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5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입은 500억 달러로 전망하여 50억 달러의 무역수지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대내외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경제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응정책과제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II. 한국 경제현황과 전망

1.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우리경제는 자본이 부족하고 자원이 빈곤하며, 기술수준이 낮고 국내시장이 협소하다는 등 불리한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輸出主導型 經濟成長戰略을 채택하여 지난 20여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19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우리경제는 1980년 초까지 연평균 10%의 높은 經濟成長과 40%에 가까운 수출성장을 이룩하였다. 1962년에 23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민총생산(GNP)은 1986년에는 940억 달러, 1987년에는 1천억 달러를 돌파한 1,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국민총생산 규모가 증대됨으로써 소득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1962년에 87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6년에는 800달러로 늘어났고, 1985년에 2,000달러선을 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2,813달러로 크게 신장되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對外貿易側面에서는 수출촉진정책에 힘입어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의 수출입 규모는 놀랄 만큼 신장되었다. 1962년에 5,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은 1987년에는 473억 달러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입도 증대되어 1962년 4억 달러 규모였던 것

이 1987년에는 41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등 中間投入物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최종생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구조로 인해 경제개발 계획 초기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특히 對日貿易赤字는 무역수지 누증의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소위 3低現象으로 불리는 해외경제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1986년에는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나타내어 黒字經濟時代를 개막하였다.

經濟開發政策의 추진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을 메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외자도입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원리금상환액도 증대되어 1985년 말까지의 우리나라 총외채 규모는 46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1986년에는 흑자재원으로 원리금의 조기상환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1987년의 총외채는 356억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다.

최근에는 원화의 절상과 함께 대미통상 마찰 완화를 위한 수입자유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1987년의 수입자유화율은 93.6%였던 것이 1988년에 예시한 133개 품목이 추가개방되면 수입자유화율은 95.3%로 높아지며, 1989년에 가면 수입자유화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농산물 및 그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공산품, 그리고 마약 등 他國도 제한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우리 經濟는 급속한 經濟成長과

함께 대외무역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을 물론, 대내적으로는 커다란 經濟構造의 變化를 가져왔다.

우선 우리나라는 1984년 1인당 소득수준이 2,000달러를 상회함으로써 소득수준 37위의 국가가 되었고,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1973년 세계수출총액의 0.62%를 차지하던 우리의 수출규모는 1985년에는 세계수출의 1.7%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의 경우에 1973년 세계수입 비중의 0.79%를 점하던 우리나라 수입규모는 1985년 세계수입총액의 1.7%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출상품구조면에서 보아도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初까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구조에서 제4차 경제계획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지는 輸出構造 高度化가 달성되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의 성공으로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도 크게 증대되었으며, 또 대외무역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격상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경제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수입자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방화도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수출상품구조도 과거의 경공업품 中心에서 중화학제품 中心으로 구조적 변화를 이루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1988년 경제전망과 함께 올림픽 이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올림픽 이후의 경제전망

1988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임금상승압력이 상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통상마찰과 함께 원화절상압력의 확대에 대처하는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올해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을 전후하여 한국상품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對共產圈 교역이 확대되고, 시장다변화도 이루어져 국내경기는 상당기간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를 고비로 성장속도는 다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12.2%보다 낮은 9~10%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6~8%로 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측면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14.6%가 증가된 533억 달러, 수입은 17.7%가 늘어난 451억 달러로서 8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달성되었던 77억 달러에 비해 다소 증가된 것으로서 IMF는 올해 우리나라 黑字規模를 최소 88억~최대 113억 달러로 추정하여, 정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흑자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무역흑자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과도한 원화절상

압력의 주된 요인이 되는데, 원화절상이 가속화될 경우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됨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의 경쟁력 약화로 1989년 이후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는 연초의 임금상승, 1987년도 일부 원자재가격의 앙등, 공급부족 등으로 계속 상승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통화증발, 농산물가격 상승, 올림픽 特需 등 물가상승기대 심리가 팽배해 있어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억제목표선인 소비자물가 5%, 도매물가 3%의 상승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물가상승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국내유가조정에 여유가 있고,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물가하락 등이 국내물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화절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말부터 빨라지기 시작한 원화절상속도가 금년 중 더욱 가속화되어 3월말까지 벌써 전년말 대비 6%의 절상을 보였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원화절상은 1988년 상반기 중에 약 10~12% 절상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말 대미환율은 720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재의 수출입추세가 계속될 경우 흑자규모를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70억 달러로 억제하기 어려워 원화절상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연말 대미환율은 680~700원선으로

평가절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이후에 한국경제가 나아지느냐의 여부는 환율의 절상폭과 물가안정이 관건이 된다는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다.

Ⅲ. 대내외경제여건의 변화와 정책대안

1. 물가상승; 임금인상의 대처방안

1980년대 들어 우리경제가 이룩한 物價安定은 과거의 물가상승추세에 비교하여 볼 때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개발기의 물가상승추이를 보면 1960년대에는 주로 成長通貨供給에 따른 초과수요압력과 농수산물의 수급불안에 기인하여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었고, 1970년대에는 1, 2次 석유파동까지 겹쳐 연평균 2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30~40%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바 있으나 1981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에 진입함으로써 1982~'86년 간의 물가상승률은 3% 내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1987년에는 도매물가가 2.7%, 소비자물가가 6.1% 상승하여 안정기조가 다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총통화가 증대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국제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일부 공산품가격이 오른 데에

도 원인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선거기간에 풀린 자금과 이완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물가오름세심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物價安定을 위해 1987년말까지 1조원 이상의 통화조절채권을 발행하고, 민간여신을 조절하는 등 통화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3月末까지 도매물가는 1%, 소비자물가는 3.6% 오름으로써 올해 연간억제목표의 2/3가량이 1/4분기 중에 오르고 말았다. 이는 선거기간 중에 풀려나간 통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통화공급이 지나치게 커지면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신축적인 政策運用이 필요하게 된다.

무역면에서의 흑자전환과 흑자폭의 확대도 통화증대요인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에 기여하였다.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資本導入을 억제하고 외채를 상환하며 수입확대 등을 통해 통화증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완화를 위해서도 실질적인 수입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통화관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선 수입증가만큼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압력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외경쟁이 확대되어 국내물가상승압력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최근에 내놓은 정책 중에는 90여 개 소비재의 수입확대방안이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수입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종소비재의 수입이 늘어나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가격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시키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는 임금상승압박이 남아 있다. 노동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명목임금의 인상률은 비농림어업의 경우에 17%에 이른다고 추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임금의 물가과급효과에 따르면 매년 임금이 물가에 주는 압력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가령 임금 10%가 오를 때 제조업의 경우 1980년의 경우 물가상승압력은 2.5%였으나 1985년에는 2.7%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임금이 평균 12% 이상 오를 전망이고보면 물가상승압력은 3%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여진다.

따라서, 당면한 물가문제는 소비재의 수입확대만으로 부족하다. 해외부분에서 증발되는 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전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을 줄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이럴 경우 부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부문에서는 자금이 남아도는 반면, 내수부문은 지나치게 자금경색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서는 우선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거나 흡수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통화금융정책 내지는 외환·무역정책측면에서의 대처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수지흑자, 원화절상압력에 대한 정책대안

1980年初부터 우리나라 對美名目換率은 계속해서 평가절하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換率과 貿易에 관한 G-5財務長官회의가 있는 1985年 9月까지 84.2% 평가절하되었다. 그후 대미환율은 평가절상추세로 발전되어 1988年 3月까지 약 15.5% 평가절상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화의 대미달러 換率은 753.5원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의 화폐가치에 대한 원화의 실질유효환율은 1979年 12月末부터 1987年末까지 48% 평가절하되었고, 1987年末부터 1988年 3月까지 4% 평가절상되었다.

통상적으로 평가절상은 달러표시 수출단가의 상승을 통해 수출을 둔화시키는 한편, 원화표시 수입단가의 하락을 통해 수입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는 약화되고 경제성장은 둔화되며, 수출둔화의 파급효과로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 반면에,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해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소득이전효과가 발생하여 수입단가가 낮춰짐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외채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과도한 수출의존

체질을 개선하여 內需部門과 輸出部門 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한계기업의 퇴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는 구조조정효과를 갖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수출기업은 재산성이 악화되지만, 내수산업에서는 호황을 맞는 등 산업별 영향이 상이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촉진, 기술개발노력의 증대 등 경영의 고도화가 유도되며, 수출기업에게는 재산성 악화에 대응하여 해외투자가 촉진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는 대미환율의 평가절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된 것이긴 하지만, 주원인은 對美貿易収支黒字가 바람직스러운 수준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1986년 46억 달러의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한 이래로 우리나라 경제는 1987년에도 98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무역수지흑자 추세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외채를 갚거나 외국의 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하지만, 흑자는 換率調整壓力을 야기시키고 해외부문의 통화량증가를 통하여 물가상승을 자극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무역수지흑자는 명목환율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자극하여 실질환율을 평가절상시키게 하는 要因이 된다.

따라서 무역수지흑자가 지속되는 상태하에서는 금융정책을 통하여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 만약 금융정책의 목표를 명목환율의 적정수준유지에 두고 흑자에 따른 통화증가량을 通貨安定証券發行 등 국내의 금융자원 흡수수단을 사용하여 완전히 상쇄하려고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흑자상태는 앞으로 환율의 절상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해외의 자본유입을 증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통화관리수단이 미비하다는 점과 금융시장이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되는 해외부문 통화증발의 억제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물가상승이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환율은 명목환율보다 더 큰 폭으로 단기간에 절상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 수입, 그리고 경제전반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명목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게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흑자관리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적정경상수지흑자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만큼 상품을 수입하면 초과분은 상쇄될 것이고, 명목환율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극단적 방법보다는 적절한 경상수지흑자 유지를 위하여 외화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수지흑자 초과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고 실질환율을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절상시키며, 흑자의 일부를 해외자산 구매나 수입증대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경상수지흑자의 부담을 수출, 수입, 그리고 경제전반에 파급시키고 산업구조를 가격변화에 따라 조정하며, 기업이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向後 경제운용과제와 정책 방향

우리나라 경제는 바야흐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우선 지난 '86년 3低에 힘입어 달성된 무역수지흑자를 들 수 있다. 이런 흑자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는 확실히 경제기조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흑자기조로의 전환과 함께 국내적으로 물가·임금·소득분배·산업지원 등 문제와, 대외적으로 환율·시장개방·통상마찰 등 안팎으로의 경제현안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한국경제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환기에는 경제운용목표가 달라지므로 정책의 내용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금융정책이 무역·외환정책과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적정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 현실의 경제여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통화금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구조개편 및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86년 이래 통화금융면에 중요한 변화를 미친 것이 흑자전환과 흑자폭의 확대라고 한다면, 흑자발생은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외부문의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근 통화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내의 통화금융정책과 함께 무역·외환정책의 병행실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 과거에 사용되던 산업정책 중 불필요한 부문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무역확대 우선주의에 입각한 수출지원정책은 완화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때에 과거 수출을 늘려 외환을 벌어들여야 했던 적자시대의 지원정책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또 특정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1970년대 후반의 중화학투자지원에서 보듯이 특정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특정산업 중심의 지원정책보다는 산업중립적인 기능별 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밖으로부터의 도전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것들이다. 이 중에서도 무역흑자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화절상과 농산물,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강도높게 가해지고 있다. 이는 주로 국제수지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필요가 서로 상충되어 무역마찰로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흑자규모의 적정관리는 물론 수입자유화,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의 확대정책도 필요하게 된다. 이 이외에도 지

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든지, 통상정책과 연계된 산업협력을 추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무역흑자가 발생하면서 통상마찰을 해소하거나,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해외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해외투자정책은 국제수지흑자의 정도에 따라 자유화를 전제로 하여 단계별 계획을 세워 국민경제 전체의 메카니즘 속에서, 특히 통상무역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외교의 변천과정

—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

윤 동 현

(중령 제 5315 부대)

I. 서 론

60여 년에 걸친 이승만의 외교를 보면, 그는 日本의 한반도 統治의 不法性을 국제 회의나 朝野에 호소했고, 제 2 차 대전이 끝나기에 앞서서는 그가 한반도의 분할계기가 되었다고 본 알타비밀협정을 폭로·규탄하여 큰 무리를 자아내게 했으며, 해방 직후에는 신탁통치 반대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반소외교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아직도 한국방위를 위한 미국 부담이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실제보다는 너무나 댓가가 작기는 했지만, 한·일회담에서 日本이 主要問題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平和線을 宣布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를 촉구하는 미 행정

부의 태도에 대해 간사한 일본인들에게 전승국인 미국이 속아넘어 가고 있다고 경고하다가, 급기야는 미 국무성에 친일파가 많기 때문에 日本만을 重要視하고 한국은 경시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대미외교는 처음부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친미반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시대상황의 변천에 따라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승만의 政治觀과 主張이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變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내용과 배경은 무엇인가를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II. 일제 통치하의 독립호소 외교

먼저 이승만의 독립호소외교를 보면 그가

1904년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에 건너가 1882년에 맺은 한·미수호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日本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루즈벨트에게 전해주었으나 정식 외교통로를 경유하지 않아 처리하기 곤란하다며 이를 한국 공사관을 경유하여 제출할 것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당시 친일분자로 주미 한국 공사였던 金潤晶의 非協助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日本의 승리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그들의 야욕을 채우는데 거리낄 것이 없었으며, 구미 열강들역시 일본의 침략행위를 러시아 南進政策의 저지라는 구실로 두둔하고 나섰다. 가령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1905년 7월에 일본과의 「태프트-가스라」 비밀협약을 통하여 일본의 한국지배를 승인, 이를 보장하고 있었고, 더불어 그해 9월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한국의 장래를 절망상태로 몰아 넣었다. 이 조약에서 한국은 전쟁당사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모든 침략적인 행위가 정당화 되게 되는데, 당시 한국의 주권은 열강들의 '홍정의 대상이 되었을 뿐 사실상 상실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1910년 미국의 Princeton大学에서 哲学博士学位를 받음으로써 東西의 學問과 新舊知識을 習得한 정치가로서 한국 및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東西知識에 精通한 人物로 돋보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9월에 귀국하여 月南 李商在 등과 함께 基督教青年會(YMCA)를 中心으로 靑年들을 指導하는데 전력하다가 1912년 基督教指導者 검거 선풍을 피해 다시 도미했다. 이는 그가 「세계 메소디스트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회의에 앞서 윌슨 대통령을 만나 한국 해방을 위하여 그의 同意를 얻고자 했다. 평소 이승만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제창한 윌슨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우드로 윌슨의 제자가 되어 그의 집에 가끔 손님으로 드나들었으며, 윌슨 총장과 그의 가족은 이승만에게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한국과 한국 선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다. 이승만은 그 후에도 윌슨을 찾았고 그때마다 한국에 대한 동정과 이해도 많이 얻었다고 하며 또한 윌슨 대통령의 소개를 받아 美國 각지를 돌아 다니며 강의를 할수있는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또한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이승만은 한국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기 위하여 본 회담 참석을 서둘렀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윌슨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정식 대표자로서의 참석은 좌절되고 객원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편의만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 상해에 있던 김

규석 박사를 대신 참석시켜 한국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케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이승만의 국제상황에 대한 認識은 어느덧 韓國의 독립획득은 武力的인 手段이 아닌 強大國들에 대한 호소적인 外交를 通해서만 可能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그가 世界歷史 속에서 강점되었던 약소국이 무력투쟁의 方法으로 獨立을 쟁취했던 事例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승만의 獨立運動方式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더욱 明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승만이 호노롤루에 갈 수 있었던 것은 獄中에서 같이 고생했던 朴容滿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당시 박씨는 교포誌에 그를 소개하여 그에 대한 關心을 높이는데 힘썼다.

그러나 이승만은 얼마 안 가서 박씨를 크게 비난하기 始作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박씨 독립운동이 무력항쟁을 目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박씨는 하와이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기회가 있으면 日本에 무력항쟁을 벌여 열강의 지지를 얻고 國際輿論의 힘으로 日本을 굴복시키자는 주장이었으며, 이에 반해 이승만의 한국 독립운동 方案은 주로 외교, 선전, 종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美國의 政策에 비추어 확실히 地利를 취한 方法이었다. 때문에 安昌浩, 朴容滿 등 暴力과 武力으로 日本 제국주의 통치자에 대항한다고

한 강경파의 主張과는 상당한 차이는 보이고 있다. 그래서 3·1運動으로 上海에 한국 임시정부가 탄생되었을 때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 모두가 거기에 가담하였으나, 그들 사이의 갈등은 中國에서도 美國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후 실제 上海에서 白川大將을 폭파시킨 尹義士나 東京에서 日本天皇「昭和」를 暗殺하려던 李奉昌義士의 行動을 어리석은 짓들이라고 上海 임시정부 김구 주석에게 비밀사절을 通해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

그에 의하면 尹義士의 義拳는 強大國들로부터 야만인으로 취급당하며 日本의 탄압을 더욱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승만의 이러한 思考方式은 비열하리 만큼 철저했다.

1919년 2월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을 새로 창설되는 국제연맹의 委任統治下에 두어 달라는 청원을 하여 교포사회에 일대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는 在美韓人全體代表會議 결의로 빠리의 강화회의에 가서 한국의 獨立을 호소키로 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눈치를 살피고 있던 美國政府는 그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윌슨 대통령이라도 면회하겠다고 그를 찾아갔으나 면회조차 거절당해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때 이승만은 윌슨에게 國際聯盟의 委任統治하에 두어 달라고 그를 선출한 한인회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UP통신에 發表했다.

이에 크게 놀란 代表會議은 그에게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고 委任統治案이란 이승만 개인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윌슨에게 밝히라고 要求했으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했다.

또한 그는 3·1運動이 暴發하고 日帝의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가 희생당하자 이승만은 비서인 임병직을 駐美日本大使館에 보내 日本天皇 大正에게 한국에 獨立을 달라는 陳情書를 보냈다. 당시 이 진정서는 훗날 일본의 首相이 된 廣田이 받았으나 이승만의 이 편지가 天皇 大正에게 전달될 리 없었다.

이승만은 그 편지 속에서 한국의 독립을 要求하면서 만약 일본이 한국에 自由를 준다면 한국민은 日本에 感謝하고 友情을 느낄 것이지만, 만약 우리의 要求를 거절한다면 日本은 정복자로서 不信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승만은 이 편지가 大正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미국신문에 이 사실이 發表되면 미국 국민의 동정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위임통치 전의는 上海에 모인 志士들을 격분시켰으며, 일본 천황에게 獨立을 달라고 要求한 것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웃음을 사게 했다고 한다.

이러한 事實로 보았을 때 國際政治에 밝았던 이승만은 當時의 狀況이 韓國獨立을 위해 얼마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였나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아무리 自尊心이 강했던

그였지만 망국의 現實과 절망적인 狀況判斷은 그토록 치욕스러움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그의 집념은 일관되고 있다.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세계군축회의가 열리자 이승만은 이 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아세아의 平和는 우선 한국이 독립되어 완충지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그를 상대해 주는 各國代表나 記者들은 없었다. 오히려 이승만의 주장보다는 그를 비난하는 日本代表의 말을 더 주의깊게 들었다. 또한 그는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터지자 만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열렸던 國際聯盟에 달려가 中國大陸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막자면 먼저 韓國獨立이 必要하다는 그의 持論을 선전하고 「드러몬드」 사무총장에게 長文의 호소와 함께 기자들을 만나 한국의 실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호소는 많은 代表들의 關心을 사기도 했으나 英國이나 프랑스는 오히려 일본의 만주진출이 소련의 南下政策을 저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意見을 내세움으로써 그의 호소는 묵살되고 말았다.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國際社會에서 잊혀진 나라로 關心조차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호소는 황야에서 외치는 외마디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약 40여년간을 美國에서 체류하면서 韓國 임시정부에 대한 外交的 支持를 얻는 일과 한국에 대한 美國政府와 國民들의 理解와 동정을 얻는데 全力을 다

했으나 그 어떤 목적도 達成할 수 없었으며 냉대와 無觀心만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호소의요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이승만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는데, 바로 이승만 自身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러한 狀況이 展開되고 있었던 것이다. 國內에서 日帝의 가혹한 탄압과 「皇國臣民化」등의 민족말살 정책으로 民族의 獨立이 암담한 이때 美國의 強力한 힘을 믿고 있던 이승만은 머지않아 日本이 패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國際狀況에 크나큰 變化를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승만의 독립호소외교는 사실상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기해 변화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이른바 호소형 독립외교 노선의 根本目的은 日帝의 야만성과 침략야욕에 대한 強大國들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들의 경각심과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美·日間に 戰爭을 이끌어내 한국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본은 이승만에게 目標된 적이 될 수 없었으며 여기서부터 서서히 소련이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1942년 6월부터 일주일간 美陸軍의 도움으로 국내 민족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한민족의 團結을 촉구하며 適期

에 도래하면 총궐기하여 일제에 對抗하라는 要旨의 육성방송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美國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었다. 즉 미국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美·日間の 相互協助의인 관계로 이승만의 抗日獨立運動에 非友好的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번에는 對蘇 유화정책으로, 이승만의 새로운 외교노선의 초점인 반소·반공사상에 더욱 非友好的이었다. 즉 미국은 1905년 「테프트-가스라」條約의 비밀협정으로 한국을 희생시켜 가면서 日本에 유화적이었으며 진주만 기습을 당하자 이번에는 소련을 對日戰에 끌어들이기 위해 1945년 2월에 체결된 對蘇宥和政策의 상징인 알타비밀협정은 또 다시 한국의 정당성을 희생시킴으로써 그의 外交는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1904년 이래 해방 직전까지 展開했던 이승만의 獨立을 위한 外交活動을 고찰해 보았다. 그는 어떠한 同志에게도 독립에 관해서는 무력항쟁을 절대로 반대하고 독립을 반드시 열강 특히 美國의 동정과 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信念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아무런 外交的 기반도 없이, 절차도 없이 그리고 한반도와 그 人民의 統治權이 日本人에게 있는 가운데 다만 하나의 밀천이라고는 열강들의 승인도 얻지 못한 임시정부를 등에 업고 갖은 냉대 속에서 美國政府와 國民을 상대로 방향없는 外交活動을 계속해야만 했다. 즉, 독립을 얻기 위한 호소외교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

이다.

Ⅲ. 美軍政統治下の 반소외교

해방 직후 3年間に 나타난 이승만의 對美外交는 反共, 反託, 單政노선으로 크게 区分해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分析의 目的을 위해 편의상으로 区分하였을 뿐이지 根本的으로는 이들 모두가 그의 반소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실 이승만의 반소사상의 形成은 그 배경이 그의 青年期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승만이 반소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알타비밀협정에서의 미국의 의도를 나름대로 간파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후 그는 미국의 공산주의와의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고 나섰는데 그가 해방 이후 민족분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반탁이나 반공을 일관되게 주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소련화를 용인하려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의 외교는 종전의 독립을 요구하는 호소외교에서 한국 독립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음모타도를 위한 투쟁적인 반소외교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이승만의 반소사상에서 나온 반공, 반탁, 단정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반공외교

이승만이 美國으로부터 귀국함에 따라 共産黨과 人共을 포함한 국내 거의 모든 政治勢力들은 다투어 그를 領袖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그 이유로는 물론 임시정부 수반으로서의 그의 독립운동 경력과 美國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실도 있지만 당시 일반국민은 南韓唯一의 實權者인 美軍政府의 주선에 의하여 美國에서 귀국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個人自格으로 귀국했다고 宣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의 支持와 援助를 얻어 불원 남한정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推測을 낳았던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이처럼 그의 個人的인 명성과 인기는 그 어느 다른 政治指導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해방 이후 정당의 난립과 좌우세력간의 갈등 및 대립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의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모두 그의 정치리더십에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중장 역시 한국에서의 그의 위치를 알고 귀국 당시 열렬하게 그를 환영했었다. 이처럼 그는 절대적인 人物로 보장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제세력과 美國은 이승만의 투쟁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는 그의 철저한 반공노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만은 여운형을 中心으로 일본 총독부로부터 治安權을 인계 받아 실질적으로 전국 각지에 세력기반을 확대, 적극적인 조직망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에 상당한 可能性을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는 建國準備委員會의 後身인 人共에서 主席으로 추대한 것을 거절했다.

당시 그가 주석의 자리를 거절한 데는 임시정부와의 관계 및 기타의 이유가 있었지만 우선 그는 무엇보다도 人共勢力을 붉게 보았던데 큰 이유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合法的인 정통성과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상 金九를 강력한 라이벌로 생각했고 또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장차 共產主義者들과 合作하여 정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사실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다. 어차피 그가 귀국하게 됨으로써 미국이 그를 회유하여 그들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協助를 바랬던 것은 사실이나 그가 해방 직전 미국의 한반도 左右聯立政府 구상에 철저하게 반기를 들어 투쟁하였기 때문에 미국에 그가 한국국민을 代表할 수 있는 政治指導者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

당시 美 국무성은 이승만을 한반도 전후처리문제에 대한 미·소 양국의 協力을 저해하는 극단주의자로 그를 기피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무성은 카이로 선언에서 合意되었

던 한국 내 미군정을 통해 한반도에 좌우 연립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이 이승만의 反共인 극우노선에 의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그의 귀국을 지연시키려는 등 정치활동에 제재를 가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 自身이 추구하는 반공노선은 그에게 상당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한편 美軍政은 이승만이 일찍부터 들이킬 수 없도록 그의 政治生命을 미국에 걸고 미국을 절대 支持하는 그의 根本的인 정치노선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그가 받는 人望과 支持, 그리고 그의 政治家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미국은 그와 그의 많은 支持者들의 도움을 얻어 그들의 目的을 實現하고자 했다. 하지중장은 이승만의 귀국시 그를 한국국민들에게 「한국의 영웅」으로까지 소개하였으며 美는 항상 가능한 한 그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미국의 대소자세와 政策을 근본적으로 不信, 반대하고 일찍부터 대소협상을 포기하도록 미국에 종용하였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반소·반공노선은 미국의 회유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미군정은 귀국 후 이승만의 國內政治活動에 불가피한 제약으로 作用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로 하여금 좌파세력과의 제휴를 강요받게 되었

었다. 이는 당시 미군정이 사실상 거의 모든 政治的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정치체제 수립에 최고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군정에 協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이승만의 또 다른 딜레마가 등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독립운동세력으로서의 공산주의자들과 소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는 이승만의 반공노선에 또 다른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 학생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급속한 左傾化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더구나 많은 한국인들 중에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해관계로 보아 소련이 조국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판단과 함께 소련세력과 제휴한 세력이 당연히 권력장악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정책과 지배적인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비타협적인 극우노선을 고집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要求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반공노선과 함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했다. 이승만 자신에 대한 美軍政의 태도와 그의 반공사상은 올리버(Oliver)가 1946년 9월 2일 하지중장을 만났을 때 그에게 말한 하지의 다음과 같은, 평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승만

씨는 한국에서 唯一한 人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그러나 그의 그치지 않는 反蘇言動때문에 美國이 장차 한국에서 후원하여 設立할 어떠한 정부에도 이승만氏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 「올리버」에 의하면 하지중장은 자신에게 소련의 협력없이 한국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승만박사가 깨닫도록, 또한 소련의 意圖에 對한 그의 비난을 제발 중단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하지중장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그의 반공노선을 적극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력과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미국정책에까지 도전하는 공세로 나왔으며 도리어 미군정의 책임자인 하지중장을 容共主義者라고 계속 비난하고 그와 미군정이 自己의 反共, 반소정책에 同調하도록 가능한 온갖 정치적 壓力을 가했다. 그 결과 美軍政 責任者들과 이승만 자신과의 사이는 그야말로 最惡의 상태였으며 마침내는 하지장군이 그를 國外로 추방하려고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온갖 방법을 다하여 「모스크바」협상의 결정을 成功시키려는 미국에 대하여 온갖 方法을 다하여 저지하는 이승만은 실제로 미국으로서는 가장 귀찮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이 시기에 경찰도 민족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군정에

계는 상당히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군정은 “그것은 우리들의 경찰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승만과 김구를 지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찰서의 벽에는 이승만씨의 사진이 붙어 있다. 분명히 이승만씨는 경찰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반민족적 친일파로 심판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정치집단을 필사적으로 지지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6년 10월에는 대구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53명의 경찰과 많은 시민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승만의 지나친 반공사상은 미국과의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으며, 당시의 객관적인 정치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이러한 노선은 그의 정치활동에 극히 비효율적이었을 뿐 아니라 장차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역기능적이고 나아가서는 자기 파멸로 이를 수도 있었다.

또한 본인 역시 자기가 이러한 비타협적인 노선으로 인해 미·소의 협력하에 한반도에 수립될 것이 확실해 되고 있는 좌우연립정부에서 제외되어 결국 정치적인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과의 타협 없이 투철한 반소·반공노선으로 일관했으

며 그의 이러한 노선은 정치권력 획득이라는 차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이승만에게 있어 소련과 협력하고 공산주의자들과 제휴한다는 것은 곧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자기가 옳지 않다고 믿는 것과의 타협은 그의 성격에도 맞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관점과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 주장에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며, 이러한 반공노선만이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출해 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난관도 무시하고 반공노선을 고수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반탁외교

1945년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의 外相會議는 戰後의 세계문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信託統治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 모스크바 協定의 全文이 알려진 것은 12월 28일이었다. 따라서 한국을 미·소·영·중 4대국의 5년간 신탁통치 아래에 두기로 했다는 이러한 발표는 한국민의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켰으며, 꿈에도 소원인 독립정부수립을 갈망해온 국민은 신탁통치안을 국권회복에의 열망에 위배된다

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존심에 대한 중대한 손상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즉각적으로 신탁통치안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이러한 반탁운동은 大國主義에 대한 새로운 독립운동 형태로 전개되었다. 당시 이승만은 비분침통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또 다시 우리가 좌익·우익을論하려는가. 우리는 다만 신탁통치제로에 대하여 38도 이북·이남을 막론하고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할 것이다. 자주독립! 이것이 3천만 민족의 요구이다. 나는 신탁제도의 조선에 과급함을 극도로 방어하려고 모든 수단과 힘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포로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3천만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한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한 투쟁의 의무로 질서있는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한국민의 즉각적인 거센 반발에 따라 하지중장은 1945년 12월 30일 다음과 같은 방송을 했다.

「……간단히 말하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담안은 조선남북통일과 조선민주 임시정부 수립과 조선독립 촉성에 필요한 모든 대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3국 공동성명을 보면 조선에 “신탁통치”를 설치했다고 아니했고 꼭 앞으로 한다는 것도 아니다. 조선을 통치시키고 조선정부를 세운 후 미·소공동

위원이 조선정부와 타협하여 최고 5년간 “신탁”안을 4국에 제의한다고 했다. 이 성명 중에 조선인의 意思를 무시하고 4국이 조선에 신탁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문구는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오히려 그 성명은 조선을 독립국가로 축성시키는데 최대의 원조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이 반탁운동이 거족적으로 전개될 기미가 보이자 하지와 미군정청은 크게 당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승만의 반탁운동은 예상 외로 침착하면서도 온건하였다. 이승만박사의 이러한 반탁운동은 미군정에 대한 태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거족적으로 전개된 반탁운동 방문 다음날인 1946년 1월 31일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미군정에 대하여 결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軍力을 두려워하거나 또 親美主義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미군정이 우리를 해방한 은인이요, 미군정당국은 절대 독립을 찬성하는 고로 신탁통치문제 발생 이후 자기네 정부에 대하여 반박과 공격의 문서를 보낸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독립의 親友를 모르고 원수로 응대하면 이는 도리어 독립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탁운동으로 인한 미군정과의 관계악화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은연중 반탁운동의 당위성을 주지시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미군정도 신탁

통치가 한반도 독립을 위한 유일한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군정도 반탁운동의 당위성을 인정하여 미국의 정책변경을 위해 우리에게 협조하라는 의도이기도하다. 이는 투쟁적인 방법으로 미군정을 자극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외교를 통한 반탁운동을 전개할 것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정책변화는 1945년 11월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고 한다. 남한의 左派中心勢인 人共이 1945년 11월경에 온건주의자들을 배제하고 극좌노선을 굳히고 있을 때 남한의 미군정은 초기의 소극적인 중립정책에서 벗어나 좌파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탄압정책을 시행함으로써 左右 정치세력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미 모스크바협정 방식의 신탁통치안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미군사령부는 좌파세력을 저지하고 우파세력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탁통치안이 부적합하다는 정세판단에 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을 착안하여 이승만박사는 그렇게 발표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동안 반탁의 입장을 표명했던 中央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은 1946년 1월 2일을 기해 찬탁의사를 밝혔다. 이는 박헌영이 비밀리에 평양을 다녀왔고 또한 공산당 정치국원인 姜進이 당시 서울주재 소련 총사관과 접촉한 직후였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며 이제부터 찬탁

의 길로 무자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찬탁의 必然性和 정당성을 주장하며 나섰다.

이와 같이 人共을 포함한 좌익계의 찬탁에로의 급격한 태도변화는 민족진영에 일대 충격을 주었으며 그 후 민족주의 진영은 공산당과 人共의 찬탁주장에 크게 반발하여 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태도 일변도로 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찬탁과 반탁의 소용돌이가 굽이치는 가운데 이승만은 1월 7일 돈암장에서 기자단에게 재차 「신탁지지는 망국의 음모」라고 분노하며 신탁통치관에 따른 국제정치에 대한 전망을 폭넓게 피력한 강력한 반탁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과 친목하고 협력하여 또 가급적으로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책동분자들은 우리의 신성한 반탁운동을 연합국 반대로 허위를 전하고 군정과 한인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기 위하여 미국여론을 움직여 오해를 일으키고 모든 반역의 행동을 취하려 하다가……소련을 조국이라 호칭하고 우리 나라를 분열교란하여 소련연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이는 소수 파피분자의 최후의 반역이요……영원히 우리 한반도와 국민을 팔아 먹으려는 가증한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의 반탁운동은 항상 암암리에 친미·반소적인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의 託治만은 원

래 「루즈벨트」의 착상으로, 그는 託治案을 두 가지 측면에서 必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하나는 해방을 맞는 前被植民國家들은 自治能力이 없기 때문에 以前의 필리핀 경우와 같이 自治準備期間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그는 당시 한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단지 한국국민은 극히 미개한 민족이라고만 알고 있었던데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日本이 패망한 후 한국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길 때 中國과 소련이 전통적으로 지녔던 한반도 지배야욕을 버리지 않았을 경우 그들의 야욕을 또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된다고 「루즈벨트」는 판단했다고 한다.*

즉 이들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저해시키기 위해서는 外部의 共同勢力으로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을 가진 「루즈벨트」는 알타회담이 진행 중이던 1945년 2월 8일 스탈린에게 한국신탁통치 실시를 公式적으로 제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1943년 카이로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연합국이 전후 한국에 대하여 신탁통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신탁통치안이 미국에 의해서 제안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선언에서 나타난 「적당한 시기」라는 한국독립의 留保條項이 戰後 한반도에서의 소련의 이익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

고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만일 신탁통치가 실시되어 정부가 수립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소련의 통치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승만의 이러한 생각 역시 알타비밀협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소련의 통치하에 들게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확신한 후 노골화되었다. 여하튼 이렇게 託治문제에 의해 찬탁과 반탁으로 좌우가 극한으로 분열하자 입장이 난처하게 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신탁통치안을 미국이 제안했다고 해도 이제까지 미국을 믿고 협조해 왔던 친미세력인 보수진영을 반탁을 한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이와는 반대로 소련의 앞잡이 내지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좌파세력이 찬탁을 한다고 해서 이들에 동조해서 이들만을 협상테이블에 참여시킬 수 만은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좌익계의 찬탁돌변으로 야기된 민족주의적 감정을 교묘히 자극함으로써, 그리고 국내외의 정치상황이 점차 미·소 및 좌우대립이라는 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반탁을 반공으로 통일화하는 가운데 반탁을 반소운동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그의 반탁외교는 민족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측면과 반공국가 건설을 위한 반소외교로 접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단정외교

이승만씨의 단정구상은 이전부터 있어 왔

지만 1946년 6월 3일 그의 정읍 발언에서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를 발언했다.

「……이제 우리는 無期休會되고 共委가再開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統一政府를 고대하나 如意케 되지 않으니 우리가 南韓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委員會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以北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世界公論에 호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이승만의 남한 단정발언은 左右合作이 進行中이던 한국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러한 심각한 국민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정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상황을 보면 1946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내의 반탁 기세는 점차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매우 불확실해 졌기 때문이다. 民族의 自主獨立을 지상 목표로 하는 반탁운동이 오히려 좌우익간의 세력 다툼에 이용되어 정치적 분열을 가속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조국분단을 영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성과 자각이 일반국민들 사이에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남한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발언을 서슴없이 되풀이할 수 있었던 데는 그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모스크바 협정에 따라 개최되었던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없

이 결렬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이 회의에서 미·소간의 최대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할 정당과 사회단체의 資格問題였다. 즉 소련은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모스크바 협정에 위배되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렬과 함께 미·소 공위가 열리고 있던 1946년 4월 6일 샌프란시스코 발 AP통신은 미군정에 의한 남한단독정부 수립설을 보도했으며 일부 극우파들은 미·소공위가 무기한 연기되자 공공연히 남한단독정부 수립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등, 분단의 必然性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는 미·소간의 냉전 돌입을 들 수 있다.

1945년 4월에 戰時會談의 주역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死亡하자 美國의 對外政策은 대소 유화정책에서 「투르만」의 반공정책으로 이미 전환되어 가고 있어 미국과 소련의 協力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 따라서 반탁 노선을 견고 하던 이승만씨는 미국과 소련의 결렬을 뻔히 내다보고 있었다.

셋째, 북측에 대한 위협이다. 이승만은 원래부터 철저한 반소·반공주의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는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의 세계혁명론에 대한 확신으로 공산주의와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북쪽에서는 탁치문제를 계기로 민족진영이 몰락하고 소비에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

다. 특히 2월 8일 소련의 강력한 지원 아래 북조선이 통일된 중앙정치기구로서 발족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그때까지 임시행정기관이었던 道單位의 인민위원회와는 달리 북한의 단독정권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벌써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었다.

한편 이승만의 입장에서 볼 때 미·소공위의 결렬과 미·소냉전의 심화라는 상황변화는 그가 예측하고 있던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 타협이나 협력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3상협상방법의 신탁통치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미·소간의 이해 대립관계를 누구보다도 일찍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選擇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길은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그가 일관되게 갖고 있던 反共, 反託의 論理이자 單政의 論理이다.

한편 미 국무성이나 미군정 역시 대소 협력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1945년 말부터 소련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신탁통치를 포기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을 이미 검토하고 있으며, 이승만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이승만과의 협조관계를 포기하고 중도세력을 지원하고 있던 미군정은 그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승만에게는 예상되었던 난관이었지만 이 시기에 가장 큰 制裁勢力으로 등장한 것은 하지중장과 미군정이었다. 이때 1946년 5월 22일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한국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번즈」국무장관, 「패터슨」육군장관, 해군장관을 대리한 「설리번」미해군성차관보 등이 정책회의를 열었다. 이 정책회의 결과 이승만과 김구를 제거해야만 대한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가 새로운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1946년 6월 6일자 정책각서에 따라 대한정책은 일대 전환의 고비를 맞이했다. 미국무성은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그 원인을 이승만을 비롯한 극우파들의 비타협적인 반소운동에 돌리고 보다 미군정에 협조적인 중도세력을 지원할 것을 미군정에 시달렸었다. 따라서 「하지」중장은 6.6 정책각서가 시달된 후 더욱 용기를 얻어 좌우합작을 본격화시켰으며 이때부터 단정노선을 선언한 이승만씨와 「하지」중장 및 미군정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되고 말았다.

미군정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대동신문의 정간조치 및 발행인 구속과 함께 이승만과 김구의 투옥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이승만은 자택에 연금상태로 있는 등 미군정으로부터의 강력한 제재로 활동이 불가능했으며 세력 기반도 그만큼 약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승만 자신은 이에 굴복하

지 않고 「하지」와의 투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1946년 11월 22일 돌연, 한국의 실정을 유엔총회에 호소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46년 11월 23일 안으로 한국문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회의순서에 들게 내정되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미군정측은 황당무계한 거짓이라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 여파를 예상한 「워싱턴」당국은 이승만의 도미계획을 막도록 미군정에 지급 타전했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그가 떠난 후이라 막을 수가 없었다 한다. 그는 1946년말 미국에 도착하여 미군정과 「하지」중장을 맹렬히 비난하여 미군정의 무능과 대소 협력정책의 부당성을 폭로, 미국무성이 그의 단정노선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전함으로써 미군정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었다. 또한 이승만은 귀국 직전인 1947년 3월 22일자 뉴욕타임즈誌에 한 두달 안으로 남한에 군정을 인계할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는 기사를 내게 하여 또한 번 「워싱턴」당국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의 외교전략은 주로 한국에 대한 미국민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여론을 움직여 자기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을 전환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는 그가 미국무성의 정책이 반드시 미군정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한국문제는 미·소 양군의 사령관들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확신한데 있었다.

또한 그는 신탁통치 문제를 계기로 미국의 대소 협력정책과 대한 정책이 확고한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미군정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에까지 도전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미국 무성과 직접 상대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미국 내의 로비조직을 통해 미군정의 실책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무성이 좌우합작운동을 포기하고 그의 단정노선을 지지하도록 만들도록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승만은 그의 반소·반공노선을 견지하며 미국의 대한정책에 도전, 남한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계속 굽히지 않고 주장했다. 이에 결국 그의 노력이 얼마나 주효했든지 간에 1947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이미 그의 단정노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미·소 공동위원회의 완전 결렬과 그에 따른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었다. 즉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이 미·소공위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은 미국은 결국 1947년 9월 17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국제연합에 이관키로 결정, 第3차 유엔총회의 議題로 제출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카이로」선언 이래 추구해 온 미·소협력의 대한정책의 전면적인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한단독정부 수립의 실현은 결국 미국의 대한정책이 이승만의 반소·반공노선에 이끌려 온 결과가 되고 말았다.

IV. 韓國戰 以前の 對美軍援 外交

1948년 5월 10일 이승만은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동년 8월 15일에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소련은 그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북한에 설치하였고 이 정권을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이승만은 일단 자기가 의도한 대로 남한 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의 대미 반소외교는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제 는 오래 전부터 형성된 그의 투철한 반공사상에 따른 북진통일론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의 일관된 대공강경주의에 쫓아 한반도 무력통일안, 태평양동맹안 등을 제의, 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의 對美外交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그의 主張과 政策은 당시 「트루만」행정부의 對匪政策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 당시 「트루만」행정부는 몰락한 장개석을 포기하고 中共과 接近하는 새로운 중국정책을 추구하면서 南韓事態에는 단순히 일종의 경제원조안으로만 대응하려고 했다.

당시 이승만은 그의 일관된 극우적인 内外政策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으로 必要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특히 국방군 강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8년 말까지 북한으로부터 소련군대의 철수가 완료하게 되자,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내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미국이 남한을 군사기지화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당시 남한 내에서도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었으므로 미군철수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논쟁거리로 되었고 결국 1949년 6월 29일 미군도 철수를 완료하였다. 당시 이박사는 미군철수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방군을 조직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의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철군 반대의사를 표명했었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 5백명의 군사고문단만 잔류시킨 채 2만 3천명의 병력을 철수시키자 이승만은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대미교섭을 서둘러야만 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뜻은 방위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군비만 갖추면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이른바 북진통일을 이미 제창하고 있었던지라, 미국은 이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조병옥 박사가 1949년 2월 유엔대표단장으로 임명되어 「워싱턴」과 「뉴욕」을 왕래하면서 군사외교와 유엔외교를 벌였을 때 조박사를 수행했던 박준규(전공화당 의장서리) 씨에 의하면 그의 본 임무는 당시 이승만

박사의 특명에 따라 그럴만한 나라를 돌아다니며 무기를 구입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병옥씨는 먼저 캐나다를 찾아갔으나 캐나다는 고개를 내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한반도에서 무력사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 해온 미국이 이미 맹방에 손을 쓴 뒤였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 후 조병옥 박사는 그 기미를 알아차리고 미국에서 활동하였는데, 그는 뉴욕 타임즈誌를 찾아가 사장을 만나 한국의 입장과 자신의 임무를 설명, 지지를 요청했고 신문기자회견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병옥의 활동도 이승만의 지시에 의해 차츰 비공개리에 진행되어 비밀 속에 묻히기 시작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4월 10일자로 조병옥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인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잘 드는 칼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대개 신문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병기와 군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승만의 무력통일론은 대미군원의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더우기 이승만박사는 1949년 4월 25일 記者會見에서 軍備強化를 미국과 교섭하는 것을 「統一 後에 만주의 中共軍」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군강화의 목적을 확

대 선전하기까지 하여 한국 국방군의 강화 목적과 중공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은 역시 그의 투철한 반공사상의 소산으로 장차 예상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냉전에 대한 전망과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당시 미국의 정책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은 그의 주장을 현실성 보다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당시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국으로서는 한 대의 탱크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반면, 북한 공산주의집단은 김일성집권 2년만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이미 20만명의 人民軍과 무력남침에 충분한 탱크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실을 전혀 무시한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자기의 이러한 지론을 위해 대미군원을 호소하면서도 미국의 이러한 군원은 그와 그의 신생공화국이 미국의 영도하에 있는 自由世界의 反共 第1線에 나와 있는 방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원조를 요청하지만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는데, 즉 이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 야기된 비극적인 민족분단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미국에 그 책임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었

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이승만 박사는 그 나름대로 판단한 그의 정당한 주장에 근거해서 미국정부와 군원교섭을 계속했으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미국측에서는 별 신통한 반응이 없었다. 이에 결국 이승만박사는 종전의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49년 5월 미군철수가 단행될 무렵에는 공공연히 또는 좀 과장되게 북괴로부터의 침략이 급박했음을 역설하고 현재 남한은 전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아무런 대비책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태도를 취했다.

또한 그는 그의 특사를 시켜 북괴의 急迫한 남침가능성과 이에 남한은 전연 방위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呼訴하게 했다. 특히 조병옥 특사는 남한의 무장된 군대라고는 불과 3만명 밖에 없어 실제 빈 손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여 미국 여론에 무리를 일으키고 「워싱턴」관리들의 신경을 자극시킨 일도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승만으로서 미국의 군사원조가 얼마나 필요했고 급박했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박사는 주한 미국대사인 「무초」와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이었던 「윌리엄 로버트」준장에게 잔뜩 불평을 털어 놓은 뒤 다시 옛 친구인 「맥아더」장군을 찾아 가기도 했다.

『존경하는 맥아더 장군! 부디 한국국민을 도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내외는 오직

장군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라는 내용의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지를 받은 동경의 「맥아더」장군은 곧 그의 故友를 찾아 보겠다는 회신을 띄웠다. 따라서 「맥아더」로부터 방일 초청장을 받은 이승만박사는 1950년 2월 14일 「맥아더」를 만나기 위해 두번째의 일본방문길에 올랐는데, 당시 이승만 자신은 「맥아더」와 만나 이때 제기되고 있던 「태평양 동맹」문제를 위시하여 한국방위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맥아더」는 한국방위문제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持論을 폈으나 태평양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국가에 자극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등 신중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다. 한편 이보다 며칠 전인 1950년 1월 26일에는 한국의 군사적 위치를 보강하기 위해 「투르만」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한국 군사고문단(KMAG)을 정식으로 발족시켜 한국군 양성을 적극화했다. 실제 미 군사고문단은 국방경비대가 1946년에 창설된 이래 그들의 훈련을 맡고 있었다.

한편 당시 1950년 회계년도에 남한이 쓸 수 있었던 원조액은 겨우 총 9,000만불에 불과하였었고, 그러나 이 군사원조액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시 사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한다.

여하튼 이승만의 대미외교교섭은 당시 「에치슨」 등 미국 민주당 정부의 아세아 경시

사조, 특히 대 중국관계와 공화당 의원들의 국방비 절감론, 그리고 북벌론을 호언한 이승만 박사 자신의 과장발언 등이 역효과로 작용하여 성공을 보지 못했다.

강대국 국제정치는 약소국에는 항상 비정하기만 했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전에도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해방 전에는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물질적인 도움의 요청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의 외교에서 항상 미국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있어서 그의 주장은 관철되지 않았으며 냉대만 받았다.

V. 韓國戰 以後의 主体外交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미국군대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UN군의 일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전쟁 말기 휴전이 예견될 때까지도 미국이 단독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인 책임도 약속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 왔던 고립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즉, 미국은 불필요하게 타 지역의 분쟁에 휘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미국정부로서는 이러한 태도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는 별다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고 당시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미국은 단지 대소 강경정책의 일환으로 타 동맹국과 더불어 UN경찰국으로써 공산측의 침략행위를 저지하려고만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식을 취했다고 해도 미국이 한국전쟁에 자진해서 대규모로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 한반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미·소냉전에 따라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그의 무력통일안을 위한 대미군원외교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승만은 본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유도하려고 했다.

당시 이승만은 미국이 결코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아이젠하워」가 선거에서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그의 공약에 따라 한국휴전을 서둘렀을 때 「아이젠하워」의 이러한 시도는 이승만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승만씨는 「아이젠하워」미 대통령을 한반도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려는 못쓸 사람으로 인정하고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한 어떠한 휴전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은 한반도분단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다. 그들이 책임을 지고 강력한 대응책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무찔러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N군과 공산군 양측의 어느 정도

이해와 양보가 이루어져 휴전협정 성립의 가능성이 짙어진 1953년 4월 이후부터 휴전 회담에 대한 한국측의 반대는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측의 강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측은 휴전 협정을 계속 진전시켰으며 어떠한 타결책도 모색하려 하지 않고 이박사의 설득에만 주력했다. 이 당시에 대해 당시 유엔군 사령관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던 「클라크」장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정전이 성립되기 전 최후로 뜨거웠던 4개월동안 유엔군사령부는 거의 날마다 한 번씩 위기에 직면하였다. 잠정적인 것일지라도 만족할만한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때처럼 절감한 것이 없었다.』. 여기서 「클라크」장군이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협상태이블에 마주 앉았던 공산군측 못지 않게 고집불통인 한국의 이승만 때문에 여러 차례 겪어야만 했던 극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승만은 당시 상황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아이젠하워」미대통령에게 서신을 통해 그의 주장을 전했으며 「아이젠하워」대통령은 역시 서신을 통해 그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한편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정책을 간파하고 결국 휴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정세라고 판단하고 그의 주장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전국적으로 반휴전데모를 더욱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흥정을 해보자는 긴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이승만 자신이 정전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은 중공군의 철수와 반공포로의 자유석방이었고 미국에 대해 요구했던 것은 한·미 군사동맹, 전후의 경제부흥원조, 한국군의 증강, 미 해·공군의 계속 주둔 등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이승만이 종전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통일전쟁화 의도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요구와 함께 「아이젠하워」대통령과의 서신왕래에서 별다른 신통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UN군사령관인 「클라크」대장과 북괴군 사령관 김일성 및 중공군 사령관 팽덕회는 1953년 6월 8일 그동안 문제시되었던 포로협정에 완전히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승만이 쥐고 있던 가장 강력한 카드는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이승만은 실제로 휴전회담이 재개되기 직전인 4월 24일 양유찬 주미대사를 시켜 「아이젠하워」대통령에게 만일 중공군이 한 사람이라도 압록강 이남에 남는다면 유엔군 휘하에서 한국군을 빼내겠다는 통고까지 하는 등 엄포를 놓고 있었다.

따라서 이같은 협박을 받은 「아이젠하워」미 대통령은 「클라크」UN군사령관에게 지

시하여 이승만이 지닌 진의를 타진해 보도
록 했는데 그 후 6월 4일 「클라크」장군과
「브리그스」 미국대사가 이승만을 면담하였
을 때에도 이승만은 「우리는 휴전조약을 그
대로는 절대 수락할 수 없소. 우리는 단독
으로 싸울 것이요. 가령 그것이 자살을 의
미한다고 해도 한국군은 싸움을 계속할 것이
요. 지휘는 내가 하겠소」라고 하면서 굽힐
줄을 못랐다.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고집통이며 무모
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강
대국 국제정치에 밝았으며, 그가 미국인의
심리를 잘 파악했고, 또 당시에 미국이
처한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
이었다. 결코 휴전협정을 끝까지 반대하자는
뜻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포로협정은 본 전쟁을 통일을
위한 통일전쟁으로 유도하려 했고,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
는 믿을 수 있는 방위조약을 체결하려 했던
이승만 그 자신으로서 상당한 충격이 아
닐 수 없었으며 상당한 초조감에 싸이게 되
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다시 휴
전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재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수많은 군중대회를 통해 이승
만의 휴전안에 대한 원칙을 적극 지지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측의 격렬한 반대 데
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한국의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었다. 더우기 이승만이 휴전

협정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상호방위
조약 체결에도 응할 것 같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
방이라는 한국의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연합국측에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이는 19
53년 6월 18일 새벽을 기해서 실시되었는
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사전에 치밀한 계
획을 세워서 실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일반국민들도 이에 호응, 크게 환영하였으
며 반이승만계 신문까지도 이승만의 이러한
조치를 영웅적인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환
영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이 우방인 미국의 원조
를 받으면서도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
는 것은 그들의 원조가 어디까지나 한국의
통일독립과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지 그네들
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심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다시 일본군이나 자유중국군의 지
원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승만은 강력
히 반대했다. 이는 원조를 받되 아무 나라
에게나 받지 않겠다는 뜻이며 한편으로는
이들의 지원 대신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보
강이 더욱 낫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여
하튼 이같은 이승만의 행동에 미국측은 격
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 당시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대통령
을 만난 백두진씨는 「아이젠하워」대통령은
「로버트슨」 국무차관보와 함께 번갈아 가며

한·미 방위조약도 체결할 것이며 경제원조도 많이 하겠다고 그를 설득하였으며 계속 신념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아이젠하워」는 “그래 조그마한 한국을 위해 전면전의 모험을 하라는 것이요?” 라고 불쾌한듯 말했다고 한다.

한편 당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박사를 미국이 추진하는 극동정책의 妨害者로 판단하여 한 때 그를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때 「아이젠하워」행정부가 세운 이승만 제거계획이란 독재적이며 휴전협상에 반대하는 한국의 이대통령을 미군이 감금하여 일정기간동안 남한 전역에 미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였다. 암호명 「에버레디작전(Operation Ever ready)」으로 불린 이 극비계획은 1970년에 미 국무성이 기밀취급에서 재 분류, 일반문서로 해제시킨 것을 「스벤퍼드」대학의 번스타인 교수가 폭로하여 밝혀진 것이다.

이승만 자신의 주체적인 태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미국을 의지하고 있던 이승만의 대미관계에서 이토록 무모할 정도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설블리 판단할 수 없을 것 같다. 더우기 그는 어느 한국인보다도 강대국 국제정치에 밝았기 때문이다. 휴전 막바지에 한국에 파견된 「로버트슨」특사는 2주일동안을 거의 매일 이승만과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이승만은 한 가지 양해가 성립되면 또 다른 새 조건을 제시하는 등 무모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

「클라크」장군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회담의 기록은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버티면 그는 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차있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 「로버트슨」은 이승만으로부터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며 그 후 1953년 8월 8일 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안이 발표되었고, 동년 10월 1일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변영태씨와 서명하였다. 그러나 본 조약은 이승만이 미국의 즉각 자동개입을 주장한데 반해 「자국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회원국 영토에 대한 침공도 자국의 영토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는 북대서양 동맹조약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이러한 자세는 한국전 후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 후 미국의 내정 간섭적인 태도와 이승만과의 불화적인 에피소드는 많다. 어떻게 보면 더욱 완고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먼저 주한 미국 대사들과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6·25 휴전협상 과정에서 부임해 온 2대 미국대사 「브리그스」는 휴전협상을 반대하는 이박사에게 여러 번 호통을 받았으며 3대 미국대사인 「W. 레이시」는 그가 전임자인 「필리핀」에서 당시의 「퀴리노」정권을 제거하고 「R. 막사이사」가 당선되도록 노력했다고 믿고 있던 이승만박사로부터 끝내는 기피인물로 낙인 찍혀 부임 6개월만에 쫓

겨나고 말았다. 또한 「레이시」 후임으로 부임한 「W. 다울링」대사는 보안법과동과 경향신문 폐간사건의 와중에서 미국정부의 불만을 이박사에게 전달하다가 미국대사관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짜증을 들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것은 아마도 1954년 한·일국교 정상화 관계로 「아이젠하워」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방미했을 때 이승만박사와 「아이젠하워」간의 사건일 것이다.

그때 7월 25일 「아이젠하워」는 휴전협정에 반대하면서 사사건건 불만을 빙기고 있던 이승만을 달래어 일본과 손잡도록 권유하기 위해 그를 미국으로 초청했었다. 당시 「아이젠하워」의 대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둘러싸고 “과거 일이야 어떻든 한·일 국교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아이젠하워」의 말 끝에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을 않겠다”라고 이승만은 말했으며 이에 「아이크」는 율화가 치밀어 “미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계로 미군이 한국전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박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상기하십시오”라고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방의 집무실로 가 버렸다. 이때 「아이크」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그가 앉았던 의자가 뒤로 “쿵”하고 넘어졌는데, 이때 이승만은 방을 나서서 「아이크」를 보며 우리 말로 “저런 고안놈이 있나, 저런!” 하며 흥분과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아이크」가 가까스로 화를 식히고 다시 회의장으로 왔을 때, 이번에는 이승만이 “여러분, 다른 약속이 있어 가봐야겠소”라고 하며 퇴장해 버렸다 한다. 이는 「아이크」에 대한 보복적 행동이었다. 휴전관계로 「아이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반일감정의 화신처럼 된 이승만과의 회담은 결코 평탄한 것이 될 수가 없었다. 그는 결코 한·일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에 따르려하지 않았다.

이는 그 이전인 1952년 1월 18일에 선포된 평화선에 관해서도 있다. 일본에 이어 2월 11일에는 미국이 6월 11일에는 자유중국 등 여러 우방 해양 국가들도 한국이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제기해 왔는데 이승만은 이를 항의하는 「무초」대사에게 “미국 배는 해당 안 된다. 고기 잡으러 와도 좋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승만과 미국간에는 갈등의 연속이지만, 이러한 갈등은 이승만이 진실로 미국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었다.

제2의 조국과도 같은 미국에 대해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그가 얼마나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주체적인 외교를 시도하고 있었나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전의 그의 외교에서 볼 수 있었던 설득과 호소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VI. 결 론

이상과 같이 本 研究는 60여년에 걸쳐서 행한 이승만의 친미·반공외교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를 시대구분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만의 대미외교는 1904년부터 시작된다. 그는 그 후부터 해방 직전까지 다른 독립투사와는 달리 독립획득을 위해 무력투쟁을 절대 반대하고 독립은 반드시 열강 특히 미국의 동정과 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信念을 굽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공식적인 외교절차나 기반도 없이 단지 있다면 강대국들의 승인도 얻지 못한 입장을 등에 업고 호소외교로 일관했던 것이다. 결국 이는 열강들의 심한 냉대와 무관심 속에 어떠한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日本의 진주만 기습은 그에게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주었던 것이다. 그는 日本의 패망을 확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독립호소외교는 사실상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계기로 바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일본은 그에게 목표된 적이 될 수 없었다. 서서히 소련이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소련을 이 전쟁에 끌어 들이려는 政策으로 이

승만 外交의 새로운 초점인 반소노선에 더욱 非友好的이었다. 여기서 이승만의 반소외교는 미국과의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해방 직후 3년간의 미군정하의 이승만의 반소외교는 반공·반탁 및 단정활동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만일 美国의 意圖대로 한반도에 좌우 연립정부가 수립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소련의 統治下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길은 신탁통치를 거부하고 남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북한의 共產主義와 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그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反共, 反託의 論理이자 單政의 論理였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도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성을 계속 主張하였다.

그의 노력이 얼마나 주효했는지 간에 결국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이승만의 반소외교에 이끌려 온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의 지론대로 무력통일론을 주장하는데 여기서 그의 새로운 차원의 對美軍援助外交가 시작된다.

그의 극우적인 内外政策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국방군 強化를 위해 미국의 군사원조를 要求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責任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리어 그의 무력통일론은 역효과를 가져 왔으며

그의 이러한 요구에 미구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려했던 것이다. 결국 이승만에게 그렇게 必要하고 급박했던 미군 지원이었지만 미국의 아시아 경시사조, 공화당 의원들의 국방비 절감론 그리고 북벌론을 호언한 이승만 자신의 과장발언 등으로 실패하고 그 후 한국전이 발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한국전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強大國 國際政治에 밝았던 이승만으로서 여기서 미국의 정책변화를 파악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미국이 한국전에 대규모로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반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미·소냉전의 격화로 인한 대소강경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비록

그의 무력통일론을 위한 대미군원조외교는 실패했지만 이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유도하려 했고, 결국 그의 이러한 구상은 휴전협정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체결에 그치고 말았으나 그 후 그의 主体的인 對美外交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둘러싼 대미관계에서 추호의 양보도 없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이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고분고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것은 그들의 원조가 어디까지나 한국의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지 그네들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表示하는 의미심장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그의 친미·반공외교는 時代的인 要求에 따라 변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参 考 文 献

1. 一次資料

- 1) 李 仁, 「解放前後 片片錄」 『新東亞』(1967. 8).
- 2) 黃準憲, 「조선책략」.
- 3) 이정식(訳註), 「청년 이승만 자서전」 『新東亞』(1979. 9).
- 4)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 연구협의회.
- 5) 邵毓麟, 「西方實利主義와 韓·中 共同鬭爭」 『정경연구』(1977. 10).
- 6) 林炳稷, 「이박사, 하지중장 뿌리치다」 『월간중앙』(1968. 8)
- 7) 이원순, 「인간 이승만」(서울: 신태양사, 1965).
- 8) 朴日泳(訳), 「이승만 비록」.
- 9) 金星淑, 「오호! 임정 30년만에 해산하다」 『월간중앙』.
- 10) 邵毓麟, 「이박사와 하지중장」 『정경연구』(1978. 1).
- 11) 리처드 E. 콰터백, 「한국미군정사」.

-
- 12) 광주부, 「해방전후 회고」(서울: 돌베개, 1984).
 - 13) 백두진, 「회고록」(서울: 1975).
 - 14) 울리버, 「내가 아는 이승만박사」『新東亞』(1979. 9).
 - 15)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 Dodd Mead and Company, 1955).
 - 1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946, Vol Ⅷ (Washington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 17) Oliver, Robert T,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alument in Korea 1942~1960 : A personal narrative (서울: 법문사, 1978).
 - 18) Foreign Relations(1945).
 - 19) Syngman Rhee, Japan inside out : The challange of today (New York : Fleming H. Revell Co., 1941).
 - 20) Samuel I. Roseerman(ed), The public papers and address of Franklin D, Roosevelt, 1941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1950).
 - 21)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f U. S. The Conference of Malta, 1945 (Washington., D. C. : U. S. G. P. O., 1945).
 - 22) State Department, The Conflict of Korea :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February 6, 1950).
 - 23) C. M. Clark, 「from the Danube to Yalu」(Toky : 1954).
 - 24) 自由文学, 1945. 10. 27.
 - 25) 동아일보, 1955. 6. 27.
 - 26) 동아일보, 1955. 7. 9.
 - 27) 동아일보, 1946. 1. 1.
 - 28) 중앙일보, 1946. 1. 3.
 - 29) 서울신문, 1946. 1. 4.
 - 30) 동아일보, 1946. 1. 8.
 - 31) 조선일보, 1946. 1. 8.
 - 32) 동아일보, 1946. 5. 12.
 - 33) 한태수, 「한국정당사」(서울: 신태양사, 1961).
 - 34) 이재학외, 「이승만, 이승만주의, 이승만시대」『신동아』(1965. 9).

2. 二次資料

- 1)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이론」(서울: 형성사, 1979).
-

-
- 2) 최창규, 「새한민족사」(서울: 금오출판사, 1975).
 - 3) 한승조, 「한국정치의 지도이념」(서울: 書香閣, 1977).
 - 4) 최상룡, 「냉전발생의 체계기」『서울평론』 79호, 1975. 5.
 - 5) 하현강, 「한국의 역사」(서울: 新丘文化社, 1979).
 - 6) 강인섭, 「이승만박사의 일화들」『신동아』(1965. 9).
 - 7) 송건호, 「이승만박사의 정치사상」『신동아』(1965. 9).
 - 8)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서울: 집문당, 1982).
 - 9) 이호재, 「한국 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 10)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서울: 일조각, 1980).
 - 11) 이정식·서대숙外著, 「한국현대사의 조명」(서울: 돌벼개, 1982).
 - 12) 최상룡, 「미군정기 한국: 아세아 냉전의 쫓점」『한국사회연구』(서울: 한길사, 1983).
 - 13)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1976).
 - 14) 임홍빈, 「이승만, 김구, 하지(上)」『신동아』(1983. 11).
 - 15) 정용석, 「미국의 대한정책」(서울: 일조각, 1981).
 - 16) 양홍모, 「이승만박사와 군대」『신동아』(1965. 9).
 - 17) 李祥雨, 「카리스마와 디모크레시」, (월간조선), 1983. 4.
 - 18) 尹大均(訳), 「한국과 이승만」(서울합동통신사, 1961).
 - 19) 황완권, 「이승만과 김구의 정치노선에 대한 비교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 박문옥, 「한국정부론」(서울: 新泉社, 1983).
 - 21) 심치연, 「한국민주당 연구 1」(서울: 풀빛사, 1985).
 - 22)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New York: Charles E. Tuttle Co., 1960).
 - 23) Robert A. Scalapine and Chong Sik Lee, Communism Korea Vol 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 24) Erik H. Erikson, Yong man luther(New York: Norton, 1948).
 - 25) 邵毓麟, 개화기 이승만의 사상형성과 활동(1875~1904), 역사학보, 제109집(1986년 3월), 역사학회, p. 33.
-

프랑스
문학의
산책

운
학
노

〈명지대강사〉

우리는 흔히 프랑스는 예술의 나

라라는 통념을 갖고 있다. 한 때는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주의적 강대국이었고 오늘날에도 그 후광을 이용하고 있는 이 프랑스가,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예술과 자유의 나라로 생각되는 것은 좀 흥미로운 일이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관계가 아마 부분적으로 그 까닭을 설명하리라.

우리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프랑스와 힘(약육강식)의 관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제국주의의 선봉에 있었으면서도, 우리에게서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부정적인 인상을 별로 남기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가 서구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사실은 프랑스가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로웠다는 것을 암시하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의 배경도 어렴풋이 설명하여 준다. 특히 프랑스의 미술은 이 통념을 뒷받침하는데에 더할 나위가 없는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얻은 화가치고 프랑스와 무관한 사람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그리고 문학도 여기에 한 몫을 거둔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독일의 괴테처럼 조국을 대변하는 문호는 갖지 못했지만, 프랑스는 문학적 풍성함과 다양함, 그

리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긴다(이 자랑스러움때로는 오만이 되는 것이 좀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프랑스 문학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숲처럼 느껴진다. 수십 종의 나무들이 서로 베를 지어 이룬 울창한 숲처럼, 이제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숲에 난 한 두 개의 오솔길을 산책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 선 나무들을 지나는 길에 한 번 슬쩍 훑어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듯이 걸을 것이므로, 꿈꾸는 듯한 나무들(시) 밖에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들의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또 가지는 어떻게 번성하고 있나, 이 나무들 뒤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 이런 질문들은 묻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다 식물연구가의 일이니까.

프랑스 문학은 그 기원이 멀리 중세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 가고, 르네상스 시대에 벌써 그 틀이 잡히고 꽃을 피우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19세기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작품들이 사실 우리에게 보다 쉽게 친밀감과 감동을 준다. 왜냐 하면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모든 현대문학은 1800년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한 낭만주의적 문학관에 여러 모로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학에 대한 관념,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문학에 대한 지식은 그 뿌리가 바로 이 낭만주의 시대에 내려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

는 아직도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그 범위도 문학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실로 무척 광대하며 당연히 그 의견과 주장도 참으로 분분하고 다양하다. 이것들은 모두 「식물연구가」의 일이니까, 우리는 지나는길에 그들이 만든 표본만을 잠시 보면 되리라.

낭만주의는 일반적으로 고전주의와 대립되는 사조로 파악된다.

고전주의가 이성과 규범, 사회적 자아를 중시한다면, 낭만주의는 상상력과 감성, 개인적 자아에 온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므로 낭만주의 문학에서는 당연히 도덕성 보다는 서정성이, 형식적 제약보다는 그 파괴가, 사회와의 조화보다는 이로부터의 소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불안, 우울, 고독감, 분노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역으로 보상적 심리에 의해서 꿈과 동경을 극대화시키기 마련이다. 우리가 꿈이 많고 감상적인 사람을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나 보다.

낭만주의는 그 당시에 하나의 문학적 “혁명”이었으리라. 문학을 대하는 태도, 문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처럼 크게 뒤집혀진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아직 없다. 그렇다고 이 뒤바뀜이 단지 문학적인 사건에 그치는, 우연한 일도 결코 아닌 것이다.

낭만주의는 르네상스를 계기로 걸잡을 수 없이 변화한 서구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종교적 상황의 한 반영임을 서구의 역

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사실 프랑스에 있어서 낭만주의의 태동을 전후한 시기(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는 대단한 격동기였다. 대혁명, 나폴레옹의 집정, 왕정복고 등의 굽적굽적한 사건들로 점철되는 정치적 혼란, 산업혁명이 야기한 새로운 경제적 질서, 과학의 발달과 계몽사상의 영향에 따른 기독교의 계속적인 쇠락, 이런 모든 요인들에 의한 사회구조의 재편성, 이 시대는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그야말로 서구문명의 과도기였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또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개인의 내적인 삶에 민감한 문학을 이에 낭만주의 운동으로 반응하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낭만주의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이 있다: 라마르틴느, 비리, 위고, 뤼세 물론 이들만이 프랑스 낭만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이 네 시인이 “혁명”의 주축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학자들 사이에 이의가 없는 모양이다. 라마르틴느와 뤼세는 서정적인 사랑의 시인으로 우리에게 꽤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특히 감상적인 소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곤 한다. 라마르틴느는 1820년에 「명상시집」을 발표하여, 낭만주의 운동에 실질적으로 문을 열었던 장본인이다. 이 시집의 “마음을 녹이는 듯한” 서정성은 고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경직되었던 프랑스 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비니는 앞의 두 시인과는 대조적으로 우

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도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 그의 시에는 서정성보다도 오히려 철학적 내지 사상성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그의 철학적 성찰은 게다가 서구적인 전통(기독교와 회람문화)에 깊이 맞닿아 있어, 우리에게는 접근이 더욱 더 어려웠으리라.

위고는 「레 미제라블」과 「노틀담의 꼽추」의 작가로 누구에게나 낯익은 이름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에게 인도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고는 또한 낭만주의의 중추적 시인이었다. 그는 사랑과 추억을 기조로 한 수많은 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불시가 고전주의의 엄격한 작시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후세의 시인들에게 열어 놓았다. 특히 그가 1827년에 발표한 「크롬웰 서문」은 낭만주의의 정신과 이론을 밝힌 것으로서, 위고로 하여금 낭만주의의 기수로 만드는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 위고가 키운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바람이 부는 풀밭에 앉아 보자.

〈이리 오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리가〉

이리 오세요! — 눈에 보이지 않는 피리가

과수원에서 한숨을 쉽니다.—

가장 평화로운 노래는

목동의 노래

바람은 떡갈나무 밑에서,

물의 어두운 거울에 주름을 놓읍시다.

가장 즐거운 노래는

새들의 노래

어떤 걱정도 그대를 괴롭혀선 안 되지요.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가장 매혹적인 노래는

연인들의 노래.

이 작은 시는 일정한 형으로 이루어지고, 후렴구를 규칙적으로 반복시키고 있는 등, 시는 바로 노래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그야말로 잘 들어맞는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한편으로 낭만주의적 발상을 알기 쉽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 위고의 시적 세계도 부분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첫 연은 아주 목가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리가 한숨을 쉬는 과수원과 그 평화로움, 그리고 목동의 노래. 둘째 연은 전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과 떡갈나무, 시내와 새들이 한 폭의 시골 풍경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셋째 연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이다. 그리고 이 시는 위고가 실제로 사랑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쓴 모양이다. 어쨌든 이 모든 소재와 내용은 낭만주의의 “단골 손님”들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산업화되는 도시에서 소외감을 느꼈으므로, 흔히 목가적 삶을 꿈꿨다. 이것은 자연을 다시 발견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이 실 포근한 안식처를 찾는 일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로부터 개인을 지키고, 개인의 내적인 삶에 큰 가치를 두었던 그들에게 사랑의 문제도

역시 중심적인 관심거리였다. 사랑의 아픔이 승화된 라마르핀느의 시 〈호수〉는 지금도 독자에게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불후의 걸작이다. 또 뒤세는 조르주 상드와의 사랑을 소재로 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위기의식과 소외의식에 시달리던 낭만주의자들이 사랑에 매어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앞에 인용한 시는 전체적으로 밝은 인상을 준다. 목동의 평화로운 노래, 새들의 즐거운 노래 등등, 그러면서도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정서인 어두움이 간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피리가(……) 한숨을 쉽니다〉, 〈물의 어두운 거울〉 등의 귀절에서 보는 이미지는 환희와 즐거움 속에서도 삶의 슬픈 이면을 잊을 수 없었던 낭만주의자들의 운명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시의 경쾌함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덧붙이자. 이 소품은 시상을 전개·발전시킨다기 보다는 짧게 짧게 열거하는 가벼운 처리를 보이고 있다. 이 율동감은 또한 위고 시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는 뛰어난 감수성의 소유자로서 인간과 대자연의 미세한 부분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시의 소재는 과연 어린이로부터 정치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의 많은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반면에 주제에 대한 철학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은 그의 상상력에 비하여 부족한 편으로, 혹자로부터는 그의 시에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적다는 지적을 받기

도 한다.

1850년경에, 낭만주의는 그 전과 같은“운동”의 성격을 잃어버린다. 시를 쓰는 동시에 외교관과 대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라마르핀느는 「성찰시집」(1839)을 끝으로 결국 시를 멀리 하게 된다. 뒤세도 1841년 이후로는 시를 쓰지 않는데, 이 당시에 그는 이미 무분별한 생활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였다. 낭만주의 주역들의 이와 같은 퇴장은 낭만주의가 하나의 유파로서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다른 경향의 사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고답파로 소개된 「파르나스」 시파가 그것인데, 이 경향은 여러 모로 낭만주의와 대립되는 입장을 취했다. 고답파는 주관적 정서나 개인적 자아를 시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소설에서의 사실주의처럼 사물에 대한 객관적 태도, 작품 속에서의 자아의 소멸을 창작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고답파 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지적되는 물개성과 감정의 억제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고, 형식미와 조형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이 시파의 태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왜냐 하면 시의 엄격한 형식과 조형성은 일시적이고 자유로운 감정을 통제하면서 그 자체가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금욕적인 시론에 대한 고답파 시인들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어서, 마침내 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창하기에 이른다. 이 경향의 중요한 시인들은

대부분이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름을 들면 고티에, 방빌, 르콩트 드 릴, 에레디아 등이다. 보들레르와 말라르메도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또 이들이 주재한 잡지에도 작품을 실었지만, 두 시인은 이미 다른 길(상징주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여기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고답파는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낭만주의에 비하여 시적 성과는 적은 편이므로 그 자세한 얘기는 그만두고, 또 하나의 획기적인 문학적 사건인 상징주의로 넘어가기로 하자.

상징주의는 시기적으로는 고답파의 뒤를 잇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는 낭만주의를 전승·발전시키고 있다. 베르발과 보들레르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열리고 말라르메와 령보, 발레리에 의해서 전개·완성되는 이 유파는, 프랑스 시의 독특한 면모와 프랑스인의 지적 특성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낭만주의가 문학사에 선을 보인 이후로, 이에 정면으로 맞선 고답파마저도 낭만주의적 문학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상징주의는 아예 근본적으로 거기에 젖줄을 두고, 그것이 닦아 놓은 몇 가지의 가능성을 심화시킨다.

이 유파의 선구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보들레르의 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알바트로스〉란 작품이 그리고 있는 지고의, 그러나 지상으로부터는 소외된 시인, 〈여행에의 초대〉가 나타내는 여기가 아닌 곳으로의 도피, 〈음악〉 등의 많은 시에 스며 있는 우울과 절망감, 이 모든 정서와 태도는 그대

로 낭만주의의 유산이 아닌가? 보들레르의 천재성은 그런데 이 정신적 유산을 철저히 자기화·내면화시키면서, 하나의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았다는데에 있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지평선에 이르는 시적 방법론까지 마련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았다. <교감>은 바로 이를 기록한 시로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인용되곤 한다.

자연은 살아있는 기둥들로부터
이따금 어렴풋한 말들이 새어나오는 하나
의 신전

사람은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는
상징의 숲 속을 지난다.

어둡고 깊은 조화 속에
멀리서 합치는 메아리처럼,
밤처럼 그리고 광명처럼 한없이,
향기와 색채와 음향이 서로 화답한다.

어린애의 살결처럼 신선하고,
오보에처럼 부드럽고, 초원처럼 푸른 향
기가 있고,

—또 한편엔 썩고, 풍요하고 승리에 찬
향기가 있어,

용연향, 사향, 안식향과 훈향처럼,
무한한 것으로 퍼져나가
정신과 감각의 환희를 노래한다.

앞의 시로부터 우리는 상징주의를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점 만을 끌
어내기로 하자. 즉, 시인의 세계관과 시적
방법론.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물질적 세계 또는
현상적 세계는 그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
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를 연상케 하는,
사물에 대한 철저한 정신적 파악이다. 이러
한 사람들에게 한 사물의 진정한 의미는 그
것의 물질적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정신에 유발시키는 형이상학적인 관념
에 있다. 우리의 감각이 감지하는 길바닥의
돌은 단순한 물체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그 어떤 다른 숨은 뜻을 우리에게 전
하기 위하여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연이 얘기하려는 바이
다. <자연은… 하나의 신전>이다. 즉, 자연
은 신의 말을 듣는 곳이다. 그렇기에 그것
은 물질이 아니라, 신의 뜻(존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상징의 숲속>인 것이다. 자연
에 대한 이러한 정신적·관념적 태도는 그
이후의 모든 상징주의자들에게 대체적으로
공통된다. 이제 이 신비롭고 몽롱한 세계에
는 상징적 현실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시인만이 이 상징적 현실을 해독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

상징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는 상징주의의 시작(詩作)을 이해하는 데에
도 많은 도움을 준다. 사물 뒤에 깊숙히 숨
은 듯한 일반적인 인식의 태도로는 알아낼
수가 없고, 또 기존의 수사학으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 무언가 다른 수단이 필
요한 것이다. <교감>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살펴 보기로 하자 <향기와
색채와 음향이 서로 화답한다.>

일반 사람들에게서 각 감각은 서로 분리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푸른 하늘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존재의 비밀은 이런 기능적이고 효용적인 감각 만으로만 만족되지 않는다. 여러 감각의 경계선이 철폐되었을 때, 인간은 사물의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적어도 보들레르는 생각한다. 그 때에는 〈향기〉(후각)가 〈어린애의 살결처럼 신선하고〉(촉각), 〈오보에처럼 부드럽고〉(청각), 〈초원처럼 푸른〉(시각)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교감은 〈무한한 것으로 퍼져나가〉, 〈정신과 감각의 환희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어린애의 살결〉과 〈오보에〉, 〈초원〉은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서 껍질만 서로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다.

보들레르의 시적 성과는 랭보의 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시인은 모든 감각의 대폭적이고 정당한 오랜 착란을 통하여 투시자가 된다.” 감각의 착란이란 보들레르의 감각의 상호적 교류를 의미하는 랭보 투의 표현이리라. 단지 랭보는 이를 보다 방법적이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투시자는 존재의 비밀을 보는 사람, 즉 상징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시인일 것이다. 랭보는 감각의 착란을 적용한 많은 시를 썼다.

알파벳의 각 모음을 색과 여러 감각에 비유한 〈모음들〉이란 시는 한 좋은 보기이리라. 이제 우리는 상징주의 시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식되어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감〉이나 〈감각의 착란〉은 특수한 개인이 특수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산물이다. 더우기 이것은 논리와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상적인 언어로는 전달이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히 랭보는 언어의 의미와 구조에, 그리고 우리의 고정된 인식의 체계에 일종의 “폭력”을 가한다. 언어적 규약, 문학의 전통적 장르의 개념,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난 글은 처음 보기에는 낯설고 불가해하고, 우리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곤 한다.

이 난해성은, 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말라르메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시의 전개를 논리가 — 이것은 물론 시적 논리이다 — 아니라, 철저하게 암시와 유추에 의존한다. 낭만주의 시는 일반적으로 서술적이다. 감정과 생각이 평이하게 진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서술성은 심지어 보들레르에게서도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랭보와 말라르메에 이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이는 두 시인이 의도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언어를 효용적 기능(의사소통의 기능)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그것의 다른 표현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징주의자들이 시문학에 크게 기여한 언어의 음악성의 개발과 암시와 환기의 효과적 사용은 바로 이와 같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말라르메는 이 언어적 탐구에 있어서 대가였다.

그는 시의 첫 행이 마지막 행을 결정짓는

다고 했는데, 이는 첫 행의 음률적 배열과 이미지가 마지막 행의 그것들과 서로 상응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완벽주의적 시관 때문에 말라르메는 많은 작품을 낼 수는 없었지만, 그 우수성과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는 프랑스 시인들의 창조적 원천이 되고 있다. 중요한 시집으로는 〈목신의 오후〉(1876)와 〈횡설수설〉(1897) 등이 있다.

이렇듯 상징주의가 19세기 후반을 풍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추종하는 시인도 적지 않았다. 앞에서 다루지 않은 베를렌스가 대표적인 경우이고, 발레리는 상징주의의 토양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기념비적으로 구축한 경우이다. 베를렌스는 그 서정성과 단순성으로 상징주의 시인치고는 우리에게도 꽤 많이 읽히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사뎡, 레니에, 칸, 구르몽 등 많은 시인들이 활동을 하였지만, 이들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거론한 대시인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형편이다.

문화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학이 문화적 현상의 하나인 한, 시도 세월과 함께 바뀌기 마련이다. 19세기 말에 벌써 상징주의는 그 지나친 관념성으로 빈혈증에 걸렸다는 비난을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자연을 보다 직접적으로 만나려는 시인들이 나타난다.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는 듯한 프랑시스 잠도 그 중의 한 시인이었다.

그는 상징주의자들이 만든 인공적인 자연을 버리고, 그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사실 그는 자신의 태반의 삶을 전원에서 보낸다. 그의 작품은, 비록 상징주의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 버릴 수는 없었지만, 시인의 순수한 감각이 만난 사물들을 신선하게 담고 있다.

프랑스 시문학의 마지막 운동은 초현실주의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초현실적인 오솔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벌써 땅거미가 내리고 있고, 무척 오랫동안 걸었는지 다리가 아프다. 입구에 놓인 안내판을 보는 것으로 산책을 끝내야겠다.

상징주의 운동의 쇠락, 현대적 문명이기의 발명(자동차, 비행기 등등), 세계 제1차대전 등 문학 안팎의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초현실주의는, 현대시를 형성시키는 데에 한 몫을 톡톡히 하는 운동이다. 아폴리베르의 전위적 시도가 그 선례로 있었지만, 엘뤼아르, 아라공 등의 동조와 함께 브르통이 발표한 「초현실주의 선언」(1924)으로 이 운동은 이론과 지지자를 가진 명실상부한 유파로 뿌리를 내린다. 그후, 중요한 구성원들의 탈퇴를 비롯한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브르통은 이 운동의 총수로서 끝까지 그 정신을 고수한다. 비록 초현실주의는 이렇다 할 업적을 시 자체로는 낳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현대 시인들이 직접·간접으로 이와 연루되었었다는 사실은 그 영향력의 크기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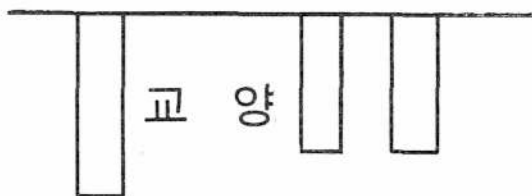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유파는 프로이드가 발견한 무의식,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입증한 역사의 모순과 불합리, 전통

적 가치의 붕괴와 그에 따른 반항과 자유
등의 현대적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
의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초현실주의의 이런 득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는 유파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각 시인이 홀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사실 20세기의 프랑
스 시문학사는 그런 개척자들로 꾸며져 있
다. 이제 하나의 유행이 모두 휘어잡기에는,
세상이 너무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모양이다.





수필문학이란 무엇인가?

전 호 명

<준위 제3659부대>

에 세이가 수필이라는 장르상의 명칭때문에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식 만은 고쳐야 할 것이다. 「붓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는 어떤 형식에 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1. 수필의 정의

먼저 「수필」에 대한 의미를 사전적인 풀이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에 묶이지 않고 듣고 본 것, 체험한 것, 느낀 것 따위를 생각나는대로 쓰는 산문형식의 짧은 글, 또는 그러한 형태의 작품, 사견체계를 갖지 않으며 개성적·관조적이며 인간성이 내포되게 위트·유머·예지로써도 표현함, 상화(想華)·만문(漫文)·만필·수필문(隨筆文) 등을 말한다.

반면에 「에세이」란 풀이를 보면 수필, 산문, 수상(隨想) 특별한 주제에 관한 시론(試論), 소논문(小論文) 등이다.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웬만한 낱말은 국어사전에서 명료하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서 금방 수궁을 한다. 그런데 수필이란 낱말은 그 뜻풀이가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사전을 일어놓고 만다.

사실 문학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가장 애매한 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필인지도 모른다.

①

2. 수필의 내력

동양의 수필과 서양의 에세이는 엄연히 영원을 달리한다.

문헌에서 수필이란 말이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때는 중국 남송(南宋) 때의 홍매(洪邁, 1123~1203년)가 쓴 용재수필(容齋隨筆)에서라고 한다. 경사(經史)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능한 그라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게으른 버릇으로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과 뒤를 가릴 것도 없이 바로바로 기록하여 놓는 것이기 때문에 수필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년)의 열하일기(熱河日記)가 효시라고 알려져 있다. 그가 연경(燕京)에 갔다 온 기행을 쓴 열하일기 가운데 일신수필(駟迅隨筆)이란 글이 있는데 이것이 곧 기행문 수필인 것이다.

에세이(ESSAY)란 말은 프랑스의 몽테뉴(M·DE MONTAIGNE, 1553~1592년)가 저서 에쎬(LES ESSAIS, 隨想錄)라는 명령을 붙인데서부터 비롯된다.

에쎬는 계량(計量)하다, 음미(吟味)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의 엑시게레(EXIGERE)에 어원을 둔 말이다. 1580년에 그의 수상록 1, 2권이 나왔는데 머리말에서 “나 자신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스스로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드러내어 기록

했음이 밝혀진다. 몽테뉴 수상록의 결정판인 제3권이 나오기는 그의 사후인 1595년이었다.

그 2년 후에는 베이컨(F. BACON, 1561~1626년)의 수필집 「에세이(THE ESSAY)」가 출판되었다. 베이컨은 몽테뉴의 에쎬란 말을 빌려 수필집 명칭을 에세이라고 한 것인데 그 에세이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시사적으로 쓴 짧은 비망록의 약간에 나는 에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새롭지만, 그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편지같은 것을 에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도 자세히 보면 명상록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 문제를 주로 명상적·설화적(說話的)·주관적으로 연역(演繹)하는 몽테뉴형의 수필, 흔히 말하는 인포오멀 에세이(INFORMAL ESSAY)와 사회적인 문제를 주로 논의적(論議的)·경구적(警句的)·객관적으로 귀납하는 베이컨형 포오멀 에세이(FORMAL ASSAY)의 두 형태로 에세이 문학이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몽테뉴에서 활발한 수필문학이 베이컨에 의해 영국으로 도입되어 수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그 내용과 형식이 복잡 다양해지고 변모되어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찰스 램(CARLES LAMB, 1775~1834년)에 이르러 서구 에세이 문학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1823년에 출간된 엘리자 수필집 「THE ESSAY OF ELIA」로 해서 수필이 본격적인 문학으로서 그 영토를 굳히게 된 것이다.

3. 수필의 특성

앞에서 동양의 수필과 서양의 에세이의 발생경로를 약술하였거니와 이 용어상의 문제는 더 길게 말을 해도 명확한 답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체계를 세워 정리를 하고 보면 동양의 수필과 서양의 에세이가 오늘날의 수필문학에 어떻게 접맥(接脈)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소설, 시 등 다른 문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수필도 신문학 이후 다분히 서구적인 의미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현대 수필이라고 하면 에세이와 동의어로 알고 있다.

에세이 중에는 포오멀 에세이(定格隨筆)와 인포오멀 에세이(非定格隨筆)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분수령처럼 뚜렷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어느 수필은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다만 문예적인 수필이라고 하면 무거운 쪽의 포오멀 에세이보다는 가벼운 쪽의 인포오멀 에세이에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차이 뿐이다.

에세이의 뜻에 소논문, 즉 평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평론은 에세이라 하지 않고 크리티시즘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용어의 어원을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의 하나로 필요한 것이고 장르의 성격을 아는데

도움은 된다고 하겠으나 전적으로 거기에 구애될 것도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박지원 이전에도 그보다 훨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규보(李奎報)의 백운소설(百雲小說)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 등 수필적인 성격의 글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언어를 사용하여서 일생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평론가 아아놀드(M. ARNOLD)가 한 이 말은 수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문학의 뜻이 인간탐구(人間探究)에 있을진대, 수필도 그 점에 있어서는 똑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어떤 형식을 택하느냐 하는 건 전혀 개인적인 문제이다.

에세이가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상의 명칭때문에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인식 만은 고쳐져야 옳다. 붓가는대로, 생각나는대로는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소설이란 말도 그 명칭의 쓰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규보의 백운소설이 그 한 예인데, 그 명칭은 시화(詩話) 즉 수필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러면 인생을 예술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수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가. 알맞는 길이의 산문이어야 한다. 장편 에세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필은 우선 길이가 짧아야 한다. 2백자 원고지

로 15장 안팎이면 적당하다.

나. 유머와 위트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수필이란 요리의 조미료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단순한 문장이기 쉬운 수필 문장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다.

다. 개성을 들어내는 문장이다.

18세기의 프랑스 박물학자(傳物學者)이고 철학자인 뷔퐁(G. L. BUFFON)은 “글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 말은 수필 문장에서는 쓰는 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개성이 있는 문장이어야만 호감(好感)을 갖게 되고, 수필다운 맛을 느끼게 된다.

라.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다.

어느 형식에서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무형식의 형식」이란 주제에 따라 형식을 창조하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쓰기 어려운 글이 수필이다.

마. 제재(題材)의 다양성이 있다.

수필처럼 제재가 다양한 문학도 없다. 이런 특성때문에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제재를 가지고 써도 무방하지만 문제는 안목(眼目)이다. 똑같은 배경을 두고도 카메라의 앵글(視角)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 허구(虎構)가 아닌 진실을 써야 한다.

수필은 허구가 아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삶의 진실을 표백(表白)해야 한

다. 소설과 수필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소설 또한 진실의 문학인데는 어느 장르와 다르지 않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인 참 말이라 하겠고, 수필은 가설무대같은 건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참말을 기록하는 문학이다.

사. 관조(觀照)의 문학이다.

수필가는 인생과 사물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삶의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소설이 의도적인 집필에서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수필은 쓰는 사람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유로(流露)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쓰는 글이 아니라 쓰여지는 글이다.

4. 수필은어떻게 써야 하나?

수필은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품격이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 누군가가 수필이란 자기고백의 문학이라 말했듯이 진실한 자기고백이 아니면 결코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기고백의 글이 사색의 경로를 통해서 형상화(形象化), 즉 수필화가 되었을 때 문학적인 감동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다.

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 보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이 가장 바른 해답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수필작품을 읽었다고 할 수도 없고, 많이 썼다고 자부할 수는 더욱 없다.

그러나 스스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한 글을 대할 때는 나의 마음까지도 정화(淨化)가 되는 것 같아서 엄숙해지곤 한다. 한편의 글이 탄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제의에 드리는 기도의 산물이다.

기도에는 아픔이 따른다. 원고지를 앞에 놓고 한 편의 글을 쓰고자 할 때 어찌 마음이 심상할 수 있으랴! 사랑과 한(恨)과 고뇌를 수필이란 이름으로 꽃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 어찌 마음의 아픔없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으랴!

나. 무형식의 형식

수필이란 것이 막연히 쓰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무슨 계기가 있어야만 쓰기가 쉽다. 매우 감동적인 일을 보았다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던가, 즐거운 여행을 할 때 라던가 이럴 때 글로서 표현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일생을 두고도 행복한 순간이란 그리 많지 못하다. 남들이 생각하기엔 행복의 근처에도 못 갈 부스러기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금(砂金)처럼 소중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를 간수하기 위해 용기(容器)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글이다.

문제는 글의 형식에 있다. 수필을 일러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말한 이도 있는데, 애매한 표현같지만 사실은 수필 장르의 특성을 단적으로 잘 말해 준 말이기도 하다.

수필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마다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문학이 아닌가 한다.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수필은 난(蘭)

이요, 학(鶴)이요, 청조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라고 말한 피천득 선생처럼 좋은 수필을 쓰려면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 다정한 연인에게 편지를 쓰듯 자기 마음을 담담하게 원고지 위에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수필은 형식이 다양하다. 넓은 의미로는 일기, 서간문, 기행문까지도 수필 장르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쓰려고 하는 글의 성격에 따라 적의한 형식을 택하여 자연스럽게 써야 한다.

그러나 수필 또한 문학이니 한 편의 글이 쓰여지기까지는 주제(主題), 소재(素材), 구성(構成) 등의 섬세한 창작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제는 테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작자가 쓰고자 하는 글의 중심사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어느 수필을 읽었을 때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썼는가 하는 그 무엇(중심사상)을 뜻한다.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를 형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소재를 찾아야 한다. 소재는 자기 생활 주변에도 있고, 회상 속의 이야기나 독서에서 얻어진 이야기도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제와 소재가 마련이 되면 작품의 윤곽을 대강이라도 구성해 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에 비유를 해도 되고, 조각품에 비유를 해도 무방하다. 상상하고 있는 그 형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침묵의 작업을 거듭하는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 탄생을 보게 된다.

다. 문장수업의 필요성

시는 언어의 함축과 리듬이 있고, 소설은 픽션인만큼 이야기 자체의 전개 만으로도 되는 것이지만 수필은 문장 바로 그것 이어서 무엇보다도 문장이 되지 않으면 수필이 되지 못한다. 수필을 쓰려면 문장수업부터 해야 한다. 수필 문장은 글 솜씨 만으로 되지 않는다. 수필문장은 각자의 품격이 결정해 주기 때문이다.

문장을 구사함에 있어서는 대개 두 가지의 방법을 쓰고 있다.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이다. 쓰는 이에 따라서 어느 한 방법을 즐겨 쓰게 되는데 두 방법을 함께 구사하는 이도 있다.

연역적 방법은 먼저 일반화(一般化)의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에 그 일반화에 대한 예시(例示)의 문장을 구사한다.

가을은 참 이상한 계절이다.

조금 차분해진 마음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볼 때, 푸른 하늘 아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산다는게 뭘까 하고 문득 혼자서 중얼거릴 때, 우리는 새삼스레 착해지려고 한다. 나무잎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엷은 우수(憂愁)에 물들어 간다. 가을은 그런 계절인 모양이다.

(법정의 「가을은」에서)

귀납적 방법은 먼저 예시의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에 그 예시에 대한 일반화의 문장을 구사한다.

전등은 나가고 환한 달빛만이 영창에 어

리는 외로운 밤이다. 무심히 머리맡의 조약돌을 만져본다. 어렸을 때 조약돌이 좋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일을 생각한다. 이 돌이 언제부터 내 방에 들어왔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꽤 오래 전부터이다. 어느덧 나는 심심하면 이 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들었다. 가슴이 울컥하다가도 이 돌을 주무르면 사르르 가라앉기도 한다.

「조약돌 같은 인간」 불쑥 이런 생각을 하며 픽 웃기도 한다.

(윤오영의 「조약돌」에서)

글을 쓰는 이의 마음에 따라서 예시없이 일반화만으로 수필 한 편을 써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일반화없이 예시 만으로 수필 한 편을 써내는 이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예시와 일반화, 아니면 일반화와 예시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의도대로 되지 않는데에 수필쓰기의 어려움이 있다.

5. 결 론

글이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말을 할 줄 알고, 뜻을 이해하고 있듯이 각자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살고 있다.

수필문학은 정(情)의 미학(美学) 이므로 자기반성을 한다거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에게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의미로 부각

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바탕이 마련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수필은 우리의 삶과 밀착된 문학이다. 수필을 쓰는 일은 자기 삶의 충실(充實)이고 확충(擴充)인 것이다. 지금까지 수필이란 어떤 문학이며 어떻게 써야 하는가

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해 보았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도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사념을 표백(表白)해 볼 필요가 있다. 설령 그것이 작품으로서는 미흡하다 할지라도 작자는 그 수필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 상식

흡연과 건강의 삼각함수



1. 흡연의 신체적 영향

한 해 동안에 흡연은 300,000명의 미국인의 사망원인이 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월남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여섯 배나 더 많은 수에 해당된다.

비흡연자들에 비해 흡연자들이 각종 질병에 걸려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흡연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태워나가고 있는 것은 흡연이 신체에 즉각적 해독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찾아오는 자살행위란 점에 기인한다.

본 글에서는 신체의 각 부분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과 확산추세에 있는 금연운동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가. 흡연과 암

흡연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암(癌)이

이 홍 수

〈항의원 내과과장〉

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등의 화학 물질들은 폐 속으로 들어가서 혈류와 임파계를 통하여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퍼지게 되며 암을 유발하게 된다.

처음에는 위궤양처럼 보일 수도 있는 위암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두 배나 많이 걸린다. 이는 대장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흡연으로 인한 인후암은 사람들을 성대가 없는 희생자로 만들어 버린다. 그는 경부 근육과 식도를 이용하여 말을 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흡연자들이 걸리는 암의 80퍼센트가 성대의 암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나. 흡연과 폐암(肺癌)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를 깊이 들며마실 때, 그는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연기를 들여 보내게 된다. 그 연기 속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

는데, 그것들이 폐 속에 있는 무수한 공기 주머니 안으로 들어간다(타르는 석탄, 목재를 건류(乾溜)하여 만든 검고 끈적거리는 액체임).

사람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흡연을 통하여 폐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끈적끈적한 타르가 점차적으로 함께 섞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침내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든다. 보통 작은 머리털처럼 생긴 섬모가 공기를 통하여 폐 속으로 들어가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에서 나오는 타르가 그 섬모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므로 공기와 담배연기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폐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 잔류하게 된다.

타르의 잔여물들은 공기의 통로에 쌓이게 되어 통로의 표면에 있는 세포들을 변화시킨다. 세포들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 결국에는 폐암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폐에서부터 암 세포들이 혈관과 임파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신체의 각 부분으로 퍼져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된 후 폐암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의학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폐암은 95퍼센트가 치유될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다. 흡연과 폐기종(肺氣腫)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건강문제 중의 하나는 폐기종(肺氣腫)이라는 병이다.

현재 미국에서만도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폐기종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해마다 50만명 내지 55만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그 병은 폐암과 공통점이 대단히 많다. 폐의 기도(氣道)에 있는 세포들이 표면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담배와 관련이 있는 것 등이 공통점들이다.

기종은 외부의 자극물때문에 표면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될 때 생긴다. 그 성장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것들은 폐 안에 있는 작은 공기의 관들을 막아버리게 되며 마침내 그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두어버린다. 이처럼 기도가 막히게 됨으로 폐기종이 생긴 사람은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폐 속에 있는 작은 공기주머니들은 늘어나게 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터지게 된다. 그리하여 풍선과 같은 주머니 혹은 수포(水泡)가 되어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가스와 타르의 화학작용의 결과로 이 수포들의 벽들은 탄력을 잃게 된다.

폐기종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숨이 가쁘고, 힘이 없고, 능률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상생활의 필요한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흡연을 그치게 되면 위 증상들이 어느 정도 호전되기도 하지만 이미 찢어진 공기주머니의 벽들은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

라. 흡연과 동맥경화(動脈硬化)

동맥경화는 다른 어떤 병보다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욱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사망의 원인 중에서 54%가 동맥경화에 있음 - 美國의 경우).

최근에 의사들은 대부분의 서구인이 섭취하고 있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물이 질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늘날 한층 더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니코틴과 흡연때문에 생기는 화학작용이 동맥의 내벽을 따라 지방질을 축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주로 콜레스테롤의 형태로 나타남).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니코틴은 동맥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있다. 이와 같이 지방질이 축적되고 동맥이 수축됨으로 혈관을 통하여 피가 심장의 두뇌와 신체의 말단부분과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는다.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따금 조직이 파괴되는 결과를 빚어 낸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은 응혈(凝血)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혈관의 수축과 동반되어 심장마비 혹은 뇌일혈을 초래하게 된다.

마. 흡연과 뇌의 손상

사람의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피가 적당하게 공급됨으로 산소가 뇌로 전해져야 한다. 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 중의 하나는 콜레스테롤이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상실을 수반하는 발작이나 뇌일혈로 말미암아 죽는

다. 뇌일혈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중의 대부분은 40세 이상의 사람들이다. 뇌일혈은 뇌 속에 있는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거나 꺼질꺼질한 혈관의 표면에 응혈이 생겨 혈관이 막힐 때 일어난다.

뇌에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심해지면 사실상 뇌의 여러 부분에 필요한 산소가 결핍됨으로 뇌쇠현상이 생기게 된다.

부적당한 식사와 흡연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이 생기게 되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뇌쇠와 뇌일혈의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2. 금연운동의 실태

가. 외국의 경우

WHO총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1988년 4월 7일을 세계 최초의 담배 없는 날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166명의 대표자들은 세계출판 및 전파매체가 하루 동안 담배광고를 “자발적으로” 저절하기를 촉구했다. 그들은 또 모든 나라의 담배 제조업자와 광고업자에게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동안 광고를 멈추기를 요청했다. 담배 판매점에 자발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담배도 팔지 말기를 요청하였고, 각 정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담배피우는 것과 차츰 증가하는 씹는 담배나 냄새맡는 담배의 사용을 제지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1988년 4월 7일이 금연운동의 시작인가?

물론 아니다. 1761년 한 영국의사가 담배와 암의 연관성을 처음 임상적으로 보고한 이래 세계 도처에서 있었던 담배소비 촉진 운동에 반발하여 많은 금연운동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지도자들과 소비자들이 담배소비의 해독에 관한 과학적 발표에 관심이 고조된 것은 불과 20년 밖에 안 되었으며, 담배로 인한 질병이 없는 21세기를 만드는 전 세계적 노력의 시작이 1988년 4월 7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한 해에 약 250만명의 사람들이 폐암, 만성기관지염, 폐기종과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13초에 한명씩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때문에 WHO사무총장은 최근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공통목적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는 또 의사와 간호원들이 금연하는데 솔선수범하자고 하였다. 명사들에게도 젊은이들이 담배를 버리고 건강을 선택하도록 그들이 발벗고 나서기를 호소했다.

나. 한국의 경우

한국의 금연운동은 한국소비자 연맹이 금연운동을 실시하면서부터 활성화되었다. 금연운동은 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1923년부터 한 흔적이 있고 1960년부터 간간이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조직체가 움직인 것은 소비자연맹이 처음이다. 소비자연맹이 정식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4년 12월이다.

소비자연맹은 '86년에 한국일보와 1년간

공동으로 금연운동을 실시했다. 금연포스터, 금연표어, 금연사례 등을 현상모집했고, 현재 직장에서의 금연운동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80여개 금연단체와 자료교환을 했으며 '87년 11월에는 제 6회 세계금연대회에도 참석했다. 1년 내내 희망자에게는 금연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제공했고 니코틴의 해독을 알리기 위해 지령이를 이용 니코틴의 작용을 나타내는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또는 출장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로 후두암에 걸렸던 실제인물로 하여금 담배의 무서움, 성대를 절제한 경험담 등을 들려주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포스터와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금연우표 등을 모아 1년에 1번내지 2번의 전시회도 하고 있다. 그동안 보도되었던 신문기사모음집, 임신과 담배 등을 발행했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 항체가 약해져서 AIDS에 걸리기 쉽다는 책도 발행했다. 그의 금연배지,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카 등을 갖고 1년에 여러 차례 금연가두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 후 대한의학협회에서 전국 병원으로 하여금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하라는 금연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앞서 철도청은 금연차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담배의 유해성을 모르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담배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금연은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실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 담

배를 끊기 원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나날이 담배피우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또 그것이 자기의 건강 만이 아니라 남의 건강까지도 해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연운동은 법이나 규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끊으려는 자각운동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3. 맺 음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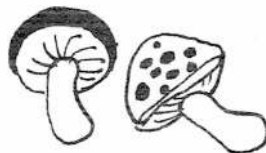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의해 전 세계에 퍼진 담배만큼 그동안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것이 세상에 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담배의 피해, 특히 건강적 피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0여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 세계는 가히 담배연기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즐겨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담배의 건강적 피해, 특히

심장혈관질환이나 폐암, 그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 발생이 흡연과 거의 확실한 관련이 있음이 계속 밝혀지는 한편 비흡연자들의 권리 주장이 대두되면서 선진국에서는 점차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흡연과 질병간의 확실한 관련성 만으로도 설득력이 있지만 피우던 담배를 끊는 사람이 얻게 되는 건강적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또한 금연운동 차원에서 담배를 끊게 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정리하면 건강에 관한 한 담배는 처음부터 안 피우는 것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피우던 사람도 일단 이것을 끊기만 하면 큰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끊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료제공 : 한국금연운동본부, 위생병원
5일 금연학교)





蒼空俱樂部를 찾아서



△ 본지 취재팀의 Pen클럽사무실 방문, 전숙희氏와의 대담장면



△ 문학정신사에서 김윤성氏와의 대담장면

너의 功勳으로 白日이 빛난다

趙 芝 薰

보라매여! 네 이름은 海東靑, 너의 祖國은 韓半島다.
五, 六月 젓빛 구름 속에 날개를 솟구쳤다가 七, 八月
드높은 하늘 세루로이드 같이 매끄러운 蒼空에 회리바
람을 일으키며 너는 미끄러진다.

보라매여! 너는 길들인 사냥매, 너의 基地는 손바닥
이다. 그리고 또 어깨다. 아무리 날랜 새라도 너 앞
에는 느림보 덮쳐서 움켜쥐고 돌아오는 네 깃털 위에 이
는 바람이 향스럽다.

☆

☆



보라매여! 너는 韓國의 空軍, 너의 고향은 하늘이다.
네 날개는 祖國愛 너의 動力은 民族의 피다. 날개 부러
지고 염통마저 터지면 너는 滿春의 꽃잎처럼 碧空에 훑
날린다.

보라매여! 너는 大空의 城壁, 너의 싸움터는 하늘이
다. 꽃다운 魂이여 鋼鐵의 肉身이여 오늘 가볍게 날러
라 아름답게 휘돌아라 눈부릅뜨고 지켜라, 진실로 虛心
히. 너의 勳功으로 白日이 빛난다.

〈본 詩는 코메트誌 제 3호(1953년 2월발행)에 게재된 것임.〉

□ 편집자주 □

인간은 홀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끝없는 만남 속에서 성장하고 인간사회는 발전한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이익을 나누고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된다. 무수한 만남 중에는 그저 스쳐 가는 만남이 있고 오래도록 자신의 가슴 속에 기억될 수 있는 만남이 있다. 가슴에 간직하고픈, 또는 지울 수 없는 만남 몇 가지씩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사랑, 아픈 기억들 모두가 세월이 흐르면 추억으로 되어 버린다.

무수한 만남 중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좀처럼 갖기가 어려운 만남, 바로 문(文)인과 무(武)인의 만남이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하나의 특수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지만,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만남이었기에 그들의 가슴에는 그 때, 그 시절의 추억으로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어색한 만남이지만, 어떠한 만남보다 고귀하고 의미있는 만남이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만남이었기에 더욱 깊이 있는 만남이 되었다.

1950년 6. 25전쟁 중에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실전에서 몸으로 싸웠다면, 문인들은 후방에 있었지만 조국을 지켜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굳은 정신력을 군인들에게 불어넣어줌으로 해서 문필로써 조국을 지켜 주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정신력의 영향과 위력이 대단히 크게 작용한다.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이겨야 한다는 신념과 정신력을 불어넣어 준 당시의 문인들의 단체를 “창공구락부”라 칭하였다.

「공군」에서는 건군 40주년을 맞아 특집기획으로 창공구락부의 발자취에 대하여 취재해 보았다. 현재는 휴전과 함께 해체되기는 했지만 그때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당시 회원이시며 지금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성, 방기환, 전숙희 선생님을 찾아 창공구락부의 구성·배경·활동상황 등을 들어 보았다.

창공구락부의 회원에는 단장에 마해송(馬海松)을 비롯하여 조지훈(趙芝薰), 최인욱(崔仁旭), 박두진(朴斗鎭), 박목월(朴木月), 최정희(崔貞熙), 유주현(柳周鉉), 곽하신(郭夏信), 이한준(李漢稷), 김윤성(金潤成), 전숙희(田淑禧), 이상노(李相魯), 방기환(方基煥), 황순원(黃順元), 김동리(金東里) 박훈산(朴薰山) 등 그 당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시던 문예계 거장들로 구성되었다. 창공구락부의 구성동기는, 6. 25전란으로 인하여 피난을 하게 되어 문인들이 대구에 종군해 있을 때 현재 예종의 전신인 문총구국대라는 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있었다. 처음에는 육·해·공군이 통합되어 있었다.

당시 국방부 정훈국장에게 이성근씨가 있었고, 그의 제자 김기완(당시 공군 대령)씨가 정훈국 편집실에서 간행물과 선전물을 제작하였다. 그곳에 문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게 되자 조직화된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게 된다. 처음에는 국방부 소속이었으나 1. 4 후퇴 이후 '공군 종군문인단'으로 성립되었고, 이것을 다시 '창공구락부'라 하였다. 당시 공군 정훈감은 서임수(당시 대령) 씨였는데 '코메트'라는 잡지를 창간하게 되어 방기완, 이상노씨가 편집을 맡게 된다.

당시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후에 영남일보사에 사무실을 하나 두었는데, 그곳이 연락처, 합숙소가 되었다. 공군에서는 문인들에게 군인(영관급)과 동등한 대우를 문관형식으로 해 주었다.

창공구락부의 활동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전쟁중이었기 때문에 전선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글로써 정신력을 뒷받침하여 주기도 하였고, 전투조종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전투조종사와

함께 조국에 대하여, 또는 인생에 대하여, 삶과 고뇌, 전쟁, 행복 등 많은 이야기를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함께 나누었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이 되어 어색함없이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참모총장의 초청으로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열기도 하였고, 「문인의 밤」을 열어 시낭송, 산문낭독, 강연회, 연극 등도 할 수가 있었다. 전쟁 중인 당시에는 문인들의 발표할 지면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코메트'라는 공군잡지는 당시 시인, 소설가, 수필가 등 문인들의 작품발표기관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코메트는 문인들의 발표무대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 당시의 코메트지는 우리나라에서 질적, 양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잡지였다. 공군은 문인을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 주었으며,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현장비를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는 등 국방과 군사에 관계된 것 외에도 사회복지나 문화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였다.

그 당시 정훈감실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서임수(전 국민대학장), 윤석현(전 내무부 차관), 김경수(전 성균관대총장), 임원택(전 서울대교수), 김기완, 박규석, 영화평론가 이영일씨 등 현재 학계, 교육계, 예술계의 인재들이었고, 전투조종사에는 옥만호, 박재호, 장덕창, 김정열, 김창규씨 등이 있

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석류나무집」, 「말대加里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군인과 문인은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왔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어려울 때 함께 의지하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모두가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운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시간을 내 주신 세 분의 회원, 시인이시며 문학정신사에 계신 김윤성 선생님, 수필가이시고 펜클럽 한국본부회장이신 전숙희 선생님, 소설가 방기환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전숙희 선생님은 창공구락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회롭다며, 그 당시는 가난해도 웃음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현대 젊은이들은 끝없는 경쟁속의 삶 때문인지 삭막해진 젊은이를 걱정하시며, 자신의 주위에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선배와 가족이 있기에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것이 안타깝다며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셨다.

방기환 선생님 방문은 둔촌동 소재의 주택이었는데, 반쯤 열려 있는 철창살의 대문, 인공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인듯 하던 서도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푸른 숲이 펼

쳐진 작업실에서 만난 선생님은 소설속의 소설가인듯 했다. 취재팀을 맞이하시며, 공군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며 그 시절 그사람들은 아니지만 무척이나 반갑다고 하셨다. 군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며, 군의 복무기간은 무의미하고 훈련은 고달프고 군에 있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자신한테 발전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보다 부정적인 견해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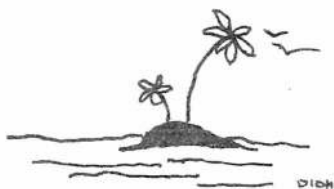
우선 기본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자체 하나로 생각해 볼 때 그만한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획일화된 군대생활을 통하여 단결력과 사회성을 배우고, 고된 훈련으로 극기력과 체력단련을 연마하며, 어려울 때 만난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군대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학교공부 만이 투자이고, 군대에서는 얻는 것이 없고 희생만 따른다는 생각은 곤란

하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것만이 공부
가 아니라 군대생활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
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가족에게도 전하고 싶다고 좋은 말

씀을 해주셨다.

다시 한 번 세 분, 김윤성 선생님, 전숙
희 선생님, 방기환 선생님께 「공군」을 대신
하여 감사드립니다.





창공구락부 시절 — 회상기 —



전 속 회

〈수필가,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다시생각만 해도 그리운 그 시절, 30여년 이 지난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그날의 우리들의 삶이었다.

1951년이었던가 한다. 한창 6.25전쟁으로 온 국민의 이동이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서울에 남아 있던 시민들 이외에는 걸어서라도 대구로 부산으로 가족들을 이끌고 피란의 길을 떠나야만 했을 때였다.

남편은 당시 의사로서 입대해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거쳐 소령으로 헌병사령부의 의무부장으로 종군하면서 일선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다가 육군본부가 대구로 이동하면서

대구까지 갔다는 소식을, 당시 피란하고 있던 안양부근에서 전해들은, 나는 二男二女の 네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육군본부가 있다는 대구까지 따라가 남편을 찾게 되어 휴전이 될 때까지 대구에서 피란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때 대구에는 이렇게 피란으로 모여든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집결해 있었다. 셋방살이도 구할 수 없었던 文人들의 비참한 생활은 모두가 같은 처지여서 우리가 生命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 월북했거나 납북당했거나 살해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겹쳐하게, 그러나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 가고 있었다.

내 기억으로 당시 대구에서 만났던 文人들은 女流작가로는 최정희씨, 장덕조씨, 한무숙씨, 강신재씨 등이었고, 남자로는 馬海松 선생을 비롯해 具常씨, 박영준씨, 방기환씨, 김윤성씨 등이었다. 지금은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주부 김용환씨도 대구에 있었고, 대구의 터줏대감격인 詩人으로는 본바닥의 李雪舟씨가 제쳤다.

文人들과 가까우면서 軍과도 가까웠던 언론인으로 박성환씨와 정인준씨가 많은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박성환씨와 정인준씨는 휴전후 서울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 모두 뜻밖의 병으로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되고 말았다.

당시 그 두 언론인과 친하던 젊은 詩人이 바로 “지금 그 이름은 잊었지만-”의 有名 詩人 박인환씨였다. 당시 미혼이었던 박인환 詩人은 어느 날 대구피란지에서 어떤 미인아가씨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약혼녀라고 했다. 아주 만족하고 자랑스러운 태도로 그녀를 나에게 소개한 다음, 이제 곧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는 詩想을 얻기 위해 배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돌아올 거라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축복하는 마음과 부러운 마음이 넘쳐나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러나 결혼후 달콤한 생활을 얼마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소원이었던 여행도 하고 돌아왔으나 얼마후 그는 아깝게도 그 젊은 나이에 우리들 곁을 떠나 버렸다.

그러나 이제 슬픈 추억은 잠시 잊고, 가난했으나 다정했고 즐거웠던 대구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문인들이 모여 있던 대구에서 공군이 주동이 되어 공군의 작가단을 만들고, 그 이름을 공군작가단이라고 하는 대신에 ‘창공구락부’라고 이름지었다.

최인욱, 최정희, 광하신, 박두진, 박목월, 유주현, 김윤성, 이한직, 방기환 등 제씨였다.

당시 공군참모장으로는 김정열장군이었는데, 그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육군작가단(중군작가)이라는 이름보다는 푸른 하늘을 연상하는 창공구락부라는 이름이 멋있어 나는 내 남편이 육군인데도 공군작가단에 가입하게 되었다.

창공구락부는 단장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마해송 선생을 비롯 조지훈…… 등 제씨였다.

마선생은 당시 일본에서 모던日本 이라는 월간잡지 편집장이었고 아동문학을 전공하는 멋장이었고, 부인은 유명한 현대무용가인 朴外仙 여사였다. 마해송 선생은 술을 좋아하셨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쯤 창공구락부 모임을 가지게 되면 회의가 끝난 다음 의례

히 북어나 마른대구포 접시와 고추장을 곁들이고, 특별히 여류들을 위해 마련되는 빈대떡 등을 안주로 해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술판은 밤이 깊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술판은 노랫판이 되고 이야기판이 되어 집 떠나고 가족 흩어진 한많은 가슴속풀이가 끝날 줄을 몰랐다.

생각해 보면, 창공구락부라는 이름으로 전시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어 작가들은 전쟁터에서 피흘리고 생명을 바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후방을 지키는 병사들도 위문하고, 총 대신에 펜을 들어 함께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켰었다. 동시에, 우리가 군에서 받은 도움과 위안과 힘은 더욱 큰 것이었다. 당시 군인들이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켜 주었으니 말이다. 물론 전시이니 만치 무지한 군인들의 횡포와 비리도 없지 않았지만, 역시 당시 우리가 의지할 곳은 군대밖에 없었다. 군은 문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했었다. 당시 김동리씨, 조연현씨 등 많은 문인들은 부산으로 피란갔지만, 또 인연따라 대구에서 이렇게 전시에 나날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대구는 부산에 비해 작은 도시이고 상업도시가 아닌 교육도시여서 분위기가 접잡고, 마음씨들이 가난한 대로 양반스러운 인정의 도시였다. 그래서 군인은 물론 대구 본토사

람들도 누구보다도 문인들을 존경하고 대접해 주었다.

날마다 라디오와 신문의 뉴스에 온갖 신경을 기울이며 언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나마 대구에도 못있고 모두가 이땅을 빼앗기고 더 멀리 떠나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은 한순간도 안정이나 평화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런 환경속에서 文人극을 했던 기억은, 참으로 젊음은 죽음이나 포탄 앞에서도 용감하고 아름답다는 추억으로 새롭게 떠오른다.

피란의 시일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모두가 좌절속에 지루해지자, 文人들은 군 당국과 신문사의 후원을 얻어, 대구시민회관이었던 한 장소에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각본을 써낸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文人연극을 했다. 당시 주인공은 최정희씨와 장덕조씨, 박영준씨였고, 나와 기타 많은 문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연극을 했다.

이 문인극의 인기는 너무나 대단해서 사흘을 연속하는데도, 대구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왔던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출입문이 부서지고 대난리가 났었다. 먹을것, 쓸것, 입을것도 없는 전시였건만 文人을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눈물겹도록 감사했다.

그후 이 文人극은 부산에까지 소문이 나서 앵콜공연을 부산까지 가서 했었다. 이토

록 인기가 높았다니 文人들이 그토록 연극을 잘들 했는가 생각할지도 모르나, 사실은 그렇게도 못하는 연극을 그래도 문인들이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눈과 마음으로 보아준 그 마음들이 더욱 감명깊다. 참으로 무대와 객석이 혼연일체가 된 불우한 우리들 시대의 눈물의 한마당이었다고나 할까! 지금도 생각하면 혼자 웃음이 터지는 일은, 주인공이라고 무대에 오른 최정희씨가 대사를 다 잊어 버려 입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예의 웃음을 터뜨리자 누구보다도 고지식하고 성실한 성격을 지닌 상대역 박영준씨가 화나고 당황한 얼굴로 대사를 가르쳐 주며 하라고 해도 점점 더 깔깔웃기만 하던 일, 게다가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간 장덕조씨는 또 예의 높고 고운 목소리로 대사를 자기 마음대로 판소리를 꾸며내, 무대는 물론 청중이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 떠나갈 듯 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당시 최정희씨가 한참나이인 40代, 우리가 30代의 젊은 시절이었다. 이때 대구문인구의 인기와 충격은 두고두고 문단의 한 이벤트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창공구락부에서는 文人들이 모여 이렇게 회하고 놀고 연극하고 또 무엇을 했던가. 그때 우리는 필봉을 들어 돌아가며 신문이나 잡지 등에 많은 글을 썼던 것 같다. 공군에 또 “코메트(혜성)”라는 잡지가 창간

되었던 것도 그때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리 在邱文人들, 특히 창공구락부 회원들은 고정필자이기도 했었다.

코메트 잡지를 통한 언론과 문화의 역할은 잡지가 거의 없던 당시에 참으로 혜성처럼 빛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유감된 일이 한 가지 있다. 이왕 창공구락부 文人이 되었는데 그 멋진 청색유니폼을 입은 공군들과 함께 공군기를 타고 창공을 날아 보지 못한 일이다. 그때까지 나는 비행기를 타 보지 못했는데 왜 그런 용기를 내 보지 못했는가 다시 생각한다. 그러나 전시에 비행기란 폭탄을 싣고 적진에 돌입하는 전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명을 건 용기없이 호기심으로 불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여튼, 우리는 그때 군복을 입고 전방을 방문했던 기억도 난다.

중군작가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때 군의 특별우대를 많이 받았다. 사먹기도 어렵던 쌀배급도 받고 일용품도 얻어 쓸 수 있었다. 적으나마 원고료도 받고, 먼길 갈 때면 교통편 우대도 받았다.

전시, 즉 국가비상시에 文人이라고 해서 이토록 보호와 우대를 받은 것은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들이었다.

얼마전 이 원고를 청탁하기 위해 청색 공군유니폼의 미남병사 두 사람이 PEN 사무

실을 찾아왔다. 30년 전 옛날이 지금이나 변함없는 푸른색 공군유니폼, 그리움이 왈칵 솟는 반가운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같이 앉아 차를 마시며 '코메트' 잡지에 실렸던 내 원고를 좀 찾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젊은 병사들은 미안한 듯 서로 쳐다보며 '코메트'를 모른다고 했다. 아마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잡지의 이름이 바뀌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물어 본 내가 미안했다.

유니폼은 같았으나 그것을 입고 온 젊은이들은 그때 그 창공을 날던 공군들의 아들이 아니면 손주벌이 된다고나 할까 — 30년 전이면 이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가 아닌가 —

시간은 흐르고, 역사는 세월따라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 그때의 공군이 싸우는 공군이었다면, 오늘의 공군은 그 공적과 피의 역사 위에 새로운 人間史를 창조해 내는 젊은이들이 아니겠는가.

적어도 이들은 당시의 우리들처럼 배굴치도 않고 좌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뜻과 꿈으로 이나라를 지키고 세계의 창공을 평화와 인류애의 꿈을 안고 날고 있지 않는가!

1954년, 휴전이 된 다음해에 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당시 여의도비행장을 떠나 처음으로 창공을 날아 보았다. 푸르고 가이없는 하늘을 날며 이 넓고자유로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은 이념과 이해상관으로 서로를 죽이고 싸우는가.

3년에 걸친 동족끼리의 싸움에서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고, 수많은 文人들과 동포들이 납치되어 가고, 가족을 잃고 가산을 모두 불태워 폐허가 된 거리에서 가슴치고 있는 살아남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늘을 나르는 내 마음은 나 혼자만이 평화로울 수는 없었다.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죄스럽기조차 했다. 나는 땅위를 내려다보며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다시는 이땅 위에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을, 그리고 하루 바빠 한 민족이 하나로 다시 통일되기를 — 증오와 비난을 버리고 한 형제들끼리, 한 핏줄끼리 서로 손잡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날을 위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빌고 또 빌었다.

창공구락부시절, 그것은 절망의 시절에 우리에게 푸른하늘과 같은 소망과 너그러움과 기다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업적은 길이 남을 것이며, 더구나 그 회원이었던 우리들 가슴속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저 창공처럼 맑고 높고, 또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리라.

날
개
와
펜
의
友
情

— 창공구락부 시절 —

方
基
煥
(조
설
간)



■ 하늘의 선물

아이들은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큰 애들은 앞을 달려가고 서너살짜리 꼬마들은 강중강중 뒤를 쫓아가는데, 하나같이 하늘을 쳐다보며 두손을 흔들며 외쳐대고 있었다.

『비행기야 비행기야 광고 뿌려라.』

내가 대여섯살 나던 무렵이었고, 나도 그 꼬마들 속에 있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60년쯤 전일까?

서울 한복판이었지만 그 당시로선 머리위를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이 우리네들 꼬마들에게 큰 사건이었다. 아니, 어른들에게도 무관심할 수 없는 구경거리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모두들 걸음을 멈추고 이마에 손을 얹고 그 비행기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비행기는 폭음만 터뜨리며 질풍처럼 사라지는 군용기일 경우가 많았지만, 때로는 창공을 빙빙 돌면서 선전용 뼈라를 뿌리는 민간항공기일 수도 있었다. 아이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것은 바로 광고뿌리는 비행기였다.

드디어 비행기 꿈무늬에서 반짝거리는 가루같은 것이 배설된다. 그 가루가 확산되면서 차츰 커지고 너울너울 날아 내려온다. 꼬마들은 그것을 잡느라고 이리뛰고 저리 뛰

고 저리 뛰고 한다. 결국은 꼬마들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는 상품광고일 뿐이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난 6. 25동란중의 대구 상공, 눈이 부신 은빛의 군용기가 꽃가루같은 뼈라를 뿌린다. 대구 시내 아이들은 그 고장 토박이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피란살이 아이들이건, 그들 역시 뼈라를 잡느라고 열중한다.

그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그 뼈라는 내가 어렸을 때 서울 상공에서 뿌려진 상업용 광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아이들에게 반갑고 신나는 선물이었다. 그애들 공책만한 크기의 것이었지만, 만화까지 곁들인 지면에 전쟁과 파란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었다. 그 뼈라 끝에는 공군본부와 창공구락부가 보내는 선물이라는 대목도 적혀 있었다.

■ 基地夜話

창공구락부 공식명칭으로 공군중군문인단이 창단된 목적은 날개와 펜과의 결속에 있었다. 젊음을 불사르며 분투하는 각급 장병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 구석구석을 어루만지고 부추겨 주는 또 하나의 전투력이 되자는 것이었다.

펜이 날개와 손을 잡자면 그들과 무릎을

마주대고 사귀는 일이 가장 빠른 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창공구락부 소속 문인들은 전투비행단 기지를 이웃집 드나들듯 찾아다녔다. 조종사나 정비사들과 침식을 같이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기 자신이 나는 포탄이 되어 적지를 넘나들던 조종사들의 무용담은 후방의 한 국민으로서도 피를 끓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동시에 작가적인 내면세계에도 선열(鮮烈)한 자극과 풍요한 창작의 자원(資源)을 안겨 주었다. 감동적인 얘기가 참으로 많았다.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민족적 비화(民族的悲話)가 있었다.

『내 고향을 목격하던 날』

나중에 그 조종사는 그토록 기막힌 체험담을 수기로 써서 내가 편집하던 공군순보(空軍旬報)에 발표한 적도 있지만, 내용은 대개 이런 것이 아니었었나 싶다.

전투명령을 받은 파일럿은 동료조종사들과 함께 적지로 향한다. 목표물은 바로 파일럿 자신이 출생하고 성장한 고향읍내였다. 거기엔 자기가 살던 집도 있었고, 일가친척들의 집도 교육받던 학교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명령이었다. 파일럿은 출격한다. 고향읍내에선 공산군들이 극성스럽게 대공포화를 쏘아올리고 있었고, 그들의 집결처가 다름아닌 파일럿이 다니던 정든 국민학교 교사였다.

저 지상포화를 침묵시키라는 편대장의 명령이 무전을 통해 하달된다. 그것은 곧 정든 국민학교 교사를 폭파하라는 뜻이었다. 파일럿 자신에게 스스로 총탄을 쏘아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픔이었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폭탄을 투하했고, 폭연에 뒤덮이는 교사를 확인하면서 파일럿은 뜨겁고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아득한 옛이야기여서 그 파일럿의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지금은 어디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조종사들의 침실엘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줄을 이어 놓인 그 내무반 침대들 속에 유달리 빈 침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까닭을 물었더니 전사한 조종사의 침대라고 한다. 그 조종사의 전사는 확인됐지만, 그래도 어떤 기적이라도 있어서 귀환해 주었으면 하는 미련 때문에 그 침대를 차마 치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일의 목숨을 알 수 없는 하늘의 사나이들다운 전우애(戰友愛)였다.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혹은 폭격기가 기지로 개선한다. 그에 앞서 비행단장 이하 참모들은 활주로에 나가 서서 그들을 기다린다. 기후가 돌변해서 폭우가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터로 떠난 아

들이나 동생들을 기다리는 부형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기다리던 출격기가 돌아온다. 한대 한대 착륙할 적마다 비행단장은 반갑게 손을 흔들어준다. 그러나 그 중엔 어떤 사고로 귀환하지 못하는 전투기가 있다. 귀환한 조종사들의 보고로 미루어 적지에 추락했음이 확실한 경우에도 비행단장은 그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렇게 밤을 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 民과 軍의 文化廣場

나와 이상로(李相魯)형에게 일반 창공구락부원과는 다른 일거리가 있었다. 공군 장병들을 위한 기관지의 편집이었다. 지금 이 글이 실리는 『공군』의 전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호는 『空軍旬報』였다. 제호가 뜻하듯이 열흘에 한번씩 발행됐다. 시국이 시국이었던만치 표지부터가 단색(單色)이었던 알뜰한 것(4. 6倍判 16페이지였던가)이었지만 내용은 짹짹하고 알찬 편이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혹심한 전란중이어서 일반 간행물은 전무한 상황이었던만치, 두껍지는 못하더라도 공군순보는 군과 민의 문화의 광장이었다. 장병들의 정신무장이라든가 교양을 위한 기사와 함께 민간인 작가 시인들의 작품을 게재했고, 또 장병들의 수기라든가 시·산문 등등도 소개했다. 특히 발표무

국제 야외 조각전

올림픽공원은 총면적 1백67만4천4백㎡로 조성된 대규모 스포츠단지로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해 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전회원국들이 참가하여 저마다 갈고닦은 스포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류의 스포츠 잔치가 될 뿐 아니라 갖가지 예술행사와 학술행사를 통하여 격조높은 문화 올림픽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제야외조각전을 개최하였다.

세계 16개국 17명의 저명한 조각가들이 투철한 작가정신을 발휘하여 제작된 조형작품의 전시를 통하여 동과 서, 남과 북의 모든 지구가족의 만남의 자리가 되어 화합과 이해를 이르게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세대가 후대에 물려주는 기념비가 될 것이다.

「공군」에서는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세계 저명의 조각작품을 감상해 본다.

협조해 주신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대 화
Mohand Amara
6×1.8×3.3
알제리아

동과서, 남과북 등 세계의 궁극적인 올림픽의 목표는 대화이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석과 계획된 화강석 그리고 오륜기 등을 배치 함으로
시간과 자연 그리고 올림픽과의 관계성을 형상화 시킨 현대작품

제24회 올림픽대회
Diohandi
30×18×12(M)
그리스



딘, 덩뎡둥
Nigel Helyer
17.5×17.5×5(M)
호주



칼조각품
Günther Uecker
 3.2×3.3×4 (M)
 서독



88을 향하여
Mauro Staccioli
 37.5×2×27.5 (M)
 이탈리아



위장지
Dennis Oppenheim
 8×5×5 (M)
 미국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탕 남작은 경기력이 뛰어난 일부의 선수들 만을 위해 올림픽을 탄생시킨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해 우정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랐다. 1908년 런던 제 4 회 올림픽 때 펜실베니아 대주교가 선수들을 위한 특별설교에서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보다 참가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인류평화의 제전, 서울올림픽 경기의 참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의 ‘참가’ 일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겠다.

대를 상실한 문인들에게 소중한 간행물이었다.

전국(戰局)이 차츰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진하고, 따라서 시국도 안정돼 갔다. 알팍한 공군순보가 『코메트』라는 참신한 이름으로 제호를 바꾸는 동시에 두툼한 월간지로 간행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창공(蒼空)이 창간됐다. 공식적인 명분은 창공구락부, 즉 공군중군 문인단의 기관지였지만 내용은 순수한 문예창작품 발표지였다. 나와 이상로 형이 편집을 담당했고, 집필진은 창공구락부원 전원이었다. 마해송(馬海松), 최정희(崔貞熙), 박두진(朴斗鎭), 조지훈(趙芝薰), 박목월(朴木月), 곽하신(郭夏信), 이한직(李漢稷), 이상로(李相魯), 박훈산(朴薰山), 김윤성(金潤成), 김동리(金東里), 황순원(黃順元), 최인욱(崔仁旭), 유주현(柳周鉉), 전숙희(田淑禧), 제씨와 그리고 필자 등의 시·소설·평론·수필이 게재됐다. 전국적으로 문예지 간행이 중단상태에 놓였던 시점이었던만큼 창공의 간행은 매우 귀하고 반가운 것이었다. 물론 공군본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용지며 인책며 집필자에게 지불하는 원고료까지 공군측에서, 그것도 넉넉하게 조달해 주었던 것이다.

이같은 날개와 펜과의 우애(友愛)가 가시적(可視的)인 사업으로까지 발전된 요인의

하나로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훈감실 현역장병들의 높은 지성과 깊은 이해와 따뜻한 성의를 들 수 있다. 그들은 거의 대개가 학계나 예술계에 몸담고 있다가 사변이 발발하자 펜을 버리고 총을 잡은 젊은 엘리트들이었다.

서임수(徐壬壽), 김기완(金基完), 김경수(金敬洙), 임원택(林元澤), 윤석현(尹錫憲) 정인협(鄭仁燁), 최재익(崔在翼), 이영일(李英一) 제씨 등. 그 후 학계, 교육계, 예술계, 관계(官界) 혹은 정계의 거물로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쟁쟁한 인재들이었다.

■ 석류나무집

대구 뒷골목에 '석류나무집'이라고 불리는 막걸리집이 있었다.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넓지도 않은 마당에 병이 들었는지 영양실조인지 앙상한 석류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서 누군가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옥호였다.

해가 지면 우리들 창공구락부원들과 육군종군작가단(陸軍從軍作家團)에 소속됐던 피란 문인들과, 대구가 고향인 문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석류나무집'으로 모여든다. 술은 막걸리, 안주라야 제육 몇 점에 파, 마늘 정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수하게 생긴 주인아주머니의 푸근한 인정이 좋았다. 누가 들어가든지 주문을 하든지 말든지 술

과 기본안주는 알아서 차려다 주기 마련이었다. 술자리도 초라하고 웅색한 편이었다. 뒷마루 끝이라든가 마당바닥에 명석이나 깔고 앉으면 고작이었다.

그러나 한두 잔 걸치고 나면 모두들 기고만장이었다.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돌아가기만 한다면’이라는 판에 박은 허두를 트면서 펼쳐보이는 거창하고도 눈물겨운 설제도라든가, 시국의 부조리를 꼬집고 꾸짖는 호통이라든가, 그것은 진중일 피란살이에 허덕이던 문인들이 취중에서나마 소생하고 활개치는 시간이었다.

육군중군작가단 문인들 중에선 최상덕(崔象德), 박영준(朴榮濬), 정비석(鄭飛石), 김영수(金永壽), 구상(具常)씨 등의 얼굴이 보였고, 대구가 고향인 문인으로선 이호우(李鎬雨), 신동집(申瞳集), 박양균(朴陽均)씨 등이 자주 나타났다.

그렇다고 그 주막이 펜들만의 집합처가 아니었다. 날개들도 십십치 얹게 찾아들어 함께 웃고 마시고 노래했고, 문인들이 달아놓은 외상술 값을 몰래 갚아 주기도 했다.

■ 제이의 고향살이

대구에 모여살던 문인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밤에 잠만 따로따로 잘 뿐이었지, 그밖의 시간은 거의 다 얼굴을 마주보며 지

냈다. 피란지의 웅색한 셋방살이 탓도 있었지만, 날만 밝으면 모두들 그 셋방을 나선다. 직장을 가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는 곳이라야 단골 다방이었다. 차 한 잔 시켜 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것이 예사였다. 어찌다가 점심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는 예외에 속하는 요행이지만, 대개는 붕어처럼 냉수만 몇 컵 훌쩍거리면서 다방 마담이나 레지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지루한 해가 지기만 기다린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막걸리집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일과였지만, 그때 상황으론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심사들이었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리운 시절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보고싶은 친구들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즐거웠다. 지금은 일년에 한번도 만나 보기 어려운 얼굴들을 그 당시엔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주 대하곤 했다.

내것 네것이 따로 없었다. 찻값은 누구할 것 없이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친구가 내면 그만이었고, 어찌다가 쥐꼬리만한 원고료라도 생기는 친구는 그날 점심 한턱 내는 봉이 되기를 자원한다.

대구는 피란문인들의 제 2의 고향이었다. 느닷없이 찾아들어서 피란보따리를 풀어놓은 셋방집 주인들, 그들은 하나같이 후하고 친절했다. 내가 세들던 「윤구」네 집만 해도

그러했다. 대구 변두리 침산동 과수원 속에 있던 농가였는데, 말이 셋집이었지 오히려 우리가 주인행세할 정도였다.

방 셋 중에서 들을 우리가 사용했고, 그 집에서 담가 놓은 간장, 된장이라든가 김장 김치같은 것은 우리의 소유보다도 더 우리 가족의 것이었다. 우리 집 부엌 향아리엔 언제나 간장, 된장, 김치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집 주인아주머니가 말없이 채워 주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직 구공탄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춥지 않게 겨울을 난 것도 그 집 주인 덕택이었다. 과수원에서 전지한 나뭇가지라든가 추수한 집단같은 것이 우리쪽 부엌에 늘 쌓여 있었다.

이력저력 휴전도 성립되고 환도할 날이 가까와졌을 무렵이었다. 대구를 떠나기 전에 대구 시민들에게 은혜를 갚을 방법을 피란문인들은 모색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

며, 별다른 재주나 힘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겨우 안출해 낸 것이 대구 시민 위안의 문인극(文人劇) 공연이었다. 글을 통해서만 알려져 왔던 우리의 얼굴과 목소리와 동작을 생으로 제공하는 봉사는 가장 가능하면서도 친근감을 질게 하는 보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문인극 공연은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문화극장에서 상연됐다. 무료입장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초만원이었다.

그밖에 문예작품 낭독회도 몇 차례 가졌다. 문화도시 대구시민들의 반응은 그때마다 뜨겁고 호의적이었다. 서투른 연기나 서투른 낭독에도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 주었다.

나의 첫 창작집 동첩(童妾)이 간행된 것도 대구에서였다.



「고르바초프」

戰略과

核軍備 統制

洪 鍾 萬

〈중령 공군대학〉

I. 序 論

2001년이 되면 소련共産党書記長「고르바초프」의 나이 70이 된다. 다음 世紀初까지 국제정치무대에 활동할 소련政治 指導者로 지위를 유지한다면 좀 더 安定的으로 소련 社会 變化를 예측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의 開放政策이 대내적으로 教条主義的인 공산주의자들로부터 体制挑戰에 버금가는 압력이 있다고는 하나, 서방세계와 기술격차를 좁혀 획기적인 經濟發展을 이룩하겠다는 開放·改革主義가 「고르바초프」戰略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소련국민들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겠다는 그의 公約은 장기적으로 소련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되리라는 分析이다.

또 「고르바초프」書記長은 軍비증강으로 인하여 惹起되는 경제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軍비통제분야에 대단히 진취적인 制限을 내놓고 있다.

經濟的인 漏水現象을 방지하기 위하여 中距離核武器廢棄協定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전면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소련은 1986年 완전핵실험금지조약 체결을 提議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국의 지하핵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바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서구의 NATO 同盟國들은 그들의 우방미국이 軍축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하였다.

서구의 극렬 평화주의자들은 西「유럽」에 배치된 美国의 「퍼싱 II」미사일, 「크루즈」미사일에 대하여 알레르기적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자면, 英国労働党的 주요정강정책이 쌍방간의 合意에 의하지 않은 一方軍縮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과 合意하여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英国 스스로 核政策을 포기하고 通常軍備에 의하여 対소 抑止力을 확보한다는 政策이다. 평화주의자들의 주장과 핵군축국민운동에 영합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美·蘇간에 현재 진행중인 군비협상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레이전」大統領이 취임직후 종래의 전략무기제한회담, 즉 군비제한보다는 현재의 군비를 감축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략무기감축회담으로 명명하여 쌍방 전략핵무기의 50%를 감축시키자는 회담과 1973년부터 시작된 상호균형감축회담은 NATO와 「와르소」조약기구 간에 通常軍備會談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여 회담개최지 이름을 따서 「비엔나」 왈츠라는 필잔을 받고 있다.

現在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美·蘇간의 중거리핵무기, 즉 항속거리가 1,000~5,500km 범주에 속하는 核武器를 제거하는 회담인데, 1987年 12月 「워싱턴」에서 「레이전」-「고르바초프」 간에 이룩한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이 국제정세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분석하고자 한다.

II. 中距離核武器協定の 背景

中距離核武器制限協商은 1981年 11月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 전략무기감축 회담도 「제네바」에서 동시에 재개되었는데, 그 이유는 戰略武器制限會談의 骨格하에서 中距離核武器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美·蘇 양측이 共同認識하게 되었다. 이러한 協商은 1979年 12월 북대서양동맹기구가 제의한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소위 二重路線政策, 즉 소련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西 유럽기지에서 소련의 서방을 공격할수 있는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하기로 나토동맹국들은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중거리핵무기회담의 초기발상은 195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올라간다.

1957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소련이 「스푸트닉」인공위성을 성공하였을 때, 미국 군사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은 소련의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하였다. 2次大戰 직후 패망한 독일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美·소 양국은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무기개발과제로 삼게 되었다. 「스푸트닉」발사에 자극받은 美国은 미사일 개발계획을 가속화시키고 폭격기基地의 脆弱性을 염려하게 되었다.

「미사일」갑, 즉 소련이 美国보다 優位에 있다는 이슈가 1960년도 「케네디」大統領 選舉運動의 가장 주요한 선거쟁점이었다.

1987年 12月은 아마도 새로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한

군비통제회담이 「레이전」-「고르바초프」 간에 「워싱턴」에서 조인된 中距離核武器協定은 종래의 SALT I, II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서화해에도 적지 않은 회오리를 물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2차대전 이후 오늘날까지의 核軍備統制는 숫자제한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수직적인 군비경쟁(質的軍備競争)은 가열되어 왔다. 즉, SALT회담에서 전략공격 무기제한은 발사대(Launching Pad)의 數를 제한하였지만, 보다 주요한 핵탄두의 수는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單一 발사대에 10個의 핵탄두를 장착한 MX미사일이 실용화되었고, 理論的으로는 單一 발사대에 20여 개의 핵탄두를 주렁주렁 달 수 있을 뿐 아니라 회피기동을 함으로써 생존성을 높이고, 정밀한 항법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명중도를 높였다.

그런데 1987년 12월 美·蘇間에 타결된 군비통제회담은 미국의 퍼싱 II나 소련의 SS-20 중거리미사일은 유럽에서 철수될 뿐 아니라, 종래의 軍縮과는 달리 전면폐기처분되기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군비통제회담의 주된 장애요인은 검증절차라 할 수 있다. 軍備統制의 檢證이란 合意된 軍備水準을 상대방이 준수하는가 감시 및 점검하는 일체의 過程을 말하는데, 지금까지의 검증절차는 위성사진정찰, 치진계와 같이 전자장비를 이용한 감시활동등 주로 자국의 기술수준에 따른 감시수단에 의존한 간접적인 査察이었다. 즉, 확실한 검증수단은 상대국의 施設을 눈으로

확인하는 감시단의 교환이지만, 閉鎖社會인 소련은 용납할 수 없는 「간첩활동」이라는 구실로 軍備施設의 교환방문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 核武器의 발사대 수는 인공위성정찰로써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핵탄두의 숫자는 위성정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왔다.

「제네바」에 파견된 미·소 군축회담대표는 처음으로 INF회담에서 현장검증을 認定함으로써 인하여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략핵 무기감축회담, 완전핵실험금지조약에서 논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檢證問題에 새로운 里程碑를 提示하여 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으로 인하여 美議會는 SALT II 批准을 拒否하여, 사실상 SALT는 美·蘇 양국이 非公式的으로 制限措置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늘의 蘇聯社會는 소위 「고르바초프」의 전략인 開放政策과 蘇聯社會에서 理念要素를 약화시키는 政策 등으로 表面化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書記長으로 취임하기 전 英國 방문시 「대처」수상은, 「고르바초프」는 타협할 수 있는 蘇聯指導者”라고 「고르바초프」의 西歐化된 정치감각을 지적한바 있다. 이러한 狀況으로 미루어 美議會의 분위기 또한 중거리핵무기협정을 큰 어려움없이 批准하리라 믿어진다.

美國의 同盟國들, 특히 西歐와 日本은 SALT I, II 調印에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었다. 특히 이들 국가의 安保가 美國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군비축소

를 구실로 同盟國防衛를 소홀히 하고 방위비 부담을 과중하게 동맹국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표명된바 있다. 美國의 經濟力이 세계총생산의 25%를 차지하여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함께 감소시켜야 하는 국내정치문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일환으로 1988~1989년도의 國防費 減縮비율을 議會와 合意한바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戰略防衛構想은 소련과 協商할 수 있는 장거리핵무기 감축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레이전」 大統領이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후퇴는 있으리라 믿어지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문제 또한 주요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Ⅲ. 軍備統制와 新戰略

核武器가 등장한 이후 美·蘇 양국은 적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하여 적정군사력을 유지하는 한편, 적의 군사력 증강속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군비통제협상을 추구하여 핵위협을 최소화시켜 왔다. 이러한 美國과 友邦國의 노력은 2次大戰 이후 西方世界의 安保를 유지하는 한편, 핵전쟁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제한된 억지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攻擊武器와 防衛武器의 적절한 均衡에 의하여 전쟁은 抑止되어 왔지만, 核武器의 등장은 防衛武器를 發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美·蘇 양국은 核報復力, 즉 핵위협에 의하여 전쟁억지를 이룩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美·蘇 양국은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잔여 핵전력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보복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合意, 즉 核의 奴隸, 혹은 공포의 均衡을 상호인식함으로써 어느 程度 安定된 抑止力을 지속할 수 있었다.

소련의 主張은 美·蘇가 대등한 군사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군사적 우위를 획득할 목적으로 均衡을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소련의 軍事專門家들은 주장한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의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방어무기체계는 效果的으로 공격핵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通說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소련의 核武器와 防衛武器 增強속도는 위기시 가장 중요한 영역 즉, 대륙간 탄도무기(ICBM)에서 均衡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核武器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무기 生産이 가능할 뿐 아니라, 화살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에 비중을 둔 전략이 전략방어구상(Strategic Defence Initiativ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돌파에 연유하여 전략방위구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戰爭抑止를 위한 效果的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은 군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량

보복전략을 지양하고 핵방어전략을 追求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위협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피력하면서, 1983年 3月 「레이진」大統領은 전략방어구상(SDI)를 提案하게 되었다.

「파이프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 소련 軍事戰略의 本質은 美国과 상반된, 즉 전쟁억지가 목적이 아니고 戰勝만이, 武器의 充分性이 아니라 相對方을 压倒할 수 있는 군사우위가, 보복력이 아니라 선제공격이 소련전략의 中樞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核攻擊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수립한 후의 狀況을 생각한다면 소련을 사악한 제국주의(Evil Empire)라고 公言한 「레이진」大統領으로서 SDI가 美国의 최신전략개념에 최우선 순위에 놓이게 된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提案은 방패가 창을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核攻擊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테크놀로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을 남겨 두고 있다. 일국의 안보력 증강은 당면한 적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키신저」는 불안정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國際体制의 가장 위협스러운 특성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절대적 안전에 대한 한 나라의 갈망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절대적 불안전을 의미한다 하겠다.

1979년 「아프카니스탄」사태로 인하여 「新

冷戰時代」로 돌입한 이후 1987년 12월 체결된 중거리핵무기회담이 금년 중에 美議會에서 批准되고 50%의 장거리핵무기, 즉 전략핵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장거리핵무기협정이 「모스크바」에서 調印된다면, 우리는 이를 新「데탕트時代」라 불러야 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軍備競爭은 國家間의 敵意의 反映이라고 본다면 軍備縮小는 和解의 章을 마련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IV. 結 論

그래서 군축옹호론자들의 말을 빌려 本稿를 마치고자 한다. 軍備統制는 어떠한 군사환경하에서도 긴장완화노력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신뢰증진 및 긴장의 근원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最惡의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쌍방간의 파괴를 最小化시킨다. 또 다른 주장은, 現代는 核武器로 인하여 軍事的 優勢의 意味가 脱色되었다.

“美·蘇와 같이 과잉 살상할 수 있는 武器를 保有한 국가 간에 軍事的 優勢를 追求한다면 위험한 군비경쟁만 잉태케 한다”는 論理를 전개하는 군축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1987년 12월의 중거리핵무기협정 및, 금년에도 장거리핵무기를 50% 감축하는데 美·蘇가 합의한다면 軍備統制史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뿐 아니라 국제해빙을 알리는 분수령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왜냐 하면 軍備增強은 주로 政治的 不信의 結果이지 의도적인 전쟁준비로 해석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戰術巡航 미사일의 有用性

김 용 이

(중령 공군 대학)

이 글은 1987年度 空軍大學 高級과정 이수자인 중령 김 용이의 논문인 “戰術巡航미사일의 유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항공작전 측면을 중심으로”를 공군대학 중령 권 재상이 요약·정리한 것임.

I. 序 論

이 글의 目的은 근래에 와서 그 價値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戰術巡航미사일(Cruise Missile)의 有用性을 考察하고자 함에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얇은 縱深의 戰場에 군사력이 고밀도로 집중되어 있는 狀況下에서 그것의 運用思想을 受容함으로써 장차의 航空作戰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國家意志를 實現하는 ‘手段으로서의 軍事力’에 보다 큰 融通性을 부여하여 단순히 ‘存在하는 힘(Force in Being)’이 아닌 ‘使用可能한 힘’으로서의 航空力을 建設하고자 할 때 그 基本狀況의 背景知識으로서의 意義를 추

구하고자 함에 그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흔히 巡航미사일이라고 하면 그것의 使用目的을 불문하고 戰略的 次元에서 검토되어 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핵무기와 동일한 水準으로 간주하여, 그것은 우리의 軍事的 狀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 高度의 技術과 많은 資源의 소모를 요하는 것이라는 皮相적인 觀念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戰略用은 물론 戰術用 巡航미사일까지도 軍事強國들만이 保有 및 運用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現在의 軍事的 要求가 그와 같은 武器體系를 수용할 만한 可變性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수용할 必要性도 없다고 認識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보편적 관념들을 論旨의 중점으로 착안하였다. 그러한 관념들은 먼저 그 武器體系가 戰術的이기 보다는 戰略的 次元의 必要에 의해서 구상되어진 것임으로 인해 지나치게 敬遠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며, 또한 우리의 作戰環境이 그것을 受用하는데에 그렇게 경직되어 있거나 그 受用이 不必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전쟁시 지휘관으로 하여금 戰爭手段의 선택을 多樣하게 해 줌으로써 現代의 戰爭에서 要求되는 狀況的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의 기회를 보다 넓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안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戰術目的 巡航미사일의 운용사상을 受容함에 있어서 그 有用성을 다음의 세 가지 次元에서 分析해 보고자 한다.

첫째; 巡航미사일이 가지는 作戰的次元의 柔軟性은 무엇이며,

둘째; 戰略的 次元에서는 어떠한 融通性을 가지며,

셋째; 政治·경제적 次元에서는 어떠한 정도의 利得이 現實的으로 가능한지를 論議하고, 아울러 이 세 가지 관점에서의 각각의 문제점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구분한 세 가지의 次元은 문제 해결에의 접근을 위한 便宜上의 구분이지, 論理的으로 完全区分된 것이 아니고 相互補完的인 관계임을 전제로 한다.

筆者는 이 글의 범위를 政策的 次元의 武器體系 획득대안 제시가 아닌, 戰術巡航미사일을 수용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作戰·

戰略·政治·경제적 次元의 意義와 利得을 次期的 航空戰略樹立을 위한 背景知識으로서 탐색적 논의로 한정하였다. 이는 韓國에서 戰術巡航미사일을 직접 運用經驗은 물론, 그에 대한 關心과 論議 및 研究의 歷史가 없었기 때문에 直接資料를 충분히 活用할 수 없다는 制限點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 취급하지 못한 우방국 및 주변국들과의 軍事外交問題, 무기획득시의 비용 대 효과 분석 및 획득대안의 선택(직수입, 자체개발 등) 등의 문제는 다른 次元에서의 研究가 必要하리라 본다.

II. 巡航미사일의 개관

1. 巡航미사일의 概要

巡航미사일은 근래에 와서 급격히 개발된 武器體系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歷史는 상당히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이 武器體系가 “巡航미사일”이라는 명칭으로서 使用되기 시작한 것이 근래에 들어와서이기 때문인데, 과거 第一次世界大戰 期間 中에 이와 비슷한 概念의 武器가 發明되었으며, 第二次世界大戰 中에는 폭넓게 活用되기도 했지만 分명한 概念의 定義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一航化되지 못하였을 뿐이다.

美國防省에서 發行한 「軍事 및 關聯用語辭典」에는 巡航미사일을 “유도미사일로서 그 표적(Target)으로 향하는 飛行經路의 大部分을 거의 같은 속도로 비행하는 것, 공기의 동적작용을 양력에 이용하고 저항과의 균형을 위해 추진력을 利用한다”¹⁾ 라고 定

義하고 있고, 巡航미사일이 큰 ‘이슈’가 되었던 第二次 戰略武器制限協約(SALT II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I) 에서는 巡航미사일은 “무인·자력추진·유도식의 무기운반수단이며, 飛行經路의 대부분을 공기역학적 양력을 이용하여 飛行을 유지하며...”²⁾ 라고 定義하고 있다. Jhon. C. Tomoy는 “A cruise missile is an unmanned, expendable armed aerodynamic air-breathing autonomous vehicle”³⁾ 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以上の 여러 便宜的 定義들을 整理해 보면 巡航미사일은 매우 긴 거리를 양력과 중력, 추력과 저항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상비행을 하는 飛行체로서 공기역학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주익이 있고, 공기저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기관(통상, 제트엔진 : Jet Engine)을 연속적으로 作動시키는 無人의 폭발물운반비행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 巡航미사일의 歷史는 통상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오래이며, 미사일 全體의 元祖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第一次 世界大戰의 절정기에 英國의 發明家 「로우」(A. M. Row)가 폭약을 탑재한 원격조정의 무인공격기를 考案했었다. 그것은 왕복엔진을 장착한 단엽 및 복엽의 소형기였고, ‘공중어뢰’, ‘무인비행기’, ‘비행폭탄’ 등의 이름으로 世界各處에서 發表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實戰用으로 配置되지 못하였는데 그 理由는 유도제어기술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⁴⁾ 近代의인

意味에서의 巡航미사일은 소위 보복무기라고 불리워졌던 第二次世界大戰中 독일이 만든 V-1이 그 元祖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략유도무기의 시초이기도 하며, 양산되어 조직적으로 實戰에 使用되었다는 意味에서 모든 近代의 유도무기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V-1은 켈런형의 동체에 직선익을 가진 유익의 비행체로서 약 1 ton의 폭약을 탄두부에 적재하였다. 엔진은 펄스 제트(Pulse Jet)라고 불리는 元初的인 제트엔진이 기체의 등허리部分에서 미익까지 걸쳐져 있고, 그 비행음이 부저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부저 폭탄(Buzzer Bomb)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다.

이 V-1은 地上에 비스듬히 설치된 발사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서 投下式으로 발사되었으며, 발사 후에는 자이로(Gyro)와 기압고도장치(Pressure Altimeter)를 利用한 간단한 자동비행장치(AFCS: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로서 중고도를 일정속도(約 375KTS)로 巡航하여 미리 예정된 거리를 飛行한 후 급강하하여 地面에 부딪혀 폭발토록 되어 있었다.

1942年 6月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2월에 試驗飛行을 거쳤으나 실제로 런던(London)을 향해 발사된 것은 연합군이 「노르망디」(Normandy)에 상륙한지 일주일 후인 1944年 6月 13日이었다. 그로부터 1945年 말까지 이 만여 발이 英國을 향해 발사되었으나 그 신뢰도가 낮아 도중에 추락하거나 엉뚱한 곳을 향하기도 했으며, 상당수가 英國空

軍의 邀擊을 받아 격추되거나 대공포에 의하여 파괴되어 V-1의 목표도달률은 10~20%에 불과했다.

V-1의 実績이 이처럼 저조해지자 독일은 탄도미사일의 효시인 V-2를 使用하기 시작했다. V-1과 V-2의 実績의 比較는 巡航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특성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巡航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V-1의 최대 장점은 생산이 쉽고 값이 싸다는 점이었다. 技術的으로도 단지 무인비행체이므로 개발도 쉽고 가격도 V-2의 수십분의 일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V-2의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39年 9月경이었는데 實用化된 것은 V-1과 같은 時期였다. 탄도미사일적인 V-2의 強點은 V-1처럼 요격하거나 격추하는 등의 방어조치가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군사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時代에도 音速의 5倍로 나는 飛行體를 요격하기란 쉽지가 않으며, 實際로 V-2가 격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독일의 그러한 軍事科學技術의 업적도 敗戰과 함께 무산되었고, 그 맥은 戰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이어졌다. 美國은 노획한 V-1, V-2의 복제품을 만들어 實驗했고, 이를 발전시켜 戰術用 巡航미사일인 「매터도어」(Matador, 1952年)와 개량형인 「메이스」(Mace, 1958年)를 만들었다.

이들 둘 다 「터보제트」(Turbojet) 엔진의 핵탄두 미사일로서 이동형까지 만들었으며, 그밖에도 「레굴러스 I, II」(Regulus I, II 1956年, 1958年), 「스나아크」(Snark, 1958年) 「하운드 도그」(Hound Dog, 1961

年) 등을 개발하기도 했으나, 1950 年代 중반부터 急速히 발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지대공미사일(SAM)로 인해 그 취약점(대적노출, 고피격확률)이 노출되어 새로운 개발생산은 저조하게 되었고, 이미 배치되었던 것들마저도 속속 퇴역하게 되었는데, 그 理由는 그 취약점을 극복할 만큼 추진장치 및 유도제어장치의 技術水準이 미약했기 때문이었다.⁵⁾

그러나 월남전의 종전후 武器體系에 대한 研究開發(R & D: Research and Development)投資의 력을 갖게 된 美國과 이에 자극을 받은 소련은 발달된 軍事科學技術(Military Hi-Tech)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돌파무기(Weapons for Breakthrough)를 要求하는 現代戰 狀況에 적합한 武器體系로서 종래의 巡航미사일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2. 巡航미사일의 特徵

近代的 巡航미사일이 새로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은 항공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동체와 엔진이 소형경량화되어 고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유도장치가 크게 增大되었기 때문이다.

동체는 앞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공기역학을 응용하여, 고도의 기동성을 要求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탄두운반능력(Payload)과 유도장치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탄도미사일의 「카나드」(Carnard)형식과는 많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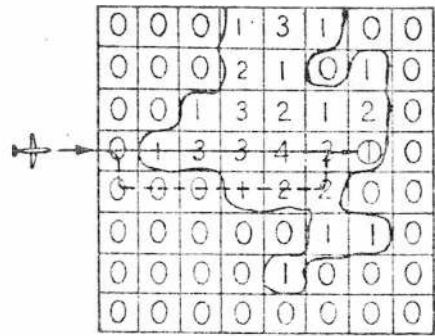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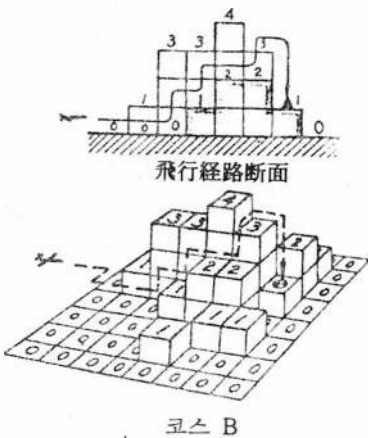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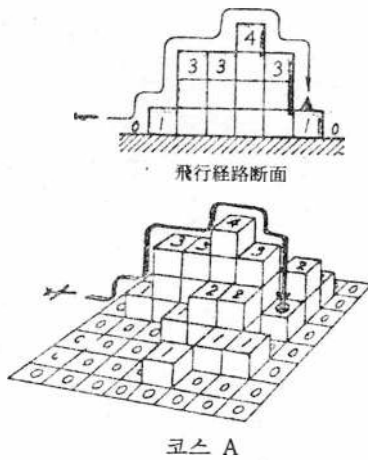
엔진 역시 탄도미사일은 밀폐식 엔진 즉 自體內에서 산화제와 연료를 가지고 단시간

동안만 作動하여 彈道飛行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巡航미사일은 거의 전 비행경로 (Course)를 일정속도로 巡航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동력공급이 必要하므로 「제트 엔진」 (Jet Engine)이 통상 使用되고 있다.

費用 對 效果比를 고려하여 戰術用 巡航미사일에는 「터보제트」 (Turbojet) 엔진을, 戰略用 巡航미사일에는 「터보팬」 (Turbofan) 엔진을 사용하는 추세로서 가능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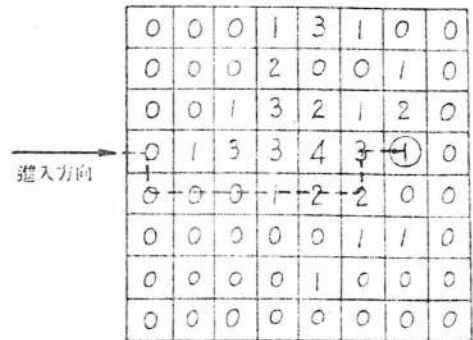
연료소모율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技術의 發達에 따라 점차 소형 경량화될 것이다.6)

오늘날 使用되는 巡航미사일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그 航法과 유도체계에 의해서 나타난다. 종래 巡航미사일의 유도방식은 彈道미사일과 같이 慣性航法裝置 (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使用했으나, 이는 飛行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發生하는 誤



———— 코스 A

----- 코스 B



〈出處：「國防과 技術」 66號, p. 40〉

그림 1. Digital Map의 解法圖解

차에 의해 그 正確度가 문제가 되었다.⁷⁾ 따라서 近代의 巡航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IN S)에다가 別個의 航法保正裝置를 개발· 채택함으로써 그 正確度가 놀라울 정도로 向上되고 있다.

現在까지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중인 항법 보정방법으로는 地形等高線 照合技術(TERCOM: Terrain Counter Matching Technique)과, 目標의 사진을 필름에 수록하여 미사일에 탑재시켜 經路와 最終目標에 유도 시 응용하고자 하는 情景照合方式 및 항법용 인공위성(NAVSTAR)을 利用하는 전 지구 좌표체계(GPS: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Technique) 등이 있다.

이들 중 情景照合方式과 GPS법 등은 그 方法 自体에 문제점이 있어서 現在도 그 研究 및 開發이 進行되고 있으며, 現在는 보편적으로 지형등고선 조합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지형등고선 조합기술은 행렬(Matrix)이라고 불리워지는 수치지도(Digital Map)를 使用하여 飛行經路 중 임의의 지점 에서 지형을 대조하는 장치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은 어떤 地域의 海面고도를 숫자로 表示한 것인데, 이 高度는 5~10m를, 單位로 使用하고 있다. 만일 10m가 1單位일 경우 1은 표고 10m를 나타내며, 따라서 5라는 숫자는 표고 50m를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한 줄로만 배열하게 되면 같은 지형의 다른 地域과 혼돈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예정비행경로 左右의 표고배열도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지형등고선 대조지역에 도달한 미사일은 기압고도계(Pressure Altimeter)와 전파고도계(Radar Altimeter)를 使用하여 비행지점의 표고를 측정, 이를 컴퓨터(Computer)에 입력하게 되며, 이 資料가 수치지도와 대조하여 관성항법장치에 의해 發生된 誤差를 수정(Update)하게 됨으로써 精確한 經路의 飛行을 가능케 하여 精確하게 目標지점에 도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유도제어기술의 발달에 따라 巡航미사일은 긴 사정거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正確度는 10~12m 정도이며, 장래에는 항법위성(NAVSTAR)의 보조를 받을 경우 3m 以內로 向上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飛行中の 高度는 平地에서는 地表上의 約 20m 정도, 건물, 시가지 등의 장애물 경로에서는 60m, 산악지대에서는 約 120m 정도의 高度로 飛行하며, 통상 30分 내지 1時間마다 經路誤差를 수정한다.

그리고 巡航미사일에는 空中에서 발사되는 것(ALCM: Air-Launched Cruise Missile)과, 水中에서 발사되는 것(SLCM: Submarine-Launched Cruise Missile), 그리고 地上이나 航上에서 발사되는 것(GLCM: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등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발사하는 장소와 方法의 차이가 있을 뿐 本体 그 自体는 동일하며, 일단 발사후 巡航飛行을 시작한 以後의 유도방법이나 精確度에 있어서는 差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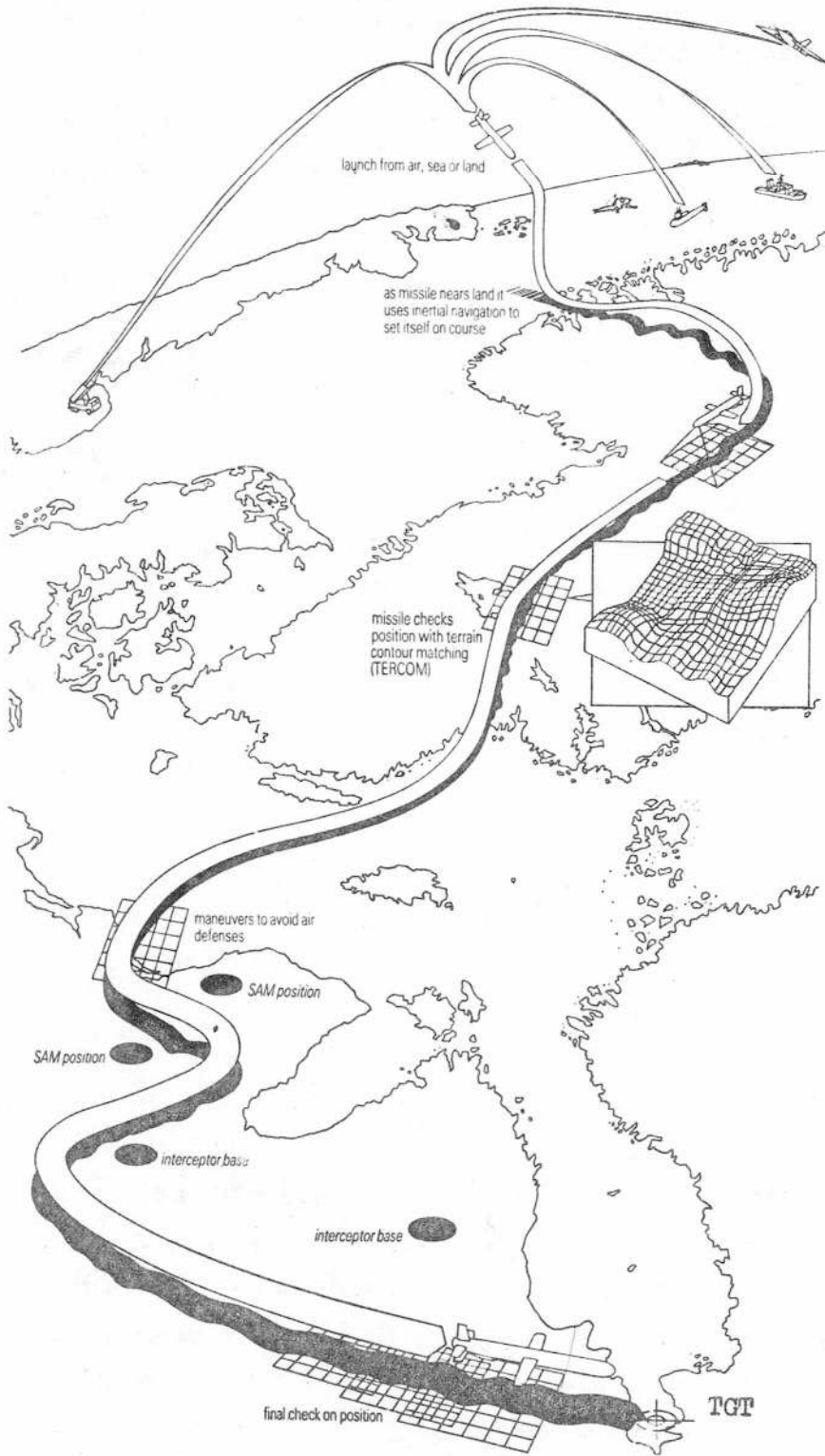


그림 2. 순항미사일 공격도해

3. 航空作戰과의 關聯性

航空力이 戰爭에 利用되기 시작한 것이 第一次 世界大戰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當時의 航空機는 기관총의 위협과 철조망으로 보호된 참호속에 固着되어진 전선을 건너뛰기 形式에 의해서 적에게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획기적인 手段이었다.⁸⁾

뿐만 아니라, 敵 戰鬪力을 파괴하여 전장의 勝利를 전쟁의 勝利로 連結하고자 하던 當時의 戰爭概念을 보다 体系的인 파괴를 시도함으로써 效果的인 전투를 遂行可能토록 변경할 수 있다는 戰爭思想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한 思想은 모두 다 지상작전의 必要에 의해서 創案된 것으로서 지상작전의 部分的이고도 補助的 役割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當時의 戰爭이 地域의 占領과 軍事力의 파괴를 통해서 勝利를 얻고자 하는 재래식의 戰爭概念에 의해 軍事思想이 支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戰爭은 各 國家들이 처한 環境이나 추구하는 價值體系가 옛날과 같지 아니하여, 敵의 領土를 점령하고 敵의 軍事力을 격멸하여 戰意를 굴복시킴으로써 完全한 勝利를 얻을 수 있는 狀況이 아니고 敵으로 하여금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特定 行爲를 포기케 하거나 我側의 要求에 따르도록 하는 것, 즉 制限的 意味의 勝利를 追求하는 쪽으로 조절통제(Controlled War) 되는 것이 理性的이면서도(Reasonable) “現實的인 戰爭”으로 各 國家들은 理解하고 있

다.⁹⁾

왜냐하면 오늘날의 戰爭의 手段, 즉 武器는 과거의 그것에 비하여 파괴에 能力이 크게 增加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아공멸의 絶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고, 이에 따라 戰爭을 치름으로 인한 國家·社會的 손실이 戰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利得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認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또 다른 次元의 現實的 課題인 공해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이 더 絶실한 課題가 되기도 한다.¹⁰⁾

第二次 世界大戰 後의 이러한 자가당착 狀態에서 自國의 意志를 實現하고자 하는 手段으로서 무력투쟁을 선택해야만 하는 國家나 政治團體가 있다면 그 도전의 方法은 게릴라전, 테러 등의 여러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強者에 對抗하는 유일한 선택으로 時間을 조절하여 대응의 機會를 포착하는 간접적 투쟁방법이나 비직접적 투쟁방법이 그 새로운 전쟁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戰爭狀況이 이렇게 變化된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戰略 역시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戰略의 具體的 實現方法으로서의 전투의 手段인 武器體系 역시 새로운 도전, 즉 새로운 戰爭狀況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軍事力의 한 부분을 이루는 航空力 역시 새로운 도전에의 역량을 具備해야 한다. 그것은 종전의 航空力이 갖는 전면전 대응중심의 정규전 수행능력뿐만 아니라 敵의 도전의 強度, 時期, 場所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할, 선택가능한 폭넓은 전략적 대응의 폭이 必要하다.

이와 같은 必要는 本 論議의 中心인 巡航미사일의 可能性과 價值性, 즉 非脆弱性和 正確性에 의해 提供되어지는 具體的 能力이 그러한 戰略的 선택의 유연성을 높여 줄 것이고, 전시의 승전과 평시의 國家寄与가 그 핵심적 保障력이 될 것이다.

Ⅲ. 戰術巡航미사일 受用의 有用性

1. 作戰的 有用性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現代武器의 要件은 그것의 파괴력과 도달거리의 充分性이며, 파괴력(Yield)은 그 武器의 命中正確도와 탄두의 위력으로 계산되어진다. 또한 그것의 重要性이 더하기 위해서는 非脆弱性(Invulnerability)과 사용상의 融通性(Flexibility)이 具備되어야 한다.

作戰的 次元에서 評價할 수 있는 戰術巡航미사일의 價值는 그것의 正確성과 비취약성, 그리고 高度의 융통성으로 인해 신뢰성이 매우 높은 武器體系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巡航미사일은 관성항법장치(INS)와 지형등고선 조합기술(TERCOM)을 혼합 응용한 유도장치를 사용하여 매우 정확한 명중도를 얻을 수 있다. 正確도가 높다는 것은 탄두의 중량을 增加하는 것보다 훨씬 큰 파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運用上 有利하다.¹¹⁾ 탄두의 중량이 작으므로 추진체나 기체의 크

기를 작게 설계할 수 있어 사정거리나 체공 성능을 좋게 할 수 있고, 취급운용이 간편하여짐으로써 戰術的 運用上의 신뢰성이 增加될 수 있다.¹²⁾

또한 正確度の 增加는 점표적(Pin Point Target)에 대한 선별적 공격능력을 부여하므로 戰略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作戰的 成功可能性을 제공함으로써 戰略遂行의 신뢰성을 增加시킨다.

다음으로, 巡航미사일은 통상의 유도무기 체계에 비해 상당한 非脆弱性을 갖는다. 또한 「터보팬 엔진」(Turbopan Engine)에 의해 추진됨으로써 공기 중의 산소를 活用할 수 있으므로, 탄도미사일에서와 같은 산소 탱크가 不必要하고 연료소비율이 작으므로 같은 크기나 비슷한 무게의 통상유도무기에 비해서 사정거리가 길어진다. 역으로, 같은 정도의 파괴력이나 사정거리를 目標로 한다면 더 작은 크기(Size)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더 반사면적(Radar Cross Section)을 작게 할 수 있는데다 比較的 적의 방공위협이 적은 地域을 선별하여 초저고도의 비행고도로 침투함으로써 적의 防空體制에 쉽게 포착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有人航空機나 통상의 미사일에 비하여 速度는 느린 편이지만,¹³⁾ 설사 敵의 요격기 등에 탐지되었다 하더라도 초저고도, 중간 정도의 속도(約 480KTS)로 침투하고 있는 巡航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크기가 작으므로 중간형 이

상의 전투기나 수송기 및 폭격기 등에도 장착 가능하고, 트럭, 장갑차 등과 같은 육상의 各種 운반체, 그리고 해상水面下の 운반체에도 탑재가 가능하여 敵의 공격으로부터 은폐, 엄폐 및 企圖秘匿이 可能하여 매우 큰 비취약성을 가지게 되므로, 적의 위협을 벗어나서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作戰上的의 매우 큰 신뢰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巡航미사일은 그 自体가 갖는 正確性和 비취약성에 의해 武器体系의 신뢰성이 增加하고, 이에 따라 作戰의 융통성을 고양시켜 준다. 作戰의 융통성이란 戰略에 의하여 提起된 目標을 軍事的手段에 의해 達成할 수 있는 다양화된 공격방법을 提供할 수 있다는 意味로서, 선택할 수 있는 手段의 폭이 增加하여 敵으로 하여금 나의 要求에 순응토록 強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길이 많아진다는 것이므로 그만큼 軍事目標 達成의 可能性은 增加됨을 뜻한다.

戰後世界的 戰爭狀況은 強大國의 힘의 교착상태 하에서 中小國들의 분쟁이 增加해왔다. 現在 이란·이라크 戰爭이 그러하듯이, 中小國 분쟁은 발발은 쉬워도 종결은 쉽지 않았음이 여러 戰爭事例에서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들 中小國 뒤에는 強大國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데, 中小國들은 미리 준비된 最大의 역량으로 強大國들이 참견하기 전에 速戰速決을 해야 하고, 戰爭持續能力이 充分하지 않으므로 短期戰遂行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들은 作戰的 勝利를 그대로 戰爭의 勝利로 連結할 必要가 있다.¹⁴⁾

사실 동원군사력의 규모면에서 보더라도 既動員된 戰力이 파괴되고 나면 더 이상 지속할 잠재력이 없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作戰水準의 戰爭, 즉 결전적 作戰이 戰爭을 左右하게 되어 國運을 決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장에서의 勝利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전처리에서의 우위를 노리고자 하는 戰爭양상인데 이렇게 될수록 초격의 重要性은 增大되고 핵심전력의 파괴는 중요시된다.

또한 前述한 바와 같이 비정규전적 도발과 같은 現代의 多樣화된 도전의 양상에 있어서 지나친 反應없이, 또는 과소한 反應으로 앞잡힐 염려없이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에 必要한 것이 作戰的 유연성이고,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융통성의 基礎이며 政治目的達成의 關鍵이 된다.

戰術巡航미사일의 特徵들은 이같은 국면에 처했을 때 보다 큰 선택의 폭을 提供해 줄 것이며, 軍事目標達成의 可能性을 增大시켜 줄 것이다.

2. 戰略的 有用性

戰術的 側面에서 戰術巡航미사일은 正確性和 비취약성으로 인한 큰 신뢰성으로 상당한 價值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 수천 km를 飛行하여 극소적 피해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표적이 지니는 값어치가 어지간히 큰 것이 아니고는 投資

價値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戰術巡航미사일은 아직도 이동표적이거나 긴급표적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공격하는 데는 한도가 있다.¹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巡航미사일이 戰略的次元에서 높게 評價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진 전략적 융통성 때문이다. 戰術巡航미사일의 전략적 융통성이란 종래의 그와 유사한 目的으로 運用되던 他武器體系와의 비교관점과 선제기습의 시점에서 論議가 가능할 것이다.

앞에서提起한 것처럼 航空力이 軍事目的에 使用하게 된 애당초의 目的은 “건너뛰기 형식에 의한 직접 타격”의 概念과 “火力的 연장”으로서였다. 즉 地上軍이 接近할 수 없거나 곤란한 지형적 장애물이나 적진 후방 같은 곳에 대하여 정찰 및 火力的 提供이었다.

오늘날 論議되고 있는 戰術巡航미사일의 使用目的 역시 작전적 관점에서는 그같은 說明이 가능하고, 전략적 관점에서는 아군 전선에 대한 적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同時에 敵의 전투체계를 전장도달 以前의 距離에서 体系的으로 파괴(Systematic Destroying)함으로써 戰爭의 軍事目的을 손쉽게 이룬다는 것이다.

初期 航空時代에는 航空力の 運用에 있어 空間的 여유가 있어 地上이나 空中으로부터의 위협이 별로 많지 않아 그같은 目的의 達成이 쉬웠으나, 오늘날과 같이 高度로 發達된 防空網 下에서는 体系的 파괴는 커녕 건너뛰기 타격은 물론, 전장에서 直接 敵의

累進的 파괴¹⁶⁾의 實現조차 값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하게 되어 있다.

즉, 강철은 人命보다 값이 싸다는 종전의 주장은 無意味한 것이 되었으며, 보다 값싸고 效率인 파괴를 위해서는 침투력이 강하고 운반능력이 크면서도 正確性이 있는 武器體系가 要求되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와 같은 要求는 통상의 유도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序頭에서의 說明대로 戰術巡航미사일은 통상의 유도무기에 비해 比較的 製作이 용이하고 價格이 저렴하며 비취약성이 강해서 어느 정도의 意志와 能力만 있다면 中小國의 能力(技術·經濟)으로도 스스로 장비할 可能性이 크다는 利點이 있다.¹⁷⁾

이것은 곧 戰略的 自決權(Strategic Self-Decision Making)이 直結됨을 意味한다. 다시 말해서, 自國이 선택한 時期에 선택한 方法으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手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政治的 獨自性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戰術巡航미사일이 가지는 전략적 융통성은 전장을 선택하고 戰爭의 時期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낱 조그만 武器體系 하나가 전장과 戰爭을 좌우할 정도로 決定的 影響을 미친다고 단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局面에 따라서는 상당한 影響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같은 論議도 一考의 價値는 있다고 본다.

換言하여, 戰術巡航미사일의 戰略的 융통성은 그것의 기도비익성을 利用하여 기습공

격을 행함으로써 먼저 공격하는 자의 우위와 效率性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結果的으로, 戰術巡航미사일을 利用,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일격에 가함으로써 戰爭에 있어서 決定的 轉機를 맞고자 하려 할 때 그 使用의 時期와 표적(Target)의 선택이 戰略的 使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가짐을 알 수 있다.

3. 政治·經濟的 有用性

高度의 무장을 한 가운데서도 戰爭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힘의 均衡關係가 이루어져 있어서 戰爭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現狀을 벗어나는 위험의 선택에는 堪耐할 수 없는 손실이 있다고 判斷될 때 戰爭은 서로가 원치 않게 되어 억제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편화되어 온 억제(Deterrence)의 개념은 “공격(침략)에 의해 획득되는 利得보다는 그 반격에 의해 입은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事前에 計算시킴으로써 침략을 위한 전쟁도발을 단념케 하는 기능”임을 意味한다.¹⁸⁾ 즉, 경쟁 / 분쟁 当事者들은 現狀의 均衡狀態를 통해 다른 目的을 추구하는 것이 더 有利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발을 서로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의 힘이 갑자기 커진다면, 反對로 어느 한쪽의 힘이 갑자기 약해질 때 이러한 均衡은 무너지고 침략의 유인(Incentive)은 作用할 수 있다. 어느 一方의 힘이

갑자기 相對的으로 우세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느 一方의 兵力이 갑자기 增加하거나, 反面 다른 一方의 兵力이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와 전시균형하의 경우는 어느 一方의 피해가 갑자기 增加하여 감내할 수 없는 水準까지 增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敵이 미처 대응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戰略 또는 武器體系를 動員함으로써 敵에게 影響을 줄 때 均衡은 깨어지고 局面은 變할 수 있다. 巡航미사일의 경우도 이같은 경우가 成立될 수 있다.

먼저, 國家意志의 實踐이라는 側面에서 軍事力 運用에 있어서 의욕과 實질을 조화시켜 주는 具體的 背景이 된다. 즉 政治的 目的(國家目標 : National Objective)에 의하여 주어진 軍事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광범위한 實力의 폭을 계획관에게 提示함으로써 敵에게 能力이 뒷받침된 實제적 경고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의 軍事力 構造下에서는 그 힘의 투사력이 制限되어 순전한 수세적 입장을 高수하면서 ‘구두경고’ (Verbal Warning)에만 그쳐 거의 ‘공갈’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國家의 위신만 失추시킬 수 밖에 없었던 것을, 實際的으로 敵의 主要價值體系를 我側의 能力範圍內에 붙잡아 둬으로써 위협을 實세(Real Power)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經濟的인 次元에서 보더라도 그만큼 水準의 投射力(Projection Power)을 갖는데 드는 유사무기체제와 比較해도 使用上의 융통성이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我側은 소액을

표 1. F-III과 巡航미사일의 特性 및 價格比較

Costs in millions of 1981 constant dollars

Item	F-III fighter- bomber	MRASM		GLCCM	
		Lower cost	Higher cost	Lower cost	Higher cost
Costs					
Average unit flyaway cost	26.0	0.65	0.65	0.72	0.72
Annual operating and support cost	1.85	0.05	0.075	0.75	0.1
Fifteen-year life-cycle cost per operational weapon	54.0	1.4	1.8	1.8	2.2
Force levels					
Total force	53 F-III s	2,045 missiles; 22 F-16s	2,045 missiles; 50 F-16s	2,045 missiles; 35 TELs	2,045 missiles; 35 TELs
Total operational units					
	48 F-III s -	1,800 missiles; 20 F-16s	1,800 missiles; 45 F-16s	1,800 missiles; 30 TELs	1,800 missiles; 30 TELs
Operational capability					
Average sortie rate per day	1.25	3	2	6 missiles launches	6 missile launches
Average weapon load	n. a.	3 missiles per F-16	2 missiles per F-16

n. a. Not available

a. Ground-launched conventional cruise missile.

• MRASM : 중거리공대지유도탄

• GLCCM : 지상발사순항유도탄

(出處: Batts 前掲書 p. 595)

投資하여 적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어체제를 구축하도록 強要함으로써 새로운 投資와 개발소요시간을 強要하고, 그만한 人員·費用의 機會費用을 他分野 開發에서 박탈하는 效果가 있어 비용 대 효과비라는 觀點에서 적에게 敗北를 안겨 줄 수가 있을 것이다.¹⁹⁾

反面, 我側의 既存의 유사무기체제 (전술기 등)들은 다른 有用한 目標(Target)에 投入할 수 있다는 餘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전력의 經濟的運用에 몇 배 利得이 초래된다. 이러한 效果는 戰·平時 모두에 걸쳐 기대되며, 적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強制條項이 된다. 그러나 軍비경쟁의 시작은 양측의 国力을 끊임없이 소진시킬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次元, 즉 軍비통제의 次元에서도 檢討가 必要할 것이다.²⁰⁾

結局 戰術巡航미사일 수용에 있어서의 政治·經濟的 次元의 問題는 自國의 의지실현 수단으로서 실세(Real Power)를 갖고자 하는 意志가 具備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國民的 여론이 지지되어야 하며, 國際的으로는 그 技術的統制(Technical Control)와 政治·外交的 교섭 및 선전으로 최소한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敵에 대한 실제적 투사능력을 통한 意思傳達로 전쟁의 억제 내지는 전쟁에서의 成功의 可能性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戰術巡航미사일 수용을 위한 전제

1. 國際關係的 側面

戰術巡航미사일의 위력을 적에게 認知시켜 그들의 意圖에 直·間接的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充分한 파괴력이 있어야 하고, 敵國의 모든 地域에 공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의 도달거리가 充分하여야 한다.

그같은 條件은 中小國家에 조명될 경우 대개 주변 인접국들과의 關係에 민감한 反應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즉, 잠재적국으로부터 반발 내지는 그들에게 不必要한 감정적 자극을 가함으로써 예방적 행위를 자초할 수 있다.

위협에 대한 認知가 곧바로 폭력을 유발시키는 경우, 一般的으로 그것은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 또는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공격의 目的은 상대편이 공격해 올 機會를 갖기 以前에 선수를 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戰爭이 궁극적으로 불가피하고 環境이 아직 一方에 有利할 때 먼저 시작하는 것이 最善이라는, 現在의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주의적이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비관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심사숙고한 침략행위의 手段에 의하여 하나의 기정사실화된 狀態를 創造하려는 試圖이며, 그것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궁극적인 防衛目的을 지니고 있는 적어도 理論上으로는 아직도 說得力이

있는 試圖이다.

예방공격은 그 자신이 기선을 취하는 결과의 行為이지만, 선제공격의 경우에 있어서의 戰爭은 적의 기선에 의해서 發生된다.²¹⁾ 선제공격은 실시하는 중에도 그에 의해 타격을 가하는 行為이다. 예방공격과는 달리 一般的으로 선제공격은 냉철한 計算이나 計劃의 産物이 아니고, 오히려 最終인 절망의 순간에 응급적 조치로서 實施된다. 이때 공격의 目的은 임박한 적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다른 한편 즉각적으로 行動을 개시하지 않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는 軍事力을 使用할 마지막 機會를 活用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취약성을 認識한 國家는 강한 공격동기(Incentive)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戰略的 位置가 不利하거나 軍事力이 相對的으로 不利한 國家資源面에서 長期戰이 不利하거나 相對方의 動員以前에 조속히 勝利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國家는 勝利를 보장하기 위해 선제공격 또는 예방공격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이나 예방전쟁 모두가 일단 공세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위적 戰爭 혹은 예방적 戰爭으로 부르는데는 問題가 있다.

結局, 불쾌한 問題를 야기하지 않기 위한 대주변국 외교를 통한 理解와 說得이 必要하고, 戰術巡航미사일 自体의 투사력(주로 사거리)을 制限하여 그 目的 自体를 分明히 함으로써 해소책을 찾아서 지지는 물론, 최소한 방해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절이 必

要할 것이다. 사거리는 물론이거니와 核 또는 非核이라는 탄두의 성질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2. 軍事戰略의 側面

巡航미사일은 作戰的 次元에서는 그 正確性和 비취약성에 의해 武器體系의 신뢰성이 增加하고, 이를 바탕으로 戰略的 次元에서는 軍事力 運用상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政治·經濟次元에서는 저렴한 경비로 國家意志를 실세화할 수 있는 具體的 手段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점들이 巡航미사일의 一般的 長點들이었다면, 그것의 實際的 適用에 있어서는 전제되어야 할 여러 가지 狀況들이 存在한다.

傳統的 분위기에 새로운 思想에 의한 武器體系가 導入됨에 따라 軍事的 傳統(Military Tradition)은 “도전에 대한 變動”의 관계측면에서 볼 때 저항적일 수도 있고 협조적일 수도 있다. 一般的인 경우 未知의 事實에 대한 不確實性和 두려움으로 인해 變動은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이기 쉽다. 巡航미사일을 수용하고자 할 때 既存의 戰略體系는 그동안의 傳統에 대한 拒否(部分的이든, 全體的이든)가 전제되므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狀況의 變化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戰略은 實踐的 계획으로서, 戰爭에서의 成功을 지향하는 實際的 知識²²⁾으로서의 價値는 의심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장환경이 變化됨에 따라 戰略은 發展해야 하고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²³⁾

전쟁양상의 變化에 따른 군사적 要求에

의해 개발된 巡航미사일을 수용함에 必要한 軍事戰略的 側面에서의 전제는 그 방위구상에서 出發해야 한다. 대개의 國家들은 自國의 軍事力을 稱하여 통상 방어를 위한 軍隊라고들 한다. 특히 그 경쟁이 첨예화된 地域의 國家일수록 더욱 더 表現에 있어서 완곡함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그 國家目標가 國家防衛라는 수세적 表現이라고 하더라도 實際的 方法上에는 공세적 양태도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의 의지가 國家의 보위라고 했을 때 겉으로는 전략적 수세라고 하더라도 實際的 方法上으로 취할 수 있는 行動은 공세적일 수도 있고 수세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방위태세 구비에 있어서 現實的 實踐案으로서의 戰略은 그 國家의 狀況의 判斷에 의한 最善의 戰略이어야 하므로 여건의 可否에 따라 공세안을 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國家意志의 實踐手段으로서의 軍事力은 그 適合性和 實現可能性과 受諾性이 있어야 하며,²⁴⁾ 이를 위해서는 그 方法上의 선택성이 공세적이든 수세적이든 선택의 폭이 存在해야 한다는 것이다.

3. 軍事力 構造의 側面

軍事力 運用에 있어 가장 큰 잘못은 戰略的 概念이 戰術的 次元에서 具體化될 때 내면의 진의의 전달이 形式의 모방보다 가볍게 될 때 일어난다.

그 事例로서 10月戰爭을 들 수 있다. 제 4차 中東戰은 통상 알려지기는 「이집트」

(Egypt)側이 勝利하고 있지만, 그 實體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傳統的인 「이집트」의 國家目標은 「이스라엘」(Israel)의 축출이었다.

따라서 「이집트」는 전략적 공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軍事力을 파괴하여 저항의지를 박탈하고 國土를 점령하여 버리는 것이었다.²⁵⁾ 그러나 「이집트」는 三次中東戰(6日戰爭)의 經驗에서 「이스라엘」空軍과 戰車部隊의 위력에 크게 놀란 바 있어 대공무기와 대전차무기를 大量 장비하여 第4次中東戰의 各戰線에서는 戰術的 優位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러한 선택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에 따른 방어적 行動에 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Offensive Defence) 「이스라엘」軍을 포착·섬멸하는 것이 아니었다. 달리 말한다면 「이집트」軍은 전장에서의 行動을 「이스라엘」이 선택함에 따라 應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는 결국 전장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에 빼앗기게 되었으며, 전략적 공세는 무위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위의 例에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事實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國家戰略이 공세적이었으면 그 下部概念으로서의 軍事戰略이나 作戰戰略, 또는 戰術的 側面에서는 그 意志를 實現할 수 있는 概念이 樹立되어 있어야 했고, 다음으로 그와 같은 지침하에 군사력구조를 건설하여 장비·편성·훈련했어야 했다.

10月戰爭 以後에야 그같은 뼈저린 教訓을

느낀 「이집트」는 장비나 편제면에서 새로운 개념을 수립하고 장비의 導入을 서둘렀다. 만일 그때에 「이집트」가 巡航미사일과 같이 正確성이 높고 비취약성이 크며 作戰的 융통성이 큰 武器体系를 運用할 수 있었다면 事情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완고한 軍事傳統, 잘못된 戰略概念 및 융통성없는 軍事力 構造는 狀況의 變化에 따라 유연성있는 적응이 不可能하여 戰爭을 成功으로 이끌기 어렵게 되었다는 教訓을 얻을 수 있다.

구조는 內容을 담는 틀과 같은 것이다. 국가방어라는 表現의 수세적 國家戰略이라도 실천의 方法面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이 存在해야 하고, 戰略의 現實的 實現을 위해 수세적 전략이라도 필요시 적용 가능한 軍事力 構造는 준비되어야 한다. 즉 積極적

방어 내지는 전진방어개념을 가능케 할 충분한 투사력을 갖춘 軍事力 構造, 즉 기동력과 사거리와 파괴력 및 이의 판단을 위한 情報 및 意思決定体系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V. 결 언

結論的으로, 戰爭을 國家意志를 實現하고자 하는 한 手段으로서 政治의 연장이라고 한다면 이는 適合성과 實現可能性 및 受諾성이 있는 戰略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戰術巡航미사일과 같은 正確성과 신뢰성을 가진 武器体系를 수용하며 그 戰略에 유연성과 융통성을 提供하여 軍事目標達成의 可能性을 훨씬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註 解

- 1) Department of Defenc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 C., 20301, The Joint Chiefs of Staff. 1979), p. 94
- 2) SALT II, 제 2 조 제 8 항
- 3) Richard K. Betts, Cruise Missiles Technology, Strategy, Politics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1), p. 31
- 4) 第一次大戰 當時의 巡航미사일의 논의는 Betts. p. 32 참조.
- 5) 具尚會, 「美軍事戰略과 巡航유도탄」, 「국방과 기술」 제23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1980), p. 16
- 6) 일례로서 Tomahawk와 AGM-86의 Turbofan engine인 F107-WR-400의 경우 중량 130파운드, 추력 600파운드이며, 연료소모율은 겨우 0.7 lbs/hr이다(上揭, p. 18).
- 7) F-4의 INS인 ASN-63의 경우 時間當 허용오차가 時間當 3NM이다. 이를 巡航미사일에 응용했을 경우 飛行時間이 길어질수록 武器로서의 價值를 認定할 수 없을 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 8) 리델하트, 「전략론」, 강창구역(서울:兵学社, 1983), p. 380
- 9) 柳在申, 「戰爭의 本質과 戰略의 概念—術로서의 戰略」(서울:국대원, 1983), p. 25
- 10) B. Thomas Trout & James E. Harf, National Security Affairs(New York, N. Y, National Strategy Information(enter 1982), p. 124
- 11) 파괴력(Yield) = $\frac{1}{(CEP)^2} \times \text{탄두의 크기이다.}$
CEP가 10m일 때 파괴력은 $\frac{1}{100}$ 탄두의 크기이지만,
CEP가 100m이면 $\frac{1}{1}$ 탄두의 크기가 된다.
- 12) 운반, 설치, 정비, 발사 등의 수단의 단순화를 의미한다.
- 13) Tomahawk(BGM-109)의 경우 480KTS(885km/h M.85) Minuteman III의 경우는 M 22.5
- 14) Edward N. Luttwak, 前掲書, p. 9
- 15) 통상 戰術巡航 미사일은 目標가 극히 작다든가 정밀한 命中이 要求될 때, 즉 활주로나 진지, 특별한 건조물, 교량 등에 使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탄두는 고폭탄(HE), 화학탄(CW), 개량한 재래식탄(ICM) 등이 사용된다.
- 16) Edward N. Luttwak, 「前掲書」, p. 8
- 17) 現在 일본, 인도, 스웨덴, 이태리, 서독, 이스라엘 등이 순항미사일 개발 및 생산의 工業技術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아게찌즈도모, 「세계병기 발달사」, p. 188).
- 18) 이종학, 「한반도의 억지전략이론」(서울:형설출판사, 1981), p. 312
- 19) 아게찌즈도모, 「세계병기발달사」 김기홍 訳(서울:과학도서, 1961), p. 179
- 20) 무기개발에 의한 군비경쟁은 제 1차 세계대전 전후와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그리고 미·소의 전후 핵무기 경쟁에서 잘 드러난다.
- 21) Y. Harkabi; Nuclear War & Nuclear Peace(Jerusalem. Israel Program for Scientific Translations,1966) pp. 43~44
- 22) P. Stewart, F. Lykke,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U. S. Army War College, 1982),p. 3
- 23) A. Beaufre, 「전략론」, 국대원訳(서울:국대원, 1975), pp. 16~17
- 24) P. Stewart, F. Lykke, 前掲書, p. 43
- 25) 日新社, 「中東戰爭」 김희상, 1981. p.237의 要約

소련의 국방체제와 군사 전략 진단

李 善 浩

〈行博·前国大院教授〉

1. 국방정책결정의 과정

소련의 국방정책결정과정은 비밀의 장막에 가려 있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체제와 공식적인 정책형성절차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공산당이 국방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최고 지령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당은 하향식체제를 통하여 준비조달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고, 군사인력운용에 대한 제반결정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침이라고 하면, 국방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윤곽의 설정을 뜻하며, 방대한 조직체인 공산당이 실제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공산당 정치국이 권력의 핵심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국방정책에 관여할 만큼 전

문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위당국은 국방회의(Defence Council)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미국의 기구는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라고 하겠다. 이 국방회의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 회의의 의장은 전통적으로 소련군의 총사령관인 공산당의 서기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의장은 대통령임), 위원으로는 국방상, 일반참모부장, 국가안보위원회(KGB) 의장, 외상 및 기타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임명된다. 국방회의는 평시에는 국방정책결정기구로 운용되나, 전시에는 군사력운용지령기구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국방회의가 폭넓은 국방정책방향을 설정

하지만, 군사력의 세부적 발전문제까지 직접 간여할 수는 없는 바, 국방상이 이 일을 맡게 된다. 국방상(현재는 S. L. Sokolov 원수) 밑에는 3명의 현역장성인 제1부상이 있는데, 한 명은 정무담당부상으로서 국방상을 전반적으로 보좌하고 그의 부재시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두번째의 제1부상은 소련군 일반참모부장(Chief of the General Staff)인데, 그는 소련의 5개 군종을 직접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으로서(미국의 합동참모회의의장은 지휘권이 없음) 군사력의 구조와 태세 및 군사교리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역을 맡고 있다. 세번째의 제1부상은 바르샤바조약기구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체코슬로바키아군, 불가리아군, 동독군, 헝가리군, 폴란드군, 루마니아군, 그리고 소련군이 연합된 동맹군의 통합지휘관이다.

그리고 제1부상과 동격으로 정치주무국장(Chief of the Political Administration)이 있는데, 그는 소련군의 각급제대에 군사조직과 병행하여 편성되어 있는 강력한 정치조직에 대한 총책임자인 것이다.

즉, 각급부대의 지휘관 밑에 2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부지휘관은 공산당의 군대내부감시자(Watchdog)로서 부대원의 정치교육 및 교화, 당에 대한 충성심 함양, 인사상담, 사기진작 등 다양한 정치공작과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소련군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본부는 일반참모부이다. 이는 소련군의 통합지휘본부로서 「군의 두뇌」로 불리우고 있

으며,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한 각군의 기능을 통할하는 주무기획부서로서 소련의 국방체제에 있어 엄청난 명성과 권력을 발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군 사령관(지상군, 해군, 공군, 전략로켓군 및 방공군)은 국방부상을 겸무함으로써 제1부상인 일반참모부장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5개 국방부상과 동격의 또 다른 부상으로서 군비담당, 민방위담당, 건설담당, 후방군무담당 및 감찰담당의 5개 분야별 부상이 국방상을 보좌한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국방정책결정구조는 서방측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때문에 명확한 정책형성절차와 각 계층별 기능을 상술할 수는 없지만, 표와 같이 주요정책결정기구의 책임과 역할을 요약·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방측과는 달리 소련의 모든 군사고위간부장교들은 당의 요직을 겸무하고 있으며, 이른바 「당군 단일화」(Unity of Party and Army) 원칙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명의 제1부상은 공산당중앙위의 위원직을 함께 맡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은 군의 정략(Politics)이라고도 말하는 국방정책결정에 있어서 사회·정치적 측면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당은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동원가능한 국방자원의 수준을 결정하고 적과 우군을 선별한 다음, 마지막으로 군사력 사용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은 주요무기 획득과 군고위직의 보직을 포함하

주요 국방정책결정기구의 기능

공 산 당	군사교리의 사회·정치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력의 사용시기, 대상 및 장소 결정 • 국가자원의 국방분야 배분 우선순위 결정 • 주요무기획득 계획 승인 • 국가군비통제방향 설정
정치주무국	당 중앙위와 국방성의 2중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교리의 이념적·철학적 원칙 정립 • 군장병의 사상·이념교육 감독 • 군대에 당 이념 주입 및 정신함양
일반참모부	군사교리의 군사·기술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교리상의 기술 및 전략·전술 변경 논의 • 전군을 위한 합동군전략 개발 • 군사력 대비태세 및 구조결정 • 주요군사쟁점에 대하여 당에 자문 • 전시의 군사작전계획 및 집행본부 역할 • 군사정보의 수집

여 소련군의 전략 및 교리상의 중요변경을 승인하며, 군비통제정책을 결정한다.

그런데 당의 이와 같은 결정은 당내요직을 맡고 있는 직업군인들이 마련한 대안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광범위한 민간인 관료나 학자들의 참여에 의한 민·군일치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당의 정책지침에 따라 국방제 1부상임과 동시에 국방회의의 위원인 일반참모부장이

전쟁의 신기술과 그 효과에 대한 토의와 분석, 새로이 획득할 무기의 결정, 각군 간의 자원배분 등을 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참모부는 그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주무국(GRU)을 통하여 적군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고하고 소련의 군비통제정책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위산업부문에 있어서는 군비담당국방부상의 책임하에 무기획득절차와 생산계획이 수립되는데, 군 및 경제기획당국

과 밀접한 협조가 이루어진다. 특히, 핵군비에 관한 한 국가안보위원회(KGB)가 그 획득 및 사용결정과정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다. 국가안보위원회의 기본임무는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군의 충성심을 뒷받침하는데 있는 바, 군에 있어서 해당행위나 군무이탈자를 색출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GRU와 KGB는 경쟁적으로 악명높은 국제테러리즘을 재정 및 기술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군사력과 배비태세(配備態勢)

소련군은 지상군, 해군, 공군, 전략로켓군, 그리고 방공군의 5개 군종(총 병력은 약 50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최대의 군종은 지상군으로서 병력은 180만이며, 소련군 총병력의 1/3을 점한다.

지상군 우위체제는 소련이 대륙국가이고 제2러시아 이래로 광대한 국경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2차대전시에 승전의 주역이었던 육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르시초프는 핵무기가 지상군의 존재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전제하에 1964년 9월부터 지상군사령부를 잠시동안 폐지한 적이 있으나, 얼마후 재창설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소련군에서 가장 병력은 적지만 제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은 1959년 12월에 신편된 전략로켓군인데, 병력은 32만 5천명에 불과하다. 이 군종은 전략 및 전술핵무기를 관리·운용하는 핵군

이다. 전략로켓군은 소련군의 엘리트로서 자부하고 있는데, 요원의 약 70%가 공학자 및 전문기술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소련의 공군은 36만 5천명의 병력을 가진 군종으로서 지상군과 전략로켓군에 비하여 한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뒤져 있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소련군사력 증강추세에 따라 신예전투기와 요격기를 대량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NATO의 항공전력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방공군은 약 50만의 병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항공공간을 방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미국과는 달리 소련은 폭격기와 공격기에 대항하기 위해 요격무기체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KAL기를 격추했던 그 당시 저공저속비행하는 민용기를 포착·공격하는데 무려 2시간 이상이나 걸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소련 방공체계의 허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20년 전만 해도 소련해군은 육군의 서자 취급을 받아 거의 해체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42만 5천명의 병력을 지닌 소련해군의 기본임무는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방어였으나, 이제는 제한된 공해상에서의 미해상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증강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탄세력을 증강하기 위한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중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소

련해군은 이른바 세력투사능력을 갖기 위해 캄란만을 비롯한 해외기지의 획득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이는 미해군과 같은 거대한 항모전투단(CBG)을 갖지 못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인 것이다.

군사적 초강대국이란 이름에 걸맞게 소련은 그들의 군사력을 영토내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의 원격지에 전개해 놓고 있다. 현재 31개사단을 동구에(동독에 20개 사단, 체코 슬로바키아에 5개 사단, 헝가리에 4개 사단, 그리고 폴란드에 2개 사단) 배치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11만 5천명을 투입하여 9년째 장기전을 벌이고 있으며, 2만 5천명의 군사고문관을 제3세계 전역에 파견하여 간접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해외투사 능력증대는 소련군이 불과 20년 전의 지역 세력에서 전 지구적 세력으로 부상하였음을 뜻한다. 오늘날 미·소 간의 군사력 우열은 그 영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의 백중지세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무기체계는 미국의 그것보다 덜 정교화되어 있음이 사실이나, 순수한 군사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소련은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있는 바, 불원간에 양적인 소련의 우위를 질적으로 만회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좌절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지닌 소련 역시 내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부진요인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첫째, 병사들의 알콜 및 마약중독현상이 군무이탈과 범죄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고르바초프는 사회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금주운동과 마약퇴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병력자원이 아시아국적의 소수민족은 증가하고 슬라브족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언어소통 불편과 1차 집단적 유대의 결여로 군대의 지휘·통제기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지나치게 집권화된 명령체계는 장교와 하사관들의 융통성과 자유재량권을 박탈함으로써 야전에서의 상황적응능력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대외적인 문제점도 노증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련은 지정학적으로 서방측 세력에 의해 전면포위당하고 있으며(북방은 빙하의 북극양, 서방은 NATO, 동방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 남방은 중공에 의해서 각각 차단되고 있으므로), 소련을 제외한 전핵보유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공)의 핵표적이 모두 소련으로 집중되어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국방자원이 필요하다.

둘째, 비록 동구를 지배하고 있음으로써 제정러시아 이래의 서유럽과 폴란드 회랑을

통한 영토침공위협은 없다 할지라도, 중·소 국경선에 배치된 100만명의 병력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몽고 등에 다수를 분산투입하고 있는 현재의 다전구전쟁(Multitheater War) 수행능력에는 경제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세째, 제3 세계에 대한 무기이양을 통한 영향력 확대와, 이른바 민족해방운동이란 명목의 테러리즘 배후지원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는 했으나, 일관성있는 경제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앙골라, 모잠비크, 시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노골적으로 반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군사전략의 향방

소련은 군사력의 효용성을 정치적 맥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영토방위목적상 압도적인 핵군비와 재래형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종래의 수세적 개념에서 세력투사를 통한 공세적 개념으로 군사력 사용을 전환 지향하고 있다.

서남아로는 중공의 포위망을 뚫고서 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축선상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으며, 동남아쪽에는 캄란만을 군사기지로 확보하고 베트남을 시켜 캄푸치아를 침공케 한 뒤 태국까지 넘나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는 북한의 동서해에 있는 중요항구에 대한 기지권과 영공비행권을 획득해 놓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전략사상은 「전쟁불가피론」에 의

한 ‘공자배수주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는 강력한 공격이다’ ‘승산은 선수 공격자에게 있다’는 등 공세적이고 승전지향적 전쟁관과 역사적 결정론을 신조로 삼아 왔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의 독점 내지 절대우위를 유지했던 1950년대 말까지를 제외하고는, 소련은 핵전력의 우위와 생존력을 전제로 최근까지 미국의 상호확실 파괴(MAD) 교리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정권하에서 소련은 정치적 및 경제적 뒷받침이 안되는 한 군사력의 효용성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핵전쟁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한 나머지 그들의 핵전략개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축성있게 부분적으로 보완하게 되었다.

① 미·소 양대진영 간의 전쟁은 결정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며, 동방의 사회주의와 서방의 제국주의 간의 세계지배를 위한 대륙간·동맹간 전쟁이 될 것이다.

② 핵전쟁은 너무 파멸적이기 때문에 이를 시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바, 소련이 제국주의국가들에게 무경고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을 거부한다.

③ 민족해방운동은 정의의 전쟁으로서 소련의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④ 제국주의국가들의 선제공격에 의해 역제가 실패시는 소련이 그들에게 철저히 보복공격을 가하여 영토를 점령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한다.

⑤ 소련군은 어떤 수준의 분쟁경고에도 즉각 제병연합의 예방공격을 할 수 있는 태

세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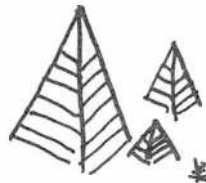
⑥ 핵공격의 제 1 차적 표적은 제국주의 국가의 핵시설과 지휘·통제·통신 및 방공시설이 된다.

그런데 그들은 핵선제공격을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예방공격을 가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결국 소련은 최대한도로 핵전쟁을 회피하되, 핵전쟁 직전까지 우세한 재래형 군사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도록 노력하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승전사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소련은 군사력의 대외적 행사에 있어서 정치적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전가용자원의 통합을 요구하는 이른바 '힘의 상관관계' (Corelation of Forces) 를 승전의 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개입의 실패를 교훈 삼아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 정치적, 경제적

및 도덕적 국면을 중시하게 된 고르바초프의 이른바 군사·비군사자원상쇄 (gun versus butter trade-off) 를 추구하는 일원적 균형전략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소련이 사상초유의 사회주의국가로 창건된 당시부터 군사력의 대내외적 역할과 기능은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오늘날에도 제 3 세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명성 획득은 주로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련은 병영국가이며, 국방정책은 당주도의 군부일변도로 결정되는 호전적인 폐쇄체제인 바, 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길은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있다는 무장평화개념 (martial view of peace) 과 사이비 평화공존사상이 상존하는 한, 고르바초프의 '개방과 재건' 을 표방한 태평양지향적 평화전략선언도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맥락에 의한다면 전술적인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와 軍精神教育

김 해 창

〈중위 제5672부대〉

〈目 次〉

- I. 緒 言
- II. 軍과 精神教育
 - 1. 軍精神教育의 意義
 - 2. 部隊精神教育의 諸問題
- III. 로고테라피의 理解
 - 1. 로고테라피의 基本概念
 - 2. 로고테라피의 技法
- IV. 로고테라피를 活用한 軍精神教育의 方向摸索

I. 緒 言

한국에 남자로서 태어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장단, 형태는 다양하지만 생애의 황금기라고 할 青年期의 2~3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이러한 軍服務는

국민의 義務로 当然하고 명예로운 일임과 동시에, 개인으로서는 보다 完全한 成人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課題요 試鍊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복무에 대한 인식이 군복무기간을 停滯的 또는 退步的 삶의 기간으로 보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否定的 思考와 被害意識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그 개인에게는 退步的 삶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軍의 精神戰力이라는 면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서 軍복무기간을 보다 意味 있고 發展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信念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軍精神教育에 있어 急先務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軍精神教育은 教育目的에 비해 그 方法이나 實際面에 있어서 被教育者의 '自發性'을 고려함없이 注入式으로 一貫해 온 면이 강하고, 軍을 一般사회와는 전혀 별개인 것 같이 軍의 特殊性을 강조하다 보니 組織과 個人 간의 갈등과 不適應이라는 문제가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나 자신의 軍生活에 대한 意味賦與이며, 프랭클(V. E. Frankl) 博士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理論을 기반으로 軍복무에 임하고 있는 將兵들에게 보다 發展的인 生活을 위한 하나의 思考方式을 소개함과 아울러, 軍精神教育의 바람직한 方向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摸索이기도 하다.

II. 軍과 精神教育

1. 軍精神教育의 意義

흔히 教育이라 하면 '바람직한 人間行動의 意圖的 變化'라고 한다. 우리 空軍教育 敎理에서 教育은 "人間의 理解力을 발전시키는 全人的 過程으로서 事物에 대한 폭넓

은 見解와 想像力, 그리고 바람직한 人格形成을 追求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訓練이란 "定한 目標 또는 基準에 到達케 하기 위한 實踐的 教育活動으로 職務遂行方法과 協調方法을 계속적인 反復·熟達을 통해 練習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軍에서의 教育은 "軍이 要求하는 바람직한 軍人像 形成"을 目的으로 한다. 즉 '국가와 民族史의 正統性을 守護하기 위한 國民의 軍대'라는 國軍의 理念과 '국가와 民族을 위하여, 忠誠을 다하여 國토를 防衛하고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함'을 그 使命으로 하는 軍人을 育成하는 일이다. 따라서 軍人精神은 '戰爭의 勝敗를 좌우하는 必須的인 要素'로서 '名譽를 존중하고, 투철한 忠誠心, 진정한 勇氣, 必勝의 信念, 臨戰無退의 氣像, 죽음을 무릅쓰고 責任을 完遂하는 崇高한 愛國愛族의 精神'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軍의 精神教育은 軍人으로서 尚武의 價值德目を 강조하고 가르치고 育成해야 함과 동시에, 時代의 歷史的 使命과 관련된 國民精神教育次元의 倫理的 側面도 또한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軍人은 곧 '制服입은 民主市民'이라는 基本立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部隊精神教育의 諸問題

軍教育은 크게 精神教育과 軍事·技術訓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空軍은 他軍에 비해 技術軍的 責任倫理가 특히 강

조되는만큼, 精神教育은 軍事, 技術 教育, 訓練의 前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軍精神教育은 無形戰力으로 지휘관의 리더십과 장병의 士氣 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하여 그 水準을 評價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이러한 精神教育은 원래 目的에 비해서 隸下部隊로 내려올수록 實際와 乖離되는 면이 보인다. 部隊精神教育에 있어서 무관심과 認識不足으로 인해 形式的·儀禮的 教育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部隊精神教育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教育者와 被教育者의 動機, 意慾不足에 기인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데서 部隊精神教育의 문제점을 教育要素別로 살펴 보기로 하자.

가. 教育者: 부대에서 公式的인 精神教育은 지휘관·참모, 정훈장교, 대대별 정훈지도장교 및 이념교관 등 將校면 대부분 教育者의 立場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精神教育에 대한 認識不足으로 교육 자체를 '너무 쉽게' 혹은 '귀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教育에 임하는 敎官은 분명히 教育者의인 努力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달하는 教育內容 못지 않게 教育者의 人間的 誠實性이 그대로 피교육자에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른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의 無意識的 言行 및 態度가 피교육자에게 커다란 影響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교관은 가르치는 行爲가 곧 스스로 배우는 行爲임을 인식, 개별적인 對話나 集團教育에 대해 不斷한

自己研究를 게을리해선 안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部隊精神教育에 있어서 公式的 教育(formal education)을 강조하였지만, 그보다 實際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士兵의 경우 선임하사, 내무반장 및 소위 '古參集團'에 의한 非公式的 教育(non-formal education)이다. 이들은 피교육자와 거의 '함께'하면서 그들의 思考나 行動에 全人的(?)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軍精神教育은 이러한 非公式的 教育의 重要性을 인식, 公式的 教育과 연계성을 갖고 '古參集團'에 대한 精神教育을 充實히 하여 實質的으로 精神教育의 生活化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被教育者: 피교육자는 정신교육의 對象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부대정신교육은 이러한 피교육자의 水準이나 心理를 무시하고 오로지 주어진 教育目標 내지 知識의 一方的 注入·傳達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강한 目標意識이 方法的인 면과 乖離현상이 나타나 결국 피교육자도 '그냥 몸만 가서 있으면 된다'는 식의 形式的인 學習態度가 形成되어 원래의 教育效果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士兵이 軍生活를 '停止' 또는 '退步'라는 否定的 思考를 갖고 있고, 軍이라는 組織 속에서 無事安逸한 生活態度를 견지하게 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自己人生 가운데 軍生活의 意味를 발견하려는 努力이다. 軍精神教育은 이러한 면에서 '意味를 찾는 教育', '信念을 키우는 教育'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교육자는 어떠한 狀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問題解決能力을 키우고 스스로 自己學習을 하는 學習의 主体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敎補材, 敎育時間 및 場所: 敎育의 매체로서 敎補材와 敎育施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財政的 要因으로 인해 실제로 가장 빈약한 상태이다. 敎補材는 敎育實際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피교육자에게 전달될 敎育內容이다. 따라서 雜多하게 많은 것보다는 体系的이면서 統合的인, 敎育心理에 맞는 것으로 손쉽게 活用할 수 있는 것이어야겠다. 특히 敎育方法에 관해 多樣한 場面에서 活用할 수 있는 ‘敎援敎本’ 같은 것이 요망된다. 그리고 부대정신교육은 부대의 업무나 기타 事情으로 인하여 敎育時間이나 場所가 계획성있게 設定·運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敎育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敎育施設의 改善이 하나의 과제이다.

Ⅲ. 로고테라피의 理解

1. 로고테라피의 基本概念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敎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敎育者와 被敎育者가 敎育場面に 임하는 基本姿勢이다. 특히 敎育者의 熱意와 被敎育者의 自發性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軍精神敎育은 단순한 정신문화적 측면에서 실시될 것이 아니라, 將兵 한사람한사람이 軍生活를 통해서 보람

과 긍지, 즉 자기 스스로의 意味發見에 의해 全般的인 生活意識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서 로고테라피(logotherapy)의 기본개념과 기법은 軍生活의 意味發見에 있어 하나의 思考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테라피(logotherapy)란 「나치」치하의 強制收容所의 體驗을 통해 實存分析이라는 心理療法을 발견한 유대계 정신의학의 권위자인 빅터 프랭클(Victor E. Frankl) 博士의 精神治療技法으로, logos(意味 또는 精神)+therapy(治療法)의 合成語로, logotherapy라는 말은 “意味를 통한 治療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고테라피는 주로 정신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것이나, 그것은 단순한 心理療法을 넘어 하나의 人間觀이자 삶의 哲學으로 볼 수 있다.

로고테라피의 기본개념은 크게 ① 意志의 自由 ② 意味에의 意志 ③ 삶의 意味를 들고 있다.

첫번째인 ‘意志의 自由’는 人間意志의 自由를 의미하며, 有限한 存在의 意志이다. 인간의 자유는 어떤 상태로부터의 自由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자기에게 다가오든간에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 自由라는 것이다. 즉, 인간의 人格形成은 단순한 자기의 특성이나 충동 또는 본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해 취하는 태도, 자기의 意志能力에 의해서 行해진다는 것이다.

두번째 ‘意味에의 意志’는 그 자체가 意味와 目的을 추구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人

間의 基本的인 努力이라는 것으로, 快樂이라는 것도 인간의 노력의 目的 혹은 対象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意味成就로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意味成就에 대한 원래의 關心이 좌절되는 경우, 쉽게 權力에 만족하거나 또는 快樂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삶의 意味’이다.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삶을 無意味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단지 不幸할 뿐만 아니라 살 자격도 없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삶의 意味’는 인간이 비록 환경에 예속된 存在이지만 現實과 理想, 存在와 當爲간의 긴장 속에서, 그 간격(gap)을 좁혀 가는 過程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로고테라피의 技法

이러한 로고테라피의 기본개념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곤란한 점이 많다. 로고테라피는 주로 극단적인 실망·좌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은 정신질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쓰이는 相談治療法으로 이용되는 까닭에 쉽게 一般化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된다. 특히 技法面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로고테라피의 思考를 적용하려는 것은 軍의 特性和 관련된다.

軍은 戰時엔 극단적으로 죽음의 상황에 대처 決斷을 해야 하는 死生觀의 定立이 필요하고, 또한 平時엔 戰時에 대비하여 항상 戰技를 연마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平時에는 反復된 訓練, 制限된 生活空間, 嚴格한 個人生活 統制 등으로 인해 實存的 空虛

내지 무로함, 또는 無味性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軍精神教育은 무엇보다도 戰時엔 과감히 대처할 수 있고 또한 平時엔 自己充實을 기할 수 있는 그런 軍人像이 요망된다. 이러한 면에서 로고테라피는 하나의 方法論으로서의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다.

로고테라피의 技法은 크게 ① 反省除去(dereflection) ② 逆說志向(paradoxical intention)으로 나누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법은 人間實存의 두 가지 본질적 특성, 즉 人間의 自己超越과 自己離脫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反省除去’는 과도한 반성 혹은 지나친 주의에 대해 일어나는 預期不安(anticipatory anxiety)現象을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너무도 完璧主義로 一貫하는 目的意識 속에 자칫 생기는 두려움이나 공포증의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너무도 完璧 또는 과도한 目標·意慾은 오히려 個人的 能力을 無力化시키고, 나아가 形式的 課業遂行行爲를 유발한다는 것이니, 특히 軍入隊後 新兵訓練에 있어서 이러한 ‘預期不安現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無條件的 服從을 강요하기보다는 軍의 役割에 대한 바른 認識을 심어 주어서 단계적으로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逆說志向’인데, 이것은 어떠한 공포나 강박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두려움이나 불안상황에 대해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감히 대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지로 軍生活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 갈등은 오히려 正常的인 것으로, 그러한 것은 對話나 相談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逆說志向의 方法은 유머감각(Humor)에 고유한 自己離脫이라는 독특한 인간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실수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요, 그리고나서는 그 결과에 따라 한층 더 向上시키고자 하는 意志를 키우는 일이다.

그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자기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과 자기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을 짓고 意味를 찾아 내는 일이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삶의 理由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創意性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의 기반은 내가 진정 해야 할 일과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責任을 의식한 경우엔 어떠한 고난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금 니체의 말 중에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일층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내재화하는 일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自己가 決斷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責任도 자기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過去와 未來의 가운데에서 ‘순간을 永遠으로’ 이룰 수 있는 現在에 充實하는 것, 현재의 순간순간의 귀중함을 再認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로고테라피를 활용한 軍精神教育의 方向摸索

앞에서 거듭 강조해 왔듯이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交感이다. 따라서 교육자는 부단히 자기자신의 職務에 대한 省察과 교육적 열의를 가져야 할 것이며, 피교육자는 배우고자 하는 意慾이 있어야 한다.

부대정신교육으로서 公式的인 教育은 매 주 토요일 精神教育의 날이다. 지휘관 정신훈화, 기본정훈교육, 특별정훈교육, 국민정신교육 등등 제한된 시간에 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의 인격적 感化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感情移入이요 共感帶 形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國家安保教育의 경우에 있어서 北傀의 KAL기 폭파 만행에 대해서 예를 드는 경우에, 그러한 非人間的 反文化的 만행에 대한 분노에 대해 진정 感情을 移入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즉, 외국에서 귀국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무참히 죽어 가는 그 광경을 스스로 自己問題化하여 ‘간접체험’을 해야 한다. 단순히 “그런 사건이 있다, 안됐다.” 하는 식의 사고만으로는 결코 対策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시대는 너무도 무감각·무감동·무관심한 시대가 아닌가? 어떠한 문제라도 自己와 관련시킬 때 비로소 意味가 있는 것이다. 특히 精神教育에 있어서 추상화

된 理念, 口號化된 형식적인 교육은 오히려 人間의 感情을 無力化시키는 非教育的 逆效果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精神教育은 초청강연회 등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부대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內在化되고, 行動的 次元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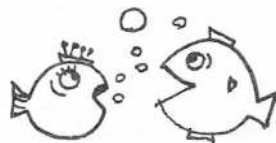
이러한 데서 軍精神教育은 피교육자들의 反應, 意見表出을 장려하는 討論式 분위기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면에서 討論하는 方次을 교육자가 잘 活用하지 못하고, 진행에 있어 非民主性을 보임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식 교수방법이나 교재의 연구·보급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軍精神教育은 軍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즉 靑年·高學歷의 集團, 공동체적인 삶, 개인의 성장을 조직 안에서 도모하고, 民主市民, 民族愛教育의 實踐場으로서 祖國을 지키는 愛國靑年戰士集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계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극복하는 問題解決能力, 各道의 다양한 個性을 가진

다양한 삶에 대한 理解와 協同, 그리고 각자 맡은 바 責務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實踐을 통해 軍生活이 成熟한 市民에 이르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귀한 學習場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서 내무생활의 명랑화와 함께 일과후에 자기발전을 위한 독서나 對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制度的인 면이나 실제에 있어 비공식적 고참집단에 대한 실질적 意識教育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非民主的인 면과 부조리한 일제잔재·사대주의적인 면도 추방하여 진정 民族史의 正統性을 수호하는 軍隊로서 그 一員이라는 사실에 自負心을 갖고 生活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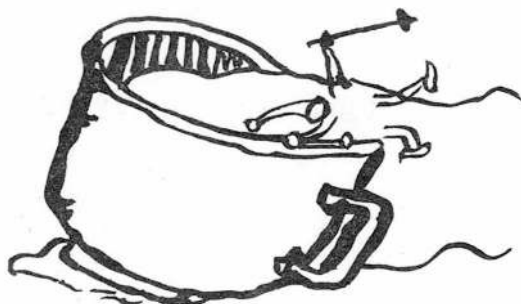
이러한 軍生活의 기반은 어떠한 狀況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어떠한 난관도 감수·극복할 수 있는 意志와 信念을 갖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은 작게는 나 자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 그리고 우리사회·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나의 현재 삶을 중시하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부단히 努力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일이 아닐까 한다.



조선노동당의 실체

이 명 영

〈성균관대 교수〉



우 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를 점진적으로 전진시키는 일과 민족통일을 촉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그동안 민주화가 순조롭지 못했고 통일을 위한 준비가 막연했던 것은 조선노동당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의 실체를 이해한다면 통일의 성립을 위한 구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치인에서 국민에 이르기까지 조선노동당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먼저 우리나라 민주화의 실체를 보자.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

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대통령직 선제와 평화적 정권교체, 그리고 소선거구제 등의 실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여 완전한 민주주의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더미같이 산재해 있다.

하나의 예로, 새마을 본부회장 재직시의 부정·부패·비리가 쏟아져 나왔다.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사람에게 구속·입건시키고, 노동환경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원하는 노동자에게는 시위 및 소요 등을 적용하여 법의 강한 제재를 받게 했다. 그러나, 온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까지도 왜 국가권력이나 법은 가만히 있었는지? 민주

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 앞에는 모든 국민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농부, 장이든 말단사원이든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시행은 민주주의의 기본 방침이 된다. 국가권력의 모순과 비리, 부정, 부패가 거듭될수록 국민은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을 가슴에 담게 된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개척함에 있어서 현시점은 중요한 고비가 된다. 조선노동당의 실체를 파악하고 확실한 사상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김일성에게 또다시 불장난을 당하지 않게 되려면 말이다.

우리의 통일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조국이 분단된 지 40여 년이 되어가지만 통일을 위해서 진전되는 사항은 아직 뚜렷한 것이 없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이 어떤 집단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의 근본인 분단의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분단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분단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분단의 책임은 미·소 강대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내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방전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이었다. 왜, 3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가? 인간을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갈라놓을 수는 없다. 헤어지기를 강요한다고 해도 서로가 할 수가 없을 때에는 갈라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민족이 분단될 만한 주체적이고 내적인 갈등의 원인이 없었다면 미·소 강대국이 분단시키려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남이 어떻게 했는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단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제시대때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나는 계급지상, 국제지상의 계급주의그룹과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민족주의 그룹이었다. 계급주의는 공산주의혁명의 기본이론으로 계급위주의 정치로써 민족별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주권국가가 아닌 국제주의로서, 프롤레타리아 앞에는 민족도 국경도 무시된 계급제일의 형태이다. 반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모든 가치가 개인에게 있는 개인주의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민족주의로 발전한다. 민족주의란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을 때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독립이 되면 개인주의·민주주의가 되는 것으로 민족이 없이는 개인도 계급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민족은 어떠한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진정한 민족,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민족주의, 계급주의가 서로 적대관계를 갖고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테러를 자행했었다.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이 되어서 투쟁하게 되었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기수 소련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군의 군대가 집결해 있는 서울에는 민족주의가 각각 집결하여 해방을 맞게 된다.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독립정부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우리는 대립하여 있었다. 이것은 남북으로 분단되는 데 중요한 정치적, 사상적, 정신적, 감정적 원인이 된다. 우리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국가가 존재할 때 우리 모두도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너무도 개인적인 것에만 집착하였다.

이것이 민족이 분단된 내부적인 원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스탈린의 이익대행에 있었다. 스탈린은 북한에 민주기지노선의 기본방침으로 김일성에게 3대지령을 내리는데 북한에 단독 공산당을 건설·수립하여 한반도를 공산화하기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81년 「인민조선과 소비에트와의 관계-1945-1980년까지-」라는 소연방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책에서 밝혔는데, 8·15해방부터 1980년까지의 소련·북한과의 조약체결 관계문서에서 발췌하여 '81년 소련이 발표하였다.

8·15해방 후 스탈린은 1946년 2월 8일 조선노동당의 전신인 북조선공산당, 북조선인민위원장인 김일성에게 남한을 무력통일시킬 수 있는 시한을 5년으로 정해 준다. 이 기간의 설정근거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장관이기도인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미국측에서 제안하기를, 한국은 아직 지

식수준이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아직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미·소·영, 중 네 나라의 공동신탁통치 후에 독립시키자고 제의하여 신탁통치 기간은 5년으로 잡고 5년 후에 다시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의했으나, 소련측에서는 5년이면 충분하니 5년만 하자고 답변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제의한 5년이란 기간은 곧 전쟁준비를 위한 기간이었다. 스탈린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김일성은 무력남침을 도발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6·25의 무력남침으로 말미암아 남한과 북한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굳어졌다. 이것이 분단이 고정화된 기본원인이다.

그러나 적반하장격으로 김일성은 자신의 잘못을 도리어 미국과 이승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이론으로 1955년 4월 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소집시 「조선혁명의 성격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것에는 남한을 혁명시키기 위한 기본노선 전략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김일성은 레닌 혁명노선 4월테제를 이어받은 이론을 선정하는데, 레닌의 4월테지론은 사실분석에 입각한 이론이나 김일성의 경우는 모두가 왜곡된 표현과 김일성을 이상화시킨 내용이다. 김일성은 8.15 해방후 이승만이 한반도를 분할통치를 위해 단독정부를 수립했고 6.25는 미국의 조정에 의한 북침이었다고 생떼를 쓰면서 혁명이 안되는 모든 원

인은 미국에 있으니 한반도 미군의 주둔을 철수해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역사를 교묘하게 조작한 술책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가 분단된 원인은 세계 강대국이 아니라 김일성과 스탈린, 그리고 화합하지 못한 우리민족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면 통일의 방법을 모색해 보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방법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의 기술도입과 교류를 증진·확대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폐쇄된 사회의 유일혁명사상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서 일단 만남이 이루어져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체육과 문화를 교류하고, 기술도입과 경제교류까지 확대진행시켜 선의의 경쟁국으로 민주주의의 모범국과 사회주의의 모범국으로 서로를 인정하여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대외에서는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때 우리는 통일의 그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서독과 동독처럼 국가원수가 정식으로 초청되어 환영받는 방문을 하고 소포도 교환하는, 더 나아가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산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보자.

공허한 사상, 역사, 조선노동당을 단절시켜 분단과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역사의 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主体思想과 实用主義

김 건 섭

(중령, 공군본부)

I. 序 言

오늘날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별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한다. 1972년 12월 27일 북한이 새로이 채택한 헌법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은 '主体思想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했으며, 북한의 통치이념은 主体思想이라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선전물들은 主体思想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스탈린주의, 티토주의, 모택동사상 등과 버금가는 정치사상이며, 이를 창시한 김일성이야말로 이들과 같은 수준의 사상이론가요, 철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당국자들은 이 主体思想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현세에 맞게 발전시킨 정치사상이라고 하며, 마르크스주의가 유럽의 資本主義社會에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준비하던 시대의

사상이었고, 레닌주의가 한 국가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社會主義革命이 궤도에 올랐던 시대의 사상이었다면 '主体思想은 오늘날은 세계에서 帝國主義'植民主義를 종식시키고 民族解放과 社會主義를 위한 혁명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현시대와 共產主義 미래의 '전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사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는 마르크스가 예언한 대로 발전해 오지도 않았고, 주체사상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이 지상에서 북한 외에는 별로 없으며, 북한 자체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I. 主体思想의 概念

김일성은 그의 主体思想에 대해 定義하기

를, 어떤 社會主義國家가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해 가는 過程에서 當面하는 諸般문제들을 자국의 실제적인 조건에 맞춰 자국의 獨自의인 노력으로 해결하는 원칙이라고 하며, 마르크스·레닌의 진리는 한 社會主義國가의 역사적 조건, 국가적 특수성과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김일성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누구든지 자기 주위의 환경에 예속되지 말고 주위환경을 자신의 의사대로 조정·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자신의 사상을 ‘人間中心的’이라고까지 선전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主体思想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自主性’, ‘創造性’, ‘意識性’이 바로 그것들이다.

1. 自主性

自主性이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주위환경에 예속되지 않고 주위환경을 자기의 의사대로 조정·통제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革命과 建設의 주인으로서의 權利를 옹호하고 責任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革命과 建設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自主獨立을 강조하는 원칙을 말한다.

2. 創造性

創造性이란 革命의 주인인 사람은 무궁무

진한 창조적 지혜와 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客觀世界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모든 것을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가야만 자연과 사회를 잘 개조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主義革命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환경조건 즉, 국가적 특수성에 맞춰 적용함으로써 모든 도식과 教條를 배격하며, 남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낡은 관념을 배격하고 獨自의인 사고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3. 意識性

意識性이란 사람이 올바른 思想意識을 가질때 自主的이고 創造的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思想的으로 각성하여 思想意識을 가져야만 革命과 建設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原則이다. 思想的으로 각성하지 못한 人民大衆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어설 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개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思想意識이란 階級意識을 말하며, 계급투쟁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이야기되어진다.

Ⅲ. 主体思想의 形成背景

김일성은 思想에서 主体,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 이상 네 가지 原理를 ‘主体思想의 指導原則’ 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要約한 主体思想의 概念

이 形成되기까지의 背景을 설명하자면 이 네 가지 지도원칙의 하나하나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의를 먼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1. 思想에서 主体

‘思想에서 主体’란 한 마디로 事大主義를 배격하고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주의식을 강조하는 지도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조선민족이 역사적으로 일본, 중공, 소련 등 주변강대국들의 희생물이 되어 오면서 事大主義的 근성을 갖게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日本帝國主義者들이 조선사람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짓밟고 殖民地根性を 심어 주었기 때문에 事大主義的 根性を 뿌리뽑고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자신조차 중·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政治에서 自主

‘政治에서 自主’란 党的 自主路線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세계의 모든, 共産黨들의 상호, 관계에서는 ‘完全한 平等’, ‘自主’, ‘相互尊重’, ‘내정불간섭’, ‘동지적 협조’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이 党的 自主路線을 내세우게 된 것은 물론 소련과 중공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에서 친소파의 박창욱, 연안파의 최창익 등이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있는 스탈린 격하운동에 힘입어 김일성의 개인숭배를 반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다가 숙청되었다. 스탈린 격하운동과 더불어 소련의 대내외정책이 변하고, 國際共產主義運動이 多元化되는 機會를 이용하여 김일성은 오히려 자기의 개인숭배를 고수하면서 친소파와 연안파를 제거하고 소련과 중공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김일성은 196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중소분쟁, 1962년의 쿠바사태 1964년의 흐루시초프 축출, 중공의 文化革命 등 중공과 소련이라는 공산권 양대국의 정세변화를 교묘히 이용하여 양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주노선을 내세우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3. 經濟에서 自立

‘經濟에서 自立’은 한 마디로 自力更生을 의미한다. 國際分業이란 강대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國際分業化에서는 強大國이 弱小國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것이며, 약소국의 독립된 종합적 경제발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기술과 함께 도입된 외국의 기체는 事大主義 根性を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국제 간의 경제협력은 필요한 것이지만 원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相互平等의 원칙’에 입각한 무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에서 自立’ 즉, 主体經濟는 중공업 우선정책을 의

미하며,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갈구하여 더 많은 생활필수품과 식량의 생산을 요구한 박창욱, 최창익 등은 앞에서도 언급한 개인숭배문제와 아울러 숙청되고 만 것이다.

4. 国防에서 自衛

‘国防에서 自衛’는 문자 그대로 자기 나라를 자체의 힘으로 보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즉,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나라의 주체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종전의 중소군사교리를 모방하지 않고 한반도의 지형적인 특수성과 韓國戰爭의 경험을 교훈삼아 북한의 독자적 軍事敎理로서 4大軍事路線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전군 간부화’, ‘전 인민 무장화’, ‘전 지역 요새화’, ‘전 군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북한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고성능의 현대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3개월 동안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탄약·유류 및 식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한반도를 무력적 화통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방에서 자위’를 부르짖고 있으나 사실은 국방문제에 관한 한 중소와의 우호방위조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主体思想의 문제점들

1. 이론적 평가

북한의 선전물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탁월한 사상이론가이신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인류사상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우리시대와 共產主義 미래의 전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革命思想과 이론의 창시자이시다’라고 선전하며, 김일성을 독창적인 창의력을 가진 사상이론가이며 철학자라고 한다. 그러면 主体思想이 과연 김일성의 창의력이나 독창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김일성의 主体思想은 대체로 별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왜냐 하면, 主体思想의 현실적 적용이 전무한 것이기 때문이다. 主体思想은 김일성 자신이나 김정일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북한주민 전체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共產主義理論은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적용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모택동사상이 모두 그러하였다. 즉, 共產主義思想 理論은 구체적 정책에서 탄생했고,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진리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主体思想에 대해서 고찰할 때 김일성 자신이나 김정일의 경우는 主体的 世界觀을 가질른지 모르지만, 북한주민의 경우는 한 번도 독창적이거나 창의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된 적

이 없다. 김일성의 主体思想은 共產主義理論으로서는 무가치한 빈 껍데기로서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다.

두번째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主体思想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관해서이다. 우선 主体思想은 다른 共產主義 이론가들이 이미 말한 것들을 되풀이 반복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主体思想의 맨처음 대목인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리를 한 社會主義國家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수성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는 주제는 이미 레닌이 말하고 실천한 것으로서, 레닌은 당시의 영국, 독일, 미국 등 現代産業社會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마르크스이론을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었으며 농경사회였던 제정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더우기 이와 같은 내용은 모택동이 쓴 글 중에서도 여러 군데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 김일성의 主体思想은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된 현실성없는 빈 껍데기 선전용으로서 몇 가지 간단한 주제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2. 主体思想 과 오늘의 북한

오늘날의 세계는 급속하게 변해 가고 있다. 共產主義 世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세계적 변화란 산업화 또는 근대화,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적 분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체제의 제도화를 말한다. 오늘날의 국가들은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면 資本主義國家들은 社會主義的 방법도 택하기를 서슴치 않고, 共產主義國家들은 資本主義的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共產主義國家들도 이러한 産業化·近代化를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 휩쓸려들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개발, 국제무역의 확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운영의 효율성, 이들을 위한 제도적 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수용하는 공산국가들의 정책을 통칭 實用主義라고 하며, 197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동구라파, 중공 등의 국가들은 모두 위의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했고, 소련도 지난 1986년 3월의 제27차 당대회에서 고르바초프(Gorbachev)가 實用主義的 路線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공산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의식하고, 무엇보다도 남한에 비해 날로 낙후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현실상 實用主義를 채택한 것 같다.

1984년부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체제를 개방하고 무역을 확대하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등 동구라파나 중공처럼 자본주의적 방법을 시도한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實用主義路線을 채택함에 있어 김일성의 主体思想은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욱 근본적으로는 북한주민들과 지도자들의 합리적 사고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産業化·近代化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가. 북한의 實用主義

북한의 實用主義는 먼저 개방정책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북대화는 1984년 9월 북한이 수재물자를 남한에 제공하겠다고 제의해 옴으로써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측의 이러한 제의는 과거 천재지변때마다 해 온 남한에 대한 상투적인 선전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며, 북한에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는 남한도 북한에 대해 이러한 제의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이 북한의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북한의 수재물자를 받아들인 까닭은 그 물자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하튼, 이렇게 하여 다시 시작된 남북대화는 1976년에 단절되었던 직통전화를 재개통시키게 되었고, 1984년 11월 15일에는 판문점에서 경제회담을 열어 경제교류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어 1985년 6월 20일에 부수상이 주도하는 남북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합의를 보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으로서 북한의 커다란 태도변화라고

분석된다.

그 후 계속된 일련의 남북대화는 팀스피리트훈련 등을 구실로 내세우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다.

두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북한의 實用主義的 노선채택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한 合營法제정 등의 일련의 정책이다. 그 외에도 경제에 있어 소비재생산의 증가운동이나 각종 서비스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實用主義的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主体思想과 實用主義

김일성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세우고 있는 그의 主体思想은 實用主義를 싹트게 하는 合理的 思考를 말살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중공에서 전개된 이론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홍(紅)·전(專)의 대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實用主義란 다름아닌 '전'의 문제로서 이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홍'에 해당하는 주체사상의 수정 내지 개조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발전에 관한 한 물질적 자극이 생산의 중요한 촉진제인데, 主体思想은 인간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농민의 사상개조만 강조하고 있고, 국가경제에 있어 주체사상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보다는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이외의 측면에서도 主体思想은 국수주의에 가까운 고립화를 그 주조로 하고 있는바, 북한의 主体思想과 實用主義가 쉽게 융화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다. 主体思想과 動員政策

主体思想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동원기능이라고 하겠다. 즉 主体思想은 의식성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모두 혁명화하여 국가의 근대화작업에 조직·동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등은 모두 주체사상의 동원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들이며, 모두 근로자들의 정치의식과 대중참여에 호소함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근대화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主体思想에 기초한 동원방법은 소위 實用主義的 경제정책과는 조화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제발전문제는 중공의 경우처럼 홍·전의 이념적 논쟁에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북한의 동원경제는 초기에 급속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에 분명하다. 즉, 이러한 성장은 유희생산설비와 자원, 그리고 실업 또는 반실업상태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데서 얻어지는 단순확대성장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경제학자들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제 1차 7개년계획(1961~1970) 동안에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7개년계획은 10년 만에 완성되었다. 그 이후 계속되는 경제성장의 둔화현상의 주요인은 社會主義 경제에 있어서 '홍(紅)'의 방법의 한계와 관계되는 것이다. 성장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중공의 등소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효율성의 증대와 기술적 진보가 뒤따라야만 하는데, 최근 들어 김일성·김정일이 시도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은 이상과 같은 主体經濟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지는 않는다.

라. 김정일과 主体思想

1984년 이래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의 實用主義는 김정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논평이 빈번히 들린다. 국내외의 학자들 중에는 김정일이 '현대의 과학지식을 소유한' 많은 과학자들과 젊은 지식인들과 더불어 북한을 새 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는 이도 많이 있지만, 그의 정책들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김정일은 主体路線을 충실히 걷고 있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主体思想은 그가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도되는 實用主義政策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主体化

김정일은 '은 사회를 主体思想化, 시킨다'고 한다. 이는 인간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는 캠페인인데, '革命'을 위하여 생명도 바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일성 부자의 소망대로 인간을 개조하겠다는 노력이며,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회화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速度戰

김정일은 소위 '速度戰'이란 것을 받고 있다. 이것은 현대판 천리마운동인데, 생산

을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인민들의 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캠페인이다. 이 速度戰의 예를 들면 ‘100일 전투’, ‘70일 전투’ 등이 있으며, 이들의 의미는 100일 혹은 70일 이내에 작업을 완성시킨다는 것이다. ‘80년대의 速度戰은 “80년대 速度戰, 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뜻하는 바는 ‘60년대나 ‘70년대보다 더 빨리 작업을 끝낸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천리마 속도에 추가된 ‘80년대의 速度戰’ 등이다.

(3) 3대혁명노조운동

김정일의 가장 대대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소위 ‘삼대혁명노조운동’이라는 것인데, 이는 그의 아버지 김일성이 고안해 준 것이다. 3대혁명이란 사상·기술·문화혁명을 말하며, 3대혁명노조란 과거 중공의 홍위병과 유사하여 젊은 당원, 젊은 노동조합 대표, 사로청대표, 경제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생산현장에 파견되어 노동자들을 독려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원들이 북한관 군중노선인 ‘청산리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들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도하면서 3대혁명노조운동 중 ‘기술혁명’을 강조하고 나서기 때문에 북한의 實用主義를 낙관시키는 경향이 많이 보인다. 즉 김정일과 새 시대의 지도자들은 더욱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되고 기술적 문제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기술혁명’을 강조한다고 해서 3대혁명노조운동이 북한 실용주의

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3대혁명노조운동은 본질적으로 主体思想의 기초 위에서 구상된 청산리방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김정일은 사상·기술·문화혁명 중 사상혁명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상개조사업’이 ‘과학·기술사업’보다 우선임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들어 경제정책을 변경시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북한이 비공산국가들과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무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북한도 중공처럼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상과 같이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약간의 경제정책을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主体思想의 교리를 수정하겠다는 의도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김정일이 實用主義를 진실로 원하더라도 체제를 급속히 개방하면 북한의 가치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므로 주체사상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을 외부의 영향력에 표출시키기를 원치 않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主体思想을 고수하는 동안 主体思想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데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어쩌면 實用主義를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V. 결 어

1980년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온 美하원 아시아·태평양문제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 솔라즈(Stephen Solarz) 의원은 최근 ‘북한의 특수성에 관하여 무언가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책의 참된 변화를 너무 과도하게 기대한다는 것이 경솔한 생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특수성이란 극단적인 김일성의 이상화, 그리고 그를 “아버지 수령”이라고 부르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국민들의 기괴한 행태를 지칭한다. 사회를 외부에 노출시키면 이는 알몬드(Almond)와 포웰(Powell)

이 “이념적 정치문화”라고 부른 북한의 정치문화상에 불연속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북한의 이념적 생활방식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主体思想을 뜻하며, 김일성이 살아 있는 동안 主体思想을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主体思想은 북한의 實用主義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을, 공격적 인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 主体思想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통제와 빈곤밖에 없는 것이다. 主体思想은 이미 골동품이 되어 가고 있다.





전역소감



류 동 훈

(중위 제3659부대)

벌써 3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가!
 단기 복무자로서 항상 가슴속에 전역의 때를 기다리며 사회진출후의 생활을 기대하고 지내온게 사실이지만, 막상 원고지를 앞에 놓고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보면 동료들과 함께 지낸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에서의 짧은 한 시기에 대한 애착이, 지난간 세월에 대한 상념과 함께 가슴속에 조그만 파문을 일으키게 한다.

입대 전날 나는 대구 근교의 주봉(主峰)인 팔공산에 혼자 올랐다. 별스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주 찾던 곳이고 또 입대란 것이 과거와의 단절로 생각되던 여건에서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 볼 여유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3월 중순의 쌀쌀한 산바람이 손과 귀를 스치는 속에서 눈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계다가 양지쪽

산등성이는 눈이 녹아 땅속으로 피어들다가 어느 정도 내려가서는 샘이 시작되고 개울물이 되어 산행의 갈증을 풀어 주는데, 그 물을 실컷 마시고 나니까 인삼 보약을 먹은 듯 “능히 이 힘이 3년은 가리라” 싶었다.

79기로 K-2에서 근무하고 있던 모소위의 얘기로 “훈련기간에 구대장으로 ○○○을 만나면 고생이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구대편성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아뵐사, 상당한 악연으로 군대생활이 시작되는구나! 하필 그 구대장을 만나 그의 소신있는 지휘하에 나의 온 전신을 까마득히 남아 있는 훈련기간동안 헌납(?)해야 하다니…….. 훈련기간중 가장 힘든건 뭐니뭐니 해도 식사군기를 지키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직각식사의 어려움에다가 고개를 고정시키고 눈은 상방15° 를 주시한

채 순전히 감각으로 밥과 국을 대충 떠 넣는데, 혹 식단이 무엇으로 짜여져 있나 하고 눈을 내리깔고 앞에 앉아 있는 후보생의 식판이라도 쳐다보다가 구대장에게 지적받는 날이면 영락없이 간장통을 머리에 이고 식사를 하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되는데, 이 때 속으론 가장 원초적인 생리욕구 즉 식욕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주의했던 자신에 대한 당혹감과 회한이 가득히 차오르며, 식당 가득히 들어차 있는 구대장과 후보생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투쟁이 새삼 의식되는 것이다.

아! 누가 인생을 아(我)와 비아(非我)의 끊임없는 투쟁이라 했던가! 그리고 그 말이, 어찌 지금 이순간에 이토록 가슴에 가득히 와 닿는가! 훈련기간 중에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육체적 극한을 경험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전투훈련장에서 굴러이동을 오후 내내하다가 너무 곤하여 심지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라도-훈련기간 중 이런 경우는 100%없다- 1주일 두번의 종교행사는 꼭 참석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주어지는 반대급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여건 속에서 생활환경을 바꾸어 봐야겠다는 삶의 방편으로, 또 얼마 지나서는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봐야겠다는 오기로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강하게 나를 이끈 유인(誘因)은 내무교육이 끝난 후 처음

참석한 종교행사에서, 피죄죄하고 땀에 절어 퀴퀴한 냄새를 성당 가득히 피우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 불러 주던 수녀님들의 찬송가에 반했다고나 할까? 그 찬송가를 들으며 나는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콧 쏟아 버렸다.

어째서 흘리는 것인지 나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흘린나의 모습을 되새겨 보기 위해서였을까? 여하튼 난 임관의 그날까지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성당엘 나갔다. 훈련기간중 두 번 눈물을 흘렸는데, 또 한번은 어버이날이었다. 기상 나팔과 함께 촛님의 허비도 없는 경제적 행동으로 연병장에 집합하여 점호를 실시하는데, 그날따라 부르는 군가의 제목이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와 함께 점호를 끝내게 되었다.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러 오랜 집단피교육 생활의 중압감을 벗어나기 위해 단순한 일에서 웃음을 찾고자 하는 집단현실도피증(?)이 생길 때쯤이면 막바지 훈련도 끝나고 외출의 기쁨이 주어진다.

특기교육 때는 운동부족이 되어 생각해낸 것이, 점호후 소등전까지의 연병장 구보, 한참 더울 때이라 팬티만 입고 10여회 돈 후 내무반에 돌아와 샤워하고 침대에 들면 상쾌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러한 나체구보례의주시해 오던 모구대장에 적발되어, 매일매일의 기록 단축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마저 박탈될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다.

훈련기간은 누구에게나 특이한 경험일 것이다. 이 때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것 같

은 것도 같이 하니까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우애의 출발점이 아닐까?

나로 하여금 내가 하기 어렵다고 여기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준 주위의 사람 그리고 앞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같이 공동의 적과 싸우게 될 사람.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전우애를 느낄 수 없으리라.

임관전 선배장교들이 찾아와 각 부대를 소개하는데, “○○에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해서 임관후 그 곳에 배속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곳이 사이트를 관장하는 곳일 줄이야! 콜라로 이를 닦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는 부적합하고 나오는 전혀 인연이 없는 곳으로 생각해 오던 곳이 이렇게 내앞에 다가오다니……

관리장교로서의 첫 무대는 서해안의 모래이다기지였다. 준비한 유수의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곳으로 올망졸망한 리아스식 해안이 돋보이는 경치가 좋은 해변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일몰의 경치를 감상할만한 경관을 가진 곳에서의 생활을 기뻐할 만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처음 객지생활을 해보는 기대감도 있어 기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년동안의 사이트생활은 관리장교로서 봉급 부식비 등의 제공여 지급, 예산집행기능을 통한 부대비품의 구매, 저축증대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국방관리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교육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참모로서 대대장 보좌기능을

포함하게 되어 정규적인 업무의 순환에서 오는 지루함도 덜 수 있었다.

이때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다. 당시 모 중대의 예산집행문제를 놓고서 동부대 중대장과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 중대장과 불미한 일이 있게되고 나로서는 상당한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후 현실과 이상 또는 조직이 바라는 것과 개인의 의지, 소망 등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한번은 나로서 흐뭇한 기억이 있다. 대대장의 지시로 생각지 못한 단기병 구대장을 맡아 교육을 시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교육의 효과를 극대로 높일 수 있었던지, 교육이 끝난 후 모두가 “이번 차수는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할 땐 관리장교의 업무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는 초급장교가 느낄 수 있는 난관과 성취감을 다 느껴본 셈이다. 초급장교가 상명하복의 군조직이 요구하는 지도원리에 충실하느냐 또는 자기의 의사를 고집하느냐의 문제는, 군조직이 특성상 유일무이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의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군도 그 조직상에 있어서 과거 한 때의 비합리적인 점들은 제거되고, 사회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자칫승리를 목표로한 집단이란 점을 강조하다 보면 하부지휘층에 가서는 그 구성원의 사고가 상대에 대한 제압 등 수직적으로 구조화 됨으로써, 이런 구조에 대한 염증 또는 이러한 구조하의 오랜 생활로부터 오는 무기력증이, 협조부서간에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고유의 협조업무마저 이행이 지연되거나 개인의 능력화시켜 개인적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불합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2년여의 사이트생활 후 고향으로 전속되어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즐거움도 맛보게 되었으니, 군생활에서 두루 모든걸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주위에 더욱 많아진 동료, 짝 싸여진 업무 한 부서의 책임자로 있을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른 홀가분함 등으로 얼마 남지않은 군생활을 보내고 있다.

3년이 넘는 생활 중에서 배운 것이라면 함께 사는 지혜라 할 수 있다. 혼자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더 큰 힘을 얻게 됨을 배웠다. 경험은 많고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하사관들중에는 초급장교의 기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함께 사는 생활중에서 모든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의식적으로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이 존재하게 되는걸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얼마되지 않은 군생활이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장교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보다는 업무수행에 대한 방향을 지시하고, 업무능력을 조정하여 부하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스스로 업무에 숙달되어 창조적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도 초급장교에게는 중요하지만, 인간적 신뢰감을 줌으로써 부하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시키고 부하로 하여금 따르도록 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부하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는 부하에게도 요구하지 말며, 부하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부하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둘째, 엄격하고 온정이 있으며 관대해야 한다. 엄격 일변도여서는 부족하고 엄격하되 위압감은 없고 예의를 지키며 부하를 편안히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셋째, 결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교는 때로는 부하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이다 결단하기 전에 항상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전진 혹은 후퇴하는 결단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는 심적자세를 항상 갖추어야 한다.

이상의 것은 어디에서나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 앞으로의 생활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후배장교들의 앞으로의 군생활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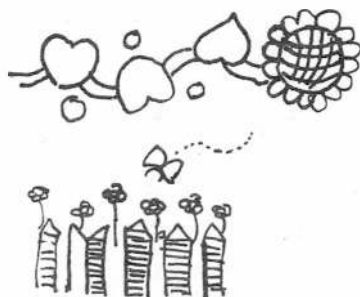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지난 생활은 조국, 의무 명예의 신성한 세 단어가 항상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시절이었다. 자랑스런 초급장교

시절. 그런 자랑스러움 속에는 시도와 성취 그리고 좌절의 여러 경험속에서도 의연하고 굳건한 태도로 항상 새로운 바람이고자하는 오연함 또한 가슴깊이 담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후일 생을 되돌아 볼만한 때가 되어 나의 생이 찬란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일관된 삶을 살아왔노라고 부끄럽지 않게 자

부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원동력으로 자랑스럽던 초급장교시절의 한 때를 생각하리라.

인내심을 배양하며, 조국, 의무, 명예의 숭고함속에 항상 새로운 바람이고자 스스로 오연 할 수 밖에 없었던 한 젊은 시절이 있었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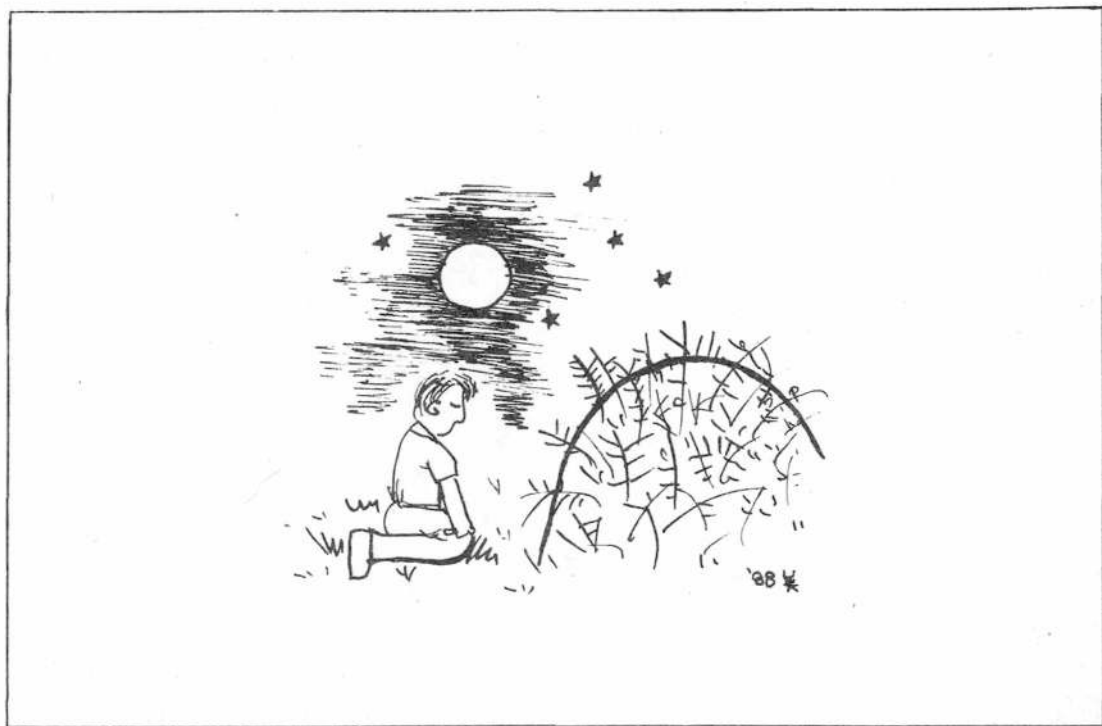


□ 반공 소설 □

아버지의 무덤

글.尹 昌 鏞

그림.金 美 愛



겨울

가뭄이라드니 고속도로 주변의 논밭은 비기다리는 모양으로 앉아있다. 앵두할멈이 어서 선뜻은이 얼어죽기 딱 좋은 추위를 쌈지에 넣고 가서 야지 도대체 입이 찌억쩍 달라붙어서 말조차 할 수 없다.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면 눈이라도 내려서 언테다 말라버린 논밭에 해갈이라도 하게 해주어야 할텐데 겨울눈은 메말라 있었다.

서울을 떠난지가 삼십여분이 지났다. 고속버스안의 승객들도 5시간 반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죽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훈훈한 히터의 열기와 웃기지도 않은 코메디를 보여주고 있는 비디아가 잠을 방해하고 있을 뿐 다시 고독으로 가장한 암울과 권태가 엄습해 오고 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는 나에게 말을 걸려고 결눈질로 자기와 엇비슷한 일만 생기기만 하면 나서겠다는 눈치이고 혼자 있고싶은 생각에 나는 일진 사나운 오늘을 꽤 심하게 타박하고 있다.

외삼촌이 위독하다고 연락을 받은건 오늘 출근 직후였다. 아내의 칭얼대는 소리를 귀찮은 듯이 흘려버리고 출근한 후 기분이 영 찻찻한 상태에서 다시 아내의 전화가 온 것이었다.

“왜 전화했어?”

통명스럽게 아내에게 묻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외숙부님이 위독하시데요, ”

“아니, 어느 숙부님이? 속초숙부님 말하는 거야?”

“아, 그럼 당신한테 속초 숙부님 말고 또 외숙부님이 계세요?”

“언제 전화왔어?”

“조금전예요, 빨리 내려오시라고 형근이 아저씨 한테서 전화왔어요.”

“알았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멍한 상태가 되었다.

“어떻게 하실꺼예요? 내려가실꺼면 집에 들렀다 가세요. 예?”

나는 대답대신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 놓았다. 빨리 속초에 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생각보다는 “숙부님 위독”이라는 말 자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어지럽혔다. 나는 출근하자마자 며칠 결근해야겠다는 말을 과장에게 하기가 어려웠다. 과장이라고 하는 녀석은 나와 입사동기인데다가 나는 공채로 회사에 들어와 뼈빠지게 연수를 받고 한숨돌리고 있을 때 이 녀석은 유유히 나타나 우리 입사동기가 되었다. 그것도 사장과 육촌이라는 이유로 나보다 빨리 대리가 되었고 이제는 과장이 되었다. 아직 대리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나

에게 여러 모로 잘 해주고 있지만 괜히 잘난척 하는 녀석 꼴이 늘 심사를 뒤틀리게 하였다.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사무실 형광등만 쳐다보고 있는데 과장이란 녀석이 내게 다가왔다.

“야! 김대리! 무슨일 있어?”

나는 멍한 상태에서 졸린 눈을 번쩍뜨며 놀란토끼처럼 과장을 쳐다봤다.

“응, 외숙부님이 위독하시데!”

“뭐? 아, 이 사람이 그런 것을 왜 지금 이야기 해? 아까 자네 집사람한테 온 전화가 그 전화였군?”

“응, 그래”

“빨리 갔다 와.”

과장은 내 코트를 옷걸이에서 가져와 내게 손수 입혀주며 내 등을 밀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로 전화하고.”

〈무슨일이라니,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외숙부님이 돌아가신다는 말? 이런 제기랄!〉

제기랄 소리를 몇 번이나 하고 집에 왔는지 아내가 문을 열어줘도 제기랄이라는 말로 대꾸를 하고 집에 들어섰고 옷가지를 챙겨 내 손에 가방을 쥐어주고 잘 갔다오라는 아내의 별로 따뜻하지 않은 말에도 제기랄이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숙부님이 돌아가신다면?

나에게는 아버지쪽의 숙부님이 계시질 않는다. 계셨다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계시지를 않았다. 하긴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놈이 작은 아버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외숙부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진배없으신 분이시다. 나는 자라면서 외숙부가 나의 친아버지라면 좋겠다는 심통을 부리며 컸고 그런 나를 친자식처럼 키우셨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천붕이라고 한다. 그렇게 자상하시고 나를 아끼시던 외숙부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나의 정신적인 지주를 통채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유복자로 컸다. 어머니가 나를 혼자 낳으시고 외삼촌과 같이 대학까지 보내시며 나를 키우셨다. 외삼촌과 같이 나를 대학에 보내셨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도움이 거의 외삼촌에게서 왔다는 것이다. 고생을 하시며 나를 키우신 어머니는 못난 아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시고 가시려는 했는지 내가 결혼한 그해 가을에 잘 있으라는 한 마디만 아들 가슴

에 남기고 영영 못오실 길을 가시고 마셨다. 하긴 고생하며 벌어놓은 돈은 내밀으로 다 들어가고 남아있는 것도 없으니 주고 가실거라고는 내 몸뚱이 뿐이었다. 나는 유달리 남보다 나은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머니는 나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었다.

혹시 남들이 아비없는 후레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이나 하지 않나 조바심하며 나를 키우셨다. 나는 아버지 없다는 것이 사춘기에는 그렇게도 서럽게 하는 원인이었지만 아버지없는 결점을 감추기 위해서도 남보다 앞설려고 무척 안간힘을 들이곤 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인간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지라 자기관리에 소홀하기도 했다.

대학 이학년 때 코가 삐뚤어지고 입에서 쉼내가 나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간적은 많았지만 그 날처럼 형편없이 취한적은 처음이었다. 늘 적당한 술기운이 자라면 나는 아버지없는 내 신세가 이상하리만치 부끄러웠고 친구들의 떠드는 소리는 마치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왜 내가 아버지가 없어야 하는지 무언의 항변을 하던 나는 그날 술기운을 항우장사의 힘이라 믿고 어머니에게 유언의 항변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자기의 인생이 서러워서 우셨고 나 또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또 다시 한뼉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울었다. 한없이 우시는 어머니와 함께 나는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장님이 날아가는 새를 잡듯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자학하는 것이, 또 어머니에게 나의 출생배경에 대해 따지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몹쓸 그놈의 술주정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휴학계를 내고 말았다. 외아들인데다가 신체등급도 낮아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나는 해병대에 지원을 했다. 그러나 나온다면 영장은 늦게 나오고 할 일도 없고 해서 속초에 있는 외삼촌댁에 가서 있게 되었다. 외삼촌의 구멍가게도 봐드리고 읽고 싶은 책도 읽으면서 지냈다.

속초는 나를 늘 푸르게 받아들였다. 내가 좋아하진 싫어하진 언제나 똑같은 색깔과 똑같은 소리로 나를 맞았다. 도대체 왜 내가 남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하고 이렇게 갈 곳을 찾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바다를 쳐다보면서 나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했지만 결론은 늘 소주였다. 꼬마 악다구들에게 하루종일 시달리다가 저녁나절 부두쪽에 나가 낮모르는 어부들 틈에 끼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찰랑대는 소주의 하얀액체 속에 나를 잠기게 해

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군대라고 하는 낯선 집단에 속할 자신이 두렵기도 했지만 어머니 자궁같이 편안한 속초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두타산에 올라가 백두대간의 웅지를 되집어 보기도 하고, 나는 어떤 놈인가라는 질문에 온종일을 소일하기도 했다. 바다는 늘 파란색이었다. 그 색깔이 빨간색이 되거나 분홍빛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줌 떠보면 하얀색이었고, 그것은 내손에서 비릿한 갯내를 풍기고 땅속으로 찾아들었다. 이십대의 솟아오르는 정욕에 시달려야 했고 꿈속에서 헤매이다가 만나는 여자의 몸에 나의 몸을 집어넣고는 그것이 전부인양 흐느적거리며 몽정을 했다. 그것은 생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욕망 앞에 무릎을 꿇곤했다.

어느날인가 외삼촌은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오셨다. 그리고 나를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셨다.

상처얼아아! 이놈의 새에끼야 이리로 오라무나! 으음! 꺼어억! !

숙모님은 꿀물을 탄다, 옷을 챙긴다 정신이 없고 외삼촌은 장난감을 뺏긴 어린아이가 안간힘을 쓰듯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다. 옆에서 외숙모가 술취한 숙부를 그만하시라고 말렸지만 끝내 외숙부에게서 나의 출생배경과 내가 그렇게도 보고싶어하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아버지에 관한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보통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미화한다든가, 미국으로 돈벌러 가셨다고 자랑하곤 했는데 나는 그런 끈도 없었다. 어머니 당신은 남편을 아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허름하게 보이게 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오인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또 사회적인 통념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처지였다. 내가 그날 밤 밤이 하얗게 새도록 외삼촌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이었다.

마을은 전쟁이 터졌다고 야단들이었다. 읍에서도 빨리 피난을 가라고 범썩을 떨고 있었고 조상을 두고 어디로 가느냐고 마을 사람들은 아우성들이었다. 현정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아 학교에 간 길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오빠조차 보이지 않았다. 인민군이 요양 신평리까지 왔다고들 야단이지만 집에까지 올리는 만무할 것 같았다. 이복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요사이 세상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 지기에는 모두가 태평성대였다. 꿈

많은 여고졸업생에게 전쟁의 참상은 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질투의 놀이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았다.

중신에미들이 총각사진을 들고 집을 들락거린지가 벌써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이거다 싶은 총각이 없는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꾸 혼사를 미루시기만 하셨다.

저녁만 되면 동네 총각들이 집앞에 와서회파람을 휘휘 불어 제껴도 평생원처럼 집안에만 있고 현정이 눈에는 웬만한 사내는 보이지도 않았다. 오빠가 명치대학에서 독일문학을 전공해서인지 몰라도 알지는 못하지만 문학이라면 괜히 사춘기의 그 훈훈한 열기를 데워주는 것 같아 가슴이 뜨겁고 사족이 다 떨릴 지경이었다. 지붕서까래만 쳐다봐도 시상이 떠오르고 웃음이 함지박만하게 입가에 번졌다. 혼사를 준비하는 식구들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결혼보다, 또 남자보다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멋져 보였다. 오빠가 보는 연애소설을 보고 가슴이 뛰기는 뛰어도 그것이 무슨뜻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다. 거울을 보면 현정이 자기 얼굴이 이쁘기도 하려니와 입술이 도톰하고 콧날이 오뚝한 것이 자기가 보아도 좋았다.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먹간을 할 때도 슬쩍 들어온 청주댁은 현정의 고운몸매와 잘룩한 허리선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오빠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며 밖으로 내칠 때도 현정이는 자기 자신이 아름다웠고 자신의 미래가 운동회 때 펄럭이는 만국기 마냥 손짓하는 것 같았다.

노란개나리를 쳐다보면서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상상했고 웨딩마치에 발을 맞추는 자신을 아름답게 그려보았다. 그런 현정에게 전쟁이 꿈을 산산이 흩어놓았다. 전쟁이 심상치 않다는 조짐이 보이자 동네에서는 집을 비우고 조상을 버리고 하나 둘 피난을 가기 시작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피난민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절망 뿐이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잘 산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인다고 했다. 지금까지 피난가는 것을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이었다.

‘너희들은 먼저 영월고모님댁에 가 있도록 해라.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도 가든지 할테니까.’

아버지는 식구들을 사랑에 모아놓고 출전을 앞둔 병사처럼 비장하게 말씀하셨다. 특히 나이가 찬 딸과 아들이 걸리시는지 한참동안이나 자식들 눈동자를 보시며 걱정에 걱정을 더 하시었다. 영월고모님댁은 읍에서도 멀리 떨어진 외진곳이었고 동네도 눈에 잘 띄이지 않는 형세를 하고 있었다. 옛날 임진왜란 때도 이쪽에 살던 고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난을 피해 있었다는 고씨동굴이 있었어 난을 피하는데는 안성마춤인 곳이었다. 하긴 찾으려

고 마음만 먹는다면 찾지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 곳이 일단은 속초보다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아버지는 하셨던 것이다. 산세가 험하기로는 영월이 유명하다. 조선의 비극적인 왕단종도 세조에게 힘없이 쫓겨나 계시던 곳도 영월이었다.

현정이는 오빠와 어머니, 그리고 노구이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영월고모님댁으로 피난을 갔다. 오누이로만 자란 아버지와 고모님은 평상시에도 정이 도타웠다. 고모님댁은 방학 때면 늘 가곤했고 고종사촌들 하고도 절친한 사이라 현정이는 전쟁의 긴박함이라든지 처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를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고 재어본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잃고 형제를 떠나보내도 현정이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피난생활을 더욱 방만하게 보내게 되었다. 사람에게는 각기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기 마련인 법이다. 현정이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방만하게 보내는 피난생활이 현정이에게 전부가 될 수 없었다.

전쟁은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산들은 울긋불긋 자지러지게 물들고 각각의 새들은 겨울로 향하는 자기들의 집을 꾸미느라 불분분 주하고 졸졸 흐르는 냇물은 한결음이라도 더 가겠다고 소리내고 있었다. 잘익은 과일들이 산에도 들에도 보아달라고 번쩍거렸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현정이 눈에만 보였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누구나 할 것없이 자기 몸을 추스리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전쟁통에 물자가 모자르고 사람들은 밥먹듯이 굶고 있었다. 산으로 들로 나가 주린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비참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통에 폭탄으로 이즈러진 산은 더우기 발가벗기우고 있었다. 현정이도 산으로 들로 쓰다니며 사람들과 소나무에서 마지막으로 뿜어내는 진을 모으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다. 송진을 모의면서 젊음을 구가하는 이 처녀는 세상의 어려움을 몰라라 하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정이는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남들에게 뺏기기 싫어서, 또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오빠를 피해서 나다니는 것이었다.

오늘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려라! 늘 돌아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

군에서 징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뉘자 곳간구석에서 허영게 세월을 보내는 오빠는

현정에게 잔소리를 아침밥 상머리에서부터 해댔다.

사사건건 간섭을 일삼는 오빠가 싫어서 잔뜩 독이 오른 목소리로

‘걱정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리고 마냥 돌아다니는 줄만 알아?’

‘어쨌든 오늘은 집에 있거라. 요새 밖이 시끄럽다.

‘전쟁이 뭐 그런거지, 오빠나 이쪽 저쪽 눈치보며 두더지생활 하지마!’

오빠는 늘 자기의 문약한 성격을 탓하며 젊은이답게 전쟁의 대세에 끼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겁이 많아서 엄두조차 못내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외아들이라 그렇다고들 하지만 꼭 그런것 만도 아니었다. 오빠는 한 마디로 현정이가 보기에는 남자 다운데라고는 쥐꼬리의 끝보다 더없는 사람이었다. 오빠를 늘 시시껄껄하게 생각하는 현정이가 집에 있을 턱이 없었다.

그날따라 울적한 마음과 오빠에 대한 미움으로 너무 멀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게 많이 걸었다. 곳곳에 피어있는 억새풀이 늦가을을 맞이하는 처연함으로 흔들리고 있고 오솔길을 따라 피어난 코스모스는 조그만 얼굴로 해죽대고 있었다. 산을 힘겹게 넘어서자 계곡이 바로 눈아래 펼쳐졌다. 하얀선으로 이어진듯한 계곡이 겨울을 준비하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다. 그 아래에는 조그만한 집이 난장이처럼 납작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멀리서 보아도 분주하게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밥을 하는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점심도 굶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다.

지금까지 귀여운 현정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더욱 현정이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점심을 얻어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겁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랴 싶기도 하고,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살랴 싶기도 했다. 하늘은 푸르기만 했다.

갑자기 길순이네 오빠가 물에 빠져 죽었을 때가 생각났다. 옷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의 뚱뚱한 오빠를 끌어안고 길순이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서럽게 서럽게 울었다. 서러운날 길순이는 오빠를 또 생각하고 울고 있을 것이다. 좁다랗게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집쪽으로 내려갔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남자들만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겁이 더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저쪽에서 현정이를 보고 말았다.

‘어이 이봐! 여기 아리따운 에미나이동무래 있소!’

‘무우시기 그런 소리를 하오? 이런 골짜기에 에미나이가 어디있소? 동무래만들었소?’

왈차지껄한 소리와 함께 현정이는 남자들에 의해 둘러 싸여졌다.

‘아아니! 야하!,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여기가 어딘데 이런 떡이 그냥 굴러 들어

와?’

그들은 전투에서 낙오된 인민군 보병 21사단 병력이었다. 생긴 것도 험악하게 생겼고 게다가 사나움기 그지없는 인간들이었다. 현정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갑자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것 같고 깊은 나락으로 자꾸 떨어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현정이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사시나무가 따로 없었고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입도 닫히고 말았다. 시커먼 남자들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들의 눈초리에서 나오는 야릇한 살기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그 자리에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지금까지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선하게 보였고 오빠의 야단치는 모습도 다정스럽게만 다가왔다. 그들은 지금 현정이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여자의 본능적인 보호력도 한계가 있을 것같고 행여 몸을 망치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지에까지 현정이의 생각이 미쳤다. 여자가 깊은 산골의 외딴 오두막에서 그것도 여자구경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남자들 사이에 있다고 하면 이야기는 불을 보듯이 환한 것이었다.

‘아저씨들 제발 절 그냥 보내주세요! 네?’ 흐느끼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현정이는 그들은 짐승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질질 침을 흘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에미나이 발로 찾아오구선 무시기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오? 우리 인민군 전사들을 위문하러 온 것 아니오? 하하하, 자아자, 그러지 말고 우리 방에 들어가서 이 바꾸나 나누자구요! 잉 그렇게 하겠소?’

현정이는 그녀석들에게 끌려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몇 대의 축음기가 있고 침대도 있었다. 어디서 노략질을 했는지 녀석들은 기름지게 먹고 있었다. 방안은 늦가을임에도 군불을 지펴서 훈훈했지만 역한 냄새가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그 중에서 높은 녀석인듯한 사람이 혼자 방안에 남고 나머지는 방밖에서 껄껄대고들 있었다.

‘에미나이 동무!’ 그녀석은 낮게 목소리를 깔고 현정이에게 다가왔다.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갑자기 그 녀석은 소리를 질렀다.

‘야! 우리 모두 여자 구경은 일년만이야! 그러니까 니가 우리 전사들 하고 내사정 좀 봐주셔야겠수다.’

소리를 지르며 뒤로 비껴난 현정이를 우격다짐으로 해보자는 식으로 넘어뜨렸다. 현정이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 녀석을 물고 뜯었다.

‘아니, 에미나이! 죽고 싶소?’

그 녀석은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들었다. 현정이는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녀석은 낫을 놓고있는 현정이의 웃고름을 풀었다. 치마는 어떻게 없어졌는지 녀석의 손이 깊숙한 곳으로 오는 것을 느끼면서 현정이는 까무러치고 말았다.

‘김동무 안에 있소?’

현정이를 탐욕스럽게 훑치려고 한창 열을 내던 녀석은 멈칫했다.

‘나 군의관이에요, 들어가도 되겠소?’

‘불일없소, 가보지요.’

군의관은 문을 벌컥 열었다. 그곳에는 정신을 잃은 처녀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될 찰나였다.

‘아니, 설마했드니 김동무 이게 무슨 짓이요? 이게 인민을 해방시키러 온 전사의 할 짓이요?’

당장 그 녀석은 얼굴색이 변했다.

‘군의관 동무래 와 이려시오? 나가주세요!’

녀석은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노골적으로 화를 냈다. 밖에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김동무! 이진 짐승이나 하는 짓이요. 이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요. 그러니까 이 처녀를 집으로 돌려 보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부에 보고하겠소. 그리고 이 처녀를 돌려보내라는 것은 내 명령이요. 내 비록 군의관이지만 김동무보다 계급이 높다는 것을 잊지마시오.’

‘내래 모르갔으니까 똑똑하고 잘난 동무가 알아서 하지요.’

녀석은 언제 한번 보자는 식으로 군의관을 찌려보며 방을 나가버렸다. 현정이는 정신을 잃은 채로 아무렇게나 엎어져 있었다.

‘아가씨! 아가씨! 정신좀 차려요. ! 군의관의 대충 현정이의 몸을 추그리고 나 서야 현정이는 정신을 차렸다. 깨어나면서도 겁이 잔뜩 묻어나는 소리로 소리질렀다.

‘제발 이려지 마세요. 아저씨 절 살려 주세요.’

‘아가씨 제발 진정좀 해요. 이제 괜찮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으니까 안심하구 어서 웃이나 제대로 입어요.’

현정이에게는 군의관도 미친개로 보였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웃을 입으라고 하는지 의아해 하면서도 대충 웃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군의관은 왜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

있는지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조금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다. 현정이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고 군의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섬찟해 하곤했다. 옷을 추스릴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자기 몸에서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아가씨 집은 여기서 먼가?’

‘아네요.’ 현정이는 간신히 대답했다.

‘자! 여기서 나가지. 내가 요알까지 바래다 주지.’

자기 혼자 가겠다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에서 넘어오질 않았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보였다. 현정이는 울음부터 쏟아졌다. 길순이가 오빠의 주검을 두고 우는 것을 본 것이 언제였든가, 자기가 이렇게 서럽게 울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이 보이자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신이 우습기도 했다. 이 자상하게 생긴 군인아저씨 덕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밖에는 다른 인민군들은 밥을 먹고나서 설것이를 하고 있었다.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나머지 녀석들은 현정이와 군의관을 번갈아 가며 힐끔힐끔 보면서 둘이서 무슨 수작을 하고 나왔는지를 탐색하듯이 위아래로 살살이 훑었다. 조심스럽게 나온 현정이는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나간다는 사실이 기이했고 이 짐승같은 사람들 속에서 온전하게 빠져 나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군의관에게 더할 수 없는 신뢰가 생기게 되었고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안심이 되는가?’ 그는 나직한 서울말씨였다. 오빠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군의관이야. 고향은 서울이지.’ 그는 고른치아를 내보이며 소년처럼 웃었다. 웃는 모습이 멋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는 우울하고 그늘진 모습도 함께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은 이철규야. 인민군 보병 21사단 소속 군의관이지. 아가씨 고향은 어디야?’ 그는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물었다.

‘저의 집은 속초예요.’

‘그런데 영월은 왜?’

‘고모님댁으로 피난와 있는 중이에요. 고모님댁은 죽암리 다음 동네예요.’

‘그래? 난 아가씨같은 동생이 있었어! 아주 이쁜 녀석이었는데 내가 명치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살했다는 소식을 전보종이쪽지에서 알았어. 아주 좋은 녀석이었는데…….’

‘저희 오빠도 명치대학을 나왔는데…….’

‘그래? 몇 회 졸업생이야?’ 그는 금방 얼굴이 밝아지면서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좋아했다.

‘그건 몰라요. 그냥 오빠 나이가 이제 스물 넷이에요.’

‘그렇다면 나보다 이년 후배정도 되겠군, 그래.’

그러면서 그는 대학졸업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젊고 패기에 찬 젊은이가 환한 미래를 향해 미소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것을 찾았다는듯이 현정에게 물었다.

‘참! 아가씨 이름이…… 뭐지?’

‘김현정이에요.’

‘김현정이라, 음! 아주 이쁜 이름이군. 그래 오빠의 전공은?’

‘오빠는 문학을 전공했어요.’

아까까지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졌다. 대신 처음보는 군의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대화에, 그의 분위기에 푹 빠져 들었다.

‘오빠는 늘 시를 쓴다고 혼자 방구석에서 끄적거리기만 하고 방안에 못질도 못하는 위인이예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들이 많지,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와 싸우지만 상대와는 싸움을 못해. 그 상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실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세운 이론은 자신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다가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없는 훌륭한 이론이 되기 때문에 종종 놀라기도 해, 그렇지만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면 그것이 한낱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알게 되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당착에 빠지게 되고 모순이라는 거대한 바위와 싸우다가 허무주의에 물들어 버리고 총이나 밧줄이 있으면 자신에게 쏘든가, 아니면 목을 달아버려.’

그의 짙은 눈썹사이의 양미간에는 고독과 우울이 배어있고 숨을 쉴 때마다 인생을 움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훌륭한 키에서는 언제나 외로운 그림자가 따라다녔고 휘청거리는 그늘 아래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진손가락에서는 울리는 맑은 피아노소리가 나올 것 같이 보였고, 도저히 군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자 아, 여기까지 바래다주면 되나? 그리고 오빠한테 가서 몇회 졸업생인가 한번 물어

봐! 저어…… 그리고 한번 또 만날 수 있을까?’

수줍은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물었다.

‘시간이 있거든 저앞에 보이는 계곡을 따라가면 사당이 하나 있더군. 그쪽으로 내일 다시 만나러 나오면 좋겠는데……’ 그는 말을 마치고 겸연쩍은 웃음을 흘리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대답도 듣지않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훌쩍한 그림자만 나무등결이마다 묻히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내내 현정이의 가슴을 짓누르는 기쁨에 시달려야 했다. 차라리 이것이 악몽이 아니길 누군지 모르는 신에게 기도했다.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이철규라는 그 군의관의 잠자는 듯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에서 아른거렸다.

‘오빠! 명치대학 몇 회 졸업생이야?’

공간에서 숨어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온 오빠에게 현정이는 물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사십 구회야! 너 요새 부쩍 이상한 것 같애! 그래 오늘은 어디에 갔었니? 명치대학으로 유학갔다 왔어? 응.’ 오빠는 잃었던 웃음을 찾아 얼굴에 번듯하게 흘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랫동안 들어보는 오빠의 농담이었다. 오빠는 여자의 변화를 직감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날 현정이는 군의관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웬지 그 사당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같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의 악몽이 되살아나 현정이를 휘몰아쳤다. 한편으로는 호랑이굴에서 살아나오게 한 은인인데 나가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머리에서만 그 생각이 맴돌았고 실행은 하지 못했다.

문풍지를 스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말하던 것이 섞여 있었고 멀리서 보이는 달의 암울한 빛은 그의 그림자였다. 현정이 자신이 호랑이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탁의 기사와 데이트를 하고 온 공주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서움증이 가시면서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다.

그렇지만 내일 그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이 와 출지? 오지 않아도 그곳에 가보고 그의 체취를 느껴보고 싶었다. 고맙다는 말도 그에게 하지 못하는데 그 말이라도 하고 그의 흠냄새나는 등을 쳐다보고 싶었다.

다음날 오후에 현정이가 사당으로 갔을 때 놀랍게도 군의관은 코를 골며 쭈그리고 사당안에서 자고 있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긴여행을 마친 나그네같이 그는 편안히 자고 있었다. 늦가을 날씨에 추운지 몸서리를 가끔 치면서도 그는 곤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까실까실하게 난 그의 턱수염은 그를 더욱 초췌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서늘한 늦가을의 오후 햇살은 그의 긴키를 찬찬히 훑어 내리고 있었다. 훌쩍하게 큰 키의 이 사내를 껴안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현정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압축된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었다. 너무 곤히 자고있는 그를 깨우기가 싫었다. 현정이가 꿈을 떠나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마냥 울다가 지쳐서 자는 그를 깨울 수 없었다. 쪽지에다 현정이는 그날 고마왔다는 말을 적어놓고 살짝 사당을 빠져 나왔다. 오후의 햇살은 따사로웠다. 비록 늦가을을 준비하는 햇살이긴 해도 말이다. 또 해가 다시 뜨면 산은 더 여위어 있을 것이다.

괜히 들뜬 아침이었다.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처럼 이것저것을 챙기고 분주하게 집안을 왔다갔다 했다. 그런 현정이에게 좀체로 말씀을 잘 하시지 않는 어머니 조차

‘현정이 무슨일 있니?’ 라고 물어 보셨다. 어머니와 고모님은 현정이 모습을 보고 걱정반, 의구심반으로 서로 눈짓을 하셨다.

오후가 되어서 사당으로 갔다. 사당까지 가는 길이 멀게 만 생각되었다. 그 사람이 와 있을런지 모르지만 꼭 만나보고 싶었다. 사당앞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왁자지껄했다. 다른 군인들이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민군 녀석들이 두 셋이 보였다. 그들은 어디서 잡았는지 개를 잡아다가 굶고 있었다. 흠칫 술독임에 틀림없는 것을 끌어안고 바가지에 술을 퍼서 꿀떡거리며 마시고 있었다.

벌써 많이들 취해 있었다. 그그저께 현정이에게 못된 짓을 하던 김동무라고 하는 작자가 제일 설치면서 먹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녀석들은 걸떡거리며 살점을 뜯고 있었다. 걸떡거리며 현정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현정이쪽을 향해서 오줌을 누는 녀석도 있었다. 하마터번 소리를 지를뻔 했다. 현정이가 있는 곳에서 녀석들이 있는데까지는 오십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남자가 오줌을 누는 것을 본적은 없었다. 아버지도, 오빠도 자기와는 다르게 생긴 사람이라고는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나이가 되도록 해보지를 않았다. 징그러우면서도 야릇한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것을 현정이가 자신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개고기와 한독의 술을 다먹고서 사당을 떠났다. 불을 피운자리는 그대로 둔채 여기저기에 탐욕스러움과 야만성을 그려놓은 채 갔다. 현정이가

살금살금 나무 뒷편에서 나와 사당안으로 갔을 때 사당안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현정씨 보세요.

어제 나오시나 했더니 나오시지를 앓더군요. 오늘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깨어보니 쪽지가 있더군요. 오셔서 그냥 가시면 어떻습니까?

내일은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내일 모래쯤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철규’

어제라면 현정과 만나기로 한 날이고 오늘이라면 잠자던 모습을 본 어제였다. 내일이면 오늘이니까 오늘은 못온다고 했다. 현정은 쪽지에 곱게 접어서 고이춤에 넣었다. 웬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자 서운했다. 그 때였다. 갑자기 사당문이 벌컥 열렸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문쪽에서 누가 서 있었다. 현정은 진정할 수 없었다. 그는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이었다. 술이 벌겍게 올라온 그는 벌쭉 웃었다.

‘군의관 동무가 아니라서 미안하구먼, 에미나이동무! 아니 아가씨! 히히히! 어울리나? 응?’ 그는 어눌한 말씨로군의관의 말투를 흉내내었다.

‘그날은군의관 그 개새끼 때문에 에미나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아이 된다. 그 쪽지 너도 봤겠지? 이 눈치빠른 내가 먼저 봤잖지. 에미나이가 이리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거라 잉? 하하하! 이리로 오지요. 자아, 내가 즐겁게 해 줄거이니께.’

‘저리 비껴요!’ 현정은 독을 품고 소리쳤다. 그 녀석들은 다 가도 김동무라고 하는 그 자는 일행과 떨어져 다시 사당으로 온 것이었다.

현정은 필사적으로 그 녀석에게 매달렸다. 녀석의 몸뚱아리를 닥치는대로 물고 할퀴었다. 그 녀석에게 현정은 역부족이었다. 소리쳐도 와 줄 사람하나 없었다. 차례대로 옷가지가 벗겨져 나갔다. 현정은 젖먹던 힘까지 다했지만 별 수가 없었다. 옷이 찢어졌다. 허연 허벅지살이 드러나고 머리칼이 산발이 되었다. 울음조차 나오질 않았다. 녀석의 몸이 현정의 몸 깊숙히 들어왔을 때 하복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득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현정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가 떠올랐다. 상여가 나가면서 종이꽃이 펄럭이고 상주이신 아버지가 울고 구석에 쭈그린 현정이가 보였다. 산허리를 둘 때까지 할머니는 그저 누워서 쌈지에서 눈깔사탕을 꺼내어 주시던 모습으로 가시었다. 널을 맨 사람들이 집문밖으로 나가면서 바가지를 깨고 산에서 먹을 국을 끓여나갈 어머들이 분주히 뒤따랐다.

온집안에 향내가 배어있고 온통 벼자락이 우왕좌왕했다. 할머니 입안에 쌀을 가득넣고 새 하얀 옷으로 치장을 하던 것이 섬찟하기만 했다. 할머니 젖을 만지면서 현정이는 컸는 때 도 그 할머니는 이제는 무섭기만 했다. 조용히 눈감은 할머니는 현정이가 불러도 대답하 시질 않았다.

산에 갔다온 사람들은 피곤에 몸을 적시고 할머니없는 방에 누워 한숨만 쉬고 있었고 할머니를 혼자 산에 두고온 아버지가 곡을 하면서 들어오셨고 산에 가지못한 할아버지는 혹시 할머니가 오시나 벌겍게 충혈된 눈으로 밖을 내다보셨다.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질 않던 속살을 낯모르는 녀석에게 보여주고 뺨기기까지 해버렸다. 아랫배가 묵직했다. 걸음조차 옮길 수가 없었다. 울음이 번졌지만 주체할 수도 없었다. 집 으로 오는 길에 용당저수지에 들렀지만 시퍼런 물이 더 무서워 죽을 수도 없었다. 도저 히 죽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어디갔다 오냐?’ 어머니가 건기침을 하면서 묻는데 간신히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 가 누웠다. 무엇에 맞은듯이 온몸이 옥신거리고 아팠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고 그저 천정만 쳐다보며 울음을 삼켰다. 군의관이라고 하던 사람도 보기 싫다. 결국 그 사 람이 현정이를 구해주었지만 그 사람으로 해서 현정이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서러워서 울것만 같았다. 마치 길순이가 익사한 오빠 를 안고 처량하게 울듯이 말이다. 내일 그 사람이 사당으로 온다고 했는데 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 지긋지긋한 사당으로 또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갈 수도 없 을 것이다. 솟아오르는 슬픔을 곰삭이며 방안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

군의관은 현정이에게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다고 한다. 아버지도 보였고 어머니도 보 였다. 오빠가 다독거리며 현정이에게 잘 갔다오라고 손을 흔든다. 이 난리통에 웬 기차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 기차는 부산까지 간다고 한다. 오빠와 철규씨는 악수를 하고 헤어지 고 들은 기차에 올랐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드시며 웃고 계셨다. 기차는 떠났다. 동해안으로 가는 것인지 기차 는 바다를 끼고 갔다.

그리고 바다로 바다로 기차는 들어갔다. 이상하게도 바다는 조용하기만 하고 바다속에 서도 기차는 잘 움직였다. 차창밖으로 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 상어가 차창을 들이박

기도 하지만 철규와 현정이는 마냥 행복했다. 그런데 철규는 차창을 열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어디를 가시려구요?’

‘응, 아니야. 잘못이 있어!’

색동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는 현정이가 말려도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물속으로 멀어져 가기만 했다. 울어도 울음소리가 나지않고 기차는 바다 속에서 멈추었다. 기관사옷을 입은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이 현정이에게 다가왔다. 놀란 현정이를 들쳐업고 그 녀석은 기차에서 내렸다. 그곳은 부산이었다. 부산의 피난민들이 모여사는 산동네에서 김동무는 현정이를 내려놓고 회사에 간다고 인민군복을 입고갔다. 저런 복장을 하고 나가면 죽을텐데라는 걱정이 들었지만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했다.

최고기들고 산비탈을 올라오는 사람은 철규였다. 부산으로 신혼여행을 온 것을 좋아하며 그는 현정이를 불에다 뽀뽀까지 해주었다. 앞치마에 묻어있는 반찬냄새를 풍기며 군의관의 품에 안긴 현정이는 마냥 꿈같은 행복에 젖어 들었다.

눈을 뜨자 오후가 찾아들고 있었다. 아직도 허리는 무엇에 맞은듯이 아팠다. 어머니가 하루종일 방구석에 앉아있는 딸애가 궁금해서 방문을 두드렸지만 현정이는 그냥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누워서 하루해틀 넘겼다.

오늘도 사당으로 군의관은 나왔을 것이다. 자기가 스무해 동안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것을 앓기고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현정이를 원망하면서 돌아갔을 것이다.

몸을 운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사당으로 가보련만 몸은 운신하기조차 힘들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찢기고, 넘어지고, 얼어지고 그러면서도 가는 것인 모양이었다. 인생의 달콤하지 않은 생김새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튿날 현정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군의관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현정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 버리기로 결심했다. 현정이는 독을 품었다. 그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을 죽일 것이다. 현정이 혼자서 못 죽이면 군의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세수를 하고 사당으로 나갔다.

그러나 군의관은 현정이가 사당에서 세시간을 기다려도 나와주질 않았다. 해가 기웃거릴 때 군의관은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정씨! 제가 왔습니다.’

그의 차림새와는 달리 짐짓 명랑해 보였다. 그는 암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날따라 그는 우는듯한 얼굴을 가지고 다가왔다.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었소.’ 그는 표정없이 말을 했다. 감정의 변화도 없는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현정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난 그같은 짓을 한 녀석을 용서할 수 없었소. 그리고 현정이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 나 때문에……. 후후! 아니, 그것보다 난…… 난 말이오 처음보는 순간부터 현정씨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소. 그래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고 나약한 현정이가 그런 일을 당해냈다고 하는 것이 가슴아프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소! 현정이 나와 결혼해 주겠소?’

놀란빛이 역력한 현정이 얼굴을 조용히 군의관은 가슴 속에 묻었다.

‘전 이제는 당신의 아내될 자격도 없는 몸이에요.’ 타고 내리는 눈물도 이 말을 막지 못했다.

‘내가 현정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오. 그렇다고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에게 당한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오. 단지 난 현정리를 사랑하고 있소.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식이라도 변변히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소. 전쟁이 끝나면 바로 결혼합시다. 그렇게 하겠소?’

둘은 표정없이 약속을 굳게 하고 말았다.

‘저는 분명히 철규씨의 아내될 자격이 없는 여자이지만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철규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누가 이기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녀석에게 몸을 더럽혔다고 해도 나의 조그만 사랑의 염은 당신 속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영원하겠지요. 제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당신을 흠모하던 그 마음은 여기다 두고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울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준다고 하시지 않아도 전 그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정이 자신도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한 자신이 놀라왔다.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제가 당신에게 도와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말을 마치고도 현정이는 울지 않았다.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정이는 결국 울지않고 그 이야기를 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각오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내가 죽이고 오는 길ियो. 녀석들이 지금쯤 나를 찾고 있을꺼요.’

현정이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그 녀석을 총으로 죽였소.’ 그는 소리쳤다.

‘내가 죽였다 말ियो.’ 현정이는 말문이 막혔다. 눈가에 알지못할 눈물이 솟았다. 그것은 복수를 해 주었기 때문이기 보다는 그가 현정이를 이렇게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기쁨이었다. 이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녀석에게 당한 수모가 오늘의 이 기쁨으로 모두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사당 한구석에서 밤을 하얗게 밝혔다.

집에서는 현정이를 찾아 난리가 났지만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해가 솟아오를 때까지 들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전쟁통에 군인과 사랑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모험이었다. 그것도 동료로 살해한 군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정이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았다. 모든 것이 분홍빛이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예감만이 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민군 장교와 바로 현정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동료로 살해한 사람이다.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다. 곧 녀석들이 이곳으로 철규를 찾으러 온다는 말을 했다.

‘그녀석들은 김동무의 시체를 찾았겠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거야. 그 녀석을 상대할만한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자기네도 그토록 싫어하던 녀석이 없어졌으니 좋아라 하겠지만 훈장이라도 하나 탈려고 나를 찾을거야 집에 가서 오빠 옷가지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어디 계실거예요?’ 현정이의 물음에 대답은 하지않고 그는 엉뚱한 말을 했다.

‘민간인 복장으로 남쪽으로 가겠어. 국방군진지로 가서 전향하겠어.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여기 어디서 숨어있다가 국방군이 수복하면 전향하도록 하겠어.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이념에 속았던 내가 지금은 미워. 여동생이 부잣집 외아들과 연애를 하다가 집안이 못산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자살을 했어.’

그리고 난 학교에서 좌익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좌익운동의 선봉장이 되었고 학교를 마치고 난 해방된 조국의 북쪽을 택했어. 그리고 지금 나 인민군 군의관이 되어버린거야. 늘 노동자의 천국을 건설하겠다고 계급투쟁을 외치던 그들은 사회를 뒤집어 놓기만 했지 그런 역사는 만들지 못했어.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런 사회를 만들 생각도 그들은 가지지 않았어. 인민들은 흑사당하고 그들로부터 착취당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제급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야.

이 전쟁에서 분명 김일성은 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대의명분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미국이 휴전이라도 제의하면 얼씨구 좋구나 하고 덤빌거야. 지금이라도 승산이 없는 전쟁에서 휴전이라고 제의하고 싶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민들을 기만할 자료가 없기에 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는거야. 난 이제 그런놈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서울에 가면 아직 우리집이 있을꺼야. 전쟁이 끝나면 그곳에서 나랑같이 살어! 잠깐 할일이 남아있어. 오늘 저녁 두타산중턱에 치마바위가 있어 제꼭따라 올라가다 보면 크게 그곳이 보이지, 그곳으로 나와있어! 오빠 옷 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오빠 옷이 맞을 러나? 하하! 그래 내 잠깐 갖다올께. 저녁에 그리고 나와!’

그는 휘적휘적 사당을 떠나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또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그를 보내주어야 했다. 어린 아이가 자라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듯이 그는 자유를 찾아, 새로운 이념과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현정이가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몰래 오빠옷을 한벌 챙기고 해가 질 무렵 두타산으로 갔을 때 그는 없었다. 어디에 갔는지 그는 영 나타나질 않았다. 두 시간이 지나도, 약속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날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그는 나타나질 않았다. 해는 기울기 시작했다. 멀리서 이리들이 우는 소리가 불쌍하게만 들렸다. 이리들도 자기집으로 가는지, 어미가 없는지 처량한 울음소리를 내고 울고 있었다. 철규는 밤이 이슬하도록 오질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잡혀갔는지 아니면 인민군복장 그대로 국방군에 투항을 하러 남쪽으로 내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자수하겠다던 그가 현정이와의 약속을 잊고 갔을 리가 만무했다. 그 때 발굴리던 현정이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다. 어둠이 밀려들어오듯이 들려오는 초저녁에 현정이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겁이 더러웠다. 제발 철규씨 이길 비는 도리밖에 없었다.

‘현정아! 나다. 오빠다.’

오빠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둠을 털어내고 현정이 앞에 나타났다. 오빠는 현정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꺼냈다.

너 언젠가 오빠에게 명치대학 몇 회냐고 물은적이 있었지? 그 때 혹시 명치대학을 나

온 사람을 알고 있었냐? 그리고 네가 내옷을 가지고 온 것은 무슨 이유냐? 응?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현정이는 고개만 떨구고 말을 하지 못했다.

‘네가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 네가 날 늘 문약하고 허약하게만 보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싶더라. 인민군 군의관을 만나는 것 말이다!’

‘어떻게 오빠가 인민군 군의관을 만난다는 것까지 아세요? 그것도 한번 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잘 들어라. 음…… 오늘 초저녁에 산동 냇가있잖니? 왜! 그곳에서 인민군시체가 하나 발견되었다.’

현정이의 얼굴이 납득이 되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과 함께 철규씨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 뿐이었다. 오빠는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 입술의 가벼운 떨림으로 전해 왔다.

‘이곳에서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에 맞아 죽어있었다는구나. 동네 어른들이 화를 두려워해서 인민군 시체를 상여집에 숨기고 그 사람 신원을 알아보려고 옷을 뒤지니까 대학졸업사진하구 놀람게도…… 아니 놀라울게 없지. 네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네가 보낸 쪽지가 나왔다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졸업사진 밑에는 명치 의학부 졸업생 일동이라는 글씨가 있었다는구나. 그래, 동네어른들이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사진을 가지고 오셨었다. 예따! 편지는 여기 있다. 아마 뒤에서 총을 맞은 모양이더라. 수첩에는 그 사람 주소도 있다구 하던데 전쟁이 끝나면 같이 가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곧 서울이 수복된다고 소문이 짝 퍼져 있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되면 네가 그 사람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결혼까지 약속한 것 같더구나. 편지를 보니 말이다.

현정이는 어질어질 현기증을 느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아직 여리고 여린 핏가슴에는 시리기만 한 삭풍만 들이밀고 있었다. 현정이는 울음도 그쳐버렸다.

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다. 그동안 나돌아 다닌 것이 인민군 군의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서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였고 속초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해야겠다고 목청을 돋우셨다. 철규의 시신은 동네 둔덕에 가매장이라도 했는지 묻힌 장소도 알 수 없었다. 너무 큰일이 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날 밤이 깊어서야 현정이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슬픔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딱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무슨 사랑일까 보냐 자위도 해보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허무했다. 자기를 꼭 안아주던 그의 털이 복술하게 난 가슴이 보였고 그의

매끈한 손가락이 보였다. 현정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는 갖고 현정
도 그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하지 못했다.

눈깜짝할 사이에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가버린 철규라는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현
정의 몸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임신이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의 육감으로나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은 분명 철규씨의 아이였다. 이제는
철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자에 묻혀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차라리 한 순
간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쏟으면서 지속시킬 수 있다는 사랑의 염이 솟아났다.

현정이는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리 오빠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다.

‘오빠! 나 몸이 이상해, 아무래도……’

‘뭐? 너 임신했구나! 그렇지?’

현정이는 말없이 고개만 떨구었다.

‘이거 큰일이구나. 엄마나 아버지가 아시면 난리날텐데…… 어찌지? 그래 너는 어쩔셈
이냐?’

‘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나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고 하면 낡아라!’

현정이와 철규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김동무라고 하는 녀석과의 일에 대해서는 함구
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조차 말할 용기는 없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이야기를 듣고 딸도 아니라고 킁킁 뉘시며 몸져 누워버리셨다. 오빠
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집안은 초상집과 진배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허겁지겁 속초에서 영월로 오시는 길에 인민군이 난사한 총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자 현정이의 임신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났다. 아버지는 숨이 멎은채로 현
정이와 집안식구들 앞에 오셨다.

하얀 두루마기에는 피가 흥건히 적신채로 그렇게도 깔끔하시던 양반이 발에는 흙을 잔
뜯 묻히고 오셨다. 현정이는 아버지가 또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짐을 하나 더 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그럭저럭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난리통에 격식을 차릴 수도 없
었다.

그리고 열달 후에 현정이는 거짓말 보태지도 않고 철규를 빼다뺏은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 이름은 이철규의 이씨가 아니라 오빠의 호적으로 입적이 된 김상철이 되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배경이었다. 그날저녁 외숙모가 말리는 가운데 외숙부는 비교적 담담하게 여동생의 애사를 말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굳에 입대했고 사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생의 큰 변환점이 되었다.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도 아니면서 나를 자상하게 키우시는 외숙부가 준 것도 없이 미웠다. 어린시절에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도 아버지가 어찌구 저찌구하는 말을 하는 녀석만 있으면 나는 그 녀석을 때려주곤 했다. 아버지가 있는 녀석들은 왠지 밉기만 했다.

누구네 아버지는 철원에서 폭탄과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자주 하던 녀석이 있었다. 비가오는데 안맞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며 난 그 녀석 또한 코피나게 두들겨 주었다.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열등감을 형성하는 조건이 되었다. 내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외숙부가 어머니보다 더 잘알고 계셨다. 어머니는 여자로서 단순히 내가 아비없는 자라는 것이 마음아프셨지만 외숙부는 남자로서 성장환경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잘알고 계셨고 또 그런 영향을 친 아버지 대신으로 외숙부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다. 내 밑으로 베살 터울인 형근이가 사실은 나에게 이종사촌이다. 그러나 형근이와 우리 둘은 친형제처럼 자랐다. 삼촌은 내가 형근이와 친형제처럼 지내는 것을 보시고 늘 만족하셨지만 나는 형근이와 사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편은 아니었다. 내 자신이 영악한 편이어서 어른들이 보는 데에는 늘 형근이를 잘 다독거리고 형근이도 나에게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 둘은 상극간이었다. 하긴 이것도 나의 절대적인 주관이긴 하다. 나는 친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과는 친해질레야 친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없는 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을 때부터 형근이와 나와는 늘 겉도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버스는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형근이의 처가 마중나와 있었다.

‘아줌씨! 안녕하세요?’ 내가 늘 조소어린 농을 해도 뼈죽 웃던 여자가 시아버지가 위독해서인지 얼굴에 잠깐 미소만 보일뿐 가지고 온 승용차에 나를 태웠다.

깨끗한 거리는 역시 속초거리이다. 다른항구는 비린내가 나지만 이곳은 늘 상큼한 바다내음이 이곳 인심과 어우러져 흘러나온다. 동해바다가 만든 속초, 이곳에서 나는 유년기를 보냈다. 집에 닿자마자 폭소리가 심하게 났다. 방으로 들어섰을 때 조용히 눈감은 외숙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외숙부님은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버티시다가 내가 오는 것을 기척으로 아셨는지 형근이에게 상철이가 왔다고 하시며 운명하셨단다.

방안에는 말년에 조용하게 살다간 고운노인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외숙부님은 평안하게 돌아가신 모습이였다. 내가 외숙부의 시신 옆에 앉자마자 곡을 하던 형근이는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형! 군의관이 누군지 몰라도 영월 고모할머니 집 뒤에 선산에 가면 못자리가 있는데 그 묘의 기일이 음력 8월 18일이라는데 형보고 꼭 전하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형근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아버지라는 말이 나도 나왔다.

‘아버지가?’



독 후 감



삶의 비극성과 不敗精神

— 무기여 잘 있거라를 읽고 —

장 인 기

(중위, 교육사령부).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제왕 절개 수술을 받다가 죽는 애인 캐더린을, 빛속에 홀로서, 떠나는 헨리 중위의 모습이 나오는,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의 마지막 장면이.

1914~1918년까지의 제 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미국 소설들은 여럿 있지만 「무기여 잘 있거라」만큼 오래도록 세월의 풍화를 훌륭히 견디어 온 것이 없다. 또 그만큼 지속적인 신선함과 낭만적인 모험심, 그리고 독자에게 소박한 기쁨을 준 것이 없다.

헤밍웨이의 미래의 평판이 어떤 것이든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적어도 앞으로 30여 년은 1차 대전에 관해 미국인이 쓴 가장

훌륭한 소설로서 확실한 위치를 고수할 것이다.

세계대전이 한창 막바지에 접어들던 1917~1918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 소설이 취급한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앰블런스 운전지휘 장교로 종군하고 있는 미국인 프레드릭 헨리는 영국 출신의 임시 간호원(VAD) 캐더린과의 관계를 하나의 〈게임〉으로 간주하나, 그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그들의 관계는 더욱 진지한 것으로 바뀐다. 그 후 캐더린은 임신하게 되고, 헨리 중위는 다시 전선으로 떠난다. 자신의 부대와 연락이 끊긴 채 퇴각중이던 그는 이탈리아 헌병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탈영 혐의로 총살을 당하기 직전, 다리 밑 강물 속

으로 뛰어들므로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다. 캐더린과 재회한 그는 그녀와 함께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중립국 스위스로 피신, 그곳에서 캐더린이 분만할 날을 기다리며 잠시나마 목가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나 캐더린은 아기를 분만하던 중 사망하고 헨리는 먼 이국 땅에 홀로 남게 된다.

대전 중에 헤밍웨이가 직접 겪은 경험을 소재로 한 이 「무기여 잘 있거라」는 얼핏 보아 전쟁의 참혹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일종의 反戰 소설인 것 같아 보인다. 사실 이 작품의 곳곳에는 전쟁에 대한 강한 비판이 훌륭히 묘사되어 있다. 사격 밑에서의 느낌, 끔찍한 포격이 계속되는 동안 쏟아지는 포탄소리를 듣는 것, 도중에 출혈하여 죽지 않는 한 부상병들을 안전지대로 운반하는 것, 연대식당에서 이탈리아 장교들과 상소리를 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 또는 불명예스러운 후퇴시, 비와 추위와 진흙과, 배고픔과 공포의 격심한 육체적인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 “어리석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나라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한 기술병의 불평, “이 전쟁이야말로 지긋지긋한 전쟁이야”라고 토로하는 동료 리날디, 이 모든 묘사가 전쟁을 비판한다.

또 한편 이 소설은 진박한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종의 러브 스토리로 간주되고 있다. 작가 자신도 이 작품을 가리켜

‘자신의 Romeo and Juliet’ 이라고 밝히면서 이 소설은 비극적 사랑을 그린 연애소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는 두 연인이 모두 죽는다. 그렇지만, 헤밍웨이의 관심은 강렬히 비극적인 연애를 마친 후에도 죽지 않는 헨리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다. 헨리는 인생의 고통을 겪고서도, 위엄있게 극기심을 보이면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를 거부한다는 점에 작가의 本来 의도가 있는 것이다.

즉, 「무기여 잘 있거라」는 반전 소설, 연애소설이라기 보다는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인식론적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한 주인공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조금씩 터득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른바 삶에 대한 〈입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헨리는 작품 첫 부분(제3장)에서 종군 神父를 가리켜, “그는 내가 모르는 것을, 비록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잊어버리는 그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당시 그것을 알지 못했다 - 비록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이야말로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 소설은 프레드릭 헨리 중위가 전쟁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자신은 모르면서 신부는 이미 알고 있던 바로 〈그것〉을 배워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

품이며, 〈그것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처음 시작할 때의 헨리는 자신의 자아나 삶에 대하여 이렇다 할 아무런 인식이나 태도가 없었다. 미국에 경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는 양아버지가 살고 있을 뿐 그는 홀로 이탈리아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후일 그는 “I Don't Know. I Was a Fool”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탈리아 육군에 입대했던 것이다. 그는 흥분과 음주와 섹스 이외에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한 마디로 요약하여 〈비현실적〉이고 〈어느 일에도 개의치 않는〉 지극히 무분별한 것이었다. 그의 이탈리아 친구 리날디는 그를 가리켜 “온통 연기와 불뿐이지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당시 헨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헨리 중위로 하여금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아를 발견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인식을 얻도록 해 주는 것은 바로 그가 입게 되는 심한 부상이다. 참호 속에서 부하들과 함께 치즈와 마카로니를 먹고 있던 그는 박격포의 세례를 받고 거의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나는 죽는 줄로만 알았으며, 그저 죽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그는 이 당시의 상황

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이 W. B. Yeats와 T. S. Eliot 가 말하는 이른바 〈삶 속의 죽음〉이었음을 깨닫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이전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비로소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받은 부상과 함께 헨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의미를 터득하게 해 주는 또 하나의 산파가 있다. 그것은 바로 캐더린과의 사랑인 것이다. 이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헨리가 캐더린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그녀를 깊게 사랑하게 되며, 그가 부상당하여 밀라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할 즈음에는 “나는 그녀에게 미쳐 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사랑은 진지한 것으로 변하였다.

다시 말해서 작품 첫부분에서 그는 신부(神父)에게 “난 사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그래피 백작이 그에게 “자네가 인생에서 제일 가치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는 서슴치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헨리 중위는 캐더린과의 사랑을 통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정신적 교감이나 교섭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으며, 이런 정신적 공감은 곧 삶을 충만하

고 의미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깨닫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헨리가 캐더린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그는 비극적인 캐더린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결국 그녀와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생물학적인 덧〉에 치어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한 후 출혈이 심해 죽어가고 있는 캐더린을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되뇌이고 있다.

이제 캐더린은 죽게 되겠지.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든거야. 너도 죽은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것을 배울 시간이 없었던 거야. 경기장에 던져 버린 다음 몇 가지 규칙을 일러 주고는, 루(base)에서 벗어나는 순간 공을 던져 잡아버리거든. 아니면 아이모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리지. 혹은 리날디처럼 매독에 걸리게 하거나.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를 죽여 버리지. 그것만은 분명해. 결국 살아남는다 해도 중국에는 죽여 버릴 것을.

여기서 야구의 비유는 마아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삶의 被投性〉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요컨대 헨리는 삶의 비극적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삶에 대하여

보다 굳건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敗해도 不敗精神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호텔로 태워드릴까요?”

“아니오, 병원에서 잠시 더 머물고 싶습니다”

“수술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도였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고 싶지 않소”라고 헨리는 말하고 나서, 의사가 돌아간 뒤에 캐더린의 시체가 있는 방문을 연다.

“지금 들어올 수 없어요” 담당간호원 중의 한 사람이 말한다.

“들어갈 수 있소”

“아직 들어와선 안 돼요”

“당신은 나가시오” 헨리는 말한다.

“당신도 나가시오”

그러나 그들을 내보낸 뒤 방문을 닫고 불을 껐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선 빗속을 걸어 호텔로 돌아간다.

캐더린이 죽고 그녀의 애인이 빗속을 걸어 호텔로 홀로 가기 전, 말없는 작별을 고하는 이 유명한 마지막 장면은 몇 년 동안 헤밍웨이가 무려 설혼 일곱 번씩 다시 썼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가 이 마지막 결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만은 틀림

없다.

절제되어 말없는 이 유명한 결론에 대해 많은 해석이 가해졌다. 현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외로운 死別의 정점인 듯하였으며, 제1차 대전을 전후하여 이와 비슷한 많은 상실로 고통을 겪는 세대의 비극적인 상실의 절정인 듯 하였다.

하지만, 이 결론은 아까도 말한 不敗精神의 發芽로서 헨리 중위가 감정을, 헤밍웨이의 'hard-boiled style' 같이, 억제하여 연인의 죽음을 피할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극기의 축도판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개미들이 불에 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헤밍웨이가 人生의 생생한 이미지로 설정한 것이다. 인간도 개미처럼 죽을 것이지만, 그렇게 허망할 것이지만, 인간의 활동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활동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삶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패배에 직면해서도 위엄을 발휘하는 것이 헤밍웨이가 표현하려는 本質이다. 인간은 비록 우주의 규칙이 짚 수 없이 깊은 영향을 준다 해도 오직 자신의 규칙에 따라 人生이라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프레드릭 헨리가 삶 속에서 따르게 될 규칙엔, 너무 감정에 연연함이 없이 또한 자기 연민도 가지지 않고서 궁극적인 패배가 닥쳐도 참아 내려는 태도가 필수적인 것이다.

헤밍웨이는 때때로 윌리엄 워즈워드에 대해 경멸적인 말을 하였다. 즉, “내게 슬픈 생각이 떠올랐다. 때맞추어 한 말은 이 슬픈 생각에 안도감을 주고 그러면 나는 다시 강해진다”라는 시인의 말에 “이 소설이 비극적이라는 사실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인생이 비극이며 인생의 결말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 말은 또한 극기적인 행동 규범에 대한 그의 신념의 토대가 된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산디아고 노인의 투쟁 결말이 ‘빠만 남은 大魚’라는 허망한 것으로 끝나도 즉, 敗해도, 그 노인은 不敗精神으로 편안히 쉬게 되듯이.

헤밍웨이는 산디아고 같은, 그의 후기 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에게 이 규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헨리 중위가 연인의 죽음이라는 삶의 비극성을 깨달으면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깨달으며, 감정의 동요를 억제하고 홀로 돌아가는 그런 태도는, 헤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의 산디아고 노인의 不敗의 극기정신과 최선으로 사는 삶의 투쟁에 신호가 된다. 마치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敗해도 敗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삶의 긍정>을 날게 되었듯이.

시

올림픽 개최의 영광을



노래한 詩



임 관 영

〈중령 제 6751 부대〉

이 땅에 살림 붙인지 반만년
그럭저럭 끼니이여 살아오다가
호롱불 그으름에 서럽던 세월
도도히 우리는 흘러 보내고

아, 지금은 빛나고 아름다운
동방의 나라 코리아요
세계 속에 우뚝 서울이라네

알 수 없던 강산
새롭게 열리어 활짝 열리어
소문난 금수강산 호들이라네

까마귀 목칭 놓고
비들기 훨훨 나래 친다네

구시월 맑은 하늘

聖火이라네

남방, 북방, 서방의 나라

혈혼이 아른대는 중동의 나라

모두가 하나로 올림픽이라네

하지못한 대화를 수 놓고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한오백년

에헤야 데야, 에헤야 데야

축포가 터지고

광파레 울려 퍼지고

젊음의 합창 합창이라네

오색 피부 어울어져

피도 덧니도 분별 없이

정 주며 마음 주며 세계는 하나

텍사스 청년도 모스크바 청년도

이스탐블 청년도 숙이네 고향 청년도

힘과 기를 다루며 노래 부르리

가난한 우리 세월 슬프기도 했네만

젊음의 불꽃 식을 날 모르고

오륜의 깃발 동방산 마루에

펼 펼 펼 나부낀다네

한강에

석촌호에

내리는 달빛

내리는 오색 등불

나부끼는 만국기

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네

새로운 탄생의 코리아 서울이여!

우리 잊었던 노래의 날개 위에

푸른 꿈을 싣고

힘차게 뛰어라

맘껏 뛰어라

그 누가

우리의 영광을 멈출 것이냐

아, 남산솔 푸른솔에 우리들의 향연

세계의 박수소리 터지는

서울의 톱뉴스…….

오,

하늘 아래 빛이여

서울이여

빛나라 밝게 빛나라.





갈등, 폭력, 비판, 협박, 파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복, 자유, 평등, 사랑, 평화 그리고
안락을 꿈꾸면서 말이다.

이기심을 버리자

그리고 대화를 하자

여당과야당, 기업주와 근로자

교수와학생, 부모와자녀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살자!

그러면 좀더 편안한 인생이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넓은 가슴으로 세계인을

맞이하자.

(美)

표지화

힘의 나래를 활짝펴고 飛翔하는 仙鶴의
孤高한 稟은 마치 護國飛天의 雄志를
품고 領空守護의 莫重한 任務를 誠實하
게 遂行하는 우리 空軍의 勇姿를 表出
하는 것 같아 더욱 돋보인다.

제목 : 비상(飛翔)

작가 : 중광(重光)

1935. 1. 4 제주도 출생

미국 버클리대학, 스탠포드대학 강좌

국내외 개인전 수회

차례화

작가 : 설봉 기노 칠(奇老哲)

현대미술대전 추천작가

국전 입상 3회

경기도 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한국미술협회회원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각을 다투는 영공초
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투는 작업속
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
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
은 연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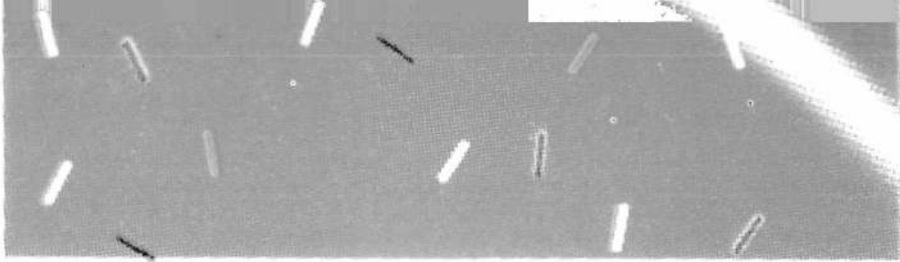
1988년 제 2호 (통권 204, 205호)

1988년 9월 10일 인 쇄

1988년 9월 15일 발 행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 군 교 재 창



SEOUL 1988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JEUX DE LA
XXIV^{EME} OLYMPIADE
SEOUL 1988

GAMES OF THE
XXIVTH OLYMPIAD
SEOUL 1988

에어 포스

AIR FORCE QUARTERLY

1988년 제 2 호 (통권 제 205, 206 호)